

金沙面誌

- 역사와 지리
- 천설과 민담
- 지명 유래
- 행정·교육
- 산업 현황



어주문학원

여

백



- ① 경순군주 묘
소재지 : 장흥리 장흥사지 남쪽 기슭
- ② 기천서원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26-1
지정번호 : 민속자료 제 175호
- ③ 묘련암
소재지 : 이포리 각씨산(흔적 없음)
- ④ 모재선생 사당
소재지 : 이포리 수굿말(봉서정 위쪽)
- ⑤ 궁리 석탑
소재지 : 금사면 궁리 전 107

금사면 유적일람



① 도곡리 석불좌상
소재지 : 금사면 도곡리 산 6번지



② 봉서정
소재지 : 이포리 수굿말

③ 삼선당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92



④ 서희장군 묘
소재지 : 산북면 후리 산 53-1
지정번호 : 지방기념물 제 36호

⑤ 이포 골프장 (이포 C. C.)
소재지 :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산 3-2





- ① **침벽루**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92
- ② **최시형 선생 묘**
소재지 : 금사면 주록리 산 965-16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 8호
- ③ **장흥리 약천암 불상**
소재지 : 금사면 장흥리 68
- ④ **이충원 교서, 영정**
소재지 : 여주군 산북면
지정번호 : 보물 제 874호
- ⑤ **포초골 미륵불**
소재지 : 금사면 외평리 64-2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 35호

금사면 공공기관



① 금사면사무소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97-3



② 금사 농협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26



③ 이포 우체국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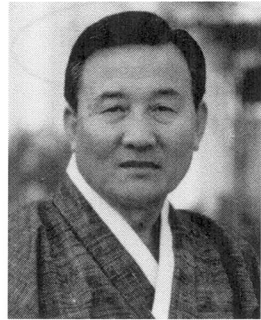
④ 금사 파출소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89

金沙面誌

여

백

發刊辭



여주문화원장 조무호

금사면지 발간에 즈음하여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편찬위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주군,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사면은 여주의 뿌리이자 오랫동안 여주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온 유서깊은 지역입니다. 남한강의 수운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이천, 양지, 광주등의 물산들이 모이던 곳이어서 시장이 크게 형성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흥청이던 고장이었습니다. 특히 이포에는 곡물, 직물, 소금을 취급하는 객주(客主)가 20여호나 있었으며 하루 평균 1,000석의 쌀이 이포나루를 통해 출하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치가 아름다워 수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누(樓)와 정(亭)을 지어놓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복원하는 이유는 고금을 통하여 한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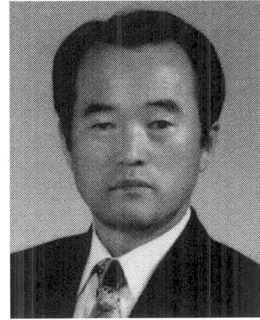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금사면지를 발간하는 목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 소망스런 문화의 시대에 금사면의 훌륭한 과거의 문화가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금사면지의 발간이 그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금사면지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문화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祝 刊 辭



여주군수 박 용 국

우리고장 여주는 한반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민족의 젖줄인 남한강이 군의 중심부를 흘러 선사시대부터 이 땅의 문명을 밝혀온 역사의 상징뿐 아니라 우리나라 5천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고장입니다.

그리고 금사면은 우리군 지명유래에 가장 오랜 기록을 남긴 고장으로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군사, 정치, 경제, 교통의 요충지로서 우리고장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빛낸 공지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랑스런 고장의 면면한 역사를 한데 모아 선열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 새기고 우리고장 후예들이 나아갈 지표를 밝히는 금사면지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금사면지 발간이 금사면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우리군의 문화창달과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금사면지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편찬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여주문화회 의장 한 정 길

먼저 98년도 한해동안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무호 문화원장님과 문화원 이사님들 그리고 금사면지 편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노고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금사면지”의 발간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군민 특히 금사, 산북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에 접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옛말에 온고이지신은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으로 한나라의 역사가 과거의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계승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근간이 되었을 때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주문화지 발간이나 일련의 우리문화 찾기 운동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어 우리 문화자원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러한 사명감으로 발간된 금사면지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여주문화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여주군의회 의원 변동구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고장 금사면의 “면지” 발간을 3천여 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동안 면지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박용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또한 자료수집과 편집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현구 선생과 조무호 문화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이를 정리하고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편찬자의 끈기와 사명감 그리고 열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금사면은 조선초까지 “천령현” 으로서 조선시대 한강을 이용한 수로교통시대에는 지방과 한양을 오가는 길목이요 요충지이며, 마포나루까지 가는 마지막 기착지로서 물품이 풍족하고 상거래가 활발하여 매우 번성하였던 고장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과거사를 바르게 정리하여 이를 대대로 보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오늘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찬란했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금사면지”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발간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금사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祝 刊 辭



금사면장 허 송

우리 고장은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보듬켜안고 있으며, 토양이 비옥하고 산수가 수려하며 인심이 후덕한 곳입니다.

또한 기천서원, 술천성지, 장흥사지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옛부터 남한강을 이용한 주운(舟運)교통이 발달되어 우리면의 중심지에 위치한 이포나루는 우리 지역은 물론 이천이나 개군, 지평 등 인근지역의 농산품과 생필품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주운(舟運)교통보다는 육로교통이 급속히 발달되어, 모든 물자의 운송수단이 육로중심으로 변하면서 이포나루는 그 기능이 쇠퇴하고, 과거 번창하였던 상업적 기능 역시 퇴락하였으나, 최근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 옛 일천양(一天陽)의 영화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된 면지(面誌)가 없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던 중, 면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우리 고장의 맥을 되살리게 될 면지를 발간하게 되어,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여주군 내에서는 다른 읍·면보다 금사면지를 제일 먼저 발간하게 되므로서, 면민 모두는 크게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고장의 참모습을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된 면지를 통하여 되새겨 보고,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면민 모두가 땀흘려 일하고 머지 않은 장래에 또다시 남한강을 이용한 제2의 주운교통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 고장은 주운교통의 요충지로서 이포나루를 중심으로 활기찬 지역발전이 촉진되어, 그 옛날 명성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면지 발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편찬위원님들과 편집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사면의 무궁한 발전과 면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머리말

제 1 부 역사와 지리

제 1 장 역사와 환경

제 1 절 연혁 및 통사	14
제 2 절 생활 환경	18
1. 자연지리(自然地理)	18
2. 인문지리(人文地理)	26
제 3 절 사회 경제적 환경	29
제 4 절 성씨(姓氏)	31
제 5 절 방언(方言)	34

제 2 장 문화 유산

제 1 절 유물 유적	
1. 경순군주의 묘(慶順君主의 墓)	42
2. 궁리 석탑재(宮里 石塔材)	42
3. 기천서원(沂川書院)	43
4. 대월암(對月庵)	45
5. 도곡리 석불좌상(道谷里 石佛坐像)	45
6. 도미사(道美寺)	45
7. 묘련암(妙蓮庵)	46
8. 묘운암(妙雲庵)	46
9. 박득중(朴得中)의 묘	46
10. 범사정	46
11. 봉서정(鳳栖亭)	46
12. 삼성암(三姓庵)	46
13. 삼선당(三僊堂)	47
14. 서희 장군 묘(徐熙 將軍 墓)	48
15. 술천성(述川城)	48
16. 육우당(六友堂)	49
17. 윤개(尹愷)의 묘(墓)	49
18. 장흥사지(長興寺址)	50
19. 주어사지(走魚寺址)	51
20. 주록리사지(走鹿里寺址)	51
21. 최시형의 묘(崔時亨의 墓)	52
22. 침류정(沈流亭)	53
23. 침벽루(枕碧樓)	54
24. 포초골 미륵불 좌상(포초골 彌勒佛 坐像)	54
25. 홍명구의 묘(洪命壽의 墓)	55
26. 홍병기의 묘(洪秉箕의 墓)	56
27. 홍중보의 묘(洪重普의 墓)	56
제 2 절 인 물	
1. 김구용(金九容)	56
2. 김안국(金安國)	56
3. 윤 개(尹 愷)	57

4. 이 전	58
5. 이 식(李 植)	58
6. 이언적(李彦迪)	59
7. 이원익(李元翼)	60
8. 정 엽(鄭 曄)	61
9. 조명교(曹命敎)	62
10. 조명종(曹命宗)	63
11. 조문수(曹文秀)	63
12. 조봉진(曹鳳振)	63
13. 조석여(曹錫與)	64
14. 조석우(曹錫雨)	64
15. 조석형(曹錫亨)	65
16. 조원진(曹遠振)	65
17. 조윤대(曹允大)	65
18. 조전주(曹殿周)	66
19. 조중중(曹鍾中)	67
20. 조하망(曹夏望)	67
21. 조한영(曹漢英)	67
22. 홍만식(洪萬植)	68
23. 홍명구(洪命壽)	69
24. 홍명하(洪命夏)	70
25. 홍병기(洪秉箕)	71
26. 홍성민(洪聖民)	72
27. 홍순목(洪淳穆)	73
28. 홍영식(洪英植)	75
29. 홍중보(洪重普)	76
30. 홍 진(洪 進)	76
31. 홍치중(洪致中)	77
<hr/>	
제 3 절 전설과 민담, 민속	
1. 천녕 최씨(川寧 崔氏) 시조묘(始祖墓)와 삼선당(三仙堂)	79
2. 삼선당(三仙堂)의 전설	83
3. 최장군 이야기	86
4. 이포리 삼신당제(三神堂祭)	87
5. 이포리 용왕제	88
6. 이포리 삼신당(三神堂)의 유래	88
<hr/>	
제 4 절 지명 유래	90
1. 이포리	91
2. 궁 리	98
3. 도곡리	100
4. 장흥리	103
5. 주록리	108
6. 전북리	111
7. 소유리	114
8. 상호리	115
9. 하호리	119
10. 금사리	122
11. 외평리	124

제 5 절 명승(名勝)과 관광 명소(觀光 名所)	
1. 삼선당(三仙堂)과 이포(梨浦)강변	128
2. 이포 골프장	129
3. 금사 토기(오부자 웅기)	130
제 6 절 제영(題詠) 및 지기(誌記)	
[제영(題詠)]	
1. 금사팔영(金沙八詠)	131
2. 금사팔영(金沙八詠)	133
3. 봉화동정상공침류정사절죽성팔수차운	135
4. 침류정 사절(枕流亭四絶)	136
5. 여강오절기둔촌이호연(驪江五絶寄遁村李浩然)	137
6. 취유하령사(醉遊下寧寺)	138
7. 영 천령사귀야(詠 川寧思歸也)	139
8. 망포정팔경(望浦亭八景)	140
9. 제 여상구려(題 驪上舊廬)	141
10. 고산(孤山) 석탄(石灘)	142
11. 우음(偶吟)	142
12. 고산(孤山)	143
13. 봉암 재주서오십리금사동(鳳岩 在州西五十里金沙洞)	144
14. 팔영(八詠)	145
15. 이포진(이포八詠)	147
16. 침류정(枕流亭)	147
17. 천령객사차운(川寧客舍次韻)	148
18. 파사고성증의암장노(婆婆古城書贈義巖長老)	148
19. 걸가성친남귀숙파사성(乞暇省親南歸宿婆婆城)	148
20. 숙파사성등금강루(宿婆婆城登襟江樓)	149
21. 과 우묘(過 耦墓)	149
22. 천서촌(川西村)	150
23. 자여강향자포(自驪江向紫浦)	150
24. 알 기천서원(謁 沂川書院)	151
25. 고산추영(孤山秋詠)	151
26. 주차장흥조우사운배울(走次長興祖遇師韻排律)	152
27. 범사정설월심호적공정자상린래방음지오경취서	153
28. 여이사군백인공숙장흥사(與李使君伯益共宿長興寺)	153
29. 서 장흥사 승 천희 시축(書 長興寺 僧 千熙 詩軸)	153
30. 숙장흥사기부약제반(宿長興寺寄負約諸伴)	154
31. 숙장흥사기부약제반(甲午年 重九節)	154
[지기(誌記)]	
1. 육우당기(六友堂記)	156
2. 둔촌기(遁村記)	158
3. 어은기(漁隱記)	161
4. 침류정기(枕流亭記)	164
5. 기천서원지(沂川書院誌)	167
6. 파사고성서의암장로(婆婆古城書義巖長老)	171

제 2 부 현대 사회

제 1 장 행정, 교육, 산업 현황

제 1 절 일반 현황	
1. 연 혁	173
2. 위치와 지역적 특색	174
제 2 절 행 정	
1. 행정조직	176
2. 지역 방위 행정	182
3. 금사면의 유관 기관	183
4. 의료시설	187
5. 주민 복지시설	188
제 3 절 교 육	
1. 근대 이전의 교육	189
2. 교육 기관	189
3. 이포초등학교 (梨浦初等學校)	190
4. 하호초등학교	191
5. 이포 중학교 (梨浦中學校)	192
6. 이포고등학교 (梨浦高等學校)	193
7. 상품초등학교	195
8. 상품중학교	196
9. 사설학원	197
제 4 절 산 업	
1. 농업	198
2. 임업	201
3. 제조업	201
4. 서비스업	203
5. 상업, 기타	204
제 5 절 교통(交通)과 통신(通信)	
1. 교통(交通)	205
2. 전력(電力)	213
3. 통신(通信)	218
제 6 절 종 교(宗 教)	
1. 유교(儒敎)	226
2. 불교(佛敎)	226
3. 천주교(天主敎)	228
4. 기독교(基督敎)	231
5. 민족계열종교(民族系列宗敎)	232

여

백

머리말

면지란 그 군이나 읍면의 통사를 이른다. 그러나 금사 또는 그 옛이름으로 천령읍지가 옛날에는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에 와서는 찾을 길이 없다. 옛날 중국의 장한(張翰)이라는 분은 250년을 살았던 일생의 이야기를 진의 시황제에게 전해 주어 책을 불사르고 전쟁으로만 중국을 천하 통일한 시황제가 다시 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 기록이 훗날을 위하여 얼마나 중대한가?

지금에 와서 금사면지를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기나 통사 모두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멸되는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되살려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과거를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 미래를 계획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즉 옛 흐름의 성공과 실패를 알아서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는데 참된 거울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한 옛 얘기 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옛사람이 지금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사람이 옛사람 보지 못했다 해도 기록을 통하여 옛사람의 자취를 지금의 사람이 볼 수 있고 옛사람은 또 미래를 예측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기와 유적이요, 그로 미루어 옛사람을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기가 인류 흐름의 척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주문화원이 군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주관함은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교육 업무에 분주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실사하고 탈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비록 이 책이 미진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 하겠으나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훗날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해 나간다면 얼마나 빛나는 일이겠는가!

감회가 깊을 뿐이다.

제 1 부 역사와 지리

제 1 장 역사와 환경

제 1 절 연혁 및 통사

동사강목(東史綱目)이나 진서(晉書)·후한서(後漢書) 등을 상고할 때 처음 우리 나라는 부족 국가로부터 형성되어 애양국(愛襄國)·모수국(牟水國)을 비롯하여 70여 국가가 있었는데 큰 나라는 만 여집이고 작은 나라는 천 여집이 되어 모두 합하면 10만 여 가구가 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소국(小國)의 영역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소국으로 형성되었을 그 당시에 천령이 어느 소국의 영역에 속했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다. 그 후 삼한(三韓)이 이룩되면서 변한(弁韓)은 남쪽, 진한(辰韓)은 동쪽, 마한은 서쪽에 있다 하였는데 이를 참고할 때 삼한시대의 금사는 마한 땅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혁거세(赫居世)가 진한에서 추대되어 신라(新羅)가 시작되고, 온조(溫祚)가 마한을 멸망시켜 백제를 일으켰으며, 북쪽은 고구려가 되었는데 남북의 경계를 한강으로 본다면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백제에 속하였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삼국이 서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복전쟁을 자주 일으키면서 삼국의 경계에 위치하였던 금사는 술한 수난을 겪었을 것이다.

지금의 여주는 1469년에 금사였던 천령현과 여흥을 합병시킨 것인데 합병하기 전 천령의 지명은 술천(述川)¹⁾이었고 여주의 지명은 골내근(骨乃斤)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술천에서 골내근이 분리된 것인지, 처음부터 별개의 군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골내근보다는 술천이라는 기록이 훨씬 앞서서 나타나고 있다. 또 술천이 술천성(述川城)²⁾이라는 성이 있어서 술천이 되었는지, 술천에 성을 쌓아 술천성이 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술천이라는 기

1) 一名(일명) 省知貢(성지매)

2) 지금의 이포리와 외평리 사이

록이 골내근보다 약 453년 앞서서 보이는 것은 괘목할만한 사실이다. 백제의 온조왕이 마한을 정복할 계획을 세워 26년(서기 8년)에 침공하여 남으로 원산성(圓山城)³⁾ 다음 해에는 대두산성(大豆山城)⁴⁾까지 함락시켜 마한을 완전히 정복하고 국세를 확장하였다. 남·북부로 나누어 백성을 다스렸으며, 33년(서기 15년)에 다시 동·서부를 설치하였으니 천령은 이 때 백제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온조왕 37년(서기 19년)에 한수(漢水)⁵⁾ 동북부에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극심하여 패하(溟河)⁶⁾와 대방(帶方)⁷⁾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북쪽의 고구려로 망명한 것이 천 여호라고 하였다. 온조왕 40년(서기 22년) 9월에 말갈(靺鞨)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의 술천성(述川城)⁸⁾을 침공하였다는 기록에서 술천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⁹⁾ 그러나 골내근(骨乃斤)은 이보다 453년 후가 되는 장수왕 63년(서기 475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술천이 훨씬 앞선 것이 분명하다. 파사성(婆沙城)¹⁰⁾ 역시 그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역시 천령 땅인 것은 사실이다. 여주에는 북성(北城)¹¹⁾의 성지는 있으나 성명(城名)이나 지명은 기록에 보이지 않고 그 규모로 보아 그다지 중요한 성은 아니었던 것 같다. 초고왕(肖古王) 49년(서기 214년)에 말갈이 술천성을 침공하여 진퇴를 거듭하다가 격퇴당하여 그대로 백제 땅으로 유지하였다.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이 남진책(南進策)을 쓰면서 63년(서기 475년)에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여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다. 이때 백제는 도읍을 한성에서 웅진(熊津)¹²⁾으로 옮기었다. 그 후 백제와 고구려가 상쟁하면서 고구려가 다시 퇴각하여 한수 이북으로 물러나고 신라가 이 지역을 점유하게 되니 천령의 옛 땅 술천은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661년 고구려가 뇌음신(惱音信)을 보내어 말갈의 장수 생해(生偕)와 함께 수륙으로 나가 합군하고 술천성을

3) 지금의 醴泉(예천)

4) 지금의 尙州(상주)

5) 지금의 한강

6) 지금의 대동강

7) 지금의 黃州(황주)

8) 지금의 梨浦(이포)

9) 삼국사기 권23 온조왕 40년 9월

10)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있음

11)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에 있음

12) 지금의 公州(공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옮겨 북한산성으로 갔다.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이 거듭하는 동안 국세와 창고가 바닥나게 된 틈을 이용하여 신라가 이들을 맹공격하더니 결국 660년에 백제,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삼국의 경계에 위치하였던 천령의 옛땅 술천은 백제·고구려·신라의 순으로 차지하였다. 신라 경덕왕(742~764)이 행정 구역을 정비하면서 술천은 기천¹³⁾이라고 지명을 고치고 골내근(骨乃斤)은 황요(黃驍)라고 지명을 고쳐서 황요현을 기천(沂川)의 영현(領縣)으로 삼아 기천현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당시 기천의 행정 구역은 금사·개군산·대송·등신·흥곡·길천의 전지역이었고, 황요의 행정 구역은 주내·가서곡·수계·근동·점량·근남·북등으로 기천(沂川)의 땅이 훨씬 넓었다.¹⁴⁾

그리고 육로보다는 수로의 이용이 훨씬 편리하였던 시대에 서울에서 가까운 기천이 황요보다는 여러 면에서 앞설 수 있는 조건을 지녔다. 때문에 시장¹⁵⁾이 번창하고 관내에 양자산·상두산·추읍산·파사산에 사찰이 많았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고 산수가 좋다보니 정부 요인들의 루당(樓堂)이 많아 정치적으로도 주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술천성과 파사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외 옛부터 등신면에 등신장(登神莊)이 있었고 같은 지역에 어랑현(魚梁縣)¹⁶⁾이 관내에 있었고 고려 말기에 들어서면서 강변에는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동정(東亭) 염흥방(廉興邦)·둔촌(遁村) 이집(李集)을 비롯한 많은 명신들이 은거하게 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 현종(顯宗) 9년(1018년)에는 광주(廣州)의 속현(屬縣)이 되었다가 복현(復縣)되어 조선 초기까지 계속 번창하였다. 1469년에 세종대왕의 영릉(英陵)을 광주 대무산¹⁷⁾에서 능서면 왕대리¹⁸⁾로 옮기면서 여흥(驪興)은 왕릉을 모신 곳이 되었다. 왕릉을 모신 곳을 군(郡)으로

13) 沂川(기천) 또는 派川(기천)으로 씀

14) 당시 기천의 행정 구역은 금사(지금 금사면)·개군산(지금 개군면)·대송(大松)·등신(登神=지금 대신면)·흥곡(興谷)·길천(吉川=지금 흥천면)의 전지역이고 황요의 행정 구역은 주내(州內=여주읍)·가서곡(加西谷)·수계(首界)(=지금 능서)·근동(近東)·점량(占梁=지금 점동 일부)·근남(近南=지금 가남일부)·북(北=지금 북내 금당천 서쪽) 등이고 보면 기천(沂川)의 땅이 훨씬 넓었다.

15) 천령장: 천양장은 천령의 발음이 와전된 것임

16) 여주군 대신면 어랭이

17) 성남시 세곡동에 있는 현인능 서쪽

18) 현재의 영릉(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칭할 수 없어 목(牧)으로 승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흥(驪興)과 천령(川寧)을 병합하고 지명을 여주(驪州)로 고쳤다.¹⁹⁾ 행정 구역 단위는 군현(郡縣)에서 목(牧)으로 승격하여 여주목이 되고 책임관으로 목사(牧使)가 부임하게 된 것이다. 천령과 여흥이 합병된지 43년 후인 중종 7년(1512년)에 옛 천령을 여주에서 분구하여 천령현으로 다시 복립(復立)해 달라는 상소를 여러 차례 주청하였으나 매번 무산되고 말았는데 영능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주보다는 천령이 더 발전하였다. 그것은 수백년간 기반이 잡힌 천령장(川寧場)²⁰⁾은 관내에 국한한 시장이 아니라 이천·장호원·안성·음성·원주·횡성·양근 등의 물자를 교환하는 곳이었으며, 수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였던 시기에 신상품과 해산물의 유통에 한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주보다는 유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철도가 생기고 육로가 확장되면서 수로를 이용하는 횡수가 줄게 되었고 철도의 이용에 불편한 천령보다 역이 가까운 여주가 발전하게 되었다.

여주목(驪州牧)은 1914년 4월 1일 과거의 목(牧)·부(府)·군(郡)·현(縣)을 모두 폐지하고 군(郡)으로 통일시키면서 여주군(驪州郡)이 되었다.²¹⁾

1963년 1월 1일 과거 천령에 속했던 개군면(介軍面)을 떼어 양평군으로 이속시켰으며 1970년 12월 16일 군 조례(1970.12.16)에 의하여 금사면에 산북출장소를 설치하였다가, 1989년 4월 1일(군조례 1160호)에 산북출장소를 산북면으로 승격시켜 하품리 138-1번지에 산북 면사무소를 두었다.

19) 조선왕조실록 예종 2년

20) 천양장, 천양나루 등은 모두 천령의 발음에서 와전된 것이고 김세라 불리우는 명칭도 금사에서 와전된 것이다.

21) 군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었고 여주군은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제 2 절 생활 환경

1. 자연지리(自然地理)

가. 위치(位置)

금사면과 산북면은 여주군에 북쪽에 위치하여 양평군 강상면, 광주군 실촌면에 접하고 있고 동남단은 홍천면 내사리와 문장리, 계신리와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금사면은 남한강을 통한 수운이 편리하고, 서울과 육상 교통로도 접근이 용이하여 조선시대 관료들의 피난지 및 낙향 지역으로 이용되어 그 자취가 많이 남아있어 면의 전통과 품위, 그리고 지역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금사면은 내륙지역성이 복합되어 전통이 보존되고, 옛스러움을 간직한 보수적 성격의 고을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나. 면적(面積)

지역	행정 소재지	면적(km ²)	인 구	백분율(%)
금 사 면	이포리 194 - 3	41.2	3,073 명	3 %(여주군전체)
산 북 면	상포리 121 - 1	32.9	2,261	2 %(")

다. 지형(地形)

여주군은 東으로는 우리 나라의 등줄기인 태백산맥(太白山脈)이, 南쪽으로는 차령산맥(車嶺山脈)이 北쪽으로는 광주산맥(廣州山脈)이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다. 더구나 금사·산북면(金沙·山北面)은 태백산맥(太白山脈)에서 뻗어나온 광주산맥(廣州山脈)이 北쪽을 막아주고 있어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풍년 지대를 이루고 있다.

금사면은 앞으막한 구릉성(丘陵性) 산지를 끼고 있으며 기본 암질이 편마암과 화강암인 관계로 평야의 물 빠짐이 용이하여 농경에 이로움을 주고 있다.

라. 기후(氣候)

(1) 기후(氣候)의 특색(特色)

금사면(金沙面)의 기후(氣候)의 특색(特色)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기후 특색과 거의 일치한다.

소기후의 측면에서 볼 때 한강을 끼고 있어 비교적 안개가 많은 지역(평균 안개일수 50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수량도 광주산맥에 둘러싸여 지형성 강우를 형성하여 우리 나라 제2의 다우지역에 해당된다.(연평균 강수량 1200~1300mm) 1985년 충주댐의 건설과 팔당댐으로 인하여 내수면이 형성되어 금사면과 대신면 일부 지역의 겨울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의 감소로 봄 가을로 안개가 많아졌다.

(2) 기온(氣溫)

연평균 기온은 약11℃를 보이나, 한여름에는 30℃이상까지 오르는 열대기온을 나타내고 겨울에는 최저기온이-10℃ 정도로 1년을 통한 한서의 차가 매우 크다.

(3) 강수(降水)

여름 강수는 중국대륙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이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의 차단을 받아 지형성 강우를 형성하여 年 강수량 1,106.7mm를 기록하는 우리 나라 제 2의 다우지역(1,200~1,300mm)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형성 강우로 말미암아 집중호우(日강수량 100mm 이상)가 잦은 지역이고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범람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겨울 강수는 대개 눈에 의해 이루어지나, 적설량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중간치를 보이는 30~40cm정도이다.

강설유형은 대개 북서풍형 강설과 전선형 강설로 이루어져 있다. 초설일은 평균적으로 10월 하순과 11월 초순에 이루어지며, 종설일은 3월 중순으로 기록된다.

(4) 바람, 습도, 일조, 안개, 서리

바람은 전형적인 계절풍으로서, 여름은 남동풍, 겨울은 북서풍이 탁월풍으로

국지풍은 거의 없는 편이다. 풍속은 평균 1m/sec 내외이다.

습도는 인간생활에 적당한 60~70%로서 우리 나라의 평균 60% 보다 여름은 조금 높은 편이다. 일조시간은 연 2,237.5시간으로 우리 나라 연평균과 거의 비슷하며, 안개 일수는 연중 50일 정도로 내륙 지방치고는 많은 편이다.

서리는 기온의 일교차가 큰 내륙지방에 잘 나타나는데 여주군은 10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서리가 내리는데 금사면은 산지 지역이므로 그 일수가 조금 많다.

기상개황

년도	기 온			강수량	상대 습도	평균 해면기압	일조시간	바람
	평균	평균 최고	평균 최저					
1991	11.5	-	-	1,379.1	68	1,007.1	2,554.6	0.8
1992	11.3	-	-	1,207.0	70	1,007.6	2,377.6	1.0
1993	11.2	-	-	1,251.5	67	1,011.2	1,921.2	1.1
1994	13.0	-	-	1,118.8	65	1,016.2	2,202.0	1.1
1995	11.3	-	-	14.0	68	1,015.6	2,257.9	1.3
1996	11.6	31.1	8.5	912.5	64	1,015.9	2,237.5	1.2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강 수 량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1	1,457.3	17.6	40.5	55.5	77.1	112.9	154.2	412.8	174.4	330.5	10.7	21.1	50.0
1992	1,113.0	32.0	39.0	17.0	89.0	108.5	34.5	190.5	304.5	141.5	60.0	27.5	69.0
1993	940.4	5.5	51.5	21.1	60.0	110.3	110.3	292.5	140.0	117.0	10.0	17.2	5.0
1994	883.4	2.2	2.0	11.5	22.0	98.2	123.0	100.0	306.0	57.0	148.5	2.0	11.0
1995	1,333.4	18.5	5.2	37.0	43.0	46.5	34.0	308.5	776.1	29.0	17.3	14.8	3.5
1996	912.5	35.5	4.5	91.0	39.5	13.0	226.5	253.5	116.5	7.5	63.0	46.5	15.5
금사	892.0	34.0	4.0	81.0	45.0	18.0	201.0	233.0	148.0	7.0	65.0	44.0	12.0
산북	903.0	38.0	6.0	85.0	55.0	14.0	240.0	217.0	106.0	8.0	69.0	51.0	14.0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마. 지질(地質)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암질은 화강암화 작용이 약하여 호상구조를 보여주는 편마암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광물성분 조직변화도에 따라 분류할 때는 화강편마암으로서 낮은 구릉지대나 평야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화강편마

암의 주변부에 나타나는 반상변질편마암이 面의 산악지대인 광주산맥 줄기에 나타나고 있다.

바. 토양(土壤)

여주군의 토양은 하천범람지 토양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분포하고 내륙평탄지 토양, 구릉 및 산악곡간지 토양, 저구릉곡간지 토양, 저구릉지 토양, 산록지 토양, 구릉지 토양, 산악지 토양 등이 골고루 군 전지역(금사면 포함)에 혼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적황색토는 저구릉홍적층 및 산성암의 산록지 대지 등에 나타나고 토질은 식질과 식양질이다. 토양배수는 양호가로 적갈색, 황갈색 및 황적색의 양토이다.

퇴적토는 봉적 및 충적작용이 혼성되어 구릉 및 산악의 경사지와 산록퇴적지에 약간씩 분포하여 배수는 양호한 편으로 토성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높은 편이고 약한 산성과 강한 산성의 토성을 지니고 있고, 배수관계에 따라 대부분 논으로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생산력은 보통이다.

암쇄토는 면의 구릉지 및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토양배수는 매우 양호하고 토양의 성질은 사양질 또는 식양질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유기물 함량이 적어 낮은 편이고, 토양의 반응은 약한 산성내지 강한 산성이고 염기포화도도 낮다. 대부분 임지로 이용되고 밭으로 개간되거나, 초지로 점차 이용되고 있다.

사. 식생(植生)

면은 우리나라 중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경기도의 서부지역과, 강원도의 산악지역간의 접이지대에 위치하여 소지역의 식생분포로 볼 때 산지성을 띤 구릉성을 바탕으로 한 식생분포를 하고 있다. 즉 수직상의 식생분포 보다는 혼합적인 수평적 식생분포를 갖는 것이 특색이다.

면의 현저한 우점종은 소나무이지만, 그 이전에는 참나무 그리고 그 오래 전에는 잣나무와 전나무라고 생각된다.

산 정상에는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이 분포하고, 그 아래는 소나무가 점점

많아지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섞여 있고 산줄기에는 오리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등 잡목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수목 아래에는 진달래, 산철쭉, 싸리 등의 관목이 번성하고 있다.

산의 허리에는 굴참나무, 잣나무 등의 수목이 자라고, 그 아래에는 철쭉나무, 참싸리, 참개암나무 등의 관목과 우산나물, 단풍취 등의 초본의 군락이 함께 형성되고 산골짜기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산의 치맛자락 부분을 참나무와 관목들이 수목을 이루고 있다.

들판에는 봄에 제비꽃, 할미꽃, 민들레 등이 번성하며, 여름에서 가을에는 미타리, 개미취, 쑥부쟁이, 구절초, 엉겅퀴 등이 군락을 이루고, 길가에는 질경이, 그렁, 길뚝사초, 강아지풀, 바랭이 등이 많이 자란다.

습지에는 여뀌, 고마리, 닭의장풀, 갈대 아기부들, 연꽃, 풀달개비, 마름, 개구리밥 등이 흔히 자란다. 또한 개천이나 강가에는 버드나무, 능수버들 등이, 마을 가까운 곳에서는 밤나무, 아카시아, 미루나무, 포플라 등이 분포한다.

그리고 가내식물로는 앵두나무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이 가꾸어지고 있다.

아. 동물(動物)

생물중 식물을 제외한 민물고기와 들짐승 그리고 조류, 보편적 가축 등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민물고기

남한강을 끼고 있어 민물고기가 면에는 풍부한 편이다.

주로 논물과 수로에 있는 미꾸라지, 버들붕어, 민물새우, 쏘가리, 구구리, 송사리 중투라지 등과 개구리, 우렁이 등도 흔한 생물들이다.

금사천, 계장천, 주어진 등에는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등이 많이 서식하고 남한강에 이르면 잉어, 메기, 가물치 등이 많이 자란다.

민물고기는 근래에 와서 농약의 대량 보급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그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주의 이름난 음식재료로 남획되고 있어 그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2) 들짐승과 가축

面에는 산악지대가 많아 산에는 오소리, 너구리, 노루, 승냥이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삼림의 황폐, 남획 등으로 희귀해졌었으나, 근자에와 산림이 우거져 다시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밖에 토끼, 고슴도치, 족제비 등이 흔하게 서식하고 있다.

가축으로는 닭, 돼지와 소가 가장 일반적인 가축이고, 그밖에 오리, 양, 염소 등을 많이 기른다.

(3) 조류(鳥類)

面에 흔한 텃새로는 참새, 까치, 멧새, 꿩, 까마귀 등이 있고, 철새로는 지빠귀, 뜸부기, 소쩍새, 피꼬리, 삿꾸기 등이 분포하고, 물새 등 민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들도 농약오염, 먹이의 멸종 등으로 희귀해 졌다.

그밖에 양서류, 파충류에는 도롱뇽, 개구리, 두꺼비, 독사, 올무기, 밀뱀 등이 서식한다.

자. 산악(山岳)

(1) 상두산(象頭山)

금사면 장흥리 북방(北方)에 있다. 이 산 南쪽 기슭에 고찰 장흥사 옛터가 있으며 현재 약천암(藥泉庵)이란 작은 암자가 있다.

(2) 장화치(長華峙)(속칭 장와치 고개)

금사면 도곡리(도장골)에서 주록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이른바 아흔아홉구비라고 하는 곳인데 관내에서 가장 험준한 고개이다. 장화사라는 절이있었다고 한다.

(3) 양자산(揚子山)

산북면 하품리 북방에 있으며 양평군 양서면 항금리(恒今里)와 군계(郡界)지점에 있다. 여주군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해발 709m)

(4) 앵자봉(鶯子峰)

양자산줄기 서남쪽으로 연결된 산이다. 산북면 상품리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牛山里)(소지명: 박석거리) 경계에 있다. (해발 666m)

(5) 천덕봉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해발 630m)

(6) 남이고개

남이현 [고개] 품실에서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로 넘어가는 고개.

남이 장군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백마를 타고 이 고개에서 활을 당기어 후리에 있는 고양이를 향해 쏘고 백마를 달려 갔더니 화살보다 말이 먼저 다다랐다고 함.

차. 河川

금사면 동편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다.

남한강의 여주관내를 여강(驪江)이라고 한다. 여강의 하천들은 대개 천정천으로 유속이 느리고 많은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아 여름철 내륙의 피서지로 어울리는 곳이며 쏘가리, 자라, 가물치, 잉어 등 많은 민물고기가 풍부하다.

(1) 금사천 : 주록리에서 금사리까지 흐르는 개울

(2) 계장천 : 도곡리에서 이포리 앞으로 흐르는 개울

(3) 용담천 : 송현, 남이개, 후리, 주어, 안뚜렁, 임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수되어 용담으로 흐르는 개울

카. 平野 :

금사면의 평야는 여강의 지류인 금사천, 계장천, 용담천, 주어천을 중심으로 배수관계가 매우 양호한 충적평야와 내륙분지에 형성된 사양질의 들판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하천 주변의 너른 평야가 경작지로 이용되어, 농업 용수가 풍부하고 배수도 매우 양호하여 「여주쌀」을 생산하는 특수한 소규모의 내륙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부적 평야의 발달이 홍수와 가뭄, 그리고 태풍 등의 천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만년 풍년의 여주 평야를 낳았다. 이러한 자연조건은 주민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 자연과 합일하며, 항상 낙천적이고,

전원적인 보수성을 보이는 등의 다른 부드러운 성격의 바탕이 된 것 같다.

토지 지목별 현황(2-1)

단위 : m²

면	합 계	전	답	목장용지	임 야	대 지	공 장	학 교	도 로
금사	41,735,683	3,483,008	4,306,736	11,351	28,437,378	545,122	28,122	21,540	608,739
산북	32,883,275	2,524,911	3,057,224	10,920	25,486,780	340,466	56,787	26,378	220,475

註: 1997여주군 통계연보

하천 주변부는 사질토로서 논보다는 밭으로 참외, 땅콩재배 단지로 많이 이용되고 야산은 밭으로 또는 과수원과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토지지목별 현황(2-2)

단위 : m²

면	하천	제 방	구거	유지	체육 용지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금사	2,612,200	12,697	581,556	207,540	790,422	2,071	49,638	37,563
산북	714,610	:	325,044	:	:	1,851	78,407	39,422

註: 1997.여주군 통계연보

2. 인문지리(人文地理)

가. 인구(人口)

(1) 인구(人口) 변천(變遷)

여주군은 군 전체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금사면도 마찬가지로 1960년 면의 인구는 8,622명이었는데 1997년엔 5,334명으로 3,288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관계로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군의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회적 감소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

면	세 대	인 구 (명)			인구밀도	면적(km ²)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금사	1,036	3,073	1,533	1,540	73.64	41.73	3.0
산북	723	2,261	1,149	1,112	68.77	32.88	3.1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2) 인구의 분포와 밀도

여주군의 인구분포는 1997년 자료에 의하면 여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총인구의 34% 이나 비도시 지역인 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66%로서 면소재지와 자연부락에 주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 금사·산북면이 여주군 인구의 5%로 농촌을 바탕으로 한 농업적인 기능을 가진 면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인구 밀도도 3.0으로 여주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인구의 구조

면의 성별 인구 구조는 남성 인구는 50.28%인 2,682명, 그리고 여성 인구가 49.72%인 2,652명으로 남성인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인구 문제와 대책

면의 인구가 대부분 농업 인구로 여주군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다.

남성 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기는 하지만 남성 인구의 대부분이 비경제적인 노령층으로서 경제적으로 노동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은 거의 인근 도시

및 서울로 유출되어, 면의 대부분이 여성 노동력에 상당히 의존하여 이의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는 수도권에 입지(立地)한 면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비공해 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남성 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업인구를 감소시켜 비농업적인 소득원을 확대시켜야 하며 면의 소득액을 높여야 하겠다.

나. 취락(聚落)

(1) 가옥(家屋)

면의 민가(民家)를 중심으로 한 가옥 구조는, 대들보 밑에 방을 일렬로 배치한 형태로서 우리 나라의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단열형(單列型) 민가(民家)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단열(單列) 곡가형(曲家型)의 안채에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사랑방을 이루는 일자형(一字型) 단열곡가형의 가옥이 배치되어 외형상 전체적으로 폐쇄적 구조를 보이는 것이 중류 농가의 보편적 형태이다.

대개 마을 중심부에 민가가 나타나고, 주변부에는 하류 농가의 전형적인 모습인 ㄴ자형, 또는 一자형의 가옥 한 채만이 배치되어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점이 지대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방의 수는 2~4개로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

난방 구조를 볼 때 전통적 가옥구조가 잔존하는 한편 연탄보일러 가옥, 기름보일러 난방 가옥 등이 있고, 지붕 재료도 초가는 거의 없고 슬레이트, 기와, 양철 지붕 슬래브 지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취락(聚落)

면의 취락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면소재지로서 기능과 구조에 있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있어, 외형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아직도 그 내부에 촌락적 요소가 상당히 혼재해 있는 면들이다.

둘째, 전통적인 한국의 집촌을 형성하여 마을, 또는 동네로 불리는 농업 기반의 촌락이다.

이상의 두가지 형태의 취락들은 서로 계층을 이루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인구이동과 경제 기반의 흐름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근접한 서울과 직접 이루어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행정구역

지역	면적 (km ²)	리		반	자연부락	비고
		행정	법정			
금사	41.73	13	11	44	26	
산북	32.88	9	6	26	16	

註 : 1997 여주군 통계연보

제 3 절 사회 경제적 환경

금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삼국의 경계에 위치하여 백제·고구려·신라의 영향이 고루 미쳐진 곳이다. 영토의 확장과 국권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술천성이 축조되고 파사성이 축조되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삼국간의 물물교환은 물론이고 내륙 지방에서 한강의 수로를 이용한 해산물의 직송이 가능하였으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강원 지역의 임산물이 한강을 통하여 운송되었기 때문에 상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

삼한시대로부터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이 곳을 차지하려는 정복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백제의 영역에서 고구려의 영역으로,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또 신라의 영역으로 예측되는 수난을 겪었다.

넓은 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관망이 좋을 뿐 아니라 인심이 후덕하여 비록 부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상류층인 사류(士類)의 은거(隱居)가 많았던 곳이었다. 특히 강변이 그러했고 심산에는 사찰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고려 말기의 정객들이 이곳에 루당(樓堂)을 많이 지었으니 동정(東亭) 염흥방(廉興邦)·목은(牧隱) 이색(李穡)·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둔촌(遁村) 이집(李集)·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송암(松菴) 이충원(李忠元)·줄옹(拙翁) 홍성민(洪聖民)·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나재(懶齋) 홍명구(洪命耆)·택당(澤堂) 이식(李植)·북곡(北谷) 홍치중(洪致中) 외 조선 말기의 우당(藕堂) 민응식(閔應植)에 이르기까지 이 곳에 은거하였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육로보다 수로가 발달하였던 시대에는 거의 상업에 종사하는 편이 경제적 부흥이 빨랐고 주산업이던 농업은 농지가 협소하고 수자원이 짧아 큰 성과를 보기가 어려웠다. 목은 이색(李穡)은 금사팔영(金沙八詠) 중에서 서산에 고사리 뜯음(西山採薇)을 첫째로 하고 약뿌리캐는 광경을

地靈多藥物(지령다약물)

땅이 신령하니 약초가 많고

山密少塵埃(산밀소진애)

산이 빽빽하니 때묻은 데가 적다

平野牢籠盡(평야뇌롱진)

들은 호부한 집이 점령하고

荒畚片段餘(황여편단여)

거치른 폐기밭만 남았네

라고 하였다. 산이 깊어 맑고 청량하며 넓은 들판보다는 폐기밭을 가꾸고 산채와 채약이 적합함을 읊은 것이다. 따라서 부업으로는 임산물에 의존하는 편이 많았다. 상업면에서는 여주 관내에서 가장 흥성했던 시장이 천령장이었다.²²⁾ 남한강이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정선·평창·영월·충주·문막·여주를 지나 천령을 경유하여 양평·서울을 거쳐 서해에 연결되는 만큼 수로를 전용하던 시기에 각처의 산물이 이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해산물과 서울에서 생산되는 신문명에 따른 물자가 모이게 되므로 시장이 번영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서울을 왕래하는 각처의 여객과 상선이 거쳐가는 길목이 되어 돈과 물자가 풍부하여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유동 인구가 집중되므로 이 곳의 산물 역시 교역이 원활하여 농업 이외의 임산적 부업도 따라서 흥행하여 일거양득의 요지가 되었다.

한편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중반(8.15이전)까지 광산의 채광으로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다. 수여선(여주~수원간의)이 생겨 수로보다 육로의 교통이 발전되면서 이 곳의 경제가 낙후되었으며 광산까지 폐광되어 경제 낙후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곳에도 양평·광주·이천·여주의 교통이 활발이 전개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산수를 찾고 휴양하며 왕래하는 유동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하여 특산물을 장려 생산하고 농업 외에 목축업이 흥성하여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22) 천양은 천령의 잘못된 발음으로 보임

제 4 절 성씨(姓氏)

우리 나라에서의 성씨(姓氏)는 고려 중기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그 후부터 성씨(姓氏)란 결국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체계가 되었다.

성씨(姓氏)의 시작은 삼국 시대로부터라고 하지만 혈족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은 고려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족보는 그 보다 훨씬 후 고려에 왕통을 기록한데서 비롯하였으니 김관의가 지은 「왕대실록」, 임경숙이 지은 「선원록」이 그것이다. 성씨(姓氏)가 중요성을 나타낸 것은 고려 문종(1046~1083)때 성씨(姓氏)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성씨(姓氏)가 많이 생겨 났으며 조선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족보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문헌으로 전하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成化譜:1465~1487)나 문화 유씨 가정보(嘉靖譜:1522~1566) 등이 대표적인 족보이다. 이어 각 성씨(姓氏)들의 족보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는데 그 처음 간행된 족보를 초간보(初刊譜)라 하게 되는데 이 초간보가 조선 중기 이후인 성씨(姓氏)도 많다. 조선 후기에 초간보를 내면서도 그 시조는 삼국시대 또는 삼한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중국의 저명한 인물이나 그 자손이 귀화한 것으로 시조를 중국 사람으로 하게 된 경우도 많다. 어떻든 간에 초간보를 간행하는 시점에서 몇 백년, 길게는 천 여년 이전의 인물을 시조로 하여 기록하고 있으니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에 귀화된 성씨(姓氏)는 대체로 계통별로 분류하면 중국계·몽고계·여진계·위구르계(回鶻)·아랍(回回)·베트남(越南)·일본 등 7개 계통으로 본다. 많은 성씨(姓氏)가 생기면서 같은 성씨(姓氏)가 생기되 되므로 본관이 생겼다. 성씨(姓氏) 족보를 살펴보면 같은 성씨(姓氏)가 본관이 다른 것은 대개 그 시조가 다르게 되었다. 반면에 성이 다르면서 같은 형제 간의 후손이거나 같은 시조의 후손이 된 경우도 있다. 김해·안동·경주 등의 본관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비록 성은 달라도 혼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계의 성씨(姓氏)가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몽고 계열의 연안 인씨(延安 印氏)·여진 계열의 청해 이씨(靑海 李氏)·위구르 계열의 경주

설씨(慶州 僣氏)·아랍 계열의 덕수 장씨(德水 張氏)·베트남 계열의 화산 이씨(花山 李氏)·일본 계열의 우록 전씨(友鹿 全氏)²³⁾ 등은 다소 생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성씨(姓氏)와 관향이 늘어나면서 여주를 근거로 하는 황려·황리·여흥·여주·등신·천령 등에 60여 성씨(姓氏)가 있고 그 중에 천령을 본관으로 한 성씨(姓氏)는 유씨(兪氏)·장씨(張氏)·최씨(崔氏)·배씨(裨氏)·권씨(權氏)·현씨(玄氏)·견씨(堅氏)·김씨(金氏)·방씨(房氏)가 있으며 같은 관할인 등신²⁴⁾을 본관으로 유씨(兪氏)·필씨(畢氏)를 합하면 천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姓氏)는 모두 11개 성씨(姓氏)로 밝혀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주를 많이 하고 현재 천령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姓氏)가 천령(金沙)에 집성촌을 이룬 성씨(姓氏)는 없다. 또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성(姓)은 있으나 그 시조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성씨(姓氏)가 있는가 하면 현재로는 전혀 없는 성씨(姓氏)도 있다.

현재 천령을 본관으로 한 성씨(姓氏) 중에 천령 유씨 967, 천령 최씨 117, 천령 견씨 221, 천령 장씨 130호 정도이며²⁵⁾ 그 외 성씨(姓氏)들은 1945년 남북한 합친 호구 조사에 100호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금사와 산북에 거주하는 성씨(姓氏)의 인원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진주 강씨(60), 전주 강씨(21), 제주 고씨(48), 횡성 고씨(9), 기타 고씨(27), 통성 구씨(3), 안동 권씨(100), 안동 김씨(2), 공주 김씨(12), 선산 김씨(27), 김해 김씨(110), 경주 김씨(130), 강릉 김씨(6), 주안 김씨(35), 기외 김씨(41), 남원 양씨(17), 남평 문씨(70), 여흥 민씨(16), 밀양 박씨(237), 순천 박씨(9), 반남 박씨(14), 밀성 박씨(103), 죽산 박씨(8), 거제 반씨(3), 온양 방씨(21), 수원 백씨(26), 황주 변씨(61), 이천 서씨(59), 충주 석씨(5), 창녕 성씨(35), 여산 은진 송씨(45), 월월 영산 신씨(11), 평산 신씨(73), 고령 신씨(32), 순흥 안씨(10), 영월 엄씨(27), 함양 여씨(15), 곡산 연씨(10), 해주 오씨(55), 단양 우씨(59), 원주 원씨(15), 문화 유씨(65), 진주 유씨(3), 강릉 유씨(13), 기계 유씨(45), 파

23)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조선에 침입하였다가 귀화하여 김해 김씨로 사성을 받은

모하당 김충선의 후손

24) 현 대신면의 일부 지역

25) 1987년 남한 인구 조사

평 윤씨 (410), 무송 윤씨(43), 전주 이씨(1127), 경주 이씨(206), 한산 이씨(8), 광주 이씨(89), 전의 이씨(30), 성주 이씨(13), 용인 이씨(6), 함평 이씨(10), 평창 이씨(5), 기타 이씨(30), 풍천 임씨(44),인동 장씨(98), 안동 장씨(13), 광주 탁씨(5), 나주 정씨(25), 경주 정씨(77), 초계 정씨(15), 연일 정씨(16), 한양 조씨(63), 풍양 조씨(19), 신안 주씨(24), 충주 지씨(435), 여양 진씨(5), 연안 차씨(16), 영양 천씨(12), 경주 최씨(360), 해주 최씨(9), 수성 최씨(13), 충주 최씨(21), 전주 최씨(11), 청주 한씨(132), 양근 함씨(31), 양천 허씨(15), 기타 성씨(姓氏)는 모두 소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 절 방 언(方言)

방언이라면 사투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어가 아닌 것만이 방언은 아니다. 즉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 방언이다. 말이란 그 근원을 하나 하나 찾기 전에는 어느 것이 사투리고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말이 표준어가 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고 보면 말의 근원이 생긴 지방의 말이 원어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원어(源語)와 표준어(標準語)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방언은 옛날에는 생활권이 같으면 말이 같고 생활권이 다르면 말이 달랐다. 서로 왕래하기 어려운 큰 산(嶺) 또는 교통이 막힐만한 큰물(大河)로 인하여 접촉이 적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말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영남, 호남, 호서, 관동, 관서, 기호, 관북 각 지방의 경우가 그렇다.

아직도 약 70여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에 취학하지 않은 사람의 대개는 토박이 말을 쓰고 젊은 세대들은 표준어를 많이 쓰고 있다.

방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본래부터 근원이 달라 말이 전혀 다른 경우

둘째, 구전되는 과정에서 발음이 와전된 경우

셋째,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漢字)의 음을 따른 말에 학문의 지식 없이 음이 변한 경우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또 지방에 따라 자음이나 모음이 똑같은 형태로 변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서 여주와 천령 지역에서는

첫째, 자음이 “ㄱ”에서 “ㄷ”으로 변한 경우

(예, 김(雜草)=짐, 김(海苔)=짐, 길(道)=질, 길다(長)=질다,

길금(麥芽)=질금, 귤(橘)=줄, 기둥(柱)=지둥, 기름(油)=지름)

둘째, 모음이 “ㅏ”에서 “ㅓ”로 변한 경우

(예, 참기름=챙기름, 만들다(造)=맨든다, 곰팡이=곰팽이,

머슴아=머슴애, 남기다(餘)=냉기다, 남편(夫)=냄편,

두드리기=두드래기, 만지다=맨지다, 소나기=소내기,
올가미=올개미)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에 와서 방언은 거의 없어진 상태고 모두 잊혀져서 오히려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혹 방언의 예를 들어 그것이 무슨 말이나고 물으면 거의가 모르고 있다. 언어라는 것은 통일이 되면 될수록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언어가 언젠가 그 시기가 아득하다고 보지만 결국 통일될 날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방언은 방언 나름대로 학문이나 역사 연구에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끔(往往)=이따금, 우째다, 혹간, 더러더러.
가만히=찬찬히, 가만가만, 살며시
갑자기=배란간, 각중에
거의=거반, 거지반, 거진, 건저, 건주, 일추
걸핏하면=걸떡하면, 꺼떡하면, 빼떡하면
겨우=게우, 제우, 제외
공연히=괜히, 고안이
구태어=억찌루, 해필
그만=고만
까지(至)=꺼정
가까운=가차이, 가차운, 가참다
가득(滿)=까딱, 짹
가지런이=간추런이
깊다=짚다
굽다(曲)=꾸불다, 꾸부러졌다, 휘다
기울다=찌울다, 지울다, 찌우리졌다, 끼울다
꺾다=분지르다, 부러진다, 뿌지르다
피어맨다=꼬맨다
가랑비=부슬비
그늘=음달, 옹달
길=행길, 신작노, 질
가(邊)=가쟁이, 가생이, 가장자리, 끝트리
고개마루=등갱이, 장등
골목=고살
구덩이=구맹이
구멍=구녀, 구녕

가을=갈,
 가운데(中)=복판
 길=거죽, 바깥, 거테
 구석=구석쟁이, 귀텡이, 구역지
 각씨(미혼녀)=색씨
 계집=기집, 지집
 계집아이=지집애
 곰팡이=곰팽이
 거지(乞人)=그지, 거렁뱅이, 거러지
 거울=세경(石鏡)
 게으름장이(게른 사람)=길름뱅이, 늘태보, 느림보
 곰보=얼금백이
 곱사등이=곱추, 곱새
 계산(計算)=요량
 꾸중=야단, 꾸지럼
 가위=가새
 가리마=가름자, 가름마
 가죽=겹데기, 꺼풀, 껍데기
 나비=나뱅이
 궁둥이=궁텡이, 엉텡이, 방치, 방텡이
 간장=지렁
 고기=괴기
 고리=고래기, 고랭이
 고무래(丁)=고물개, 거물개
 고뻘=고뻘이, 바
 나란히=나라니, 줄줄이, 날날이, 줄로리
 남자=사내, 머슴애
 느리게=느린느릿, 느실느실, 느실렁, 어실렁
 날마다=노상, 늘(항상), 늘쌍, 맨날, 운재던지
 높다=넙다
 더럽다=드럽다, 드러워, 추접다
 남긴다=냉긴다
 늪=웅텡이, 진퍼리
 내일(來日)=넬
 남편(남편)=넌편, 사내, 서방, 밖앗분
 넓적다리=허벅지
 눈알=눈망울, 누깅, 눈알맹이
 누더기=누데기
 난리=복새, 복새통

나무=낭구
 단단하다=톡톡하다
 나물(菜)=푸성귀
 도리어=되래, 도루, 뒹따
 도랑=또랑
 두둑=둔덕, 두렁
 던져버리다=꽤대기친다
 돌=돌맹이
 들=버덩, 벌판
 등=등매기, 등어리, 등작
 땀띠=땀띠기
 뜨락=봉당
 두드러기=두드래기
 덧=차우, 쪼기
 두레박=타래박
 뒤주=뒤지
 두루마기=두루매기
 달팽이=탈팽이
 다음(次)=담
 대장간=승냥(농기구를 베리는 행위)
 단체놀이=철렵
 많이=잔뜩, 듬뿍, 갓득, 엄청나게, 되우,
 매일=날마다, 맨날, 맨날맨날, 허구한 날
 모래=시새(細沙)
 만지다=맨지다, 맨쳐
 망치다=망거트린다
 메우다(補)=메꾼다
 목욕=미역
 모통이=모서리, 귀통이, 모통가리
 물가(水邊)=물개
 모(隅)=모소리, 모설캥이, 모텡이, 모탱이
 무릅=무르팽이, 무루팡
 멍청이=맹초, 멀대, 멍텅구리, 천치, 두필스므자, 밥통, 쑥맥, 얼가니
 며느리=메누리
 모양=모냥, 꼴새
 미장이=토역쟁이
 머리=대가리, 대갈빠리, 대갈통, 머리통
 목=목통, 먹통, 모가지, 모강댕이
 물레=물래

메밀=메물
 멸치=메루치
 마디(節)=매디, 매덩이, 매덩기
 마굿간=외양간, 오양간
 바로(卽)=금방, 금새, 바루
 벌써=금새, 금방
 별로=벨루
 비로소=인제서, 인제
 배=배지, 배따지, 배통
 빨리=쉬, 얼릉
 반갑다=방갑다
 부스럼=부시럼, 혼디
 북풍(北風)=북새
 북잡하다=북작거린다, 봄빈다, 어지럽다
 벼락=베락
 바위(岩)=바우
 벼랑=낭떠러지기, 된비알, 절벽 배수가 되지 않는
 곳=시궁창, 개굴창
 부인(夫人)=마누라, 마나님, 안식구, 처 기집, 에펜내
 뺨=뺨, 빠다구, 벌테기, 벼슬=베실
 뺨=뺨, 뺨다구,
 골치=골머리, 골통
 변소=뒷간, 재간
 부엌=복
 반찬=간, 경거니
 바퀴=바꾸
 방망이=방맹이
 보=보재기
 복숭아=복사
 벼(稻)=베
 스물(二十)=시물
 섭섭하다=서운하다
 시시하다=지시하다
 삶다(湯)=쪼다
 손가락=송꾸락
 삼킨다=생킨다, 생켜
 속다=쑥다
 수군거리다=쑥떡거리다, 쭈군대다
 쏜다=업지르다, 쏙썩른다, 붓는다

서리(霜)=뒹내기
 소나기=썰내기
 소죽=쇠물
 시장=장
 새댁(新婦)=새댁, 새색씨
 서모(庶母)=스모, 작은어머니
 시동생=데렌님
 시집보낸다=여원다
 쓸개=썰개, 씨래, 이을
 소변=소피, 오줌
 사립문=싸립문, 삼작문
 시렁=실렁, 선반
 사다리=사닥다리
 석유=세기
 싹(芽)=아구
 사마귀=사마구
 어둡다=침침하다
 세(稅)=구실, 추렴
 찜지=쌔미
 시체(屍體)=신체
 어찌면=우쨌, 우쨌면, 아마 아무렴=암
 겨(왕겨, 쌀겨)=게
 어째서=우쨌, 우쨌면
 어떻게든=우쨌면, 하여튼
 예쁘다=이쁘다
 옮긴다=왕긴다
 우박=유리, 누리
 언덕=언턱(∼바지), (∼배기)
 웅덩이=웅탱이
 어제(昨日)=어저께
 옛날=잇날
 이제=곰방, 금방, 막, 금새, 시방
 어른=어르신네
 언청이=언챙이, 껌보, 허챙이
 안경(眼鏡)=앵경
 얼굴이 얇은 사람=곰보(∼딱지), 얇음배기
 입자=권
 오금=오금치, 꼬뱅이
 이마=마빠구니, 정수리

입=아가리, 아구통, 주둥이, 주렁이, 주둥아리
 아궁이=아궁지
 올가미=올개미, 옹무
 오디(桑木實)=오동
 외(蓼)=오이
 은행=으능
 일흔(七十)=이른
 옥수수=옥시기
 음지(陰地)=웅달, 음달
 여치=유치
 아궁이=아궁지
 연극=심과
 짹새게=얼른, 냉큼, 언능, 찢듯, 팔딱, 빨랑
 지나치게=원체, 워낙
 자주=자꾸, 자꾸만, 종종
 스스로=제절루, 제대루, 멋대루
 조금=쪼끔
 정강이=정갱이, 앞정갱이
 좀처럼=여간해, 좀채
 짜다=짜갑다
 잠깐=금방, 얼른, 금새
 지금=금방, 금새
 쪽(編則)=편, 짹
 중국 사람=찌놈, 때국놈
 장님=봉사, 쇠경
 장사꾼=장똥뱅이, 장사치
 절름발이=절뚝배기,
 장독대=장독간, 장팡
 종기=발치, 빼두라지, 부시럼, 혼디
 진달래=창꽃
 짐작=대중
 조=스숙
 잠자리=잠아리
 지세(地稅)=땅 구실
 저울=겨울
 제사(祭祀)=지사
 지팡이(杖)=지팡이
 집신=집석, 집세기
 처음(初)=흙

채운다=매꾼다, 메운다
 천동(天動)=천둥
 측면(側面)=여분데기, 여패(옆에), 저태(곁에)
 천연두=손님
 참외=채미
 초생달=손톱달
 참기름=챙기름
 키(곡식의 티를 날리는 기구)=치 탄탄하다=튼튼하다, 똥똥하다, 땡땡하다
 터지다=타지다, 타개지다
 티끌=검부락지, 검불, 검부러기, 거풀, 티겍지, 티개비
 턱=터거리, 턱주거리
 털=터러구니
 토끼=퇴끼
 표면=겹줄, 겹데기, 꺼풀, 거죽
 포대기=퍼데기
 폭=포고지
 하필=해필
 흔하게=호니
 혀(舌)=세, 셋바닥
 회오리=회루
 훗날(後日)=이답에 후재, 담날
 형(兄)=성
 허수아비=정애비
 힘(力)=심
 힘줄=심줄
 학질=하루거리
 홍역=호녁
 호주머니=글딴
 화로=화리
 호밀=호귀리
 회충(蛔蟲)=거시
 호미(鋤)=호맹이
 환갑(還甲)=한갑, 항갑
 허리(腰)=잔대이
 함지=함치

제 2 장 문화 유산

제 1 절 유물 유적

1. 경순군주의 묘(慶順君主의 墓)

소재지: 금사면 장흥리 장흥사지 남쪽 기슭

경순군주(慶順君主)는 소현세자(昭顯世子: 효종대왕의 형)의 셋째 딸로 1643년에 태어나 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었고 효종이 자기 딸같이 길렀고 14살 되던 해에 황창부위 변광보(黃昌副尉 邊光輔)에게 출가하였다. 황창부위 변광보가 후사가 없이 일찍 죽어 청상이 되었는데 임금이 이를 애석하게 여겨 장흥사(長興寺)와 그 주변의 전토를 하사하였다. 경순군주는 그 후 30여년을 홀로 살다가 1697년 55세를 일기로 죽었다. 황창부위는 처음에는 영평(永平:지금의 포천) 갈현에 초장(初葬)하였다가 1686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장(移葬)하였으며 1698년에 경순군주와 합장을 하였다. 곡장(曲牆)이 둘러 있고 상석(床石), 동자석(童子石) 2, 문관석(文官石) 2, 망주석(望柱石) 2, 양석(羊石) 2가 각각 전면 좌우에 배열되어 있고 좌측으로 묘비가 있는데 서계(西溪) 박세형(朴世亨)이 찬(撰)하고 설서(設書) 박필명(朴弼明)이 썼다.

2. 궁리 석탑재(宮里 石塔材)

소재지: 금사면 궁리 전 107번지

궁리 마을 앞 고진엽(高鎭燁) 씨 밭에 흩어진 탑재(塔材)를 모아 놓았는데 1층 탑신(一層塔身)만 완전하고 기단부(基壇部)와 2층 탑신(二層塔身) 이상은 파괴되어 그 모양을 짐작하기 어렵고 옥개석(屋蓋石) 2개와 보주(寶柱)가 불완전한 채로 얹혀 있다.

궁리(宮里)는 이 마을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이 곳에 궁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궁리(宮里)는 궁말, 발림, 뒤밀 등 3개의 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이 석탑은 궁말 앞 밭 가운데 있다. 석탑이 있는 밭에서는 지금도

많은 와편이 출토될 뿐 아니라 특히 쇠를 녹인 찌꺼기가 나오고 있어 이 곳에서 쇠를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있는 마을(발림) 뒤의 야산과 주변 경작지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와편이 나오고 있어 과거에 여러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서쪽의 야산은 회미하진 하나 산전체가 계단식으로 인공을 가한 흔적이 남아있고 주변 바위에도 인공을 가한 흔적이 보인다. 궁말 앞 1km 지점에는 삼신당(산신당이라 부름)이 있고 탑재 바로 앞은 연못들이라 하여 옛날에 연못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 석탑 옆에서 수년 전에 밭이 세 개 달린 솔을 발굴하였다고 한다. 또 기록에 의하면 서기 22년(온조왕 40) 말갈군이 군사를 일으켜 술천성(述川城: 금사 이포)을 침범했고, 신라 무열왕 7년(660, 백제 의자왕 20)에 백제를 멸하고 지금의 금사면에 술천성을 쌓고 고구려의 세력을 몰아내는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그 후 신라 군제상 지방 군단인 10정 중에 골내군정을 여주에 진주케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 천녕현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의 금사면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이 있고 군단이 주둔하였으며 현령이 상주하기 위해서는 치소(治所)와 관아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금사면내에 관아와 치소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궁리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궁리에 관아나 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기천서원(沂川書院)

소재지: 금사면 이포리 26 - 1

지정번호: 민속자료 제 75 호

소유자: 남양 홍씨 문중

규모: 858m

기천서원(沂川書院)은 1579년(선조 12)에 여주목사 박승임(1562~1623, 영의정, 밀양부원군)이 지방 유림들과 논의하여 여주 내의 마생동(馬生洞)에 사우(祠宇)와 강당(講堂) 6間을 짓고 마암서원(馬巖書院)이라 불렀다가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복구하지 못하고 선조 41년(1608)에 본부사림(本部士林)의 소청(疏請)에 의해서 복원을 도모하여 이포(梨浦)의 현 위치로 이건(移建)하면서 본래

의 문경공(文敬公)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만을 봉안하였던 것을 1611년(광해군 3)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치재(耻齋) 홍인우(洪仁祐)를 並享 또는 配享시켰다. 복원 역사(復元役事)가 1609년(광해군 1)에 시작되어 3년만에 사우(祠宇) 3間과 東·西齋 각 5間이 이룩되어 7년되던 1615년(광해군 7)에 강당(講堂)과 來室 5間에 이어서 창고(倉庫), 주사(住舍)가 각 2間, 그 외에 사삼문(祠三門), 강당문(講堂門), 재문(齋門) 등을 모두 갖춘 방대한 서원의 규모가 갖추어졌다. 또 이 役事와 工費는 본군 출신 재경 사대부(在京士大夫)와 본향 유림(本鄉儒林)이 능력에 따라 獻金하고 私奴와 관청의 연호군(烟戶軍), 장흥사의 승려들이 협력하여 役事を 다 마친 후에 官奴 5명과 전답 1結 반(약 5천 여평)을 서원의 위토(位土)로 하고 전수비 일체(奠需費一切)를 관청이 부담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서원 유생 성유격(成汝格) 등 50 여명이 서원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있었던 해라 사액(賜額)을 받지 못하고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다시 상소하여 사액(賜額)을 청하니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상용(金尙容: 안동인, 號는 仙源)이 임금에게 주청하여 기천서원(沂川書院)이라 사액(賜額)되었다. 그리하여 사우(祠宇)를 숭도(崇道), 동재(東齋)를 보인(輔仁), 서재(西齋)를 관선(觀善), 강당(講堂)을 경의(敬義), 사문(祠門)을 경행(景行), 원문을 입덕(入德)이라고 하였다. 그 후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선생을 포함한 5賢을 追配하여 모두 8位の 位牌를 모셨다. 추후에 奉安된 다섯 어른은 1661년(현종 2)에는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 1708년(숙종 34)에는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 충렬공(忠烈公) 홍명구(洪命耆), 1802년(순조 2)에는 문간공(文簡公) 홍명하(洪命夏)를 추향하였다.

1871년(고종 8)에 흥선대원군(興善大院君)의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국 18현(東國 18賢)의 사우(祀宇)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을 모두 철폐할 때 이 서원도 함께 폐지되어 서원의 향사(享祀)가 중지되어 오다가 1936년에 8현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복원하였다. 서원의 위전(位田)이 없어 고통을 받던 중 향교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향전(享田)으로 하고 모재(慕齋) 후손의 향전 헌납(享田獻納)으로 약 2,300평 정도의 위전(位田)이 마련되었다. 6·25 전쟁으로 거의 훼손된 것을 유림들의 성금으로 유지되다가 1978년 민유진과 유림들의 성금으로 개수

복원하여 모현사(慕賢祀)로 불렀다가 그 후 1987년 도비와 군비 6천만원을 들여 사우(祠宇) 1동(10.2평), 내삼문(內三門) 1동(3.04평), 담장 65m 등을 복원하였고, 이듬해에 동·서재(東·西齋) 2동(6.8평), 외삼문(外三門) 1동(3.05평), 강당(講堂) 1동(10.21평), 담장 90m를 복원하여 기천서원(沂川書院)으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4. 대월암(對月庵)

금사면 장흥리 상두산(象頭山) 안에 있었던 암자(庵子)로 장흥사(長興寺)의 속사(屬寺)였고 장흥사(長興寺)가 폐사(廢寺)됨에 따라 함께 없어졌다.

5. 도곡리 석불좌상(道谷里 石佛坐像)

소재지: 금사면 도곡리 산 6번지

일명 새낭굴 미륵불이라 부르는 것으로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북향하여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있으며 머리는 나발(螺髮)이며 육계(肉髻)는 낮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귀가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8면으로 된 대석의 육면에는 보살상(菩薩像)이 있는데 둘레는 4.1m 높이는 1.8m이고 연화대좌(蓮花臺座)는 직경 1.6m 높이 1.0m이다. 현재에는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 조각의 일부가 풍우로 마멸되어 있다.

6. 도미사(道美寺)

고려 시대 금사(金沙)에 있었던 사찰로 언제 무슨 이유로 폐사가 되었는지, 그 터가 어디쯤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둔촌(遁村) 이집(李集)이 여주에서 우거할 때 이 절에 있으면서 독서하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 목은(牧隱)에게 드리는 시(詩)로

上瀨扁舟一葉浮梵王宮在碧江頭黃驪西北吾歸處準擬春風共勝遊

그 외에 10여수가 전한다.

7. 묘련암(妙蓮庵)

금사면 이포리 각씨산(却氏山)에 있던 사찰로서 조선말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8. 묘운암(妙雲庵)

금사면 장흥리 상두산(象頭山)에 있었던 절로 숙종 때까지의 기록에는 있으나 그 후는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9. 박득중(朴得中)의 묘

소재지: 금사면 소유리

본관은 밀성, 함양옹주(정종대왕의 딸)의 시아버지

10. 범사정(泛槎亭)

금사 이포리에 있던 정자로 모재 김안국이 벼슬에서 물러나 뒤 내려와 거처 하던 곳인데 폐허가 되었다.

11. 봉서정(鳳棲亭)

광주 이씨 시조인 둔촌(遁村) 선생이 고려의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라보며 비분강개한 회한을 안고 그 때까지 봉직하던 정삼품의 벼슬 판전교사사의 벼슬을 버리고 천녕현으로 내려와 천녕사와 봉서정을 짓고 주경야독과 논시강학하며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며 포은·목은·야은을 비롯한 척약재(惕若齋) 김구용, 우현보 등과도 교류했으며 특히 포은 정몽주 선생은 봉서정의 둔촌 선생을 탐방하여 국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소멸되어 폐허가 되었는데 정자를 광주 이씨 후손인 송암 이형재 선생 등이 발의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현재의 이포 수부촌에 1996년 6월 16일에 복원하였다.

12. 삼성암(三姓庵)

금사면 장흥리 상두산(象頭山)에 있었던 암자(庵子)로 승선암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본래 장흥사(長興寺)의 속사(屬寺)였는데 장흥사(長興寺)가 폐사(廢寺)된

에 따라 함께 없어졌다.

13. 삼선당(三仙堂)

일명 삼선당(三仙堂)으로도 불리우는데 금사면 이포리 192번지(면사무소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에 있는 침벽루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고려말에 건립되었다. 동민의 안녕과 무환을 비는 수호신인 천녕 최씨 시조 부부를 제사하는 집이며 이곳에 봉안된 수호신의 묘는 이포리 188번지(삼선당으로부터 오른쪽 끝 언덕)에 있는데 표석에는 「통정대부최공수상지묘(通政大夫崔公秀象之墓)」라고 쓰여 있으며 승정 9년 병자에 수립하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 우왕 2년 병진년 4월에 양주 회암사의 고승 나옹이 밀양의 영원사로 옮길 때 여주에 이르러 한강의 뱃길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선주들은 모두 승선을 거절했으나 최씨는 흔쾌히 탑승을 승낙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데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 자세히 본 배 양편에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밀어서 순식간에 목적지인 천녕에 도달하였다. 점심에 선부들이 생선을 끓여 먹는데 스님이 생선국을 같이 먹자고 하니 ‘중도 고기를 먹느냐?’ 하며 주지 아니하였으나 최씨와 나누어 함께 먹고 난 후 선미에 가서 대변을 보는데 산 생선이 나와 꼬리를 치며 활기 있게 물 속으로 돌아났다고 한다. 날이 저물어 선주 최씨네 집에서 자는 데 모기가 많아서 잠자리가 불편하였는데 스님이 묘방으로 퇴치한 후 500여 년 동안에는 모기가 없었다고 한다. 나옹이 주인 최씨의 정성에 감사하여 최씨에게 소원을 물은 즉 명당 묘지 한자리만 잡아 달라고 하니 지금의 묘 자리를 잡아주면서 여기에 묘를 쓰고 나서 차마 소리가 들리면 후손들은 이 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문화가 발달하고 길이나 차량이 통행하자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에 그 후손들은 모두 이포를 떠났고 묘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현재 그 후손인 최수만씨 한 집만 살고 있으며 그 당시 나옹 선사가 집고 다니던 지팡이를 쫓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은행나무가 되어 현재까지 잎이 무성하여 많은 은행이 달리고 있다.

14. 서희 장군 묘(徐熙 將軍 墓)

소재지: 산북면 후리 산 53 - 1번지

지정번호: 지방기념물 제 36호

규모: 묘역(492m: 130평), 봉분의 높이(2.9m) 둘레(15.44m)

묘의 형태는 고려 묘제의 특색으로 2단의 장대석을 두른 장방형의 묘로 앞에 2개의 상석과 석등이 있으며 묘 좌우에 문무석 한 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 전방 150m 지점에는 아버지 필(弼)의 묘소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묘소가 있는 상산에 노적봉이 있고 앞산이 쥐 형상이어서 이 묘소가 좋은 곳이 못된다고 하였으나 묘와 상산 사이에 고양이 바위가 있어 묘를 썼다고 한다. 묘역 시설로는 재실1동, 신도비, 관리자 주택 1동이 있으며 도로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1978년 서희 장군 묘역 정화 사업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희는 태조 25년(942)에 이천 출신인 서필의 아들로 태어났고 서필은 광종의 묘정에 배향된 고려의 대관이다. 960년(광종 11)에 과거에 급제하여 광평성의 원외랑이 되었고 그 후 내의성시랑으로 전임되었다. 972년(광종 23)에 10년간 두절되었던 송과의 국교가 재개될 때 사행으로 송에 갔었다.

15. 술천성(述川城)

성(城)이 있는 금사면(金沙面) 이포리(梨浦里)는 원래 고구려의 술천군(述川郡) 또는 성지매(省知買)라 하였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시작하면서 신라 무열왕 7년 백제를 멸하고 지금의 금사면에 술천성을 쌓고 고구려의 세력을 몰아내는 전초 기지로 삼았다. 백제 유민들의 반항이 강렬하고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치열한 공방전에도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 보장왕 22년 고구려 장수 뇌음신(惱音信)이 말갈 장수 생해(生偕)와 함께 수차에 걸쳐 백제 유장들과 싸웠으나 신라는 끝내 술천성을 지켰다. 이 곳은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바로 건너편에 파사성과 주변이 한눈에 보이는 요새로서 정상 부분에 토성의 흔적과 성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앞으로 발굴 조사가 된다면 삼국 문화의 요소가 중첩되는 사료가 발굴될 것이라 사료된다.

16. 육우당(六友堂)

옛 문헌에 천령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현재 그 원래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이 당(堂)은 고려 공민왕 때의 학자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안동인, 1338~1384)이 고려(高麗)와 명(明)의 국교가 난관에 부딪히자 행례사(行禮使: 사신)로 명나라에 들어가다가 요동에서 체포, 남경으로 압송되어 명제(明帝)의 명령으로 대리(大里)로 귀양간 뒤에 천령(川寧: 여주)에 와서 육우당(六友堂)을 짓고 은거하다가 이 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색이 기문(記文)을 짓고 정추(鄭樞, 호는 원옹: 圓翁, 우왕의 사부: 師傅)가 부(賦)를 지었다. <제영과 지기 참조>

17. 윤개(尹漑)의 묘(墓)

소재지: 금사면 하호리

<인물편 참조>

18. 장흥사지(長興寺址)

소재지: 금사면 장흥리

현재 금사면 하호리와 장흥리 일대를 합쳐서 옛날에는 장흥동이라 하였으며 지금의 장흥리 근처에는 안가가 없고 절만 있었다고 전한다. 이 곳 주민들은 마을 뒤의 상두산(象頭山) 정상(頂上)을 대월암(對月巖)이라 한다. 이 대월암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를 승선암(僧仙庵)이라고 하며 왼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를 절골(寺谷)이라 한다. 이 절골의 마을 입구에 옛 절터가 남아 있는데 이 절터를 장흥사지(長興寺址)로 보고 있다.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는 이 사지에는 40m 정도의 석축과 2개의 장대석, 주춧돌로 보이는 인공을 가한 10여 개의 돌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어 이 자리가 절터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절골에는 비구승이 거처하는 장흥사가 있었고 승선암 쪽에는 비구니(여승)들이 거처하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장흥사는 거처하는 승려만도 300명이 넘고 매끼마다 쌀 씻는 물이 절 밑 10리까지 뻗었다고 하

는 대사찰이었으나 이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황창부위 변공 광보의 묘를 쓰게됨에 따라 근처에 절이 있음으로서 묘지 주변이 시끄럽다하여 어명으로 철거되었다고 한다. 홍천면 읍드리(현재 홍천면 효지리) 일대가 모두 장흥사의 불양답(佛養沓)이었다 하며 여기에서 추수되는 쌀이 해마다 3,000석이 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곡가는 장흥사측의 곡간문을 열고 단음에 따라 조절될 정도로 이 절의 규모와 부가 컸었다고 한다. 현재 이 사찰에서 도곡리를 거쳐 읍드리로 가는 지름길의 흔적이 남아있다. 절골에는 사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도(浮屠)를 안치했던 가로 120cm, 세로 60cm 정도의 받침돌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밑에서 유물을 찾기 위하여 파헤쳐 놓아 현재는 뒤집혀져 있다. 이 돌 밑에서 이상한 병 5개가 나왔다고 한다. 또 이 부도(浮屠)는 현재 일본 우에노 공원에 있는데 표면에 장흥사(長興寺)라는 명문이 각자(刻字)되어 있다고 한다. 한일합방 후 일본인들이 이 부도를 가져가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운반을 시도하였으나 중량이 커서 실패한 끝에 결국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통나무를 밑에 깔고 굴려서 운반하여 갔다 한다. 승선암 골짜기에는 옛날의 절터로 보이는 자리에 돌절구가 반쯤 묻힌 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분명하나 그 위치가 민간인이 살만하던 곳으로 보이지 않음으로 여기에도 옛날에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여승들이 거쳐하던 암자가 이 곳에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또 장흥사지의 500m 정도 위쪽에는 약천암이 있는데 이 암자는 앞서 말한대로 황창부위 변광보의 묘를 쓰고 장흥사를 철거할 때 업(業)이 은신처를 찾아 이 암자쪽으로 도망갔다하여 이 업의 은신처로 이 암자를 지었다 하며 두 사람의 비구니와 함께 권만행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절 주변에는 유명한 약수가 있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약수를 마시고 목욕하기 위하여 왔었다고 하며 또 이 암자의 법당에는 약 700년쯤 되는 부처를 모시고 있는데 이 부처는 옛날 장흥사에 있던 것을 이 암자로 옮긴 것이라 한다. 그 규모와 연대로 미루어 보아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처는 활석(곱돌)으로 조각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2-3중으로 도금을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좌고(座高) 150cm 정도의 반가상으로 이마에는 보석을 박았던 자

리가 있으나 보석은 없어지고 지금은 모조품이 대신 박혀 있다. 장흥사지 앞에는 직경 1m 정도의 우물이 있는데 장흥리에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는 장흥리 주민의 식수로 사용하였던 우물로 동네에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우물물이 뒤집힌다고 한다. 또 겨울에 이 우물이 마르면 그 해 여름에 가물어서 농민들이 물걱정을 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마을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장흥사 중들이 죽으면 화장하는 곳이었다는 중서낭골(燒僧谷)이 있다. 여기에는 가로 150cm, 세로 60cm 정도의 자연석이 아닌 정으로 다듬은 돌이 있는데 이 돌 위에서 중의 다비식(茶毘式: 화장)을 행하였다 한다. 이 돌 주변에 100여 평 정도의 터를 다듬은 흔적이 있고 이 돌 자체가 주변의 암석과는 다른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 이 계곡의 명칭에서 유래하듯 중의 다비를 행하였던 곳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전하여 오는 것들로 미루어 보아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 또한 컸던 것으로 짐작되나 언제 누구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폐사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19. 주어사지(走魚寺址)

산북면 하품리 문바위 계곡에서 약 500m지점 위에 있다. 여기에서 해암대사(海巖大師)라 명명한 석종부도 1기가 발견되어 현재 여주 향토사료관에 보관중이다.

20. 주록리사지(走鹿里寺址)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산 96의 19 산록(山鹿)에 있다. 부근에 기와편과 자기(磁器)의 파편(破片)이 흩어져 있고 또 주초석 및 석탑의 파편으로 생각되는 가공석이 여러 개 산재하고 있어 고려 공민왕 때의 사찰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전성기에는 천여명의 승려가 거주하여 쌀 씻은 물이 장흥리까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고 부근에는 현재 수백년 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21. 최시형의 묘(崔時亨의 墓)

소재지: 금사면 주록리 산 96 - 16

지정번호: 향토 유적 제 8 호

소유자: 김기봉

최시형(崔時亨)은 조선 말 동학의 제2대 교주로서 초명은 경상(慶翔), 호는 해월(海月)이다. 본관은 경주(慶州)로 종수(宗秀)의 아들이다. 일찌기 고아가 되어 조지소(造紙所)에서 일하다가 1861년(철종 12)에 동학에 입교하여 1863년 제1대 교조 수운대사 최제우(崔濟愚)의 뒤를 이어 제2대 교주가 되었다. 동학이 탄압 받던 시기에 관헌의 눈을 피해 안동, 울진 등지로 전전하여 포교에 힘썼고, 1871년(고종 8) 이필제가 교조의 신원을 요구하는 민란을 영월에서 일으켜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가중되어 소백산 암굴로 피신하였다가 그 뒤 영월을 거쳐 인제에 가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고, 이어 단양에서 『용담유사』를 발간하는 등 동학의 경전을 완성하였으며,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정국이 소란하여 동학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자 조직 강화에 힘써 전국에 육임제 조직을 확립하고 육임소를 설치하여 종교로서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1892년에는 손천민, 손병희 등의 주장에 따라 충청도관찰사에게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탐관오리의 숙청을 요구하는 글을 보냈으나 묵살당하자 다음해 2월 제2차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고, 박광호를 소두로 하여 각도의 동학 대표 40여명을 보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고 대궐 앞에서 3일 동안 시위를 전개하여 왕으로부터 해산을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받고 해산하였으나 교조의 신원이 늦어지자 제3차 교조신원운동을 계획하고 보은 대도소에 전국 교도들의 집결을 명령하는 한편 교조의 신원과 부패관리의 처단 및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척왜양창의의 기치를 들고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하려 하였다. 이에 조정은 선무사 어윤중을 파견하여 면담을 통하여 선처를 약속하였다. 우선 경상도관찰사 조병식, 당장 윤영기 등의 탐관을 파면시키자 자진하여 해산하였다. 최시형은 교조신원, 부패관리 처단, 척왜양창의의 기치 아래 추진되던 모든 시위 운동에 일체의 폭력 사용을 금하도록 시달하였으나 1894년(고종 31)에 전봉준이 동학

혁명운동을 일으키자 동학의 수령으로서 이에 호응하여 북접 산하 동학도를 쫓아다니며 청산에 집결시켜 회덕의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으나 관군과의 충돌을 피해 우선 해산시켰다. 동학군이 관군을 격파하여 요구 조건의 이행을 약속 받고 동학군을 해산시켰으나 일본군의 상륙과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전봉준이 9월에 제2차 봉기를 주도하자 북접 접주들에게 총 쏘기를 명령 10여 만의 병력을 인솔하여 논산에서 남접군과 합세하였다. 동학 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혼성군에게 연패하자 영동·청주로 피신했다가 1898년 원주에서 송경인에게 被逮되어 서울로 압송 후 사형을 당하였다. 6월 5일 이종훈 등이 광희문 밖에 가매장된 시신을 수습하여 밤길을 달려와 이곳에 장사를 지냈다. 1907년에 고종의 특사로 신원되었다.

묘 주위는 호석을 둘렀으며 묘 앞 중앙에는 대리석 상석, 향로석, 축대석을 마련했고 우측에는 옥개석과 장방형 비좌를 갖춘 대리석 묘비가 서 있다. 묘비는 1980년 3월 21일 천도교 해월신사 묘비건립위원회에서 세운 것으로 이선근이 짓고 양재한이 썼으며 김한의 제자로 되어 있다. 비신은 높이 2.12m, 두께 47cm 이다.

22. 침류정(沈流亭)

고려 말기의 명재상 염재신(廉悌臣)이 있었다. 공민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고 우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 크나큰 공훈을 남겼고 또 그의 딸이 신비(愼妃)가 되어 벼슬은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 수상)에 오르고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졌는데 그 아들 염흥방(廉興邦: 호는 동정: 東亭)이 고려 조정의 요직으로 있으면서 당시의 상대적인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폭정과 횡포에 대립하다가 한때 파직되어 예천으로 유배(流配)되었다가 석방되어 서울 가까운 천령(川寧: 여주)에 와 있으면서 천령 금사리(川寧金沙里: 현재의 금사면 금사리) 강변에 당(堂)을 짓고 당호(堂號)를 침류정(沈流亭)이라고 편액하고 있으면서 목은(牧隱) 이색(李穡)에게 기문(記文)을 받았다. 금사에서 은거하다가 석방된 후에 벼슬에 재등용된 후 권세로써 조반(趙半)의 토지를 몰수하는 등 불의를 저지르다가 이른바 조반의 투옥사건이 일어나 종내는 처형을 받

고 가산이 몰수되었으며 처자(妻子)는 종(奴)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바쳤으니 이 침류정(沈流亭)의 주인은 끝나고 정각(亭閣)은 오랜 세월 뒤에 폐허가 되었다. < 제영과 지기 참조 >

23. 침벽루(枕碧樓)

이포리 산 192번지 남한강 연안에 옛날 나옹선사가 쫓고 다니던 지팡이를 쫓은 것이 썩어 나서 자랐다는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약 200m 정도 올라가면 침벽루라 불리우는 큰 누각이 있다. 많은 향유(鄉儒)들과 인근각처에서 모여드는 시인묵객들이 여강과 그 위를 나르는 백로들의 모습을 보고 이태백과 두자미에 버금가는 명시를 많이 남겼다. 일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왜병들이 여주에서 목선을 타고 와서 이포(천녕:川寧)를 공격하러 온다는 정보를 탐지한 우리 의병들이 침벽루 근처에 은신하여 진을 치고 왜군을 섬멸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현재의 침벽루는 원래의 모습은 아니고 1994년에 군비 5,000 만원을 들여 복원한 것인데 목조 건물이 아닌 시멘트로 복원한 것이 아쉽기만하다.

24. 포초골 미륵불 좌상(彌勒佛 坐像)

소재지 : 금사면 외평리 64-2
지정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35 호
소유자 : 최주희
재 료 : 화강암
시 대 : 미상

포초골 또는 외평리 미륵불(彌勒佛)은 소발(素髮)의 머리 위에 3단으로 치석(治石)된 사각형의 갓을 얹어 놓았다. 둥글고도 복스러운 얼굴에 둥근 눈썹과 살며시 감은 눈·큰 코·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문 입에는 옅은 미소가 담겨져 단정한 느낌을 주고 이중 턱 밑에 굵고 짧은 목에는 삼도(三道)가 명확하고 넓게, 반듯한 양 어깨에는 통견(通肩)이 좌우로 흘러 내렸고 가슴은 풍만하며 탄력성이 있다. 좌우 팔의 표현과 무릎 위에 살며시 얹혀진 우수(右手), 그리고 앞으

로 구부러진 손바닥, 자연스럽게 인지(人指)와 중지(中指) 사이에 끼워 올린 듯한 옷의 무늬가 두겹게 조각되어 양 무릎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대한 체구의 미륵불상(彌勒佛像)이 안치된 대좌(對坐)에는 연화문(蓮花紋)이 조각되어 있고 하대석(下臺石)은 중대석(中臺石)에 맞추어 마루를 놓았으므로 그 형태를 알 수가 없고 대성사(大成寺)라는 근래 새로 지어진 암자에 안치되어 있다. 이 미륵불(彌勒佛)의 제조 연대와 유래는 대좌(對坐)에 아무런 각자가 없어 알 길이 없으며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근에 거찰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뿐이다. 불상의 제조 연대는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경 24년 화주 유학 전석원 화주 참봉 이창운 기묘 윤월(嘉慶 24年 化主 幼學 田錫元 化主 參奉 李昌云 己卯 潤月)이라 각자된 비석이 파손된 채로 발견된 일이 있으며 이 외에도 유래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많았으나 일본인이 모두 운반하여 갔다고 한다. 이 석불의 전체 높이는 2.48m, 폭은 1.64m이고 대성사 대웅전은 정면 3間, 측면 2間の 맞배집이며 산신각은 정면 2間, 측면 2間の 팔작집이다.

25. 홍명구의 묘(洪命耆의 墓)

소재지: 금사면 이포리

<인물편 참조>

26. 홍병기의 묘(洪秉箕의 墓)

소재지: 금사면 이포리

<인물편 참조>

27. 홍중보의 묘(洪重普의 墓)

소재지: 금사면 이포리

<인물편 참조>

제 2 절 인 물

1. 김구용(金九容) : 1338년(충숙왕 복위 7)~1384년(우왕 10)

고려 시대의 학자로 초명은 제민(齊閔), 자는 경지(敬之), 호는 척약재(惕若齋)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상락군(上洛君) 묘(昴)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 16세로 진사(進士)가 되었고, 그 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덕녕부주부(德寧府注簿)를 거쳐 민부의랑겸성균직강(民部議郎兼成均直講)이 되었다.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成均館)이 중영(重營)되자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尙衷)·이숭인(李崇仁) 등과 함께 정주학(程朱學)을 일으키고 척불양유(斥佛揚儒)의 선봉이 되었다. 친명파(親明派)로서 1375년(우왕 1)에 삼사좌윤(三司左尹)으로 있을 때 이숭인(李崇仁)·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 등과 북원(北元)에서 온 사신의 영접을 반대하다가 죽주(竹州)에 유배되었다가 1381년(우왕 7)에 다시 풀려나와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가 되었고 이듬해 대사성(大司成) 이어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가 되었다. 고려와 명의 국교가 난항에 부딪치자 1384년 행례사(行禮使)로 명나라에 가던 중 요동(遼東)에서 붙잡혀 남경(南京)으로 압송된 뒤 대리(大理)로 유배되어 가다가 여주 천녕현(驪州 川寧縣)에서 병사하였다.

2. 김안국(金安國) : 1478년(성종 9)~1543년(중종 3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이다.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참판(參判) 정국(正國)의 형으로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501년(연산군 7)에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1503년(연산 9)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고 이어 박사(博士)·부수찬(副修撰)·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1507년(중종 2)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장령(掌令)·예조참의(禮曹參議)·대사간(大司諫)·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지내고 1517년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어 각 향교에 소학(小學)을 권하고 농서(農書)·잡서(蠶書)의 언해(諺解)와 벽온방(辟瘟方)·창진방(瘡疹方) 등을 간인(刊印)하여 보급하였다. 1519년 을사사화(乙巳士禍)때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가 있어 화

는 면하고 파직되었으며, 1537년에 다시 기용되어 예조판서(禮曹判書)·대사헌(大司憲)·병조판서(兵曹判書)·좌참찬(左參贊)·대제학(大提學)·찬성(贊成)·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다. 1541년 병조판서(兵曹判書)로서 천문(天文)·역법(曆法)·병법(兵法)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수태(水苔: 물이끼)와 저(楮: 닥나무)를 화합하여 태지(苔紙: 종이)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고 이 생산을 권장하였다.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주장했으나 급격한 개혁에는 반대하였다. 성리학(性理學) 뿐만 아니라 천문(天文)·주역(周易)·농사(農事)·국문학(國文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관직에서 물러나서 여주로 내려와 여생을 마쳤으며 인조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고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이천의 설봉서원(雪峯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등에 제향되고 있다.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며 저서로는 『모재집(慕齋集)』 『모재가훈(慕齋家訓)』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이 있다.

3. 윤개(尹愷) : 1494년(성종 25)~1566년(명종 2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옥(汝沃), 호는 회재(晦齋) 또는 서파(西坡)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현감(縣監) 계손(季孫)의 아들이며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저작(著作)·이조좌랑(吏曹佐郎)·중종의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거쳐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었으나 한어(漢語)에 능한 까닭으로 외직에 좌천되는 것으로 그쳤다. 그 후 다시 등용되어 필선(弼善)·예조정랑(禮曹正郎)을 역임하다가 1536년(중종 31) 김안로의 배척으로 창성(昌城)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풀려 나와 소윤에 가담하였다. 1545년(명종 1)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예조판서로 윤원형 등과 대윤(大尹)의 제거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이 되었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두 차례 다녀왔으며, 1548년(명종 3)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으며 1551년에 우의정, 1558년에 좌의정이 되었으나 이량(李樑)의 배척을 받아 면직당하였다. 이량(李樑)이 제거된 후 다시 복직하여 1563년 영평부원군(鈴平府院君)에 진봉되어 한장(扞杖)을 하사받고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하였다. 선조

가 즉위하자 을사 원흉으로 규탄 받아 사직되자 벼슬을 버리고 천녕 소장리(川寧 昭章里: 여주 금사)에 은거하여 여생을 마쳤다. 훗날 신원(伸冤)되어 복관되었으며 시호(諡號)는 충의공(忠毅公)이며 금사면 하호리에 묘소가 있다.

4. 이 전(李 旆) : ?~1624년(인조 2)

조선 시대의 반란자 본관은 고성(固城)으로 팔(适)의 아들이다. 1623년 인조 반정 때 아버지와 공을 세웠으나 김류(金瑬) 등의 반대로 등용되지 못하여 당대의 풍류객이라는 13학사들과 교류하며 시국을 논하고 시주로 세월을 보냈다. 1624년 2월 문회(文晦), 허통(許通) 등이 이괄의 부자가 반란을 도모한다고 고변하였으나 왕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다만 팔의 진중에 머물러 있는 이 전(李旆)을 체포하여 사실을 밝히게 하였다. 한때 고변 내용이 무고임이 밝혀져 고변자들이 투옥되었으나 부원수(副元帥)로 영변에 있던 팔이 사자가 아들을 체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들을 죽인 후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각지 관군을 무찌르고 서울을 점령했으나 증강된 관군에 패하여 아버지와 함께 이천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죽었다.

5. 이식(李植) : 1584년(선조 17)~1647년(인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고(汝固), 호는택당(澤堂)이다. 본관은 덕수(德水)로 좌의정(左議政) 행(荇)의 현손(玄孫)으로 안성의 아들이다. 1610년(광해군 2)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1613년 설서(說書)를 거쳐 1616년 북평사(北評事)가 되었고 이듬해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나 1618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은퇴하였고 1621년에 여러 차례 출사의 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왕명을 어겼다고 하여 한 때 구금되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이조좌랑(吏曹佐郎)에 등용되었고 이듬해 부수찬(副修撰)·응교(應敎)·사간(司諫)·집의(執意) 등을 역임하였다. 1625년 예조참의(禮曹參議)·동부승지(同副承旨)·우참찬(右參贊) 등을 지냈다. 다음해 대사간(大司諫)에 승진하였으며 우부승지(右副承旨)·대사성(大司成)·좌부승지(左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633년에는 부제학(副提學), 1638년에는 대제학(大提學)·예조(禮曹)·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고, 1642년에는 김상헌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한다 하여 심양에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구치(拘置)되었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1643년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대사헌(大司憲)·형조(刑曹)·이조(吏曹)·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하다가 1646년(인조 24)에 관직이 삭탈되었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문하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특히 한문학에 정통하여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1686년(숙종 12)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고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에 제향되고 있다.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고 저서로는 『택당집(澤堂集)』 『초학자훈증집(初學字訓增輯)』 『두시비해(杜詩批解)』가 있고 편저로는 『수성지(水城志)』 『야사초본(野史初本)』 등이 있다.

6. 이언적(李彦迪) : 1491년(성종 22)~1553년(명종 8)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또는 자계옹(紫溪翁)이다. 본관은 여주(驪州)로 생원(生員) 번(蕃)의 아들이다.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1514년(중종 9) 생員으로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가 되었고, 설서(說書)·이조정랑(吏曹正郎)·장령(掌令)·밀양부사(密陽府使)를 거쳐 1530년에 사간(司諫)이 되었다. 이 때 김안로를 등용하려는 논의를 반대하다가 그들 일당에 의하여 숙청된 뒤 경주의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서 성리학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1537년 김안로 일파가 거세되자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으로 시강관(侍講官)에 겸직 발령되고 교리(校理)·응교(應敎) 등을 거쳐 1539년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어 선정(善政)을 베풀어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고 당시의 재변(災變)에 대해 올린 대책문이 뛰어나서 병조참판(兵曹參判)·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올랐다. 부제학(副提學)·이조(吏曹)·예조(禮曹)·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고 1545년(인종 1)에 인종이 죽자 좌찬성(左贊成)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국사(國事)를 관장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올랐다. 그 해 모친의 병이 위독하여 사직했으나 원상으로 있을 당시 대윤(大尹)인 윤임 일파의 처벌에 미

은적이었다는 탄핵으로 사직되었다. 1547년(영종 2)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小尹)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良才驛) 벽서사건(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계(江界)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죽었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로서 이황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유배 생활 6년 동안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속혹문(續或問)』, 『구인록(求人錄)』 등을 저술하였으며 글씨를 잘 썼다. 선조 때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광해군 때 문묘(文廟)에 종사되었고 시호(諡號)는 문원(文元)이고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이 있다.

7. 이원익(李元翼) : 1547년(명종 2)~1634년(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이다. 본관은 전주로 익녕군(益寧君:太宗의 아들)의 손자이며, 함천부사(咸川副守) 억재(億載)의 아들이다. 1564년(명종 19)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초임되었고 저작(著作)·봉상시직장(奉常寺直長) 등을 역임하였다. 1573년(선조 6)에 전적(典籍)으로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냈고, 이듬해 예조(禮曹)·형조좌랑(刑曹佐郎)·황해도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575년 정언(正言)이 되었으며, 다음해 지평(持平)·형조정랑(刑曹正郎), 1577년 예조정랑(禮曹正郎)·군기시판관(軍器寺判官)·헌납(獻納) 등을 거쳐 사간(司諫)에 오르고 1582년 동부승지(同副承旨)·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호조참의(戶曹參議)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도승지 박근원(朴謹元)의 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1587년(선조 20) 안주목사(安州牧使)에 기용되어 1591년 대사헌(大司憲)·호조(戶曹)·예조(禮曹)·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내면서 도총관(都摠管)·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겸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안도도순찰사(平安道都巡察使)가 되어 왕의 피난길을 선도하고 군사를 모아 적군과 싸웠다. 1593년 평양 탈환작전에 공을 세우고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서 순찰사(巡察使)를 겸하다가 1595년 우의정에 오르고 제도도체찰사(諸道都體察使)·영원수부사(領元帥府使)를 겸직하여 작전의 대임을 맡았으며 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1598년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죄로 복인

의 탄핵을 받아 삭직된 유성룡을 변호하다가 사직하고 은퇴하였다. 이 해 영의정(領議政)에 재임하였고 1600년 이항복이 사직하자 좌의정이 되었으며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로 나갔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이듬해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가 되어 전후의 질서 회복에 공헌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08년(광해군 1) 영의정(領議政)에 재임되어 수차 사의(辭意)를 표하였으나 허락되지 않던 중 1615년 폐모론을 반대하다 홍천(洪川)에 유배되었다가 1619년에 풀려나왔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영의정(領議政)이 되고 인목대비(仁穆大妃)가 광해군의 처형을 명하였으나 이에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하였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공주로 호종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세자를 전주에 시종하였고 이어 훈련도감도제조(訓練都監都提調)를 지내다가 치사(致仕)하였다. 1608년에는 대동법(大同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여 경기·강원도로 확대,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시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고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있을 때 군병방수제도(軍兵防守制度)를 1년에 3개월 복무를 2개월로 단축하여 법제로 채택하게 하였다.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남인(南人)에 속하였으나 성품이 원만하여 정적(政敵)들에게도 호감을 받았고 서민적인 인품으로서 오리정승(梧里政丞)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화가 전한다.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시흥의 충현서원(忠賢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제향되고 있으며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오리집(梧里集)』, 『적오리집 오리일기(續梧里集梧里日記)』 등이 있다.

8. 정엽(鄭曄) : 1563년(명종 18)~1625년(인조 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 또는 설촌(雪村)이다. 본관은 초계(草溪)로 진사(進士) 유성(惟誠)의 아들이며 영의정(領議政) 이산보(李山甫)의 사위이다. 이이(李珥)·성혼(成渾)·송익필(宋翼弼)의 문인으로 1583년(선조 1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고, 1587년에 감찰,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냈으며 1593년 황주판관(黃

州判官)으로 왜군을 격퇴하여 그 공으로 중화부사(中和府使)가 되었다. 수찬(修撰)·장령(掌令)·서천군수(瑞川郡守)를 역임하다가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 급고사(急告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사성(司成)이 되었고 수원부사(水原府使)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1602년(선조 35) 성혼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좌천되었다. 1606년 성주(星州)·홍주(洪州)의 목사(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 초 예조참의(禮曹參議)·대사성(大司成)·승지(承旨)·판결사(判決使)·대사간(大司諫)·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등을 지냈다. 1612년(광해군 4) 도승지(都承旨)로 왕을 경연(經筵)에 자주 나가도록 하였고 1614년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다. 1617년 폐모론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양양부사(陽陽府使)로 나갔다가 1년만에 사퇴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대사성겸동지경연원자사부(大司成兼同知經筵元子師傅)가 되어 학제를 상정했었고 여러 번 타직에 전임되었으나 언제나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함으로써 이 때부터 대사성(大司成)을 겸직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좌참찬(左參贊)·좌부빈객(左副賓客) 등을 지냈다. 시호(諡號)는 문숙(文肅)이고 저서로는 『수몽집(守夢集)』·『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가 있다.

9. 조명교(曹命敎) : 1687년(숙종 19)~1753년(영조 2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이보(彝甫), 호는 담운(澹雲)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판결사(判決事) 하기(夏奇)의 아들이다. 1717년 (숙종 43)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71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1) 검열(檢閱)로 재직 중 신임사화(辛壬士禍)로 파직당하고 1724년(영조 즉위)에 정언(正言)으로 등용되어 소론 타도에 앞장섰다. 교리(校理)·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쳐 1747년(영조 23)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성(大司成)·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이조참판(吏曹參判)·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을 거쳐 백천군수(白川郡守)·성천부사(成川府使)·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를 지내고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이르렀다. 덕행과 학문으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많은 비문을 썼다.

10. 조명종(曹命宗) : 1677년~1743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예경, 호는(?)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능주목사에 이름

11. 조문수(曹文秀) : 1590년(선조 23)~1647년(인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서예가로 자는 자실(子實), 호는 설정(雪汀)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주부(主簿) 경인(景仁)의 아들이며 좌상 심수경(沈守慶)의 외손이다. 1609년(광해군 9)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1624년(인조 2) 현감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으며 특진관(特進官)을 겸하였다. 1645년(인조 23) 좌승지(左承旨)에 이어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승진하고 하녕군(夏寧君)에 봉하여졌다. 1647년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부임하여 임지에서 죽었다. 글씨를 잘 썼는데 증손 하망(夏望)의 『하령군행장: 夏寧君行狀』에 “처음에는 송설(松雪)을 좋아하였으나 외형미에 치우친 점이 싫어 왕희지의 법을 참작하니 체기(體氣)가 농수(濃粹)하였다.”라 전한다. 이즈음부터는 조선 초기에 성행하던 조맹부체를 따르는 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필적으로 해행(楷行)의 이군산방기(李君山房記)와 『근역서회: 謹域書彙』에 실린 행초(行草)의 오언절구 등을 보면 대체로 해서(楷書)는 송설을 따랐고 행초(行草)는 법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석으로 영변의 보현사편양당대사비(普賢寺鞭羊堂大師碑), 고양의 좌상유홍비(左相俞泓碑) 등을 썼다. 그림과 시에도 능하였으며 저서로는 『설정시집(雪汀詩集)』 6권이 있고, 『대동서법(大東書法)』 등에 필적이 모각되어 있다.

12. 조봉진(曹鳳振) : 1777년(정조 1)~1838년(헌종 4)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의경(儀卿), 호는 신암(愼庵)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윤대(允大)의 아들이다. 1802년(순조 2)에는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805년(순조 5)에는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필선(弼善)·이조참의(吏曹參議)·대사성(大司成)·승지(承旨) 등을 역임한 뒤 1823년 한성부

관윤(漢城府判尹)을 거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있을 때 둔전의 세제문제(稅制問題)와 관련하여 조정의 시책에 대한 전라도 지방의 민폐유무(民弊有無)를 보고하는 일에 있어 왕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고 명천·진도 등지에서 유배 생활을 보내다가 2년 뒤에 풀려 나왔다. 183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일이 있으며 현종 때 공조판서를 거쳐 대사헌(大司憲)·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뒤 관직을 떠났다.

13. 조석여(曹錫與) : 1813년(순조 13)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치경(釋敬), 호는 하강(荷江)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윤대(允大)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용진(龍振)이고 어머니는 신작(申緯)의 딸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석우(錫雨)의 아우이다. 1848년(헌종 14년) 참봉으로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서 경상도암행어사(慶尙道暗行御史)를 지낸 뒤 1866년(고종 3)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고, 1867년 강릉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를 원만하게 처리하였다. 1871년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되었고 1876년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 다음 해에는 도총관(都摠管)직을 겸하였고 1877년 동지사겸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79년에 다시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고 한성부관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우참찬(右參贊)·대사헌(大司憲)·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겸임하였다가 1884년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86년에 시강원좌빈객(侍講院左賓客)에 이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항상 준법정신이 엄격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10여 차례나 임명되었으며, 학문에 출중하여 제학(提學)에 10여 차례 임명되었고 당대에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14. 조석우(曹錫雨) : 1810년(순조 10)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치용(稚用), 호는 연암(烟巖)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윤대(允大)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용진(龍振)이고 어머니는 신작(申緯)의 딸이다. 1835년(헌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852년(철종 3)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올랐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하여 지방을 다스리면서 1854년 고조부 하망(夏望)의 문집인 『서주집(西州集)』을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윤증(尹拯)에 대한 제문 속에서 송시열(宋時烈)을 비난한 글을 삭제한 것이 말썽을 빚어 유생의 줄기찬 항의로 파직당하여 중화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1857년 석방되어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올랐으며 그 뒤 1867년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글씨에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5. 조석형(曹錫亨) : 1794년(정조 18)~1852년(철종 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치겸(稚謙)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아버지는 현감(縣監) 시진(始振)이다. 진사(進士) 홍진(鴻振)에게 입양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이름

16. 조원진(曹遠振) : 1746년(영조 22년)~1796년(정조 2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구(汝久)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문과에 장원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사간원 대사간에 이르렀다.

17. 조운대(曹允大) : 1748년(영조 24년)~1813년(순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원(士元), 호는 동보(東浦)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대사간(大司諫) 하망(夏望)의 손자로 명준(命峻)의 아들이다. 1779년(정조 3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예문관 검열(檢閱)을 지낸 뒤 초계문신(抄啓文臣) 당하관 중에서 문학에 뛰어나 시험관으로 뽑힌 문신으로 뽑혔다. 1784년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를 거쳐 이조전랑(吏曹銓郎) 직에 있을 때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명식(李命植)이 송시열(宋時烈)의 후손을 능관(陵官)으로 추천한 일이 있었는데 홍국영(洪國榮)과 결탁한 역적 송덕상(宋德相)의 친척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그 부당성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파직시켰고 그 뒤 소론의 명장으로 활약하였다. 1786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재직 시에는 대사헌(大司憲) 윤승렬(尹承烈)·대사간(大司諫) 박천행(朴

天行)과 함께, 앞서 세도를 부리다가 이미 제거된 홍국영 사건에 관련된 당시의 관계자 후속 처벌 문제를 놓고 삼사복합상소(三司伏閣上疏)를 올려 일대 옥사를 일으키는 한편 자신도 한때 파직되었다. 그 뒤 이조참의(吏曹參議)·대사성(大司成)·경원부사(경원府使)·대사간(大司諫)을 역임하고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대사간(大司諫) 유강(柳綱) 등과 함께 채제공(蔡濟恭)을 탄핵하는 삼사연계(三司聯啓)를 올린 일도 있었다. 1794년 이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뒤 1801년(순조 1)에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다. 이 때 실록청당상(實錄廳堂上)의 임무를 맡아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동지 겸진주사(冬至兼陳奏使)의 정사로 청나라에 가 신유사옥(辛酉事獄)에서 처형된 청나라 신부 주문모(周文謨)에 대한 전후의 자세한 사정을 전하고 돌아왔다. 1804년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어 대사간(大司諫)·형조판서(刑曹判書)·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이조판서(吏曹判書)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809년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있을 당시 함흥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약 1,800호의 민가가 재난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명천·경성·회령·부령 등지에서는 14일간에 걸친 대지진이 일어나 가옥과 성채가 무너지고 사람과 가축이 압사하는 커다란 천재지변을 겪기도 하였다. 1811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어 이조판서(吏曹判書) 재직중 다시 동지사(冬至使)의 임무를 띄고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 한성판윤(漢城判尹)을 거쳐 1813년 판돈녕부사가 되었다. 저술로는 『최열사전』 등이 있고 서예에도 능하여 강릉오봉서원경적비(江陵五峰書院經蹟碑) 등의 작품이 있다.

18. 조전주(曹殿周) : 1640년(선조 13)~1696년(인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만취(萬聚), 호는 낙제(樂齋)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상치(尙治)의 후손으로, 한영(漢永)의 아들이며, 한상(漢相)에게 입양되었다. 1600년(선조 33) 進士試에 합격한 뒤 1612년 음보로 출사하여 담양부사에 이르렀다.

19. 조중중(曹鍾中) : 1763년(영조 39)~1816년(순조 1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叔正, 호는 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進士 및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림을 거쳐 충청감사(忠淸監事)에 이르렀다. 사호(賜號)는 학헌(鶴軒)으로 묘는 개군면(介軍面) 추읍산에 있다.

20. 조하망(曹夏望) : 1682년(숙종 8)~1747년(영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아중(雅仲), 호는 서주(西州)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금구현령(金溝縣令) 헌주(憲周)의 아들이다. 1711년(숙종 37)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722년(경종 2) 장릉참봉(章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그 뒤 동몽교관(童蒙敎官)·공조좌랑(工曹左郎)·의령현령(宜寧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736년(영조 12년) 庭試文科에 장원한 뒤 판결사(判決事)·승지(承旨)·참찬관(參贊官)을 지내면서 어사를 파견하여 양정(量丁)을 살필 것을 청하였다. 1739년 승지(承旨)를 지내고, 1741년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이듬해에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하여 경포대(鏡浦臺)를 중수하면서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그 문장으로 격찬을 받았다. 1745년 승문원부제조(承文院副提調)를 지내고 이듬해에 영월부사(寧越府使)로 전임하였다가 병으로 사퇴하였다. 경사(經史)에 밝고 시부(詩賦)가 뛰어났으며 술을 즐겨하였다. 저서로는 『서주집(西州集)』이 있다.

21. 조한영(曹漢英) : 1608년(선조 41)~1670년(현종 1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수이(守而), 호는 회곡(晦谷)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공조참판(工曹參判) 문수(文秀)의 아들이다. 이식(李植)·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27년(인조 5)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 유생이 되었고 1637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639년 지평(持平)이 되었고 그 이듬해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수륙군(水陸軍)의 원병을 청하는 동시에 원손(元孫)을 볼모로 심양(瀋陽)에 보내라고 요청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져 척화파(斥和派)인 감상헌(金尙憲)·채이항(蔡以恒) 등과 함께 1641년 심양(瀋

陽)으로 잡혀가 심한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으나 굶히지 않았으며 옥중에서도 김상헌의 시문집인 『설교집(雪窖集)』의 편찬을 도왔다. 1642년 심양에서 의주 감옥으로 옮겨졌다가 풀려났다. 1645년 지제교(知製敎)·헌납(獻納)을 역임하고 지평(持平)이 되었을 때 강빈사건(姜嬪事件)에 반대하다가 왕의 뜻에 거슬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1650년(효종 1) 부수찬(副修撰)이 되었고 이어 헌납(獻納)이 되어 시독관(侍讀官)을 겸하였으며 교리(校理)가 되어 조귀인(趙貴人)의 소생인 숭선군 정(崇善君 徵)·낙선군 축(樂善君 瀾) 등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고 건의하였고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사간(司諫)에 임명되었으며 집의(執義)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당상관에 승서되었다. 1654년 승지(承旨), 1656년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이어 대사성(大司成)·이조참의(吏曹參議)·승지(承旨)를 역임하였고 다시 대사성(大司成)이 된 이듬해 <감고신성잠(鑑古愼成箴)> 180구를 지어 효종으로부터 표피(豹皮)를 하사받았다. 이후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여러 차례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지내면서 남인인 윤휴(尹鑄)의 등용을 적극 반대하다가 면직된 일도 있었다. 현종이 즉위한 1659년에는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으로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호조(戶曹)·예조참의(禮曹參議)를 역임하고 다시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을 때 김정(金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한때 벼슬을 떠났다. 1668년(현종 9)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고 이어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있다가 이듬해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나갔다. 그 뒤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내고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임명되는 동시에 하흥군(夏興君)에 봉하여졌으며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있을 때 상녀취첩(喪女娶妾)하였다는 이유로 이옥(李沃) 등의 탄핵을 받았다. 문장이 뛰어나 문집으로 회곡집이 있고 시조 2수가 전한다. 여주의 고산서원(孤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2. 홍만식(洪萬植): 1842년(헌종 8)~1905년

한말의 애국지사이며 자는 백헌(伯憲), 호는 호운(湖雲)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영의정(領議政) 순목(淳穆)의 아들이며 교관(敎官) 순경(淳敬)에게 입양

되었다. 1866년(고종 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뒤 검열(檢閱)·수찬(修撰)·집의(執義) 등을 역임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여주목사(驪州牧使)에 제수되었으며, 1884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생부(生父) 홍순목(洪淳穆)이 의복제도의 개정을 반대하다가 삭탈관직되자 같이 관직을 사직하였다. 같은 해 12월 동생 영식(英植)이金玉均(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자 생부(生父)인 순목(淳穆)은 자살을 하였고 그도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스스로 죄수이기를 정부에 청하여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의 무죄가 밝혀지자 다음 해에 방면되었다. 1894년 관직에 복직되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지방 제도 개혁 때 춘천 관찰사에 제수되어 여러 차례 부임하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 해 8월 일제에 의하여 민비(閔妃)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음독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4년 해주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 찬정(贊政)에 제수되었으나 사소(辭疏)를 글을 올리고 끝내 사양하였다. 또한 상소때마다 직함을 쓰지 않고 다만 ‘미사신(未死臣)’이라고 써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였는데 이는 ‘아직 죽지 못한 신하’라는 뜻이다.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유언에 장례를 처사례(處士禮)로 행할 것을 아들에게 당부하고 자결하였으니 이 때가 향년 64세였다. 이 부음을 들은 고종은 그 충의를 높이 평가하여 숭정대부참정대신(崇政大夫參政大臣)에 추증(追贈)하였고, 시호(諡號)를 충정(忠貞)으로 하였으며 일체의 장구(葬具)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복장(大韓民國 建國功勞 勳章 復章)이 수여되었다.

23. 홍명구(洪命耆) : 1596년(선조 29)~1637년(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노(元老), 호는 나재(懶齋)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졸옹(拙翁) 홍성민(洪聖民)의 손자이고 참의(參議) 홍서익(洪瑞翼)의 아들이다. 8세에 능히 시를 지으니 이항복(李恒福)·신흠(申欽) 같은 선비들이

칭찬하고 장차 큰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1619년(광해군 11)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죽할 뿐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은거하였다. 1620년(광해군 12)에 사헌부감찰겸 춘추관서기관(司憲府監察兼 春秋館書記官)을 제수받았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고 1621년(광해군 13)에 다시 예조좌랑겸 춘추관서기관(禮曹左郎兼 春秋館書記官)을 제수하니 이 때에는 부친의 권유에 굴복하여 출사(出仕)하였다. 1623년 仁祖反正 후에 등용되어 1625년(인조 3)에 부수찬(副修撰)이 되었고 1627년(인조 5)에 직강(直講)을 거쳐 교리(校理)·이조좌랑(吏曹佐郎)·좌부승지(佐副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633년(인조 11)에 우승지(右承旨)가 되었고 1635년(인조 13)에 대사간(大司諫)·부제학(副提學)을 거쳐 이듬해 평안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겸평양부윤순찰사(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兼平壤府尹巡察使)로 나갔다. 이 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지키다가 적병이 이미 평양을 지났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병(勤王兵) 2,0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남하(南下), 김화(金化)에 이르러 적의 대병을 만났다. 글을 지어 시자(侍者)에게 주어 노모에게 결별(訣別)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싸워 적 수백 명을 살상한 끝에 전사하였다. 이에 선봉 유림(柳琳)과 이일원(李一元)이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니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적을 이긴 싸움은 이 전투와 김준룡(金俊龍)의 광교(光敎)싸움 뿐이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다. 1650년(효종 1) 김화(金化) 고을 사람들이 순절한 터에 충렬사(忠烈祠)를 세웠고 1652년 의열(義烈)이라 사액(賜額)되었으며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 평양의 충정서원(忠正書院), 자산의 의열사(義烈祠)에 제향되었다. 순조 때 자손 병륜(秉輪) 등의 주청으로 체천(遞遷)하지 않는 은전이 내려졌다. 시호(諡號)는 충렬(忠烈)이다.

24. 홍명하(洪命夏) : 1608년(선조 41)~1668년(현종 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이다. 본관은 남양

(南陽)으로 병조참의(兵曹參議) 서익(瑞翼)의 아들이다. 1630년(인조 8) 생원(生員)이 되었고 1644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164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정언(正言)·교리(校理)·부수찬(副修撰)·헌납(獻納) 등을 지냈다. 그 뒤 1649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되어 부정한 관리를 적발함에 있어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1650년 (효종 1) 이조정랑(吏曹正郎)을 거쳐 1652년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승진하였고 이듬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 이어 대사간(大司諫)으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고 뒤에 이조(吏曹)·예조참판(禮曹參判)·부제학(副提學)·대사헌(大司憲)·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냈으며 약방제조(藥房提調)가 되었다. 1659년 효종이 승화하면서 삭직(削職)되었으나 다시 등용되어 예조(禮曹)·병조판서(兵曹判書)를 거쳐 1663년(현종 4)에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이듬해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와서 1665년 좌의정(左議政)을 거쳐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이듬해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왕을 힐문(詰問)하자 그가 나서서 엄정한 태도로 논격(論擊)하여 돌려 보냈다. 이 일로 왕은 그를 더욱 신임하였다. 그는 또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효종의 신임이 두터워 효종을 도와 북벌 계획을 적극 추진하였고 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 등 명신들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순조 때 여주의 기천서원(沂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기천집(沂川集)』이 있으며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25. 홍병기(洪秉箕) : 1869년(고종 6)~1949년

독립운동가이며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으로 호는 인암(仁菴)이다. 여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에 능통했으며 동학에 입교하여서는 교리를 연구하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동학혁명(東學革命) 때 선두에 서서 탐관오리(貪官汚吏)와 포악한 토반(土班)들을 물리치는데 노력하였다. 그 뒤 천도교 도사(道師)로 교세 확장과 구국 운동을 계속하였으며 국권 침탈 이후에는 조국의 광복과 항일 운동에 더욱 전념하였다. 조국의 독립 운동 기운이 점차

고조되던 1919년 2월 25일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고종의 국장을 배관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의 천도교 대표들과 만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을 전해 듣고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기로 결심하였다. 27일 재동의 김상규(金相奎) 집에서 오세창·최린(崔麟)·임예환(林禮煥)·권병덕(權秉億)·나인협(羅人協)·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煥)·홍기조(洪基兆)·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 등 천도교의 동지와 다시 만나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민족 대표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튿날인 28일 밤 재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 대표와 회합하여 다음 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대한 제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에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1926년 길림성에서 창당한 고려혁명당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가 일제에 붙잡혀 신의주 감옥에서 2년 간 복역하였다.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建國勳章 大統領章)을 추서하였다.

26. 홍성민(洪聖民) : 1536년(중종 31)~1594년(선조 2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시가(時可), 호는 졸옹(拙翁)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관찰사(觀察使) 춘경(春卿)의 아들로 여주에서 태어났다. 서경덕(徐敬德)·이황(李滉)의 문인으로 1561년(명종 16)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156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자(正字)·교리(校理) 등을 지냈다. 1567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대사간(大司諫)을 거쳐, 1575년(선조 8)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이르러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건너가 종계변무(宗系辨誣)에 힘써 명나라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 뒤 부제학(副提學)·예조판서(禮曹判書)·대사헌(大司憲)·경상감사(慶尙監司) 등을 역임하였다. 1590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에 책록되고, 익성군(益城君)에 봉하여졌다.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가 건저문

제(建儲問題)로 정철이 실각하자, 그 일당으로 몰려 복변인 부령으로 유배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특사(特赦)로 풀려나 복관되어 대제학(大提學)을 거쳐, 호조판서(戶曹判書)가 되었다가 부친상으로 사직하였다. 당시 신진사류의 지도급 인물이요, 윤두수(尹斗壽)와 함께 서인으로 유능한 선비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저서에는 『拙翁集』이 있다.

27. 홍순목(洪淳穆) : 1816년(순조 16)~1884년(고종 21)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세(熙世), 호는 분계(汾溪)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현규(顯圭)의 손자이고 승지(承旨) 종원(鍾遠)의 아들이다. 1844년(헌종 10) 증광별시(增廣別試)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수찬(修撰)을 지내고 1846년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뽑혔다. 1849년 헌종이 죽자 빈전도감도청(殯殿都監都廳)이 되고 부사과(副司果)를 거쳐 1858년(철종 9)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승진하였다. 1863년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이 해에 고종이 즉위하자 홍선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1864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고 1866년 이후 이조판서(吏曹判書)·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 여러 관직을 거친 뒤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1867년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하였고 1869년에는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 그는 당시 수구 세력 강경파의 거두로서 대원군이 실시한 척사양이(斥邪攘夷)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1871년 신미양요 때에는 로저스(Rodgers)제독이 미국 함대를 이끌고 광성진에 들어와 통상 교섭을 요청할 때 강경하게 척화를 주장하여 무력으로 대항케 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인 시정책(施政策)에 이르러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대원군의 세제 개혁, 즉 호포제(戶布制)의 실시에는 노골적인 반대를 하였던 것이다. 호포제는 원래 평민에게서만 거두었던 군포(軍布)를 호포로 개칭하여 양반에게도 징수토록 한 것으로 양반에게 출포(出布)를 명령했기 때문에 상민이 양반을 멸시하는 폐단이 생겼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양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었다고 하겠지만 일반 상민층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본다면 그는 대원군

의 맹목적인 추종자도 아니며 근본 정견이나 정책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것만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1872년 영의정을 거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으며 이듬해 최익현이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다른 대신 및 대간들과 함께 최익현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대원군이 실각한 직후 그 해 11월에 파직되었으나 다음 달인 12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직에 복직되었고 1875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1876년 일본이 통상을 요청하였을 때 척화론을 펼쳤으며 1879년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직하였고 다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1882년 3월 재차 領議政이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집권한 대원군 집정하에서도, 대원군이 실권한 이후에도 영의정(領議政) 직에 계속 유임되었다. 이 해 12월에 단행된 관제개혁 때 총리군국사무아문의 책임자를 겸임하였다. 1883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당오전의 주조(鑄造)를 주장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같은 해 5월 총리대신을 겸직하였으며 9월에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그는 대인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상황에 순응하여 보신을 피하되 정치 세력간의 능리형 양반 관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임오군란 때 대원군에 의해 영의정(領議政)에 복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왕과 척족의 세도가 교체되는 와중에서도 온전하게 처신하고 순조롭게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당시의 어느 정치 세력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하였으며 동시에 어느 세력과도 다투는 일이 없이 유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홍순목에 대해 관료적인 활용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개항이 일단 정책으로 정해지고 이후 제반 개화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그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직 생활을 영위한 그였지만 말년에는 아들의 일로 인하여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슬하에 두명의 남아를 두었는데 장남은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어 이 나라의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자결로 항거한 열사였다. 차남 영식은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동 인물로서 역적으로 처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홍순목은 관직이 삭탈된 것은 물론이고 국적(國賊)을 아들로 두었다는 수모를 감당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노신이 역자를 길러

천지에 죄를 얻었으니 한번 죽어서 어찌 속죄가 되리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후 그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복관되었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라 하였다.

28. 홍영식(洪英植) : 1855년(철종 6)~1884년(고종 21)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육(仲育), 호는 금석(琴石)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영의정(領議政) 순목(淳穆)의 아들이다.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과 함께 개화사상에 관심을 가졌고 개항 직후 박규수가 죽자 중인 의관(醫官)인 유흥기(劉鴻基·호는 大致)의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3년(고종 1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규장각의 정자(正字)·대교(待敎)·직각(直閣) 등을 역임하였다. 민영익과도 가깝게 지냈으며 1881년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조사(朝士)로 선발되어 일본의 육군을 주로하여 시찰하였다. 『일본육군총제(日本陸軍總制)』와 『일본육군조전(日本陸軍操典)』을 작성하였다. 귀국 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군무사부경리사(軍務司副經理事)가 되었으며 민영익과 함께 총무국을 담당하였다. 1882년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과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에 임명되었고, 부호군이 되어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수습에도 활약하였다. 이어 참의통리내무아문사무(參議統理內務衙門事務)·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를 역임하였고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다가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를 지냈다. 1883년 6월에는 그 전 해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에 따른 보빙사(報聘使) 전권대신 민영익을 수행하여 전권부대신으로 미국에 다녀와 11월에 복명(復命)하였다. 개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부터 개화당(開化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것 같다. 1884년에는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겸안무사(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兼按撫使)로 임명되었다가 곧 협판군국사무로 전임되고 병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그 해 3월에는 우정국총판(郵政局總辦)을 겸임하여 우정국 설립에 전력하였고 개국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김옥균 등의 개화당과 일본 세력이 모의하여 일으킨 갑신정변(甲

申政變)은 일본에 의지하여 친청온건개화파(親淸穩健開化派), 즉 이른바 사대당(事大黨)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의 수립을 시도한 것이었다. 홍영식은 처음에 신정부의 좌우영사겸우포장(左右營使兼右捕將)에 제수되었다가 곧 우의정(左議政)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정변이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개화당 지도층의 대부분이 일본에 망명한 것과는 달리 박영교와 함께 국왕을 호위하다가 청군에게 살해되었고, 아버지 순목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살하였다. 그는 문벌도 좋았고 성품도 온후하여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원(伸冤)되었으며 정1품대광보국숭록대부규장각대제학(正一品大匡輔國崇祿大夫奎章閣大提學)에 증직(贈職)되었고, 시호(諡號)는 충민(忠愍)이다.

29. 홍중보(洪重普) : 1612년(광해군 4)~1671년(현종 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백(遠伯), 호는 이천(梨川)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명구(命耉)의 3남이다. 1635년(인조 13)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 1641년 영릉 참봉(英陵參奉)을 거쳐 득직(得直)이 되었다. 1645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성산현감(星山縣監)을 지냈고 1650년(효종 1) 수찬(修撰)으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수원부사(水原府使)·도승지·대사간(大司諫)·대사헌(大司憲)·호조참판(戶曹參判)·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664년(현종 5) 지경연사(知經筵事)가 되었고 호조(戶曹)·병조판서(兵曹判書)·우참찬(右參贊)·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등을 거쳐 1696년에 우의정(右議政)이 되었다.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다.

30. 홍진(洪進) : 1541년(중종36)~1616년(광해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고(希古), 호는 인제(認齊) 또는 퇴촌(退村)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명유(名儒)인우(仁祐)의 아들이다. 1564년(명종 19)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70년(선조 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정자(正字)가 되고 검열(檢閱)을 역임하였다. 1573년 홍문록(弘

文錄)에 올랐으며 유선록(儒先錄)에 실린 조광조(趙光祖)의 시가 몇 수 안되었는데 5수를 찾아서 교서관에 보내어 이를 보완하였다. 이듬해 홍문관(弘文館) 박사(博士)가 되고 부수찬(副修撰)·정언(正言)을 거쳐 1576년 헌납(獻納)이 되었는데 너무 빠르게 승진하였다고 인협(引嫌)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함하였다. 1583년 용담현령(縣令)으로 나갔다가 1589년 응교(應敎)가 되어 때마침 여역(厲疫)이 만연하자 충청도에 파견되어 치제(致祭)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호군으로 어가를 호종(扈從)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오른 뒤 우승지(右承旨)·좌승지(左承旨)로 선조의 측근에서 뒷바라지를 하였다. 1593년 9월 환도(還都)하기에 앞서 ‘경중인(京中人)의 진휼(賑恤)에 전력을 다하라’는 특지(特旨)를 받고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임명되었다. 환도 후 염철사(鹽鐵使)를 겸임하여 경기·황해·전라도 해변의 소금을 전국 각지에 보내 기민(饑民)을 구제할 것을 진언하였다. 이듬해 진휼사를 겸하여 겨울 동안 동사자(凍死者)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왜적이 소장하였던 피복을 나누어 줄 것을 진언하였다. 1595년 대사헌이 되고 약방제조(藥房提調)를 겸하였고 이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兼 호조판서(吏曹判書)·예조판서(禮曹判書)·우참찬(右參贊)·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한 뒤 1600년 왕비 의인왕후(懿仁王后)가 죽자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가 되었다. 이어서 좌참찬(左參贊)·형조판서(刑曹判書)를 거쳐 1604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09년(광해군 1) 관상감 제조가 되었으나 복인이 집권하자 사퇴하였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고 시호(諡號)는 단민(端民)이며 저서로는 『퇴촌유고(퇴촌유고)』가 있다.

31. 홍치중(洪致中) : 1667년(현종 8)~1732년(영조 8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북곡(北谷)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득우(得禹)의 아들이다. 1699년(숙종 2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창릉참봉(昌陵參奉)·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으며 1706년(숙종 38)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

(檢閱)이 된 뒤 지평(持平)·헌납(獻納)·교리(校理) 등을 거쳐 1712년 북평사(北評事)로 차출되어 청나라 사신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데 참여하였다. 이어 대사간(大司諫)·승지(承旨)를 역임하고 경상도·전라도관찰사(慶尙道·全羅道觀察使)를 지낸 뒤 1719년 통신정사(通信正使)로 일본에 다녀와 부제학(副提學)·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으나 경종 때 집권 세력인 소론의 배척을 받아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출보(黜補)되었다. 영조 즉위 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발탁되었으며 병조와 형조의 판서를 거쳐 1726년(영조 2)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의 천거로 우의정(右議政)에 올랐는데 노론이면서도 소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는 반대하여 노론의 강경파로부터 기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았으나 탕평을 추구하는 왕으로부터는 신임이 두터워져 좌의정(左議政)에 승진되었다.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잠시 물러났다가 바로 복직되어 상위(上位)를 유지하였다. 1729년 조문명(趙文命) 등의 탕평파가 신임사화에 대한 시비의 절충을 꾀하자 노론4대신(老論四大臣)과 3수옥(三手獄) 관련자에 대한 신원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이를 지원하여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내리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어 영의정으로 승진하여 노론의 온건파를 이끌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탕평파가 주도하는 노·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권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 재정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 7년여 재상으로 있는 동안 공명첩 발매의 개선책을 주장하고 민생고의 원인이 되는 전화(錢貨)의 부족 해소를 위한 주전의 필요성과 순목(純木:무명베)의 통용을 역설하였으며, 함경도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 지역 출신 인물의 조용(調用)을 통하여 평소에 인심을 거둘 것을 요구하였다. 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역의 철폐를 전제로 한 호포법 등의 대변통에는 반대하고 호포법의 엄격한 운용과 철저한 호구 조사와 불필요한 서원의 철폐를 통한 모속양정(冒屬良丁)의 색출 등으로 양역 인구(良役人口)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하였다. 원만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노론은 물론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와도 친교가 깊었다. 이해에 밝고 타산에 빠르며 남과 모나지 않기 위하여 시비를 구별하지 않아 재상으로서 명절(名節)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제 3 절 전설과 민담, 민속

1. 천녕최씨(川寧崔氏)시조묘(始祖墓)와 삼선당(三仙堂)

금사면사무소(金沙面事務所)의 맞은편 약 300미터쯤 거리에 150미터 정도 높이의 야산(野山)이 있다. 또한 산의 동쪽 벼랑밑으로는 남한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인가가 밀집해 있다. 그리고 이 산의 북쪽 산록(山麓)에는 봉분 둘레가 15미터 가량되는 잘 손질된 묘소가 있는데 이 묘가 바로 천령최씨(川寧崔氏)의 시조(始祖)로서 통정대부 최공독상지묘(通政大夫 崔公禘象之墓)묘이다. <비문에는 승정9년 병자(1636)년에 세웠다고 새겨져 있음>

이 묘에서 남쪽으로 30미터쯤 내려가면 약 3평 가량되는 목조와가(木造瓦家)의 사당(祠堂)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름하여 삼선당(三仙堂)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당(祠堂)과 묘와는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으며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고승(高僧) 나옹선사(懶翁禪師)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600여년전 옛날 이 마을에는 최씨(崔氏)의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는데 서울을 오가며 낚은 거룻배 한 척을 가지고 남의 집을 운반하여 주며 그 품삯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하루는 서울로 짐을 운반해다 모두 부려놓고 광나루에서 이포로 되돌아 오려하는데 행색이 남루한 도승(道僧)이 뱃전에 와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라고 묻는다.

최씨 부자(父子)가 힐끗 도승을 쳐다보니 다시 공손히 두 손을 합장하며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에 최씨 부자가 말하기를 “이 배는 이포(梨浦)까지 갑니다.”라고 하니 마침 잘 되었다고 하며 도승도 마침 여주쪽으로 가는 길인데 좀 태워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이 배는 낚고 돛대도 파손되어 삿대와 노를 저으며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무척 더디게 간다며 다른 배를 알아 보라고 어느 선부(船夫)가 말을 했

다. 그러나 불교가 탄압을 받고 승려가 잘 대접을 못받던 시절이라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에 도승(道僧)은 더디게 가도 좋으니 제발 태워다 주기만을 간곡히 간청을 하여 어찌는 수 없이 여주까지 동승하게 되었다.

광나루를 떠난 배가 첩첩산중 계곡을 굽이 돌아 물살이 센 여울목을 거슬러 어느 종류에 도달했을 때 돛을 단 배보다도 어인 일인지 슬슬 노를 저어 가는데 배는 하늘에 뜬 구름을 비끼듯 술렁술렁 산굽이를 감돌아 미끌어지는 양 빠르게 떠가니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할 뿐 아무도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낮이 다 되어 배가 고픈 선부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배에서 잡은 생선으로 부리나케 국을 끓여 옹기종기 둘러앉아 점심을 먹게 되니 이때 동승한 도승(道僧)도 자리를 함께 하여 점심을 같이 들게 되었다. 최씨는 고의로 도승(道僧)을 시험하려고 생선국을 도승(道僧)에게 떠 주게 하였다.

도승(道僧)은 아무 거리낌없이 생선국을 받아 금새 한 대접을 다 비웠다. 이런 정황을 물끄러미 살펴보고 있던 한 선부(船夫)가 “스님도 생선국을 드십니까?”라고 도승(道僧)에게 물었다.

그때 의연한 자세로 도승(道僧)은 말을 했다. “누가 생선국을 먹었습니까? 나는 국을 먹었지 생선은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배설을 할 터이니 확인을 하시지요.”하고 배 뒤편에 있는 멍에 끝에 가서 배설을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전개되는데 도승의 배설물이 수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느러미를 힘차게 휘젓는 살아있는 생선으로 변하여 헤엄쳐 가는 게 아닌가! 눈이 휘둥그레진 동승자들은 비로서 도승(道僧)이 보통의 고승(高僧)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모두 공손히 예를 하고 정중히 모시었다.

어느 선부(船夫)가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승(高僧)곁으로 다가서더니 예를 하고 돛대도 없는 우리 배가 빠르게 잘 가는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고승(高僧)은 아무 말없이 지긋이 눈을 감고 엄주 헤아리던 손을 조금 지켜 들어 뱃머리를 손짓으로 가리킬 뿐 여전히 말이 없다. 다만 최부자(崔父子)와 선부(船夫)들이 우르르 뱃머리로 몰려가더니 어안이 병병하여 크게 놀라는 표정으로 번갈아 뱃머리 좌우편을 살펴본던 이들은 고승(高僧)에게 모두 앞드려

절을 하였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청룡(靑龍)과 황룡(黃龍)이 배를 힘차게 이끌어 가고 있는게 아닌가 ?

이들은 비로서 배가 이포(梨浦)에 당도하자 최씨부자(崔氏父子)는 각뚱이 고승(高僧)을 공경하여 하루를 모시었는데 그 고승(高僧)이 바로 나옹선사(懶翁禪師)였다고 하며, 동자(뺨가사리의 일종)의 배가 노란 것은 나옹선사의 대변색갈이 노란데서 연유되었다고 전해진다.

하룻밤을 잘 쉬고 고승(高僧)이 떠나기 전에 최씨에게 소원을 물으니 신후묘지(身後墓地)를 원케늘 일광지(一曠地)를 잡아 준 것이 오늘의 최공(崔公)의 묘소인데 묘 아래 차철(車轍)과 우마(牛馬)의 발굽소리가 나면 천녕최씨(川寧崔氏) 후손은 이포(梨浦)를 떠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후 도승(道僧)이 신흥사를 다녀 오면서 한양으로 가던중 부친상을 당한 최씨를 다시 찾아가 묘자리를 잡아주었다고 전해짐>

이렇게 하여 나옹선사(懶翁禪師)가 잡아준 묘자리가 천녕최씨(川寧崔氏)의 시조를 모신 지금의 묘자리라고 전해진다. 이 동네 노인들에 의하면 풍수지리상 이 묘자리는 돼지혈이라고 하며 바로 돼지의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 묘지가 있으며 입 부분을 현재의 면사무소 쪽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그 입과 머리 사이의 중앙을 통하여 도로가 나있다. 이천, 여주, 양평으로 통하는 이 지방의 간선도로가 된 것이다.

나옹(懶翁)이 예정한대로 도로가 나서 하루에도 수백대의 철마가 달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살던 최씨들은 이 지방에서 모두 떠나고 단 한집만이 살고 있으나 생활이 매우 곤란하여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외지로 떠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여 잘산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500여년전 나옹선사(懶翁禪師)가 한 말이 딱 들어 맞는다고들 한다.

이 묘지에서 30미터쯤 올라가면 산중턱 서남쪽으로 약 3평 가량의 사당(祠堂)이 있다. 이 사당(祠堂)안에는 한 노인의 화상이 있는데 누구의 화상이며 어떤 유래에 의하여 모시게 되었는지 알길이 없지만 오랜 세월동안 풍화에 시달린 듯 매우 퇴색된 것으로 보아 최씨묘와 관련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이포에는 현재의 면사무소 뒷편 속칭 수굿말이라는 곳에만 몇 호의 인가(人家)가 있었을 뿐 이 묘지 쪽으로는 인가(人家)가 없었다고 한다. 이포는 주변이 험한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육로는 험하였지만 바로 앞을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옛 부터 강을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하였었다. 도사(道士)가 묘자리를 잡아준 이후 인가(人家)가 늘어 마을이 형성되고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는 홍역, 마마 등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침범하지를 못했으며,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을 이룩하고 재앙과 질병을 막아주어 번창하게 한 것은 오직 이 명당(明堂)에 묘를 쓴 최씨의 시조(始祖)덕분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였다. 자연히 이 묘지는 신성시하고 숭배하게 되었으니 주민들은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즉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섬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삼선당(三仙堂)의 유래는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삼선당이 어느 때 세워지고 언제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나옹선사(懶翁禪師)의 전설로 보아 약 600여년전으로 추정해볼 뿐이다. <나옹(懶翁)은 고려말 공민왕의 왕사로서 1376년에 입적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600여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3000여명 이상의 마을사람들이 모여 소와 말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고 삼현육각(三鉉六角)으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었다고 하나 근래에 와서 점차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도 3년마다 한 번씩 전 부락민이 참석하여 제사가 이어지고 있다. 아마 산천 변화와 함께 저 흐르는 강물처럼 사회 분화의 한 과정으로 부락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점차 마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나옹선사(懶翁禪師)와 관련된 전설을 살펴보면 고려말, 조선 초에 신록사(神勒寺)에도 여러번 다녀갔고 고달사(高達寺)에 일시 우거한 일이 있으며 홍천 계신리 마애여래입상도 그가 배를 타고 지나면서 샅대로 그렸다고 하며, 또한 그가 이곳 북쪽 강가의 산에 심어놓은 지팡이가 자라서 컸다는 은행나무

가 지금도 여주군의 보호수로 남아있어 나옹(懶翁)의 이름과 함께 거인(巨人)의 체취가 이포 강변에 맴도는 듯 하다.

(여주군지(1989년 발행), 여주군 문화유적 참조)

2. 삼선당(三仙堂)의 전설

“여강(驪江)은 넓고 아득하여 용문산을 둘러는데 언덕 맞은편에 고기잡이 등불 먼 마을 있음을 알겠네.”라고 옛 시인 염흥방(廉興邦)은 읊조렸다.

바로 여주군 금사면(金沙面)은 본래 고구려 술천(述川郡)인데 옛지명이 일명 성지매(省知買)이다. 신라 때 기천으로 고쳤다가 고려 때 지금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질펀한 들녘과 높고 낮은 산의 험곡진 계곡을 가로지르며 천년 회역을 번가르듯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들녘이 삼선당(三仙堂)이 있는 언덕에서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 경관은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물들인 절경이다.

운치있는 산세와 덩수그러진 나무를 물그림자 지며 지저귀는 산새소리, 날아가는 물새소리 운율과 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려 고려의 시인 척약재(若齋) 김구용(金九容)은 외가 동네에 유배되어 와 육우당(六友堂)을 짓고 이르기를 “조각배 짧은 노로 가시사립 두들기니(片舟短도款紫門) 비오는 밤에 도리어 물위마음이 아득하구나(雨夜環迷水上村) 묻노니 금사가 어느곳이뇨(爲問金沙何處是) 숲을 새로 등불 깜박거리네(- 燈明暗隔林原)”라고 하였다.

밤 하늘에 작은 별들을 고요하게 물에 잠그고 흐르는 여강이 계신리 부처울의 마래여래상 앞을 미끄러지듯 흘러드는 듯 싶은 강 언덕에 삼선당이 있다. 이 삼선당(三仙堂)은 성황신, 산신(山神), 용왕신(龍王神)을 모셔 삼선당(三仙堂)이라고 하는데 <또는 천녕최씨(川寧崔氏)의 시조묘(始祖墓)의 전설과 관련하여 나옹선사(懶翁禪師), 천녕최씨의 시조(始祖), 산신(山神)으로 추측하기도 함> 옛날에는 어인 일인지 이 마을에는 재난과 병마가 끊이질 않아 사람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 특히 강원도 심산유곡(深山幽谷)에서 뗏목이 여울물을

돌다가 파선되어 인명 피해를 보기 일쑤이거나 또한 마마가 동리를 휩쓰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 마마에 희생되는 등 병마와 재난으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재난을 면하기 위해 당(堂)을 짓고 당제(堂祭)를 지내고 하는데 3년마다 삼현육각(三鉉六角)을 연주하며 고창(高唱)과 광대줄을 탔었다고 한다.

또한 각종 민속놀이도 행하면서 동민들이 부락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터전 벼랑에 오백년 된 노거수(老巨樹) 은행나무가 의연하게 지켜선 듯 하늘로 치솟아 홀려간 옛 역사를 한눈에 굽어보며 말해주는 양 무성하게 자라있다.

아득한 옛날 이곳을 뱃사람들이 뱃길로 오다가 이숙한 밤 이 근교를 지나노라면 어디선가 여인의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과 비단결을 찢는 양 애잔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음산한 부엉이 울음속에 어딘선가 피리소리가 들렸다가 끊기고 끊졌다간 이어지고, 잡초가 더부룩하게 자란 한여름에 더욱 그런 정황이 벌어지기 일수인 이곳은 흠칫 뱃사람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고 아련한 달밤이면 강언덕에서 소복한 여인의 구성진 곡성이 깊은 고요를 이지러뜨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케 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삼국시대 신라, 백제 등 국경의 변방이었으므로 무수한 전란(戰亂)에 고향이 된 영(靈)이 천상(天上)을 떠돌아 으스스한 이 지역은 삼국시대 중요한 요새(要塞)였다고 한다.

바로 이 지역이 이런 곳이었는데 나옹선사(懶翁禪師)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강변 기슭에다 꽂아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무성해진 후 이런 정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1469년 광주 대모산 현릉에서 세종대왕릉을 여주 영릉(英陵)으로 천장하고 전배(展拜)차 예종께서 머물렀다 간 곳이기도 한 동산 북서쪽 수굿말에는 천녕 최씨(川寧崔氏)네가 대종대가(太宗大家)를 이루고 살았었다고 한다.

어느날 대가집 앞을 지나던 도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머물러 서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가 혀를 차며 돌아서는 장면을 대가집 주인이 보았다.

주인은 안으로 급히 들더니 하인들을 불러 얼른 도사(道士)를 모셔 오도록 하였다.

하인들에게 안내를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서는 도사(道士)를 안방으로 정중히 모시고 주인은 인사를 드린 후 조금 전 대문 앞에서 혀를 차며 돌아선 연유를 묻게 되었다.

대답하기를 머뭇거리던 도사(道士)가 조심조심 입을 열어 말을 이어간다.

선대(先代)로부터 이 백에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는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여러서 선대(先代)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펄떡 머리에 떠오른다. 내심 “이거 큰 일을 저질렀군.”하며 도대체 저 도사(道士)가 누구이기에 남의 집 가풍(家風)의 흐름을 들여다 보듯 알고 있을까? 도사(道士)가 다시 묻는다. 전해 내려온 사연을 주인이 차근차근 말을 이어간다.

“어른들이 이르기를 물수(水)가 들어가는 성씨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집안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이 터전이 돼지혈이라 물수(水)자 들어가는 성씨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집에 같이 살면 그 복이 떠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냐고 도사가 말을 하니, 주인이 “그렇다”고 하며 “큰 일을 저질렀다.” 말을 이어간다. 이웃에 착실하고 일 잘하는 총각이 있어 머슴으로 두었는데 선대(先代)들이 일러준 말을 까맣게 잊고 삼년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총각이 바로 남양홍(洪)씨인데 삼수(汀)변에 한가지 공(共)자라 주인은 안절부절하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서성이다가 정신을 가다듬어 앞을 보니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금전까지 자리했던 도사(道士)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정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였다.

그후 덧없이 세월이 흘러 천덕봉(天德峰)의 정기가 솟은 삼선당(三仙堂)의 복이 홍씨(洪氏)네로 흘렀는지 대가집은 가세(家勢)가 기울어 이곳을 떠나고 점점 홍씨네 집안은 번성하더니 삼정승(三政丞)이 나왔다고 한다.

그로 인해 광나루의 관현들도 여주의 거룻배는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삼선당(三仙堂)이 있는 곳에 일본(日本) 관현이 신사(神社)를 세우려다 가족이 해를 입기도 했다는 삼선당(三仙堂)의 삼선(三仙)이 동리를 안주(安住)케 하며 지켜 삼정승이 났다고 전해진다.

〈여주문화원 발행(1985년) 여강문화 참조〉

3. 최장군 이야기

최장군이 있는데 호랭이 잡았어. 근데 어렵거던, 어려운데 여기와서 품을 팔
어. 최장군이 변명이지마는 상원 사는데, 여기와 품을 팔구 저녁 얻어 먹고 그
래구서는 가는 길에 그저 저 아랫 범실 하말에 지나가면 저기 저이, 저녁 먹구
거기 가서 똥을 눈데거던. 그래 최장군 똥바우래야. 거기서 똥을 앓아서, 근데
옛날에 게으른 사람이 짚시거나 삼어 친구 다녀 ? 나막신 하나 사 신으면 몇해
신으니깐 나막신 친구 다니지. 게 나막신을 친구선 똥바우에서 똥을 누는데 뭐
개 같은게 저 힐긔 지나가더래는군. 그래서 “이놈의 개가 원 뒤보는데 이게 퍼
떡거리냐.”구 꼬랑질 뱀다 날래게 흥켜 쥐니깐 용을 씌는데, 그래니 똥을 누다
말고 일어나나 우뚱게야. 다 누구서는 허리띠를 한손으루 붙잡고 한손으루 꼬
랑지를 뱀다 둘러치니깐 그 놈이 죽었단 말야. 그 이튿날 동네 사람더러 “내
오다 똥 누는데 개같은 놈이 땀비길래 꼬랑지를 쥐서 둘러메쳤는데 그게 뭐가
가보라”구 ,아 가보니깐 호랭이가 죽었더래야 커다란 “애 그놈 시킨 시구나” 그
래서 장정을 몇 모아가주구서는 그 바위동 위에 나막신을 해 친구 올라왔어선
뱃줄을 해가주군 잡아다려 봐라. 그놈이 사람의 힘 뭇을 가졌다. 그래 한 여나
몬이 잡아다녀두 꿈쩍두 안 하거든. 그래서 뭐 스무명인가 스물 다섯명이 잡아
댕기니까 들먹하더래야<조사자 : 나막신 친구 앓아요?> 응. “애 그놈이 장정
한 이십명 기운을 가졌다.” 그래더래.

그래서 인제 그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결국 죽을 제는 호랭이한테 물려서 죽
었대. 왜 물려 죽었느냐 하면은 저 주늑거릴 갔다 오는데, 주늑거리서 저 장흥
으로 소로길 다니는 게 있잖아. 거기서 술을 잔뜩 먹구서는 내려오는데 거 쇠
머리 음달이라는데 있거던, 장흥 위, 개울게, 거길 오니깐 호랭이가 내닫더니만
물구 넘어가더래. 참 잡아댕기더래야. 그래 저 놈은 인제 치 끝구 최장군은 인
제 안 끌려 갈라구 낭구 소낭구를 이렇게 석가래 같은걸 움켜 쥐니깐, 그게 뭉
척뽕히면서 잡아댕기거던 그래서 하 안와서 그 이튿날 찾아나섰는데 주늑거릴
간다구, 그래구선 안오니까는 주늑거릴 찾아갔는데, 장흥 지나서 쇠머리음달을
가니깐 한 댕개 뽕혔던게야 . 그따위 석가래 같은게. 그래 올라가 그 소낭

구가 뻑뻑하게 들어섰는데 몇 개 씨러진 걸 보구 올라가니까 거기서 죽었더라야 최장군이, 호랭이두 죽구 둘이 다 죽었더라야. 그 놈은 치끄느라구 고생을 하구 이진 안 끌려갈라구 소낭굴 잡아 땡기니깐, 거 여간 셔어. 소낭구가 뭉척 뭉척 뽑히니깐. <조사자 : 호랭이 엄척 컸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지 엄척 컸으니까. 그래 둘이다 죽었더라야.

4. 이포리 삼선당제(三仙堂祭)

여주군 금사면의 면소재지인 이포리에 있는 당(堂)에는 삼년에 한번씩 제사를 올리는데 이 당제(堂祭)는 군내의 당제(堂祭)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 당제(堂祭)를 지내면 인접부락에서 수천명이 몰려 조그마한 동리의 산이 온통 사람으로 한겹 입힌 듯 했으며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잡히고 줄타는 광대까지 불러들여 그 모습은 장관이었고 더욱 1주일씩이나 계속하곤 했다.

이러한 이포리의 당제(堂祭)는 흔히 산신(山神)을 주신(主神)으로 중앙에 모시고 좌우에 성황신(城隍神)과 용왕신(龍王神)을 모셔 삼선당(三仙堂)이라고 불러주는 당(堂)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당제(堂祭)는 음력 3~4월 경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열리는데 대개 오후 1시경부터 동리 사람들이 염출한 경비로 소머리나 통돼지 한 마리를 마련하고 각종 주과포(酒果脯)를 장만하여 지낸다.

이 당제(堂祭)는 신헌관(神獻官)은 금사면장이나 금사지서장이 되고 아헌관(亞獻官)은 이포리 이장이 되며 경헌관(經獻官) 동리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집사는(執事)는 동리의 연장자인 최병승옹이 맞는다. 제(祭)를 우선 초헌관(初獻官)부터 시작하여 아헌(亞獻), 경헌(經獻) 이 끝나면 축문(祝文)과 소지(燒紙)를 함께 불사르는데 이 축문의 내용은 산신(山神)과 성황신(城隍神)에 대한 기원과 축문으로 부락의 농사가 잘되고 상인들은 장사가 잘되며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부락의 발전을 비는 것으로 그때 그때 새로 작성한다. 이렇게 소지(燒紙)를 불사르고 나면 청원된 무당들이 축문굿을 한다. 이 축문굿은 지금도

3~5명씩 무당들이 와서 2일간이나 계속한다. 옛날에는 이 축원굿(祝願-) 1주일 간 계속해 부락의 전주민이 질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겼으나 현재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 2일간만 하는 것도 벅차다고 한다. 이 당제(堂祭)는 3년에 한번씩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는데 이 당제(堂祭)를 거르면 마을에 주과포(酒果脯)를 준비하여 제사를 모신다.

5. 이포리 용왕제

이포리의 당제(堂祭)를 2일간 계속하고 난 뒤에는 3일째 동리의 앞을 흐르는 남한강에서 강고사(江告祀)를 지내는데 이를 “용왕제(龍王祭)”라고 한다. 옛날 이포리의 앞 남한강가에는 광나루를 거쳐서 들어오는 배가 꼬리를 물었다고 한다. 당고사(堂告祀)에서 축문을 한 무당들이 제주(祭主)가 되어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준비하여 강에 내려가 배를 타고 용왕신(龍王神)께 동리의 안녕과 태평을 비는 곳을 한다. 이 당고사(堂告祀)는 3년에 한번씩 열렸는데 최근에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6. 이포리 삼선당(三仙堂)의 유래

금사면 이포리의 삼선당은 그 모신 유래를 보아 그 당(堂)의 삼선(三仙)이 수호신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지금의 이포리를 중심으로 인근의 부락에 마마가 창궐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집집마다 전염이 되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으며 날마다 동리(洞里)에 곡(哭)소리가 그치지기를 앓았다. 동리(洞里)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동리(洞里) 촌장(村長)이 꿈을 구니 나옹선사가 나타나 “충청도 계룡산에 가면 초가집이 한채 있는데 그 초가집안에 세노인이 있을 것이니 그 노인들에게 말씀을 드려라”고 일러 주었다. 촌장(村長)이 깨어

보니 꿈인지라 며칠을 걸려 계룡산에 가보니 초가집이 한 채 있고 집안에는 세 노인(老人)이 담소하고 있었다. 촌장(村長)은 무릎을 꿇고 동리(洞里)에 처해있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세노인이 가서 도와줄테니 아무걱정 말라고 하고 이포로 왔는데 그 세 노인을 모신 후에는 동리(洞里)에 질병이 사라졌으며 이 세 노인(老人)이 바로 삼선(三仙)이었다고 한다. 이후에 이 당(堂)을 짓고 세분의 영정을 봉안했는데 이 삼선당(三仙堂)은 영험이 있어 일제때 일경들이 와서 미신이라고 영정을 찢고 불태웠는데 그들이 채 강을 건너기 전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 세사람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로 동례(洞里)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꽃이 필 때쯤 해서 당제(堂祭)를 올린다고 한다.

〈제보자 : 금사면 이포리 거주 최병승(80세)〉

제 4 절 지명유래

여주군 1읍(邑) 10면(面)의 하나, 본래 천령현(川寧縣)의 지역으로서, 예종 원년(1469)에 여주목(驪州牧)에 편입되어 직촌(直村)이 되었다가, 그 뒤에 금사면(金沙面)이 되어 전북(全北), 용담(龍潭), 백자(伯子), 상호(上虎), 하호(下虎), 상품(上品), 하품(下品), 송현(松峴), 소유(巢由), 장흥(長興), 후동(後洞), 주록(走鹿), 장항(獐項), 도장(道壯), 부곡(釜谷), 궁리(宮里), 이포(梨浦), 외평(外坪), 탄항(灘項), 금사(金沙), 점평(店坪)의 21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이후 1914년 3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흥곡면(興谷面)의 충신동(忠信洞) 일부를 병합하여 전북, 용담, 백자, 하품, 송현, 상호, 소유, 하호, 장흥, 후리, 상품, 주록, 도록, 궁리, 이포, 외평, 금사의 17개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송현, 상품, 후, 하품, 백자, 용담리를 산북면으로 분리함으로써 현재 11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여주군의 서북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금사면은 동쪽으로 양평군 개군면과 대신면, 남쪽은 홍천면과 이천군 백사면, 신둔면, 서쪽은 산북면, 북쪽은 양평군 강상면에 인접하고 있다.

원래 금사면은 삼국시대에 성지매(省知買)로 불리우다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 7년(서기660)에 술천성으로 개칭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에 기천, 천령현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고려 예종 원년(1469)에 여흥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금사면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금사면은 옛부터 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으며 특히 남한강 및 관내 하천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되어 이에 금사면(金沙面)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1. 이 포 리

• 이포리(梨浦里) - 이포리는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세곡과 물화를 싣고 풀던 ~~큰~~ 나루터였으며,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배나무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배나무 이(梨)자와 물가 포(浦)자를 합쳐 이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배개나루, 배나루, 배개 또는 이포진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구말, 천양, 근정리, 서원, 뒷골이 병합되어 이포리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는 법정리로 분리하여 수구말, 큰말을 1리로, 근정리 뒷골 서원을 2리로 나누고 있다.

☞ 이포(梨浦)라는 지명이 붙은 것은 1914년 이후이고 원래는 이호(梨湖)다. 고려나 조선 시대의 문헌에 이호(梨湖)로 표기된 것을 자칫 강천면 이호리로 착각하기 쉽다. 강천면 이호(梨湖)의 원래 지명은 배미(梨山)이다. 배는 산(山)을 뜻하는 것인데 한자로 쓰면서 배 이(梨)자를 쓰게 되어 유래나 전설에 엉뚱한 배(梨)나 배(舟:나룻배) 등으로 말하게 된 것이다. 이 곳을 배개(山邊)+나루(津)=배개나루(山가생이 나루라는 뜻)라고 부르고 또는 배나루(梨津), 배개(山)의 뜻을 이포(梨浦)라고 쓰게된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 천령(川寧)이 여주로 병합되기 이전 고려때 부터 목객들의 저서에 으레 시 몇 수 씌운 올라 있는 곳이다.

다른 지방의 이름 중에도 배(梨,舟)자가 붙은 지명이 무수하게 많다. 배말(梨村), 배내(梨川), 배고개(舟峴), 배미(梨山), 배안말(村), 배골(舟谷), 배꼬지(梨花), 배다리(舟橋洞), 배내고개(舟峴) 등 이러한 지명은 모두 산(山)과 관계된 지명인데 모두 이(梨)자나 주(舟)자를 붙인 것이다.

풍고(楓皐) 김조순(金洙淳)의 시 “이호(梨湖)에서 양화(楊花)로 거슬러 가면서”, 동정 염홍방의 시 “침류정 사절”, 둔촌 이집의 시, 목은 이색의 시, 백운거사 이 규보, 가정 이곡, 척약재 김구용 외 많은 명인들의 시에 모두 이포(梨浦)가 아니 고 이호(梨湖)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나루터면 으레 모래톱(백사장)변이기 마련인데 배자가 붙은 나루터는

배 가바로 산(山)에 닿게 되는 곳을 말한다.

- 개터 - 이포 초등학교 앞 갯가에 있는 들로 그 앞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 개(浦) = 강이나 바다에 물이 드나드는 곳

- 곶바위 - 이포 다리 근처에 있는 곶처럼 생긴 바위.

- 곶부리 - 이포 다리 근처에 있는 모퉁이.

☞ 곶(큰) + 부리(부랭이, 모퉁이)

- 근정리(近汀里) - 천양 남쪽에 있는 마을로 현재 금사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

☞ 汀 = 물가 정

- 근정리 고개(近汀里) - 근정리 북쪽에 있는 고개로 현재 지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양 마을과 이어지고 있다.

- 기천서원(沂川書院) - 모현사 참조

- 김안국 재실<사당> -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모재 김안국을 추향하는 사당.

- 대촌(大村) - 큰말 참조

- 뒷골 - 기천 서원 뒤쪽에 있는 마을.

- 뒷굴 - 뒷골 참조

- 뒷능 - 수굿말 뒤쪽에 있는 산.

☞ 능(陵) = 보통 각 마을에서는 왕능을 연상하나 지명에서는 산능선을 뜻하는 것이 많다.

- 마상끝<산> - 이포리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말을 놓아 먹였던 곳이라고 한다.

☞ 마(큰) + 상(산) + 골(谷)

- 말방다리 - 이포리 뒷골에 있는 산으로 병자호란 때 홍명구(洪命騫)가 금화(金化)지역에서 전사하였는데, 말이 주인인 시체의 머리를 물고 이곳까지 왔다고 전해진다.

☞ 말(큰) + 방(귀퉁이) + 다리(들) + 산 = 큰머리 고래의 산

• 모현사(慕賢祠)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산 15의 2번지에 있다. 처음에는 마암서원이라 하여 조선 선조 13년(1580)에 건축되었다가 임진 왜란 때 방화로 소실되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인조 3년(1625)에 기천 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그 후 화재로 인하여 터만 남아 있었던 것을 1877년 4월 김영진씨가 사재(私財)를 기울이고 99인의 기금으로 다시 세워 모현사로 개명하여 문간공(文簡公),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의 7인의 명현을 봉안했으며, 봄, 가을로 제향하여 후 세 사람들에게 옛 명현(名賢)의 덕을 추모하게 하였다.

현판은 서은(西隱), 장홍식(張鴻植)이 새겼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 지붕 건물로 제향은 올리는 명현은 다음과 같다.

문경공(文敬公)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문원공(文元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문충공(文忠公)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증영의정(贈領議政) 치제(恥齋) 홍인우(洪仁祐)
 문숙공(文肅公) 수몽(守夢) 정엽(鄭燁)
 문정공(文靖公) 택당(擇堂) 이식(李植)
 충열공(忠烈公) 나재(懶齋) 홍명구(洪命耆)
 문간공(文簡公)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

• 묘련암(妙蓮庵) - 이포리 수굿말 뒤에 있는 암자로 원래의 암자는 폐사되었다.

• 박석고개 - 천양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로 마을 뒤쪽 새로난 길과 이어진다.

☞ 박(밭:山) + 석(새:間)

• 배개 - 이포리 참조

• 배나루 - 이포리 참조

• 범사정(泛槎亭) - 금사면 이포리에 세워졌던 정자로 모재 김안국이 벼슬에서 물러나 점동면 원부리에 은거할 때 세워졌던 건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 벼락바위 - 이포 근정리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벼락바위로 불리우며, 바위가 강쪽으로 돌출되어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물살이 빨라 옛날 이 곳을 왕 래하던 배들이 종종 부딪쳐서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벼락은 벼랑의 뜻

• 비석거리 - 비선거리 참조

• 비선거리 - 이포리 뒷골에 있는 들로 남양 홍씨인 영의정, 홍순목(洪淳穆) 신도비(神道碑)가 있는 부근을 말한다.

• 삼선당(三仙堂) - 금사면 이포리 192번지인 서원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에 세워진 것은 고려 말기라고 전해지며 원래 삼선(三仙)은 성황신, 산신(山神), 용왕신(龍王神)을 일컫는 말이나 이 마을의 전설을 통해 볼 때 동민을 안녕케 하는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최씨 부부와 그의 묘소를 잡아준 나옹선사 및 산신을 제사하는 당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협소한 초옥이었던 것을 주민 오도성이 세웠다가 다시 기와집으로 3칸을 세운 것이 1728년 무신정변 때 소실되었고, 그후 주민들이 협력하여 새로 3칸을 세움으로서 1칸은 영정을 봉안하고 2칸은 비워 두고 있다.

또한 삼선당의 부근에는 전설과 관련된 최씨 묘소와 침벽루가 산 정상에 위치 하고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 새뿔 - 새매 참조

☞ 새(가운데 사이) + 뿔(山)

• 새매앞 - 수부촌 뒤쪽의 태봉 밑에 있는 산등성이.

• 새터 - 서원 서남쪽에 새로된 마을을 말함.

• 서원(書院) - 천양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기천 서원이 있어서 붙여진 마을 이름.

• 성선암(聖禪庵) - 천양 동북쪽에 있는 절로 조씨 문중에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 소탕이굽치 - 큰말(천양)앞에 있는 빨래터로 깊은 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소탕이 = 소탕이, 소덩이(沼가 있는 목)

• 수굿말 - 이포에서 오래된 마을중 하나로서 뒷굴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포 대교와 함 께 남한강 물가를 향하여 있는 마을이다.

☞ 수(물水) + 구지(꽃이 튀어나온 곳) = 수구지 - 수꽃이 - 수구

• 수부말 - 수굿말 참조

• 수부촌(水夫村) - 수굿말 참조

• 술천성지(述川城址) - 금사면 외평리와 외포리 사이에 태봉이라고 부르는 해발 285 미터의 산에 있다.

이 성지가 있는 지역은 여주와 병합되기 전에 천령현 구역으로서 고구려 때 에 는 술천군(성지매)이라고 불렸다. 이후 신라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여기에 술 천성 을 쌓고 고구려의 세력을 막아내는 전초 기지로 사용해 왔다. 한편 백제 가 660년 에 신라에 의해 멸망된 후 유민들의 반향이 치열했으나 무산되었고, 663년 고구 려 보장왕 때 고구려의 장수 뇌음신이 말갈의 장수 생해와 합세하 여 공방전이 생겼으나 신라는 끝내 술천성을 사수하였다.

또한 그 맞은편 대신면 천서리 뒷산에 있는 파사성과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 고 충분히 교전이 이루어진 거리로서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현재는 산 정상에 토성의 흔적과 일부는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둘레 가 커 보인다. 특히 삼국사기에 여주 지방의 지명이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역사적 의의가 큰 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아랫말 - 수굿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아랫별 - 천양 아랫쪽에 있는 들.

• 여수고개 - 이포리 수굿말에서 외평리로 넘어가는 산길로 옛날 고개 근처 에 여우가 많이 나타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여수(느린머리) - 너수(汝) - 여수

• 옷물터 - 이포리 수굿말에 있는 약물터로 약수가 옷 오른데에 효과가 있다 고 전해지 고 있다.

• 우렁바위 - 이포 천양마을에서 이포대교로 가는 길 오른쪽 아래의 강에 있 는 바위로 서 강물이 많을 때면 물에 잠겼다가 강물이 적을 때에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우렁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우렁 = 울림

• 웃말 - 수굿말 위쪽의 마을.

• 육우당(六友堂) - 고려 공민왕 때의 학자 김구용(1338-1384)이 우거하던 곳이다. 그는 고려와 명나라의 국교가 난관에 봉착하자 행례사(사신)로 명나라에 들어 갔다가 요동에서 체포되어 남경으로 압송되었고, 그 후 명제의 명령으로 대리로 귀양을 갔었으며 고국으로 귀환한 후 여주 영녕현으로 와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앞서 그는 먼저 친명파로 북원에서 온 사신의 영접을 반대하다가 죽주로 유배된 바 있었다. 석방된 후에는 여주 외가에 있으면서 천령에 당을 지었는데 처음에 설(雪), 월(月), 풍(風), 화(花)의 네가지 벼를 삼아 사우당(四友堂)이라 하였다가 강(江)과 산(山)을 더하여 육우당(六友堂)이라 하였고 목은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받았다. 이후 어느 시기에 훼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원촌(院村) - 서원 참조

☞ 원(院) = 옛날 여관의 역할을 하던 곳

• 은행나무 - 삼선당 뒤쪽에 있는 은행나무로 이포리 나루터 뒤편 강변 암석 위에 서 있으며 지상에서 2미터 까지 썩은 흠이 있고 수목의 상단은 고사(枯死)되어 있다. 수령은 600년으로, 높이 35미터, 나무둘레가 5.8미터로서 고려 시대 나옹선사가 이 나무 위의 산으로 오르면서 바위틈에 꽂아 놓은 것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무는 천령 최씨의 시조묘와 관련되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나무 속에는 귀달린 뱀이 산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나옹선사가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아라”하고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 이포(梨浦) - 이포리 참조

• 이포나루터 - 이포 천양 앞에 있는 나루터로 과거에는 강 건너편 대신면 천서리 강가로 철선이 건너 다니던 곳으로 사람은 물론 자동차까지도 유일한 도강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포대교가 개통되어 그 입구에 이포나루터라고 적혀진 조그만 표석만이 남아있어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 이포느티나무 - 이포리 281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로 현재 금사 농협 앞쪽

도로변에 있다. 수령(樹令)은 500년, 높이가 20미터, 나무 둘레가 2.8미터로 현재 김창선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 1m 높이에 태와 같은 둘레가 있으며 수간에 길게 홈이 나 있다. 이 나무 또한 나옹선사의 전설과 관련되어 강변의 은행나무와 함께 꽃아놓은 것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장터거리 - 큰말 또는 대촌으로 부르기도 하며 과거 이포장이 열렸던 장소로 마을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 절고개 - 수굿말에서 외평리 묘련암으로 가는 고개.

• 제비다리 - 이포 2리에 소재하고 있는 현 복지회관에서 천양 마을로 가는 방향에 있는 다리로서 현재는 새 도로가 나 있어 없어졌으며 주변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다.

☞ 제비 = 좁은

• 차말(次馬) - 천양에서 성선암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빨래터

☞ 차(찬물) + 말(마을)

• 천령 - 천양 참조

☞ 처음 지명은 성지매로서 이후 술천, 기천, 천령의 순으로 지명이 변화하였다.

• 천양(川陽, 天陽) - 이포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그 역사를 살펴 보면 신라 무열왕이 663년에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곳에 술천성을 쌓고 지방군단인 골 내근정을 두었으며,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는 천령현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천양에는 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마을을 천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천령이 변음되어 천양으로 불리운 것 같다.

• 침벽루(枕碧樓) - 이포리 삼선당 옆에 세워진 누각으로 옛날에는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보며 훌륭한 시와 문장을 지었던 곳으로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목선을 타고 오는 왜병들과 맞서 이 곳의 의병들이 싸워 승리를 거둔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의 건물은 없어졌으나 1994년 이포리에 거주하고 있던 뜻있는 인사들이 과거의 누각터에 새로 세운 것이 현재 남아있다.

• 큰말 - 대촌, 장터거리라고도 불리우며 천양의 가장 큰 마을로 예전에는

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 탑선대 - 이포장터 뒷쪽 산에 있는 고목아래의 지역으로 과거에는 탑이 있었다고 한다.

- 태봉<산> - 수굿말의 묘련암 뒷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옛날 왕자의 태를 묻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후곡(後谷) - 뒷굴 참조

2. 궁 리

- 궁리(宮里) - 궁리는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 궁말, 발림, 뒤밀의 3개 자연부락으로 나뉘어 각기 불리워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궁리로 병합되었다.

 궁말 참조

- 갓모바위<바위> - 궁리에 있는 바위, 갓모(갈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 계장천(桂章川) - 궁말 남쪽에 있는 내
- 골우물 - 궁말 마을 안쪽에 있는 우물로 몹시 차서 피부병에 효험이 있었다고 전해 진다.

- 관바위 - 갓모바위 참조

- 구장터(舊場-) - 발림 동남쪽에 위치한 들로 옛날 장이 열렸던 자리

- 궁리석탑(宮里石塔) - 궁말 마을 앞 밭에 있다. 여러 곳에 흩어진 탑조각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기단부와 초기탑신(初基塔身)만 완전하고 그 이상은 파괴된 것으로 옥개석(屋蓋石) 2개와 보주(寶珠)만을 올려 만들었다.

현재는 석탑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과거 수년 전에는 기와 조각 및 쇠 조각 등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 궁말 -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궁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궁말이라고 부른다.

기록에 의하면 서기 22년(백제 온조왕 40년)에 말갈군이 군사를 일으켜 술천성(述川城)을 침범했고 신라의 삼국통일기인 무열왕 7년(서기 660년 백제

의자왕 20년)에는 백제를 멸하고 지금의 금사면에 술천성을 쌓고 고구려 세력을 몰아내는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그 후 신라의 지방 군단인 10정 중 골내근정(骨內斤停)을 여주에 설치하였고, 경덕왕 16년(서기 757년) 금사면에 천령현을 두었다는 기록을 보아 성이 있고 군단이 주둔했으며 현령이 상주하기 위해 치소와 관가를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궁(宮 큰) + 말(마을) = 큰동네

- 궁말탑 - 궁리 석탑 참조.
- 궁이<마을> - 궁리 참조.
- 당재(堂-) - 궁말 북쪽에 있었던 산 고개로, 옛날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 당 = 山

- 당재골 - 당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
- 더미고개 - 궁리 뒤밀 마을에서 하호리로 이어지는 고개.
- ☞ 더미고개 = 고개너머 또 있는 고개
- 더매고개 - 더미고개.
- 돌터뿌리 - 궁말에서 도곡리 방향의 길에 있는 모퉁이로 길가로 구부러져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두레우물 - 궁말에 있는 우물로 겨울철에도 온수가 나와 동네 주민들이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였다고 함.

☞ 두레 = 깊은 또는 여러 사람이 쓰는 뜻

- 뒤밀고개 - 궁리 뒤밀에서 이포리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
- 맷돌바위 - 발림 마을에 위치한 맷돌같이 생긴 바위.
- 물푸레 나무 - 궁말 뒤쪽에 있는 보호수.
- 발림(鉢林) - 궁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발림은 바릿대 발(鉢)자와 수풀 림(林)자를 쓰는데 아주 먼 옛날에 이 곳에 밭이 굉장히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 하여 발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밭 = 밝(양지, 남향의 뜻)

- 범아굴 - 범 이빨처럼 생긴 굴.

- 사모바위 - 잣모바위.
- 섬바위 - 발림 북서쪽에 있는 바위로 벚섬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아랫말 - 궁말의 아랫쪽 마을.
- 아랫보들 - 궁말 남쪽에 있는 들로 하천 부근 보가 있는 들.
- 웃말 - 궁말 위쪽에 있는 마을.
- 여꾸섬 - 궁리에 있는 들. 연못이 있었음.
- 옥곡(獄谷) - 궁리에 있는 골짜기, 옥터가 있었다고 함.
☞ 옥 = 옥은(오그러든)
- 옥골 - 옥곡.
- 웃봇들 - 궁말 남쪽에 있는 들로 하천 부근 보가 있는 들.
- 장군석 - 궁말 뒤쪽에 있는 바위.

3. 도 곡 리

• 도곡리(道谷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장리(道長里)와 부곡리(釜谷里)를 병합하여 도곡리로 개편하였으며 현재 도장골과 웃 가마실, 아랫 가마실의 3개 자연 부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 가마실 - 고려 때 몽고군과 싸우던 고려군이 이 곳에 큰 가마솥을 걸고 밥을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가마 = (큰,大)

• 김때골 - 도곡리 아랫 가마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김대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김(김,큰) + 대(터,垓) + 골(谷)

• 능골 - 도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웃가마실 뒤쪽에 있다.

☞ 능(언덕안) + 골(谷)

• 도장골 - 가마실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이 마을 고개에 장승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 선비들이 지름길로 한양을 가기위해 이곳을 통과하였을 때 장승

이 길을 안내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절이 있는 골짜기로 도량(道場)이 있었던 경우도 있다.

- 도장골숲 - 도장골 마을 앞에 있는 숲.
- 도장동(道長洞) - 도장골 참조.
- 독부리봉 - 도곡리 도장골 서남쪽에 있는 산

☞ 독(石) + 부리(甬)

- 돌터뿌리 - 도곡리 마을 입구에 있는 모퉁이로 바위가 있다.
- 마차실 - 도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웃가마실과 아랫가마실 사이에 있는 길 동남쪽(문장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 마차실 고개 - 마차실 위에 있는 고개

☞ 마(山) + 차(山) + 실(마을)

- 무당바위 - 웃가마실과 도장골 사이에 있는 바위로 옛날 사람들이 밤에 그 곳을 지나 다닐 때 무당의 징소리가 났었다고 하여 부르던 이름이라고 한다.

- 미륵불(彌勒佛) -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산 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리에 서는 일명 새낭골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연꽃무늬 받침돌에 책상다리를 하고 북쪽을 향하여 앉아 있으며 곱슬머리에 귀가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8면으로 된 받침돌의 6면에는 보살상(菩薩像)이 있다. 둘레는 41미터, 높이는 1.8미터로 노천에 방치되어 어있으며, 조각의 일부는 비바람에 마멸되어 있다.

☞ 경기도 지정 문화재

- 부곡(釜谷) - 가마실의 한자 표기 또는 일제시대 때의 지명 표기로 추정되고 있다.

☞ 큰 골이란 뜻

- 사당골 - 웃가마실 뒤편에 있는 골짜기.
- 산제장골 - 웃가마실 앞산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도곡리 주민들이 마을 번영을 위해 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새비터골 - 웃가마실에서 도장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새(間) + 비(비탈)

- 새낭골 - 도곡리 아랫가마실에 뒤편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미륵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 절이 있었던 골짜기로 추측된다.

☞ 새(塞) + 내(內) + 안(內) + 골(谷) = 입구가 막힌 듯이 아늑한 안골

- 새낭골 미륵불(道谷里彌勒佛) - 미륵불, 도곡리 새낭골에 있는 미륵불
- 시랫고개 - 호미기에서 홍천면 내사리로 넘어가는 고개

☞ 내사리 참조

- 아랫가마실 - 가마실 아랫쪽의 마을을 일컬음.

☞ 가마실 참조

- 아랫말 - 도장골의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청룡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오양골 - 도곡리 웃가마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외양(畏養:마소를 가르는) + 골(谷)

- 웃가마실 - 가마실 윗쪽의 마을을 일컬음.
- 웃대골 - 도곡리 도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한씨의 조상 산소가 있다.
- 웃말 - 도장골 마을중에서 윗쪽에 위치한 마을.
- 장승거리 - 웃가마실 입구 쪽에 있는 길로 느티나무가 길 옆에 2그루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 장승이 서 있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화사 고개 - 도장골에서 주록리로 넘어가는 고개(일명 장화치 고개)로 옛날 석불 상이 있었다고 한다.

• 장화사지<절터> - 옛날 큰 절이 있었던 곳으로 절에서 버린 쌀 뜨물이 이 포강까지 떠내려 갔다고 한다.

- 장흥고개 - 도장골 또는 웃가마실에서 장흥리로 넘어가는 고개

• 정가골 - 도곡리 도장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정가가 모여 살았던 곳이라 한다.

☞ 정가(亭街 = 정자가 있던거리) + 골(谷)

- 주록골 - 도장골에서 장흥으로 넘어가는 골짜기

☞ 주록(主龍 = 산중에 으뜸) + 골(谷)

- 중간말 - 도장골의 중간 마을.
- 청룡월 - 도장골 입구에 있는 마을로 모룡이가 진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일명 청룡-모룡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 큰골 - 옷가마실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팔대골 - 도장골의 옷대골 옆에 있는 골짜기.
- 호미기 - 도장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본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인가가 없어 외부에서 보기에는 집이 없는 것으로 보여 후미진 곳이라고 하던 말이 변음되어 호미기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 호매기<마을> - 호미기 참조
- 흥보골 - 도곡리 도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회목이 - 호미기 마을의 다른 이름으로 지세가 목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4. 장 흥 리

• 장흥리(長興里) - 옛날에는 지금의 금사면인 장흥리 일대를 장흥동(長興洞)이라 하였 으며 지금의 마을에는 인가가 없고, 장흥사(長興寺)라는 큰 절만 있었다고 한다.

이 절은 황창부위 변공(邊公) 광보의 묘를 쓰게 됨에 따라 어명에 의해 원찰(願 刹)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장흥사가 있었던 마을이라 장흥골 또는 장흥동, 장흥이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흥리로 하였다.

• 고려 시대 묵은 이색의 금사팔영 시중에서 장흥에서 알밤을 줍는다는 다 음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장흥습율(長興拾栗)

추풍초슬슬(秋風初瑟瑟)	가을바람 우스스
울수점루루(栗樹漸累累)	밤은 누룩누룩
독왕오증기(獨往吾曾記)	나홀로 기억하리
금환낙지시(金丸落地時)	알밤이 떨어질 때를

- 가는골 - 장흥리에 있는 골짜기.
- 낭성배들 - 장흥마을 입구에 있는 들
 ☞ 남산보(泐)들 → 남상봇들 → 남성배들
- 느티나무골 - 장흥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마을이 있었으며 그 곳에는 느티나무가 많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현재는 골프장 숙소가 그 곳에 들어서서 마을은 없어지고 말았다.
- 대람미골 - 장흥리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 다락미 - 언덕진 산
- 대월암 - 장흥리 뒤에 있는 상두산 정상에 위치한 암자.
- 대호람<골> - 큰골 참조.
- 도매기골 - 장흥리에서 주록리 방향에 있는 저수지 서쪽 골짜기.
 ☞ 도매기 = 도막이 = 가로막은 = 되막힌, 되막은.
- 동해막 - 장흥저수지 윗쪽에 있는 산.
- 뽕방고개골 - 장흥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뒗골 - 장흥마을 뒗쪽에 있는 산.
- 뒗골고개 - 뒗골 북쪽에 있는 고개.
- 매골 - 장흥리에 있는 골짜기
 ☞ 매(퇴산)
- 문앞골 - 장흥마을 서쪽에 있는 들.
- 배바위 - 장흥리에 있는 바위로 배처럼 생겼음.
 ☞ 배(비알, 비탈)
- 배바위고개 - 배바위가 있는 고개.
- 사곡(寺谷) - 절골 참조.
- 사기막골 - 장흥마을 앞 이포 컨트리클럽 옆 골짜기로 과거에 사기를 제작했던 흔적이 있어 붙여진 명칭.
 ☞ 사(새,間) + 기(터,垜) + 막(막힌)
- 산수골 - 장흥리에 있는 골짜기.
- 살구쟁이 - 장흥리에서 도곡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로서 옛날 살구나무 정자

가 있어서 붙여진 명칭, 또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살구꽃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살피 언덕(경계 골짜기)

• 살구쟁이고개 - 살구쟁이 뒤에 있는 고개

☞ 살피 언덕 고개(경계 지점의 능선)

• 상두산 - 장흥리 뒷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으로 산모양이 코끼리 머리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제일 꼭대기(상투) = 상두

• 소머리산 - 우두산 참조

☞ 작은 머리산 = 주위에 더 높은 산이 있거나 제일 높은 산 내릉에서 다시 솟아 오른 산 다음으로 높은 산.

• 쇠머리 음달골 - 장흥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소머리산 참조

• 수양버들계 - 장흥리 입구에 있는 들로서 수양버들이 있어 붙여진 이름.

• 승선암골 - 장흥리 상두산 정상인 대월암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로 승선암이 있다.

• 앞골 - 장흥마을 앞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현재는 이포 골프장이 자리잡고 있다.

• 앞들 - 장흥마을 입구에 있는 들.

• 약바위 - 절골 약천암 산신각 뒤에 있는 바위로 약수가 나오고 있다.

• 약바골 - 약바위가 있는 골짜기.

• 약천암(藥泉庵) - 장흥사터 약 500미터 위에 있는 절로 장흥사를 철거할 때 은신처로 지어진 것으로 보며 현재 비구니 스님 한분이 주석하고 있다.

약천암이라는 이름은 절주변에 유명한 약수가 있어 유래되었다고 하며 법당에는 약 700년쯤 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흥사에 있었던 것을 이 암자로 모시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규모와 연대로 볼 때 문화재로의 가치가 큰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불상 재료는 곱돌(활석)로 되어 아름다움을 더 하고 있다.

• 양달말 - 장흥리 뒤편마을로 양지가 드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양산 - 장흥리 뒷산
- 어둠골 - 장흥리 음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나무가 우거져 항상 어둡컴컴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오리나무밑 - 장흥리 현 마을회관이 있는 자리로 과거에는 오리나무가 많아 숲을 이 루었다고 한다.
- 용강고개 - 장흥리에 있는 고개
 ☞ 용(산줄기) + 강(갈라진 뜻인데 음만을 취해서 한자로 갈 경(耕)자를 쓴 것
- 여나무골 - 장흥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
 ☞ 여(여기, 이) + 나무(넘어)
- 우두산 - 장흥 저수지 앞쪽에 있는 산으로 소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소머리산 참조
- 원적산 - 상두산 참조
- 음달말 - 장흥리 아랫쪽 마을로 음달이 지는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 장흥 - 장흥리 참조.
- 장흥골 - 장흥리 참조.
- 장흥동(長興洞) - 장흥리 참조.
- 장흥사터(長興洞) - 금사면 장흥리 상두산내 남쪽 골짜기인 절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절터가 있다.

창건과 폐사의 연유는 알 수 없고 현재 경작지가 되어 있는 절터 안에 주춧돌과 장대석만이 일부 산재되어 있다. <뜰돌의 축대만 길게 남았음.>

구전하는 바에 의하면 절골에는 비구승이 거처하는 장흥사가 있었고 승선암 쪽에는 비구니(여승)들이 거처하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장흥사는 승려 300명이 넘는 대사찰로 끼니 때 쌀 씻은 뜰물이 절 밑 10리까지 흘러 내렸다고 하며 홍천면 읍들이(현재 효지리)일대가 모두 장흥사의 불양답으로 연간 약 3000석 이상을 수확하였다고 한다.

또한 장흥사는 효종때에 이르러 황창부의 변광보(邊光輔)의 원찰로 사용하

면서 번창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앞산 능선에 그의 묘가 경순군주(소현세자의 막내딸)와 함께 합장되어 있다. 그러나 묘지 주변이 시끄럽다 하여 어명으로 정리 되면서 폐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골에는 부도를 안치했던 받침돌이 훼손된 채 남아있으며 부도는 현재 일본 우에노(上野)공원에 남아 있는 데, 표면에 장흥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장흥사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 장흥사지 우물터 - 장흥사지 앞에 있는 우물로 직경이 1미터 정도이다.

이 우물은 장흥리에 간이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 장흥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 했던 우물로 동네에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물물이 뒤집힌다고 한다. 때문에 상여가 이우물물 앞을 지날 때에는 가마나나 거적으로 이 우물을 덮는다고 하며 또한 겨울에 우물물이 마르면 그 해 여름에 가물어서 농민들이 물 걱정을 하게 된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 장흥 저수지 - 금사면 주록리에서 발원하여 장흥리 마을 뒤편까지 이어진 농업용 저수지로서 일명 금사 저수지라고 부른다.

- 절골 - 상두산 정상인 대월암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

• 중서랑골(僧谷) - 장흥마을에서 6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이포 컨트리 클럽이 있는 자리이다.

옛날 장흥사 승려들이 죽으면 화장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곳에는 가로 150미터, 세로 60미터 정도의 다듬은 돌이 있는데 이돌 위에서 다비식(茶毘式)을 가졌었다고 한다. 특히 이 돌은 주변의 돌과 달라 외부에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그 명칭과 함께 다비 장소로 확신을 갖게 한다.

☞ 중사랑골 참조

- 중선암골 - 승선암골 참조.

• 참나무쟁이 - 장흥리 마을 아래에 있는 들로 예전에는 참나무 정자가 많았던 곳이라고 한다.

- 큰골 - 장흥리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황창부위 변광보의 묘(邊光輔墓) - 변광보는 소현세자 막내딸 경순군주(慶順郡主)의 부군이다.

경순군주는 어렸을 때 소현세자가 세상을 뜨게되자 효종이 친히 기르고 가르쳤으며 친 딸과 같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황창부위에게 하가면서 세상을 뜨게 되었고, 황창부위는 국법상 재취가 불가능하여 홀로 여생을 살다가 세상을 뜨게 되어 지금 묘지에 장례를 지낼 때 경순군주도 이장하여 합장하였다.

이후 효종의 특명으로 경순군주의 불쌍함을 애도하여 장흥사로 하여금 그들의 명복을 빌게하였으니 이로서 원찰이 되었던 것이다.

• 혼시루터 - 장흥리 앞 골프장 입구에 위치하던 장소로 옛날 주민들이 고사떡을 놓았던 자리라고 한다.

5. 주 록 리

• 주록리(走鹿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 지역으로 옛날에는 인가가 적은 마을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마을을 “주록거리”라고 불렀는데 “주록”이란 말은 사슴이 뛰어논다는 뜻으로 그 지역을 “주록거리”라고 불렀다가 마을이 형성되면서 주록리로 되었다고 한다.

☞ 노루목 참조

• 갓모바위 - 주록리에 있는 바위로 갓모(갈모)처럼 생겼다.

• 골민봉 - 공민봉 참조

• 공민봉 - 주록리 안산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고려 제31대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이 산에서 하룻밤을 지냈다고 전해진다.

• 굴바위 - 안산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 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긴잔등 - 노루목 동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

• 낙수재 고개 - 주록리에 있는 고개.

• 낮은메기 고개 - 주록리 안산에 있는 고개.

☞ 메기 = 매기(막는다는 막이의 방언).

☞ 보(洑) = 물막이(물매기), 칸막이(칸매기)

- 내산 - 안산 참조.
- 너구리바위 - 안산에 있는 바위로 너구리굴이 많이 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
- 노루목 - 주록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인가가 별로 없고 노루들이 사냥꾼들에 의해 쫓기면 항상 이곳에서 만났다고 하여 노루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① 노루(날, 산줄기) + 목(목쟁이, 건늘목, 곳, 목에서 지킨다) = 산날목
 - ② 느린목 → 느루목 → 노루목 (가파르지 않은 완만한 경사가 길게 늘어진 곳)
- 농바위 - 주록리 뒷산에 있는 바위로 농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농바위골 - 농바위가 있는 골짜기.
- 농바위산 - 농바위가 있는 산.
- 느릅저리 - 느릅, 느린, 느러진의 뜻 .
- 느티나무 - 주록거리 마을 길옆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로 나뭇잎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들고 나뭇잎이 적은 해는 흉년이 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 도실 - 안산의 웃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승려들이 도를 닦았던 곳이라고 한다.
 - ☞ 도 = 돌(回,廻 : 돌다)
- 독부리산 - 주록거리 앞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돌이 많다고 한다.
 - ☞ 독(돌 石) + 부리(산부랭이)
- 뒷골고개 - 노루목에서 후리 뒷골로 넘어가는 고개.
- 떨어지기 바위 - 주록리 안산에 있는 바위로 두 개가 포개어져 떨어질 듯한 모양이라고 함.
- 민보타 - 주록리 안산에 있는 마을.
- 백-고개 - 주록리 안산 입구에 있는 고개로 옛날 도둑이 많이 있어서 백사람이 함께 넘어 다녔다고 전해진다.
 - ☞ 백 = 배(山) + 고개 = 산고개
- 뽕나무골 - 주록거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뽕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사실테 고개 - 주록리 노루목에서 송현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고개

☞ 사실 = 가달, 가닥

• 소잡아 먹은 소(沼) - 주록리에서 장흥저수지 방향에 있는 소로 그 곳에서 과거에 소를 잡아 먹었던 자리라고 한다.

• 신주바위 - 안산에 있는 바위로 사당의 신주를 모신 바위라고 한다.

• 아랫말 - 안산 아랫쪽에 있는 마을.

• 안가지골 - 안산 도실 안쪽에 있는 마을.

• 안산 - 주록리에서 약 1.5 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날에는 많은 농가가 살았다고 한다. 주록리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산으로 불리운다.

• 원골 - 주록리 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 웃말 - 안산 윗쪽의 마을.

• 은골 - 원골 참조.

• 입망이골 - 주록거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작은 안가지골 - 안산 안가지골의 작은 마을.

• 장구메기 - 주록 거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장구(농악기, 양끝이 굽고 중간이 가는) + 메기(막이)

• 장골고개 - 안산에 있는 고개

☞ 장골 = 잔(작은) + 골

• 장항 - 노루목의 한자식 표기.

☞ 노루목 참조

• 장항골 - 장항 북쪽에 있는 골짜기.

☞ 노루목 참조

• 장화치(長華峙) - 주록리에서 도곡리 도장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장화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 정바위 - 주록리 안산에 있는 바위로 손톱같은 자국이 있는데, 옛날 장수가 손톱으로 누른 것이라고 한다.

☞ 정(頂, 정상 정수리)

• 주록(走鹿) - 주록리 참조.

• 주록거리 - 주록리 참조.

- 주예누골 - 주록리 안산에 있는 마을.

☞ 주애(主崖) + 녹(鹿)

- 큰안가지 골 - 안산 안가지골의 큰마을.

• 최시형 묘소 - 최시형(1827-1898)은 조선말 동학의 제2대 교조로서 초명은 경상, 호는 해월(海月), 본관은 경주이다. 동학이 탄압받던 시기에 관헌의 눈을 피해 포교에 힘썼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의 경전을 완성하였다.

묘는 금사면 주록리 산96-16번지에 소재하고, 향토 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6. 전 북 리

• 전북리(箭北里) - 전북리는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 남한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살꼬지, 살뒤, 살띠 또는 전북으로 불리웠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멀언리를 병합하여 전북리라 하였다. 현재는 남쪽에 있는 살띠와 북쪽에 있는 멀언리의 2개 자연 부락으로 되어 있다.

☞ 전북(箭北)의 뜻은 옛날 이 마을에 활터가 있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하며 또한 마을 앞산의 지형이 활처럼 생겼으며 여주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① 살은(물살) + 꼬지(곧이 直) ② 살(물살) + 띠(허리띠물이 둘러안은)

③ 멀(물水) + 언(안,內) 또는 (물,水) + 언(堰) 또는 물(隅) + 안(內)

• 당 골 - 전북리와 금사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지금은 마을이 없어진 곳이다.

• 말무덤 - 살 뒤 마을 입구 옛날 버드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있는 무덤으로 왜란 당시 대신면 천서리 파사성에서 활약하던 장수의 말을 묻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홍수로 인해 지금은 흔적이 없어졌다고 한다.

- 머리니 - 멀언리 참조.

• 머리니산 - 머리니 서북쪽에 있는 산.

• 멀언리 - 살뒤마을에서 이 마을을 가고자 할 때 멀리 떨어진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멀원(遠)리와 같은 뜻으로 해석됨

• 빈당골 - 전북리와 금사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당골을 지나 금사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살꼬지 - 전북리 참조

• 살 뒤 - 전북리 참조.

• 살 띄 - 전북리 참조

• 살 데- 옛날 어느 대사(전설에 의하면 일명 나옹선사라고 함)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마을을 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 하여 이 곳을 “살데” 또는 “살 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살여울 - 살뒤마을 앞에서 하류쪽에 위치한 강 여울.

☞ 이 강의 상류쪽에는 강물이 휘어지고 골이 졌다고 하여 고분(구분=굽은)여울, 중간에 있는 작은 여울이라고 하여 소저울, 물살이 세고 빨라 배가 상류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여 심(신)여울이라고 부르는 여울들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골재 채취 공사로 인해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 살(물살) + 여울

• 살열 - 살여울 참조.

• 삼박굴 - 전북리 살띠 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삼(산 山) + 박(밖 外)

• 아랫말 - 살띠 아랫쪽의 마을.

• 약수터 - 살띠 웃말 삼박굴에 있는 약수터로 일명 쌍가마 약수터라고도 하는데 옛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쌍가마를 타고 이 곳 약수터에 와서 물을 마시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엽바위 - 포골 윗쪽 약수터에 있는 바위로 옛날 동네 청년들이 그 곳에 가서 바위 구멍에 돌을 던져 들어가면 장가가서 첫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그곳에 접근하면 벌을 받는다고하여 신성시 여기기도 하

였다고 한 다 .

☞ 업(얹인) + 바위

. 왜재고개 - 왜재고개 참조

☞ 왜(외, 외딴 瓢) + 재(고개)

• 왜재고개 - 멀언리와 살뒤 사이에 있는 고개로 옛날에 길을 내기 위하여 산길을 갈 라 공사를 하려니까 산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산을 찌느냐고 항의를 하여 그 때부터 불려진 이름이라고 한다.

• 웃말 - 살띠 윗쪽에 있는 마을.

• 원동(遠洞) - 머러니 참조.

• 전북(箭北) - 전북리 참조.

• 전탄(箭灘) - 살여울 참조.

. 터 골 - 멀언리와 살 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던 골짜기로 대 골(垜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꽃대신장등 - 전북리 살띠 마을 서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일제 시대 산의 혈맥을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함장골 - 전북리 남쪽 금사리와 인접한 골짜기로 함정이 많이 있었다고 함.

☞ 함정(산짐승을 잡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표면을 위장해 두는 것)

• 함장(작)골 고개 - 함장골 윗쪽에 있는 고개.

• 함자(작)골 - 함장골 참조.

☞ 함자 - 함정

• 함자골 - 함장골 참조.

7. 소 유 리

• 소유리(巢由里) -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 골짜기를 이 루고 있는 이 마을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듯 하다고 하여 소리실로 불리워 오 다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소유리로 부르게 되었다.

☞ 소유(巢由) = 둥지(巢) + 말(산마루:말미 由)

• 막거리 - 막골 참조.

• 막골 - 일제시대에 광산촌으로 막을 치고 인부들이 살았다고 하여 부르던 이름.

약 400가구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금을 캐던 갯도와 화물차가 남아 있다고 한다.

• 보려광산(寶驪鑛山) - 소유리에 있는 광산으로 1937년에 개광되었는데 6.25 이후 폐광되었다.

• 삿갓골 - 소유리에서 전북리 방향에 있는 삿갓 모양의 골짜기.

☞ 삿 = 새(間) + 갓(가장이, 가생이, 가장자리)

• 섬바위 - 소유리에서 대석리로 가는 산길에 위치한 바위.

☞ 섬(곡식 두량의 한섬 두섬)

• 소리실 - 소유리의 옛 명칭으로 마을의 삼면이 울창하고 험난한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산등성이에서 내려다 보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듯하다고 하여 새집 소(巢)자를 써서 소리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소유리 참조

• 소우실 - 소유리 참조.

• 소우곡 - 소유리 참조.

• 수우실 - 소유리 참조.

• 중사랑골 - 옛날 중을 화장하던 골짜기.

☞ 사랑 = 사름, 불에 태움, 불사름

• 아랫말 - 소유리 아랫쪽 마을.

• 온수골 - 소유리에서 세월리 방향에 위치한 골짜기로 온수가 솟아 오른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

- 윗말 - 소유리 윗쪽에 있는 마을.
- 작은절골 - 옛날 절이 있었던 자리로 작은 골짜기를 말함.
- 큰절골 - 옛날 절이 있었던 자리로 큰 골짜기를 말함.
- 팔보광산(八寶鑛山) - 소유리 윗말 북쪽에 있는 광산으로 1932년에 개광되었는데 6.25 이후 폐광되었다.

8. 상 호 리

• 상호리(上虎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서 범실 윗쪽이 되므로 웃범실 또는 상호곡(上虎谷)이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상호리라고 하였다.

상호리는 산이 높고 험한 지역으로서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전해지며 수리바위 굴에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여 호곡(虎谷) 또는 범실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후 1672년경으로 약 324년전에 신(申), 고(高), 민(閔)씨 의 3 성(姓)이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호곡 참조

• 갯밭 장고개(邊田山長峴) - 웃범실 서쪽에 있는 고개로 이곳에는 많은 바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 갯동맥혈(坑東脈穴) - 금광채굴 당시 만들었던 갯도로서 길이가 250 m 가량되며 이 굴을 통해 상호리에서 소유리로 통행하였다고 한다.

• 골말(谷村) - 웃범실 북쪽에 있는 마을.

• 노리바위(遊巖) - 웃범실 서쪽 갯밭 장고개에 있는 바위.

• 느티나무 - 웃범실 동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3년 계해년 봄에 주민 고시학(高時學), 민병두(閔丙斗), 신정균(申正均), 고규전(高奎鎭)씨 4인이 30년 생 나무를 마을정자로 식수하였으며, 이후 이 나무는 마을의 정자로 이용되고 있고 보호수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느티나무는 자연 식수된 것으로 주민 민봉기(閔鳳基)씨 보호수로 되어 있으며 모양이 둥글고 정자가 유명하여 1994년(갑술년) 봄에 호실정(虎室亭)을 세워 남녀노소는 물론 외부 사람들까지도 쉼터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고 그 옆에 “느티나무 농원”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생겨나게 되었다.

- 대바위(臺巖) - 옷범실 서쪽 갓발 장고개에 있는 바위.

- 동문탑(洞門塔) - 옛부터 남쪽 방향의 고개 아래에 있는 이 마을 입구에는 남탑(男塔)과 여탑(女塔)이 있어 그것을 동문탑이라고 불렀다.

- 동줄머리 고개 - 여수금산에서 수유리로 넘어가는 고개.

☞ 동줄머리

- 말바위(馬巖) - 옷범실 서쪽 갓발 장고개에 있는 바위.

☞ 큰바위

- 맹골 - 옷범실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산이 험해 사나운 호랑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외골 - 땃골 - 땃골 - 맹골

- 맹호곡(猛虎谷) - 맹골 참조.

- 명목바위 - 옷범실 서쪽 갓발 장고개에 있는 바위로 매년 명목새들이 집을 짓고 새끼를 번식시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미산(微山) - 옷범실 윗쪽에 있는 산으로 고사리가 많이 있다는 일명 고사리재가 있으며 그곳에는 옛부터 귀달린 지네가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는데, 호곡(虎谷)에 있는 밤나무들이 사방으로 둘러 싸여 있어 제압함으로서 지네가 크게 이동하지 못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 미(뒀) 산)

- 범실 - 상호리 참조.

- 산수골(山水谷) - 옷범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민씨(閔氏) 선조묘가 있으며 용이 엮드려 산골물을 마셨다고 하여 산수골이라 불리우고 있다.

- 산신당(山神堂)<사당> - 상호신사당(上虎神祠堂) 참조.

- 상가마골(上釜谷) - 옷범실에서 아랫범실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골짜기.

☞ 상(上) + 가마(큰,大) + 골(곡)

• 상호곡(上虎谷) - 상호리 참조.

• 상호신사당(上虎神祠堂) - 일명 산신당(山神堂)이라고 부르는 이 사당은 이 마을의 오랜 사당으로 동네 주민 92세대가 기부한 찬조금으로 1936년(丙子年) 3월 12일 신축 건립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사당안에는 산신화(山神畵)를 모시고 마을의 안정과 재물이 왕성해지라는 뜻에서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소원 성취를 빌었다고 한다.

• 셋골(大鳥谷) - 옷범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셋(間) + 골 → 대(큰) - 새(間) + 골

• 소곡(小谷) - 옷범실 남쪽의 작은 골짜기.

• 수리바위산(雉巖山) - 옷범실 남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바위가 있다고 하여 수리바

위산 또는 수리배산이라고 한다.

☞ 수리(頂, 제일높은, 정상, 정수리) + 바위

• 수리배골 - 흰수리터 참조.

• 수리배산(雉巖山) - 수리바위산 참조

• 숫돌고개(磨峴) - 옷범실 남쪽에 있는 산고개.

☞ 숫돌(수두 首頭)

• 습거리 - 상호리 마을 입구에는 옛부터 마을 주민들이 오리나무를 심어 마을의 관문 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이곳 길을 습거리라고 부르며 지금은 모두 고목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 숲 + 거리

• 안대곡(雁岱谷) - 옷범실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안터라고도 하며 고씨(高氏) 선조묘가 그 곳에 있다.

☞ 안(內) + 대(岱) + 골

• 안산(案山) - 옷범실 서쪽 고씨 선조묘(高氏先祖墓)가 있는 산

☞ 마을 앞산

• 안터 - 안대곡(雁岱谷) 참조.

• 약고막산 - 화약고산(火藥庫山) 참조.

• 약수곡(藥水谷) - 약밥골이라고도 부르며 이곳은 암벽 사이로부터 만병통치의 효과가 있다는 약수가 솟아 오른다고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었다는 이야 기가 전해지고 있다.

• 여수금산(麗水金山) - 조선시대인 1865년경에 영남지방에서 김씨라는 사금부(沙金夫)가 약수골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약수가 솟는 암벽사이로 황금이 많이 발견되어 이때부터 금광채굴이 시작되었고, 이름을 여수금산이라 하였던 바 한 때는 전국 3위의 채굴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이 마을은 약 300여 호의 광산촌으로 성왕을 이루다가 1967년경에 폐광되었다고 한다.

• 왕바위(王巖) - 옷범실 서쪽 갯밭 장고개에 있는 바위.

• 용호현(龍虎峴) - 일명 성황당(城隍堂)이라고 하는 고개로 옛날 장가가던 신랑이 그 곳을 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옷말(上村) - 옷범실 윗쪽에 위치한 마을.

• 옷방골(位房谷) - 호아산(虎兒山) 참조

☞ 옷(上) + 방골(坊曲:옛날 마을을 칭함)

• 옷범실 - 상호리 참조.

• 중간말(중촌) - 옷범실 중간에 위치한 마을.

• 진밭 - 옷범실 동쪽에 있는 화약고 아랫쪽 밭.

• 진설미 - 하촌마을 앞의 긴밭.

☞ 긴 살미, 밭

• 천양암(天養菴) - 지봉산 줄기 도랑에 위치한 암자로 1984년 봄에 세워졌으며 1995년 봄에는 佛事로 대웅전을 신축하고 탑, 종각을 세웠다.

• 대곡(大谷) - 옷범실 남쪽의 큰 골짜기.

• 하촌(下村) - 옷범실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

• 화약고산(火藥庫山) - 옷범실 동쪽에 있는 산으로 과거 광산 채굴시 화약을 보관하던 산으로 일명 약고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호곡(上虎谷) - 상호리 참조.

• 호아산(虎兒山) - 옷범실 남쪽 신씨(申氏) 선조묘가 있는 산으로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옷방골(位房谷)이라 하여 신씨 후손들이 묘를 지키는 곳이었다.

• 호휴암(虎休巖) - 옷범실 남쪽산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가 쉬어가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 흥덕재(興德齋) - 옷범실 마을 안쪽 민봉기씨 주택 옆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고종때 통정대부(通政大夫)였던 민태직(閔公台植)을 제사지내는 사당.

• 흰수리 바위(白鵝岱巖) - 흰수리가 바위위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아래굴에서는 호랑이가 번식해 나왔다고 한다.

☞ 흰(白) + 수리(頂) + 바위

• 흰수리터(白鵝岱下谷) - 수리바위가 있는 골짜기로서 흰수리터 또는 수리배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9. 하 호 리

• 하호리(下虎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서, 하호곡 또는 아랫범실이라고 부르며 양지말과 음지말, 그리고 건너말로서 2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어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상호리와 구분하여 하호리라 하였다.

본래 지명은 호곡(虎谷)이라고 했다. 고려말 이색(목은)의 금사팔영(金沙八詠)시에 호곡경전(虎谷耕田)이라는 기록이 있다. 호곡은 우리말로 범실이다. 그리고 범실은 상하로 나누어 윗범실, 아랫범실이라고 부르고 있다.

‘금사팔영(金沙八詠)의 시(詩) 가운데 “호곡경전(虎谷耕田)”의 내용일부

평야너룡진(平野牢龍盡)	들판은 부자가 다 차지하고
황여편단여(荒余片段餘)	거치른 땀기밭만 남았고나
궁경도조석(窮耕度朝夕)	밭갈아 조석을 매우니
환사공명려(還似孔明廬)	제갈공명의 집을 찾아온 듯 하구나

- 건너말 - 아랫범실 시골개울 건너쪽에 있는 마을.
- 남산(南山) - 아랫범실 남쪽에 있는 산.
- 남성바위 - 하호리에 있는 바위로 남생이처럼 생겼다.
 - ☞ 남산 바위
- 다락재 - 하호리에 있는 고개.
 - ☞ 언턱이 진 고개
- 다락지 고개 - 다락재 참조.
- 대천터 - 하호리 입구에 있는 옛날 집터.
- 더메고개 - 더메산에 있는 고개. ☞ 더메산 참조
 - ☞ 더매 = 더미
- 더메산 - 하호리에 있는 산.
 - ☞ 산능선이 굴곡이 심하지 않고 굽어 모은듯한 산
- 면화밭들 - 하호리에 있는 들로 면화밭이 있었다고 함.
- 바람골 - 하호교에서 소유리로 들어가는 방향에 있는 골짜기로 바람이 세며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승려가 지고 다니던 바람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 발(山) + 안(內) + 골 = 발안골 → 바란골 → 바람골
 - ☞ 위치가 산안으로 들어간 아늑한 골짜기의 뜻.
- 벌담 - 아랫범실 벌판에 있는 마을.
- 벌터 - 벌담 앞에 있는 들.
- 범시골 개울 - 양지말 앞에 있는 내로 범시골 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보똥 웅덩이 - 양지말 길 건너 냇가에 있는 빨래터.
- 봉(범)바위 - 하호리 마을 입구 다리부근 좌측에 있는 바위로 마치 부엉이(범)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 봉(峰) - 솟은 바위
- 봉배들 - 봉바위가 있는 들.
- 산수앞 - 건너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뒷쪽에 산소가 있다.
- 새터말 - 하호리에 새로 생긴 마을.

새(사이) + 터 + 말

• 세골들 - 하호리에 있는 들로 상호리, 장흥리, 하호리의 세 골짜기 물이 합쳐지는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숲안 - 하호리에 있는 늪으로 숲이 우거진 곳.

• 시골개울 - 하호리 양지말 길 건너쪽에 있는 내 .

시 = 셋, 三

• 아랫범실 - 옛날 어느 상주와 지관이 묘자리를 구하러 이곳 마을을 지나다가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아픈 표정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지관이 다가가서 입속을 살펴보니 비녀가 걸려있어 그것을 꺼내어주자 호랑이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으며 이후 그곳에 묘자리를 쓰게된 상주의 집안은 번창하였으며 따라서 이때부터 이 마을을 범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안팍 - 아랫범실 서북쪽에 있는 마을.

• 윤개묘(尹漑墓) - 조선시대(1494-1566,성종25-명종21년)의 문신의 묘로 호는 회재(-齋)이며 1516년(중종11년)에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이조좌랑 등을 거쳐 좌의정 등을 지냄.

• 지봉(주봉)산 - 하호리 양지말 서북쪽에 있는 산.

• 칠성당(七星堂) - 숲안 북쪽에 있는 당(堂)으로 마을 사람들이 칠성에게 복을 빌었다고 전해진다.

• 터골 - 하호리에서 장흥리 사이에 있는 길옆 골짜기로 큰터골과 작은터골로 구분하여 부른다.

• 하마터 - 하호리와 장흥리 사이에 있는 길옆 작은 들로 옛날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 하호곡(下虎谷) - 하호리 참조.

10. 금 사 리

• 금사리(金沙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새처럼 생겼다고 하여 금새 또는 금계동, 금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점평리를 병합하여 금사리라고 한다.

일설에는 이곳에 금사천으로 불리우는 하천이 있었는데 옛날 이곳에서 사금이 많이 나와서 금사리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또한 금사리는 경치가 매우 좋아서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금사팔영(金沙八詠)의 시를 지어서 더욱 이름났으며, 영의정 윤개, 감사 홍명구(洪命耆), 판서 정엽(鄭燁), 백호 윤휴(尹鑄)가 이곳에 살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점들과 금계동, 벌말의 3개 자연부락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 구역으로는 금계동과 벌말이 1리, 점들이 2리로 편성되어있다.

• 건너말 - 점들 길 건너쪽에 있는 마을.

• 금계동(金鷄洞) - 금계동은 금사리의 옛 이름으로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사금이 많이 났었다고 하며, 또한 닭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금계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 금사 - 금사리 참조. 김새 또는 금새, 금사리 등으로 불린다.

☞ 김(金) + 새(금성분이 있는 구새)

• 금새 - 금사리 참조.

• 김새 - 금사리 참조.

• 느락골 - 뜨락골 참조.

☞ 느락(느린) + 골

• 느락골 고개 - 뜨락골 고개 참조.

• 남산(南山) - 점들 마을 남쪽 방향 다리 건너에 있는 산.

• 덕적골(德積) - 금사리 벌말 뒤에 있는 들로 옛날 기와 및 석재 등이 발견됨

☞ 덕적 = 높은, 큰(大)

• 덩청군(들) - 덕적골 참조.

• 둔전들(屯田) - 금사리 점들 앞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둔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 둔전(屯田) = 고려, 조선조 때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지급된 토지. 둔땅. 둔토(屯土), 둔답 등으로 불림.

• 트랙골 - 금사리 남산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 뜰(집) + 락(앞)

• 트랙골 고개 - 트랙골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고개.

• 말무더미 - 금계동 앞 강쪽에 있는 들로 옛날 파사성주의 말무덤이라고 전해진다.

· 말무덤 = 말무더미 참조

☞ 큰 무덤이라는 뜻

• 맛무덤<무덤> - 말무덤 참조.

• 말이무덤 - 말무덤 참조.

• 벌말 - 금사리 동북쪽 강변에 있는 마을.

• 벌땀<마을> - 벌말 참조.

☞ 땀 = 한 마을 안에서 몇집씩 따로 한군데 모여사는 구역.

☞ 땀 = 땀

• 불당골(佛堂) - 금사리 금계동 뒷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고 전해짐.

• 사창골 - 둔전들 참조

☞ 사창(私倉), 屯田

• 아랫말 - 점들 아랫쪽의 마을을 모두 일컫는 명칭.

• 안말 - 점들 안쪽에 있는 마을.

• 양지말 - 점들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웃말 - 금사리 윗쪽 마을을 모두 일컫는 명칭으로 점들 마을을 말함.

• 웅계들 - 금사리에 있는 들로 남한강이 가끔 넘쳐서 개흙이 많음.

☞ 웅계 = 멧계(물이 범람할 때 실리는 개흙)

• 잔등모퉁이 - 금사리에서 전북리 방향의 길 모퉁이.

• 점들(占-) - 금사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라 하여 점들이라고 불렸으며 또는 약 100년 전 용기점(그릇 만드는 곳)이 있었다 하여 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점뜰 - 점들 참조.

• 점평(占坪) - 점들 참조.

• 청룡 모퉁이 - 잔등 모퉁이 참조.

☞ 청룡 = 마을을 싸고 있는 좌측 산뿌리

• 탑골 - 뜨락골과 황새울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탕골 - 금사리와 전북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황새울(들) - 금사리 아랫말 길 건너편에 있는 들.

☞ 황(넓은) + 새(間)

11. 외 평 리

• 외평리(外坪里) - 본래 여주군 금사면의 지역으로서 외평의 유래는 밭뜰 또는 바깥뜰의 지명이 한자음화하여 외평(外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밭뜰과 여울목의 2개 자연부락과 탄항리를 병합하여 외평리로 하였다.

• 가는골 - 외평리에 있는 가는(좁은) 골짜기.

• 건너말 - 여울목 건너쪽에 있는 마을.

• 고개너머 - 여울목 뒷 고개너머에 있는 마을.

• 구룡절(九龍節) - 외평리에 있는 산으로 아홉 용 절이 됨.

• 느티나무밑 - 외평리 밭뜰 마을 느티나무 주변의 들판을 말함.

• 늪추리 - 외평리 밭뜰마을의 강쪽 늪지대로 현재는 제방 아래 쪽이 됨.

• 대성사(大成寺) - 포초골에 있는 절로 근래에 세운 절이나 그 일대에서 밭

건된 오래된 미륵불을 안치하고 있다.

- 더메 - 외평리에 있는 산.
- 더메고개 - 외평리 서쪽 더메에 있는 고개.
- 뒤통거리 - 여울목 뒤횥에 있는 들.
- 바깥들 - 외평리 참조
- 바서구니 - 외평리 서쪽에 있는 들.

☞ 밭(山) + 서구니(어구)

- 바우배기 - 외평리에 있는 들로 바위가 많이 박혀 있음.
- 밧들 - 남한강변 벌판에 위치한 마을로서 마을 위치가 본 마을 바깥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옛날 노인들이 이 마을을 가리킬 때 “바깥뜰”이라 하던 것이 “밧들”로 불려 져 온다.

- 밧들 - 외평리 참조.
- 번서구니 - 바서구니 참조.
- 보척골 - 포초골 참조.
- 보추곡(寶秋谷) - 포초골 참조.
- 보추굴 - 포초골 참조.
- 삼봉(三峯) - 외평리 금사 청소년 수련원 뒷산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음.
- 삼봉밑(三峯) - 삼봉 아래에 있는 들.
- 새덕미륵 - 외평리에 있는 좌불상으로 높이가 2.1미터, 둘레가 3미터로 마치 새덕처럼 생겼음.

- 새논들 - 외평리에 새로된 들.
- 석문사터(釋文寺) - 외평리에 있는 석문사의 터로 1937년 세워졌다가 1960년에 폐사됨

- 수리실 - 외평리 서쪽 산넘어 골짜기로 포초골 입구에 있는 산 골짜기.

☞ 수리(높은)

- 수제실 - 수리실 참조
- 수채머리 - 외평리에 있는 들로 수채의 머리가 됨.
- ☞ 수채 = 빗물이나 버린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시설

• 씨암닭골 - 외평리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많아서 씨암닭을 자주 물어 가던 곳이라고 한다.

• 안산(案山) - 여울목 앞에 있는 산.

• 앞개울계 - 외평 앞 개울가에 있는 들.

• 애갯 무룻이 - 외평리에 강변에 있는 모룻이로 여뀌가 많다.

☞ 여뀌 =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 애(崖) + 개(邊) + 모룻이(隅)

• 여울목 - 밧들 남쪽의 남한강가에 위치한 마을로서 남한강 물줄기가 완만히 내려오 다 이곳에 이르러서는 물살이 빨라지고 여울져 흐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여울목 이라고 부른다.

• 외평(外坪) - 외평리 참조.

• 외평리 느티나무 - 외평리 207번지에 있는 느티나무로 높이가 19미터, 둘레가 5.7미터, 너비가 50평, 수령은 약 500년 되는 나무로 부근에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 용개 - 외평리에 있는 넓은 들.

☞ 용(龍,山) + 개(邊) + 들(坪)

• 지마니 - 외평리에 있는 긴 들로 이포 방향의 큰 길 모룻이 옆에 있는 들을 일컫는 말.

• 지마니 다리 - 지마니에 있는 다리.

• 채결 - 외평리에 있는 골짜기로 탐이 있었다고 함.

• 텃밭 - 외평리 앞에 있는 들.

• 탄항(灘項) - 여울목 참조.

• 파락골 - 외평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8마리의 학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머물렀던 곳이라 함.

• 포척골 - 포초골 참조.

• 보추곡 - 포초골 참조.

• 포초골 - 여울목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미륵불이 있음.

• 포초골 미륵불 - 지방 유형 문화재 제 35호로 높이는 1.7미터이며 머리 위

에 3단으로 잘 다듬은 돌로 만든 4각형의 갓을 얹어 놓았다.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에 둥근 눈썹과 살며시 감은 눈, 큰 코, 자연스럽게 다문 입에는 옅은 미소가 단정하다. 또한 2중턱과 넓고 반듯한 양 어깨 밑에 풍만하고 탄력있는 가슴이 있고, 무릎에 얹혀진 손과 두껍게 조각된 양 무릎으로 구분되었다.

비대한 체구의 미륵불상이 안치된 대좌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현재 대성사라는 근래에 새로 지은 암자에 안치되어 있다.

연대, 유래는 확실히 모르나 이 부근에 큰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한다.

이 석불의 전체 높이는 2.48미터, 폭은 1.82미터, 길이는 1.64미터이고 대성사 대웅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이며 비의 길이는 59센티미터, 폭 44센티미터, 두께 31 센티미터이다.

- 보추굴 - 포초굴 참조.

- 한섬지기 - 외평리에 있는 들로 한섬지기가 됨.

- 행명골 - 외평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행(行) + 병(兵) + 골

- 황새울 - 금사교 남쪽 외평리에 있는 들로 황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황(넓은) + 새(間)

제 5 절 명승과 관광 명소

1. 삼선당(三僊堂)과 이포(梨浦)강변

금사면사무소 맞은편 약 300미터쯤의 거리에 150미터 정도 높이의 야산이 있다. 이 산의 동쪽 벼랑 밑으로는 남한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서북쪽으로는 인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 산의 북쪽 산기슭에는 봉분 둘레 약 15미터 정도의 작은 묘소가 있는데 이 묘가 천녕 최씨의 시조묘이다. 그리고 침벽루 옆에는 약 3평 정도의 목조 건물로 된 사당이 있는데 이른바 이 동네에서는 삼선당(三僊堂)이라고 부른다.

이 삼선당(三僊堂)이 언제 세워지고 어느 때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으며 삼선(三僊)의 초상화가 건물 내부에 모셔져 있다.

삼선당 앞 50미터 지점에 침벽루라고 불리우는 약 6평 정도의 정자가 있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이나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600여평 정도의 잔디밭이 잘 가꾸어져 있다.

이 정자에 앉아 고개를 들면 이포대교의 자동차 행렬과 함께 강 건너편 천서리 막국수 촌락이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오며 멀리 여주읍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여주의 젓줄인 남한강의 푸른 물길이 흘러들어 발아래 소탕이굴치에서 휘돌아 서울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삼선당 윗쪽에 세워져 있는 침벽루 아래 강가에는 완만한 암벽이 강과 접하고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과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다.

암벽 위로 향하면 나옹선사가 심었다는 수백년 묵은 은행나무가 전설과 함께 강변의 절경을 한눈에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강 건너에는 파사성이 전개되고 북쪽 강안에는 신라시대에 축성했다는 술천성지가 태봉에 자리하고 있다.

옛날 강원도의 물산과 서울의 화물이 물길을 따라 이 강을 오르내릴 때에는 여주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포대교가 있어

강을 건너는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포 나룻터에서 철선이 강을 건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서 사람은 물론 큰 화물차량들까지도 실려 강을 건너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서쪽 1.5킬로미터 지점엔 모제 김안국(金安國) 등 여덟 분의 명현을 모신 기천서원이 있다. 1469년 여주목으로 합쳐지기 전에는 천령현(川寧縣)이 이곳 이포에 설치되어 현감이 있었다는 고현(古縣)으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산과 강이 두드러지게 아름답고 포구로서 명성을 날렸던 이곳에 금사팔영(金沙八詠)의 시가 현재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또다시 옛 명성과 함께 이천과 양평, 강원도 홍천 등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를 이포대교가 연결시켜 줌으로써 교통이 편리함은 물론 이포대교 아래는 넓은 자갈밭과 여울이 새로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내왕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포에서 이천방향 및 곤지암 방향에는 이곳 이포의 특산물인 금싸라기 참외를 직판하는 노점들이 길옆에 즐비하며, 강건너 천서리에는 경기도 테마관광지인 막국수촌이 있어 새로운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여주군은 군 전체가 관광지라 할만큼 산과 강이 아름답지만 이곳 이포의 삼선당은 절경이라 하겠다. 최근에 언론 매체에 자주 소개되기도 하지만 답답한 도시생활에 찌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말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찾고 싶은 곳이다.

2. 이포 골프장

이포 골프장은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산 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1992년 3월 22일에 개장되었는데, 이포 C.C와 자회사인 천우개발(주)이 5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새로운 시도의 벤처형 리조트로서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레저와 스포츠를 아담한 규모에서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도록 회원중심의 새로운 개념으로 으로 탄생시킨 골프장이다.

총 규모는 32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18홀(피칭코스 6홀)로 캐디시스템은 4백 1캐디 및 리모콘 카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977명, 직원은 65명으로 내장객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대시설로는 숙박시설, 레스토랑, 눈썰매장, 스노우보드장, 자연유수풀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조류사육장, 유실수 농원 등이 있으며, 특히 골프장 북쪽 하단에 위치한 금사호는 1급수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서 이포컨트리클럽에서 낚시터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한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병어가 서식하여 겨울철 새로운 관광자원지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갈길 포장이기는 하나 저수지 옆으로 우회하는 산중도로가 나있어 삼림욕 및 산속의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운치있는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3. 금사토기(오부자 용기)

여주군 금사면 궁리 산 2번지에 소재한 금사토기 공장은 최근에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전통용기를 재현하여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업주인 김일만씨와 4명의 자제가 함께 한 집안에서 생활하며 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오부자 용기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총 부지가 200여평인 이 공장은 가마 4개를 설치하여 장작불을 피워 우리 고유의 전통 용기제조 기법에 의해 생산하는 곳으로 항아리 및 단지류 등 연간 3천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 집에서 제조된 용기류를 보면 마치 옛날 농촌마을의 장독대의 용기를 연상하게 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용기는 생명을 가진 양 용기 자체가 숨을 쉰 듯 그 속에 저장하는 음식 맛은 매우 특이하다고 한다.

제 6 절 제영(題詠) 및 지기(誌記)

● 제영(題詠)

1. 금사팔영(金沙八詠)

목은(牧隱) 이색(李穡)

서산채미(西山採薇)

春雨隨風細(춘우수풍세)
春山到處深(춘산도처심)
何人能採薇(하인능채미)
惹起伯夷心(야기백이심)

서산에 고사리 뜯고

봄비는 바람따라 가랑비
산마다 봄이로세
어느 누가 고사리캐어
백이(伯夷)²⁶⁾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려고

동강조어(東江釣魚)

早聞鮮味雋(조문선미준)
攄說細鱗肥(총설세린비)
不待秋風起(불대추풍기)
願從張翰歸(원종장한기)

동강(東江)²⁷⁾에 고기 낚고

일찌기 듣기를 살찐 생선의 맛이라는데
모두가 잔비를 생선에 살진다네
가을 바람 일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장한(張翰)²⁸⁾ 같이 돌아가기를 원하네

용문작약(龍門鑿藥)

地靈多藥物(지령다약물)
山密少塵埃(산밀소진애)
更問如菰藿(갱문여과조)
安期安在哉(안기안재재)

용문에 약초를 캐다

땅이 신령스러워 약초가 많고
첩첩산중엔 때문지 앓았구나
다시 묻노니 외나 대추를 보니
안기생(安期生)²⁹⁾이 은거하겠구나

26) 은나라 고죽군(고죽군)의 아들로 동생 숙제(숙제)와 함께 무왕이 은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을 탈리다가 듣지 않으므로 형제들은 주나라의 녹을 먹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고 숨어살다가 굶어 죽었다.

27) 梨浦江(이포강)

28) 중국 진나라 때 관리로 자기 고향에 농어회와 숫나물 죽의 진미를 부모에게 드리기 위하여 가을이면 매년 사직하고 고향에 가기 때문에 왕이 이를 알고 나서 가을이면 미리 휴가를 주었다.

29)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해변에 나가 술마시며 휴양할 때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하루 이틀이면 싫증을 느끼는데 안기생이란 사람이 찾아가 대화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흥미가 더하였다. 진시황이 안기생에게 항상 곁에 있어 주기를 간청하였더니 안기생은 나의 모든 이야기는 구전뿐이니 후세에 전하는 방법은 오직 책으로 전하고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호곡경전(虎谷耕田)

平野牢籠盡(평야뢰롱진)
荒畬片段餘(황아편단여)
窮耕度朝夕(궁경도조석)
還似孔明廬(환사공명려)

범실 밭갈이

들판은 부자가 차지하고
거친 돼기만 남았구나
스스로 밭갈아 조석을 지내니
마치 제갈공명³⁰⁾의 집을 찾은 듯 하구나

한포농월(漢浦弄月)

日落沙逾白(일락사유백)
雲移水更清(운이수갱청)
高人弄明月(고인농명월)
只欠紫鸞笙(지흠자란생)

한포에서 달을 희롱함

해 떨어지니 모랫빨은 더욱 희고
구름 건히니 물은 더욱 맑구나
높은 사람들은 달빛을 즐기는데
자란생³¹⁾없어 흠이로세

파사망우(婆娑望雨)

天意應生物(천의응생물)
農功在及時(농공재급시)
碧潭臥龍久(벽담와룡구)
一起境何遲(일기경하지)

파사성에 비를 바람

하늘의 뜻은 만물을 살리려 함에 있고
농사는 때가 있는 법일세
벽담(碧潭)³²⁾에 용이 누운지 오래건만
한번 일어나기 어찌 이리 더딘고

장흥습을(長興拾栗)

秋風初瑟瑟(추풍초슬슬)
栗子漸纍纍(율자점루루)
獨往吾曾記(독왕우증기)
金丸落地時(금환락지시)

장흥에서 알밤을 줯음

가을 바람 처음일 때
알밤은 점점 벌어지네
나홀로 갈 것을 일찍이 기억하리
金丸(금환)³³⁾이 우수수 할 때를

황제께서는 모든 책을 불사르고 학문을 중히 여기지 않으니 앞날에 어떻게 하겠소 하고 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그는 중국의 금강산으로 들어가 영영 나오지 않았다. 안기생은 백이십년을 넘겨 산 장수인 인데 입산 후에 나오지 않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시황은 그의 고향에 사당을 짓고 향사토록 명령한 것인데 여기서 금사는 산이 중첩하고 맑으니 안기생 같은 사람도 은거할 만 하겠다는 뜻이다.

30) 제갈공명은 젊어서 산속의 초려에서 살면서 스스로 밭을 갈아 생활하였다.

31) 신선이 붙었다는 피리

32) 벽담에 용이 누우면 날이 가물고 일어나면 비가 온다는 고사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

33) 알밤을 뜻함

주읍심매(注邑尋梅)

賦詠逼眞³⁴⁾少(부영핍진소)
栽培離俗多(재배이속다)
最憐荒僻處(최린황벽처)
寂寞伴姮娥(적막반항아)

주읍에서 매화를 찾네

윽읍이란 그대로 묘사가 적은데
재배는 속세와 다름이 많구나
가장 어여쁜 것이 황벽³⁵⁾한 곳에
적막히 항아³⁶⁾의 짝이로다

2. 금사팔영(金沙八詠)

금사의 여덟가지 윽읍

모계(慕齋) 김안국(金安國)

尹判校漑汝沃聞墅于驪之金沙洞將爲菟裘水與余結社爲賦八詠以贈之

(윤판교개여옥문서우여지금사동장위토구수홍여결사위부팔영이증지)

윤판교(尹判校) 개(漑) 여옥(汝沃=字)이 여주의 금사(金沙)에 농막을 짓고 토구(菟裘)³⁷⁾로 삼으면서 오래도록 나와 결사(結社)³⁸⁾를 하겠다기에 팔영(八詠)을 지어 보내 주었다.

동호범장(東湖帆檣)

風帆日日過如奔(풍범일일과여분)
爭識西溪有隱村(쟁식서계유은촌)
莫遣桃花流水出(막견도화류출수)
怕逢漁客解尋源(박봉어객해심원)

날이면 날마다 돛배는 스쳐가며
서계(西溪)의 은촌(隱村)을 알고자 하네
복숭아꽃 물에 떠 내리지 마라
어부가 이 곳을 찾아 들을라

서봉풍취(西峯風翠)

何人柱笏望朝朝(하인주홀망조조)
不判非緣爽氣消(불판비연상기소)
久壓秋容資浪話(구압추용자랑화)
却將春態伴孤標(각장춘태반고표)
伴一作對一作屈(반일작대일작굴)

뉘기에 홀(笏) 쏘고 아침마다 바라보나
인연이 아니면 상기만 잃는 것을 모르나
추용(秋容)에 시끄러움에 지루하기도 하여
춘태(春態)를 보고자 고표와 짝이 되리

34) 실제와 거의 비슷함

35) 거칠고 가파른

36) 달나라에 산다고 하는 미인의 이름. 원래는 취(翠)의 아내 이름. 취(翠)가 서왕모(西王母)에게 청하여 얻은 불사약(不死藥)을 훔쳐 마시고 신선이 되어 도망쳐 달의 정(精)이 되었다고 함

37) 노나라 은공이 늙어서 우거하던 곳

38) 의견이나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단합함

남계수조(南溪垂釣)

知魚未暇辨濠梁(지어미가변호랑)
 耽看游鯉躍鏡光(침간유선락경광)
 戲把纖綸投日夕(희파섬윤투일석)
 偶然銀縷佐賓觴(우연은루좌빈상)

호랑³⁹이 물고기 줄기를 미처 몰랐지만
 번득번득 뛰노는 고기를 보고 싶구나
 취미삼아 낚시를 드리웠더니
 우연히 손님 밥상에 오르네

북간탁영(北澗濯纓)

離北琮琤玉珮聲(이북종쟁옥패성)
 携筇終日澗邊行(휴궁종일간변행)
 無塵豈爲纓須濯(무진개위영수탁)
 愛弄清流鑑髣髴(애농청류감차명)

울타리 북쪽에 옥피리 소리
 종일 지팡이 짚고 냇가를 거니네
 묻음 없으니 갓끈 씻을 일 없고
 맑은 물 좋아 백발을 비쳐 볼 뿐이네

풍암수망(風岩睡望)

層巖如畫聳千尋(층암여화용천심)
 一曲彎環俯碧深(일곡만환부벽심)
 雲盡山尖天宇廻(운진산첨천우회)
 幾回疑立散幽襟(기회의립산유금)

높은 바위 그림처럼 천길 솟아
 한구비 도는 물결 굽어보네
 구름이 걷히니 산높고 하늘은 먼데
 응립(凝立)하여 숨은 회포를 풀었던가

용담욕영(龍潭浴詠)

輕衫初試岸綸巾(경삼초시안륜건)
 花覆澄潭正暮春(화복정담정모춘)
 浴罷歸來空浩詠(욕파귀래공호영)
 此身寧更浣街塵(차신영갱완가진)

가벼운 차림으로 윤건(綸巾)을 썼는데
 꽃은 맑은 물을 덮었으니 정녕 늦봄이로세
 목욕하고 오는 길에 호가를 부르니
 이 몸을 어찌 티끌에 더럽힐손가

연지명월(蓮池明月)

荷香暗襲桂花香(하향암습계화향)
 天月臨輝浸小塘(천월임휘침소당)
 靜寂無人酬絕景(정적무인수절경)
 一材遙屬老吳剛(일재요속노오강)

박하 향기 은연히 계수(桂樹)향 찌르니
 달은 빛을 밝혀 작은 못에 잠기네
 고요함이 이 좋은 경치 보아줄 이 없고
 한잔 술에 멀리 늙은 오강⁴⁰에게 부리노라

39) 호랑은 양의 이름. 중국 안위성 봉양현 동북쪽 동호수에 있는 다리다. 장자와 비자가 이 다리에서 고기가 뛰노는 것을 가장 즐겨워하였다고 함

죽오청풍(竹塢淸風)

颯颯蕭蕭滅竹林(삼삼소소멸죽림)
 午眠纔罷起披襟(오면재파기피금)
 人間敲熱寧知此(인간기열녕지차)
 一味淸涼喜犯尋(일미청량희범심)

죽림을 혼드는 바람소리에
 낮잠을 깨니 옷깃을 스치네
 사람이 치고 흔들은 듯 이럴 수가
 맑은 공기 이 참 맛을 나만이 보는구나

3. 봉화동정상공침류정시절죽성팔수차운

(奉和東亭相公沈流亭四絕足成八首次韻)

김구용(金九容)

元遊南國已三年(원유남국기삼년)
 移施金沙自禮泉(이시금사자예천)
 賴有伊庵遺跡在(너유이암유적재)
 枕流亭上枕書眠(침류정상침서면)
 富貴功名在少年(부귀공명재소년)
 拂衣今日臥平泉(불의금일와평천)
 滿山秋雨風吹去(만산추우풍취거)
 月白南軒共被眠(월백남헌공피면)

멀리 남쪽에서 온지가 이미 삼년
 자리를 금사로 옮겨 예천에서 왔네
 그래도 이암(伊庵)⁴¹⁾의 유적이 있어
 침류정(枕流亭)⁴²⁾ 위에서 책을 베고 잠자네.
 부귀공명은 젊어서 일이니
 옷을 떨친 오늘엔 평천(平泉)에 누웠네
 산에 가득하던 가을비는 바람에 밀려가고
 흰 달은 남헌(南軒)에서 함께 자네

窄池栽柳構茅亭(착지재류구모정)
 蒼翠濛濛不肯晴(창취몽몽불궁청)
 忽破銀臺花月夢(홀파은대화월몽)
 綠陰時有一鶯聲(녹음시유일앵성)

못파고 버들 베어 띄집을 지으니
 푸르고 푸른 위에 자욱한 안개비는
 개일 줄 모르네
 홀연 은대 꽃과 달빛 꿈 깨고 보니
 시원한 그늘 속에 찌꼬리 소리뿐

樹陰深布跨溪亭(수음심포과계정)
 瀟灑江郊積雨晴(소쇄강교적우청)
 弄月吟風秋夜靜(농월음풍추야정)
 檻前流水自無聲(함전류수자무성)

그늘이 두터워 냇가의 정자를 덮고
 시원한 강변엔 오랜 비 개였네
 달 즐기며 바람을 읊는 가을 밤 고요한데
 난간 앞에 흐르는 물은 조용하여라

40) 한의 하서 사람으로 달가운데 계수나무를 베었다고 함

41) 권하(權夏)의 호, 염흥방의 외척임

42) 廉興邦(염흥방, 호는 東亭: 동정)이 금사에 있을 때 우거하던 정자의 이름

夢魂猶繞鳳凰池(몽혼유요봉황지)
問舍求田碧水湄(문사구전벽수미)
不用區區藏姓字(불용구구장성자)
禽魚草木已曾知(금어초목이증지)

萋萋春初謝家池(처처춘초사가지)
激激秋波葛井湄(염염추파갈정미)
詩味仙風俱自得(시미선풍구자득)
野情眞趣有誰知(야정진취유수지)

扁舟短棹款紫門(편주단도관자문)
雨夜還米水上村(우야환미수상촌)
爲問金沙何處是(위문금사하처시)
一燈明暗蘓林原(일등명암격임원)

地僻茅茨不置門(지벽모자불치문)
長江西曲一孤村(장강서곡일고촌)
客中秋興知多少(객중추흥지다소)
芋栗滿山稼滿原(우울만산가만원)

4. 침류정 사절(枕流亭四絶)

詩酒歡娛近百年(시주환오근백년)
古人遺蹟在林泉(고인유적재임천)
紅塵十載銀臺罷(홍진십재은대파)
爭似伊菴一醉眠(쟁사이암일취면)

伊菴權賀先生(이암권하선생)
公之母族無后(공지모족무후)
故公得基別業(고공득기별업)

꿈에서 봉황지(鳳凰池)를 돌더니
집을 물어보고 밭을 찾아 물가에 다달았네
구구하게 이름을 간직한 필요 있나
새와 물고기 초목들이 이미 아는데

우거진 봄풀은 사가(謝家)의 못이요
출렁이는 가을 물결은 갈정(葛井)가일세
시(詩)맛과 풍토를 다 얻었으니
들 정의 참다운 멋을 누가 있어 알고

조각배 짧은 돛대로 사립문 찾아드니
비내리는 밤 물위에 마음이 희미하네
물노니 금사가 어느 곳인가
등불만 깜박 깜박 숲 사이로 보이네

궁벽한 곳에 띠집이니 문도 달지 않았고
긴 강 서쪽 굽이에 외로운 마을이 있네
나그네 속 가을 흥치 많은 줄 알겠고
산에는 감자와 밤이요 들에는 곡식이
가득하고나

영흥방(廉興邦)

시와 술로 노닌지 근 백년
옛 사람이 남긴 자취 임천(林泉)에 있네
때묻은 십년 벼슬을 버리고
이암(伊菴)과 취하여 함께 자고 있네

이암은 권하 선생이다.
공(廉興邦)의 어머니 친족인데 후사가 없어
공이 그 별장을 얻어서 거처했음

金沙居士枕流亭(금사거사침류정)
楊柳陰陰暑氣晴(양류음음서기청)
洗耳不聞塵山事(세이불문진산사)
潺湲只有小溪聲(잔원지유소계성)

금사거사(金沙居士)의 침류정(枕流亭)에
버들은 그늘지고 더운 기운이 가셨네
귀를 씻어도 때묻은 세상사 들리지 않고
잔잔한 꿈은 작은 시냇가에 있네

麥隴高低水滿地(맥룽고저수만지)
荒村寂寂傍江湄(황촌덕적방강미)
紅塵南北紛紜事(홍진남북분운사)
說與沙頭白鳥知(설여사두백조지)

보리밭 언덕은 높낮고 물은 수평선
거친 마을은 수변에 닿았네
때묻은 남북의 시끄러움을
모래위에 새들에게 알릴까

驪江渺渺控龍門(여강묘묘공룡문)
隔岸漁燈認遠村(격안어등인원촌)
田父夜歸無雜語(전부야귀무잡어)
但折柴樵滿郊原(단절칠가만교원)

강물은 아득히 용문(龍門)을 당겼고
언덕넘어 고기잡이 불빛보고 먼 마을 알겠네
농부는 돌아와 잡소리 없이
들뜬에 가득한 곡식만 거두네

5. 여강오절기둔촌이호연(驪江五絕寄遁村李浩然⁴³⁾)

김구용(金九容)

晚來徐步瀕蘇洲(만래서보섭소주)
風露淒清月影流(풍로처청월영류)
欲喚笙歌嫌擾擾(욕환생가렴우우)
獨吟詩句上魚舟(독음시귀상어주)

느즈막히 돌아와 소주(蘇洲)⁴⁴⁾를 산책하노라니
바람과 이슬은 쓸쓸하고 달빛만 흐르네
피리 불러하니 시끄러움 싫어
시 읊으며 고기배에 오르네

稚子撐舟沂碧流(치자탱주기벽류)
夜深移泊柳陰棚(야심이박류음주)
草間蟋蟀啼無數(초문실솔제무수)
露冷衣寒未久留(로냉의한미구류)

어린 아들이 배를 당겨 물결을 거스르고
밤 깊기에 버들 숲에 대었네.
풀속에 귀뚜라미 수없이 울어대고
이슬이 차거우니 옷도 차서 머물기 어렵네.

43) 遁村(둔촌) 李集(이집)의 字

44) 중국 강소성(江蘇省) 명승지로 호수가의 경치가 일품이다. 금사의 강변을 비유한 것이다.

月色江聲署氣微(월색강성서기미)
老櫓時復近答磯(노노시복근대기)
收絲卷棹人無事(수사권도인무사)
穩放輕船緩緩歸(은방경선완완귀)

달빛과 강물소리에 더운기 가지고
늙은 어부 시시로 이끼진 자리에 다가오네
줄 거두고 돛대거두니 할 일없어
서서히 가벼운 배로 돌아가네.

解衣倚枕初夢驚(해의이침초몽경)
時有沙禽忽報更(시유사금홀보경)
意在汀洲佳處駐(의재정연가처주)
岸移山轉覺舟行(안이산전각주행)

옷풀고 베개에 기댔다가 첫 꿈을 깨어나니
물새들은 시간을 알려주네.
뜻은 물가에 살고자 하는데
산과 언덕이 지나가니 배가는 것을 알겠네.

籬下維舟露濕衣(리하유주로습의)
閑吟剝啄叩柴扉(한음박탁고자비)
主人聞語還酣睡(주인문어환잠수)
應是真予久不歸(응是真予久不歸)

울밑에 배를 대니 이슬은 옷을 적시고
한가히 시 읊고 사립문 두드리네.
주인은 내소리 듣고도 단잠을 자니
내가 너무 늦게 온 탓이겠지.

6. 취유하령사(醉遊下寧寺) 하령사에서 취하여 노닐

이규보(李奎報)

偶到湖邊寺(우도호변사)
淸風散酒醺(청풍산주훈)
野荒偏引燒(야황편인소)
江暗易生雲(강암이생운)
碧嶺侵沙斷(벽령침사단)
奔流夾岸分(분류협안분)
孤舟何處泊(고주하처박)
漁笛晚來聞(어적만래문)

호수가 절(下寧寺)⁴⁵⁾에 우연히 다다르니
시원한 바람에 취기는 절로 깨고
거친 들판은 불이라도 일어날 듯
아득한 강변에 구름이라도 일 듯
푸른 산은 물길에 찢겨 끊겼고
달리는 물줄기 언덕에 갈라졌네.
외로운 배는 어디에 대었기에
어부의 피리소리 그윽히 들리나

45) 천령의 등신에 있었던 절

7. 영 천령사귀야(詠 川寧思歸也)

천령으로 돌아 갈 것을 생각하며 읊음.

이색(李穡)

露濕山中扉(로습산중비)
風吹江上舳(풍취강상령)
飄然來又往(표연래우왕)
偶爾醉還醒(우미취환성)

이슬은 산 속의 사립문 적시고
바람은 강물 뱃전에 부네.
표연히 왔다가 또 가고
우연히 취했다가 깨어나네.

月出波濤白(월출파도백)
雲收松桂靑(운수송계청)
安排失眞趣(안배신진취)
招喚莫丁寧(소환막정령)

달이 오면 물결은 희고
구름 걷히니 숲은 푸르구나.
안배(安排)하니 참된 재미를 잃고
정녕 찾고 부르지 마라.

逢僧多問字(봉승다문자)
送客或揚舳(송객혹양령)
耳慣恒多笑(이괘항다소)
心淸故獨醒(심청고독성)

중(僧)을 만나면 묻는 글자가 많고
손님을 보내려 배를 끌어올리기도 하누나.
귀 막히니 웃음만 많고
마음이 맑으니 홀로 깨었네.

長江一條碧(장강일조벽)
疊巘幾層靑(첩헌기층청)
野興難收拾(야흥난수습)
何時直往寧(하시직왕령)
著屐游山寺(저극유산사)
垂絲坐野舳(수사좌야령)
吟如東野瘦(음여동야수)
狂似次公醒(광사차공성)

긴 강 한줄기 푸르고
첩첩산은 층층이 푸르고나.
들녘 흥취를 수습하기 어려우니
어느 때 천령으로 갈건지
나막신 신은 채 절간에 노닐고
들베에 낚시를 드렸네.
읊음은 동야(東野)에 파리함이요
있는 것은 차공(次公)⁴⁶⁾이 깨인 듯

樹色雲中綠(수색운중록)
天容水底靑(천용수저청)
何人煩意匠(하인번의장)
畫我在川寧(화내가천령)

나무빛 구름 속에 푸르고
하늘은 물속에 푸르네
어느 누가 번거로이 생각하여
내가 천령에 있음을 그려볼까.

46) 한나라 개관요의 성

8. 망포정팔경(望浦亭八景)

고현감노옥소건(故縣監盧穡所建) 이 식(李 植)

주읍춘심(注邑春深)

一壘上危巖(일경상위아)
春深百花亂(춘심백화란)
下有武陵園(하유무릉원)
霏紅渾查漫(비홍휘사만)

주읍(注邑)에 봄은 깊어

오솔길 산높이 올랐고
봄 깊어 백화가 어지럽고나.
아래로 무릉원 있어
가랑비 속에 꽃들이 었혔고나.

금사추만(金沙秋晚)

山瘦帶秋客(산수대추객)
楓林一半紅(풍림일반홍)
秋花千頃雪(추화천경설)
相暎夕陽中(상영석양중)

금사에 가을은 늦어

산은 파리하게 가을 모습이요,
단풍은 반쪽만 붉고
갈대 꽃은 넓은 들의 눈(雪)이요
서로 서로 석양을 비취네

진포조연(鎭浦朝烟)

濃抹忽橫村(농말홀횡촌)
風吹輕婀娜(풍취경조나)
知有捕魚郎(지유포어랑)
停舟來索火(정주래색화)

진포의 아침 연기

질은 빛 마을을 가로지르고
바람에 가벼이 흔들리네.
저기 물고기 잡는 이 있어
배를 멈추고 불을 찾네.

파성모풍(婆城暮嵐)

古戍寂無人(고수적무인)
浮風自來往(부풍자래왕)
分明彩翠生(분명채취생)
日隱譙樓上(일은초루상)

파사성 저녁 아지랑이

옛 초소막은 적적하고 사람 없어
뜬 아지랑이만 오고 가네.
분명 채색과 푸른 빛 있어
초루(譙樓)⁴⁷⁾에 숨어있네.

세야농가(稅野農歌)

一洗箏琶耳(일광쟁파이)
歸田樂事다(귀전락사다)

셋들(稅野)의 농가(農歌)

쟁쟁한 비파(琵琶)를 버리고
! 농촌에 돌아오니 즐거움 뿐일세.

47) 성문 위에 세운 망루

淸風颯長夏(청풍삽장하)
綠野有農歌(록야유농가)

청풍은 긴긴여름 시원히 하고
푸른 들녘엔 농가(農歌)가 있네.

향교목적(香郊牧笛)
村童卷廬葉(촌동권려엽)
倒跨歸牛背(도과귀우배)
杳杳一聲殘(묘묘일성잔)
秋郊烟雨晦(추교연우회)

향교(香郊) 목동의 피리
촌아이들은 갈대잎 말아
돌아오는 소등에 거꾸로 탔고나.
아득한 소리 잔잔하니
가을 들녘은 연기와 가랑비 자욱하네

일말계운(一抹溪雲)
溪光一匹練(계광일필련)
其上白雲宿(기상백운숙)
暝裏鳥相呼(명리조상호)
秋陰談將夕(추음담장석)

한줄기 시냇가의 구름
물빛은 한 필의 비단같고
그 위에 구름이 자고 있네.
어둠 속에 새들은 서로 부르고
가을 빛 옅어지자 저녁이 찾아드네.

삼차송월(三叉松月)
乍聞繁露墜(사문번로추)
稍覺寒聲迴(소각한성회)
明月來照之(명월래조지)
朧朧一傘影(롱롱일산영)

삼차의 송월(松月)
잠시 우수수 이슬 지는 소리에
깨어나니 이미 찬바람 일고
밝은 달 여기에 비추니
아롱아롱 일산의 그림자로다

9. 제 여상구려(題 驢上舊廬) 여상의 옛집

홍명하(洪命夏)

爲農爲士計何疎(위농위사계하소)

농사도 짓고 선비도 되려니 어찌 이렇게 소홀(疏闊)한가

在着工夫十載餘(재착공부십재여)

부질없이 공부한지 이십여년

經卷辛勤空絕韋(경천신근공절위)

경서(經書)는 애써 읽다가 끈 떨어지고
 石田荒沒已拋鋤(석전황몰기포조)
 돌밭은 거칠어 이미 호미를 버렸네.
 身歸朝市猶藏跡(신귀조시유장적)
 몸이 조정에 머무니 자취를 감췄고
 興入秋江可釣魚(흥입추강가조어)
 흥취가 추강(秋江)에 있으니 물고기 낚네.
 隨意不妨來又去(수의불방래우거)
 뜻대로 오고 가는 것 막지 않으니
 烟霞依舊護林廬(연하의구호림려)
 연기와 안개는 예대로 숲 속의 집을 지키네.

10. 고산(孤山) 48)

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

自有茲天地(자유자천지)	천지가 있으면서부터
應知有此山(응지유차산)	이 산 또한 있었으리.
英名山共久(영명산공구)	영특한 이름과 함께 오랜 산이여
千載藐難攀(천재막난번)	천년 세월 아득히 더듬기 어렵네.

11. 우음(偶吟)

길 재(吉 再)

五更殘月窓前白(오경잔월창전백)	새벽 달 창앞에 밝고
十里松風枕上清(십리송풍침상청)	긴긴 솔바람 베개 위에 맑구나
富貴多勞貧賤苦(부귀다노빈천고)	부귀란 수고로움이 많고 가난은 괴로운데
隱居滋味與誰評(은거자미여수평)	숨은 자미 누구와 말할고.

48) 대신면 보통리 앞강에 홀로 서 있는 산으로 李存吾(이존오)가 이 곳에 우거하였으며 훗날 공을 향사(享祀)하는 孤山書院(고산서원)이 세워졌다.

12. 고산(孤山)

在外北三十里屹然於平野江沱抱岸極有景致諺傳李存吾所住之處

(제외북삼십리홀연어평야강타포안극유경치언전이존오소주지처)

고산은 고을 북쪽 30리에 높다랗게 있어 들의 강 구비 언덕을 안아 몹시 경치가 좋은데 전해오는 말은 이존오(李存吾)가 살던 곳이라 한다.

慕齋 金安國 詩并序(모재 김안국 시병서) 모재 김안국 시에 아울러 서문한다.

孤山在驪江下流水中孤岫特立清波四環如芙蓉出秀其上四面平廣或高或低

(고산재여강하류수중고초특립청파사환여부용출수기상사면평광혹고혹저)

低皆作臺形中峯最高面上又廣平如砥可坐三十人四望遙山環合峯巒羅列以千萬數

(저개작대형중복최고면상우광평여지가좌삼십인사망요산환합봉만라열이천만수)

大野縹茫長江透或慢流或湍急曲浦岐沱能狀千萬西流而去綠淨徹底長洲橫前白沙

(대야묘망장강투혹만류혹단급곡포기타능장천만서류이거록정철저장주횡전백사)

加雪鋪眞天下絶勝也距梨湖僅六七里與泛槎亭相對如凡案人傳云李長沙存吾幼時

(가설포진천하절승야거이호근육칠리여범사정상대여범안인전운이장사존오유시)

作江漲詩許云大野皆爲說孤山獨不降者卽此也山本孤立江中故得名而世誤以孤爲

(작강창시허운대야개위설고산독불강자즉차야산본고립강중고득명이세오이고위)

高可笑欽想先資每欲一登而不得嘉靖甲午初夏尹上舍瓘置酒山上邀余來賞余拉姜

(고가소흠상선자매욕일등이불득가정갑오초하윤상사관치주산상요래상여납강)

上舍潤德挽小艇而上擊纜而登則李正字畬李奉事苾禹秀才龜祥亦會歡飲甚醉狂歌

(상사윤덕만소정이상격람이등즉이정자여이봉사필우수재귀상역회환음심취광가)

從舞口占號數絕

(종무구점호수절)

고산은 여강 하류에 있는데 물 가운데 외롭게 우뚝 솟아 있고 맑은 물결이 사방으로 둘러 마치 연꽃이 그 위에 솟아난 것과 같다. 사방이 평평하고 넓은데 혹은 높은 대(臺)와 같고 그 가운데 봉우리가 솟고 봉 위에 또 솟돌같이 평편한 곳이 있어 3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다. 사방을 바라보면 먼 산들이 둘러싸여 향하고 봉우리들과 벌려 서서 첩첩 천만 개로 셀 만 하다. 큰 들은 아득하고 긴 강은 이리 저리 굽어 느리게 또는 급하게 흐르며 굽이진 포구에 흐르는 모양도 천태다. 물은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몹시 푸르고 깨끗하다. 긴긴 물가는 앞으로 가로 놓이고 흰모래 위에 눈이 덮이니 참으로 천하에 절경명승이다.

이이=이호(梨湖=梨浦)와의 거리가 겨우 6~7리 정도로 범사정(泛槎亭)과 바로 마주 대고 있어 마치 책상 앞에 앉은 것과 같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이장사(李長沙) 존오(存吾)가 어려서 강창시(江漲詩)를 지었는데 「큰 들이 모두 베풀어도 고산은 홀로 항복지 않네(大野皆爲設 孤山獨不降)」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산은 본래 강 가운데 외롭게 서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던 것인데 세상에서 잘못 전해서 고(孤)자를 고(高)자로 썼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선현(先賢)들의 일을 흠모하는 마음에 매번 올라가려고 해도 오르지 못하다가 가정갑오(嘉靖甲午=1534)년에 이 산 위에 술을 놓고 나를 청해서 구경하라기에 나는 강상사(姜上舍)·윤덕(尹德)을 불잡고 조그만 배를 타고 올라 가다가 닻줄을 매고 올라가니 이정자(李正字) 여(俞)·이봉사(李奉事) 필우(苾禹)·수재(秀才) 귀상(龜祥)도 역시 모여 즐겁게 마시면서 몹시 취하여 미친 듯 노래하고 멋대로 춤추다가 입으로 질구 두어 수를 지었다.

自有茲天地(자유자천지)
應知有此山(응지유차산)
英名山共久(영명산공구)
千載邈難攀(천재막난반)

스스로 천지가 있으니
응당 이 산이 있음도 알리
영특한 이름이 산과 함께
천년이 멀어 더듬기 어렵고나

孤山抱水插青冥(고산포수삽청명)
萬古塵蹤有廢城(만고진종유폐성)
人與江同流去盡(인여강동류거진)
山因賢達獨留名(산인현달독류명)

고산은 물을 안고 창공에 꽂혔고
만고에 때묻은 자취 무너진 성(城)이요
인결은 저 강과 함께 다 갔건만
산은 현통한 사람에 의해 이름 홀로 남았네

13. 봉암 재주서오십리금사동(鳳岩 在州西五十里金沙洞)

봉암은 관아 서쪽 50리 금사동에 있다.

地破千年秘(지파천년비)
雲開半日陰(운개반일음)
蒼屏方展畫(창병방전화)
清澗試橫琴(청간시횡금)
景物惟吾壇(경물유오단)
塵埃汲子深(진애급자심)
雖爲晚歲約(수위만세약)
終恐負初心(종공부초심)

땅은 천년 비밀을 깨치고
구름은 반나절 그늘이 건넸네
푸른 병풍은 이미 그림을 뗐고
맑은 시내는 거문고를 가로 질렀네
경치는 내 마음 대로 섰고
질은 때는 그대에게 깊구나
비록 약속이 늦기는 했지만
고향을 저버릴까 두렵구려

14. 팔영(八詠)

백광훈(白光勳)

추읍춘심(趨挹春深)

日日軒窓似有期(일일현창사유기)
捲簾時早下簾遲(권렴시조하렴지)
春風止在鳳頭寺(춘풍지재봉두사)
花外歸僧自不知(화외귀승자부지)

추읍산에 봄은 깊어

날마다 창가에 기약이나 있는 듯
발(簾)을 내리자니 이르고 걷자니 늦었네
봄 바람은 봉두사에 그쳤는데
꽃밖에서 돌아오는 스님이 알 리가 있나

금사만추(金沙晩秋)

蘆花撩亂蓼花明(로화요란요화명)

極浦寒山一美清(극포한산일미청)

何處斷雁猶未下(하처단안유미하)

暮雲天際獨悲鳴(모운천제독비명)

금사의 늦가을

갈대꽃 어지럽고 여귀꽃 밝은데

저 포구 끝에 차디찬 산은 한결 맑구나

어디서 떨어진 기러기이기에 아직도 내려앉지 못하고

구름마저 저무는 하늘에서 홀로 우나

진포조연(鎭浦朝煙)

山頭日出草連天(산두일출초연천)
 人事家家笑語喧(인사가가소어환)
 籠峰不分垂柳色(룽봉불분수류색)
 過橋時露繫紅痕(과교시로계강흔)

진포의 아침 연기

산머리 해 뜨는 데 풀들은 하늘에 닿은 듯
 집집마다 웃음소리 시끌벅적
 농봉(籠峰)에 버들빛 희미하고
 다리 건느라니 배(船) 댕 자리엔 이슬의
 흔적이 남았네

파사모람(婆娑暮嵐)

古壘蕭蕭草樹間(고루소소초수간)
 天寒日暮鳥飛還(천한일모조비환)
 卽今聖代無征戰(즉금성대무정전)
 一任山嵐伴客寒(일임산람반객한)

파사성의 저녁 아지랑이

옛 성터는 쓸쓸히 초목에 묻히고
 하늘은 차고 날 저무니 새들은 집을 찾누나
 지금은 태평성대 싸움이 없으니
 산 아지랑이 객(客)과 함께 한가롭구나

독촌목직(禿村牧笛)

散向平坡草正肥(산향평파초정비)
 倒騎長是夕陽歸(도기장시석양귀)
 一聲吹歌溪橋路(일성취가계교로)
 家在前村半掩扉(가재전촌반엄비)

독촌(禿村) 목동의 피리

흐트러진 들 언덕에 풀은 무성한데
 소 타고 석양에 돌아오네
 한마디 노래불며 냇가의 다리길
 앞마을 사립문은 반쯤 닫혔네

세야농가(稅野農歌)

桑葉成綠麥亦秋(상엽성록맥역추)
 禾苗晴雨祿田由(화묘청우록전유)
 太平風日誰共畫(태평풍일수공화)
 臥聽門前蒲野謳(와청문전포야구)

셋들(稅野)의 농요

뽕잎 질으니 보리는 가을
 벼이삭은 비 개이니 무성하고나
 태평한 바람과 날씨를 누가 그릴까
 누어서 앞 들의 농요를 듣네

일말계운(一抹溪雲)

杳杳初徒何處來(묘묘초도하처래)
 溶溶却向小溪廻(용용각향소계회)

한줄기 시내의 구름

아득히 어디서 시작해 왔는가
 출렁이며 작은 시내를 향해 오누나

無缺缺必都無事(무결결필도무사)
會見神功潤八垓(회견신공윤팔해)

조용히 소리 없이 . . .
신(神)의 공덕이 팔방에 미침을 알겠노라

手持一卷藥珠篇(수지일권예주편)
讀罷仙壇伴鶴眠(독파선단반학안)
警缺缺○滿身影(경결결 만신영)
冷霞飛盡月流天(냉하비진월류천)

손에 한천 예주편(藥珠篇)을 들고
다 읽은 선단에서 학을 벗삼아 조으네
온 몸에 비취네
싸늘한 노을은 다지고 달빛만 흐르네

15. 이포진(梨浦津)

최숙정(崔淑精)

晚岫千層紫(만수천층자)
秋江一帶靑(추강일대청)
行藏隨短硬(행장수단경)
身世寄浮萍(신세기부평)
搖落村民店(요락촌민점)
蕭條驛吏亭(소조역리정)
悠颺何處笛(유양하처적)
哀怨不堪聽(애원불감청)

석양의 산들은 천층으로 붉은데
추강(秋江)은 떠인 듯 푸르고나
숨고 출세함은 한 토막 같고
신세는 부평초(浮萍草)로다
허술한 저 집은 촌민의 가게요
쓸쓸한 저 집은 역리(驛吏)의 집이로구나
바람에 흩날리는 피리소리는 어느 곳에서 부나
슬프고도 원망스러워 차마 들을 수 없네

16. 침류정(枕流亭)

염흥방(廉興邦)

麥隴高低水滿池(맥룡고저수만지)
荒村寂寂停江湄(황촌적적정강미)
紅塵南北紛紜事(홍진남북분운사)
說與沙頭白鳥知(설여사두백조지)

보리밭 언덕은 높고 낮고 못에는 물이 가득
쓸쓸한 촌락에 산줄기는 강속에 머물었네
때묻은 세 속의 시끄러움을
모래 언덕 새들에게나 알려보련다

17. 천령객사차운 (川寧客舍次韻)

서거정(徐巨正)

西崦人家渡小溪(서엄인가도소계)	서산 기슭인가는 작은 시내 건너 쪽
挑花香暖竹枝低(도화향난죽지저)	도화(桃花)는 향기롭고 대(竹)는 나즈막
數行細柳連官道(수행세류연관도)	두어줄 실버들은 행길가에
盡日流鶯自在啼(진일류앵자재제)	하루 종일 피꼬리 자유로이 오가며 우네

18. 파사고성증의암장노 (婆娑古城書贈義巖長老)

을미(乙未) 유성룡(柳成龍)

婆娑城上草芊芊(파사성상초천천)	파사성 위에 풀은 무성하고
婆娑城下水縈廻(파사성하수영회)	파사성 아래에는 물이 감도는데
春風日日吹不斷(춘풍일일취불단)	봄바람 날마다 끊이지 않고
落紅無數飛城隈(낙홍부수비성외)	떨어진 꽃잎은 성모퉁이에 흩날리네
道人神眼觀天輿(도인신안관천오)	도인의 신안(神眼)은 하늘 끝까지 보아
一夜昆明生劫灰(일야곤명생겁회)	하루밤 곤명지 ⁴⁹⁾ 에 겁회(劫灰) ⁵⁰⁾ 가 나네
巖掘地得古井(암굴지득고정)	바위 굴에 옛 우물이 있어
金剛百萬奉指揮(금강백만봉지휘)	금강 ⁵¹⁾ 백만이 지휘를 받들어
尺劍長嘯臨江臺(척검장소임강대)	칼 차고 긴 휘파람 불며 누대에 기대네

19. 걸가성친남귀숙파사성 (乞暇省親南歸宿婆娑城)

서에 류성룡(西崖 柳成龍)

東行一百里(동행일백리)	동쪽 백리길
夜宿婆娑城(야숙파사성)	밤되어 파사성에 자자니
孤城枕水隈(고성침수외)	외로운 성(城)은 물구비를 베개 삼았고
霜落秋天清(상낙추천청)	서리 발 가을 하늘 맑고나
更殘戍角動(갱잔수각동)	다시 쇠잔하게 수각(戍角) ⁵²⁾ 소리에 움직이니

49) 중국 협서성, 장안성 서쪽에 있는 못의 이름. 한나라 무제가 인도를 통할 때 방해가 된 못인데 수전에 이용한 곳임

50) 세상이 파멸될 때 일어난다는 큰불의 재앙

51)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역사를 가리킴

52) 병영의 초소막에서 부는 소리

月暗寒湖生(월암한호생)
 病客有遠思(병객유원사)
 轉轉夢不成(전전몽불성)
 所思非我力(소사비아력)
 悠悠空復情(유유공복정)
 乾坤浩無際(건곤호무제)
 明發還孤征(명발환고정)

달은 어둡고 호수엔 찬기가 도네
 병든 나그네 먼(갈 길)길을 생각하고
 뒤희락 뒤희락 잠 못 이루네
 생각함은 내 힘이 아닌데
 유유히 부질없이 거듭 생각하네
 천지는 광활하여 끝이 없는데
 내일도 또 외로운 길을 떠나야지

20. 숙파사성등금강루(宿婆娑城登襟江樓⁵³⁾)

客子登臨情浩浩(객자등임정호호)
 高歌一聲山石裂(고가일성산석열)
 長風吹上東峰月(장풍취상동봉월)
 里萬天容一樣碧(리만천용일양벽)
 我生於世眞悠悠(아생어세진유유)
 北去南來成白髮(북거남래성백발)
 風塵天地老病催(풍진천지노병취)
 宇宙歸來空歎息(우주귀래공탄식)

나그네가 올라보니 마음이 넓고 넓어
 높은 노래 한마디에 산들이 깨질 듯
 긴 바람은 동쪽 봉우리 달로 오르고
 만리 하늘은 하나같이 푸르고나
 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남은 참으로 유유했는데
 북으로 남으로 오고가다 백발 되었네
 요란한 천지는 늙은 병(病) 재촉하는데
 우주에 돌아와 공연한 탄식만 하네

21. 과 우묘(過 耦墓)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우왕의 묘를 지나면서
 三韓基業半千年(삼한기업반천년)
 野土于今萬事憐(야토우금만사연)
 運去君王無短碣(운거군왕무단갈)
 春來封城入新田(춘래봉성입신전)
 龍鱗欲問元耘谷(용린욕문원운곡)

오백년 고려의 왕업이
 한줌의 흙이 되니 가련 하도다
 운이 가면 군왕도 단갈(短碣)조차 없나⁵⁴⁾
 봄이 되면 봉분 앞에 밭을 일구네
 용린(龍鱗)은 원운곡(元耘谷)에게 묻지만⁵⁵⁾

53) 파사성 안에 있었던 누각

54) 망국의 임금이라 하나 어찌 묘 앞에 표석 하나 없는가! 라는 뜻이다.

55) 耘谷(운곡)은 元天錫(원천석)의 호이다. 그의 비문에 '고려의 왕손들은 겨드랑 밑에 바늘이 있

馬鬣誰聞鄭道傳(마렵수문정도전)
 滿月臺墟曾過客(만월대허증과객)
 更歌秋草夕陽前(갱가추초석양전)

마렵(馬鬣)은 누가 정도전(鄭道傳)에게 듣노⁵⁶⁾
 일찍이 만월대를 지나던 객이
 가을 풀 석양에 읊조리네

22. 천서촌(川西村) 천서 마을

水秋如畫(협수추여화)
 江門晚望通(강문만망통)
 帆檣朝北極(범장조북극)
 秔稻熟西風(갱도숙서풍)
 短髮沙俱白(단발사구백)
 微醺葉與紅(미훈엽여홍)
 行裝千古意(행장천고의)
 吾道付漁翁(오도부어옹)

서주(西州) 조하망(曹夏望)
 계곡의 가을은 그림이요
 강 어구에 환히 보이네
 돛대들은 북극을 바라보고
 벼이삭은 서풍에 익어가네
 머리는 모래 벌과 함께 희고
 술 취한 얼굴은 단풍과 함께 붉구나
 행장은 천고의 뜻이니
 내 도(道)는 어옹(漁翁)에게 붙일까

23. 자여강향자포(自驪江向紫浦) 여강에서 자진개를 향하며

聽盡江聲匹馬前(청진강성필마전)
 翻看夕日在峰巔(번간석일재봉전)
 梨湖洞壑多紅葉(이호동학다홍엽)
 芝浦墟籬出白煙(지포허리출백연)
 野菊無人開自在(야국무니개자재)
 山巒隨處結仍懸(산상수처결잉현)
 我行去向何村宿(아행거향하촌숙)
 趨揖山光指點邊(추읍산광지점변)

금석 박준원(錦石 朴準源)
 강물 소리 필마 앞에 다 듣고
 회뜩 돌려보니 해는 산마루에 있네
 이포 골에 단풍은 우거지고
 지포(芝浦) 울안엔 연기가 오르네
 들국화는 보는 사람 없이 피어있고
 해당화는 맺혔다가 달렸고나
 일행이 갈 곳이 어디메뇨
 추읍산변(趨揖山邊)을 가리키네

다.'는 말에 비유한 것이다.

56) 마렵(馬鬣)은 묘소의 용미를 말하는 것으로 정도전이 풍수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정도전은 이 성계를 도와 우왕을 몰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24. 알 기천서원(謁 沂川書院)

금석(錦石) 박준원(朴準源)

慕翁樓築晦翁風(모옹루축회옹풍)

모재(慕齋)가 루당을 지은 것은 회재(晦齋)의 풍토인데
百世沂陽共閼宮(백세기양공비궁)

백세(百世) 기천(沂川) 양지 서원묘를 함께 했네
十絕分明興化意(십절분명흥화의)

열번 끊겨도 분명한 교화를 일으킨 뜻이오
百書秤重距邪功(백서칭중거사공)

백가지 글은 진중(珍重)하게 간사함을 막은 공일세
原泉不息觀中妙(원천불식관중묘)

근원은 쉬지 않고 묘함을 보고
天地同流浴促裏(천지풍류욕촉리)

천지가 함께 흘러 목욕하는 정성을 쫓네
敢道莊生朝暮遇(감도장생조모우)

감히 장생(莊生)⁵⁷⁾을 조석으로 만난다 하라
海邦描幸一溫公(해방묘행일온공)

바다 나라에 오히려 한 온공(溫公)⁵⁸⁾이었네

25. 고산추영(孤山秋詠)

수암(修菴) 권상하(權尙夏)

고산의 가을을 읊음

天外秋聲雁帶來(천외추성안대래)	하늘 밖 가을 소리 기러기는 때를 지어 오는데
碧蘿叢裏小菴開(벽라총리소암개)	푸르른 넝쿨 속에 작은 암자가 열렸네
瑤潭露洗寒沙淨(요담로세한사정)	맑은 못 이슬로 씻으니 모래벌 정결하고
玉洞霜飄亂葉堆(옥동상표난엽퇴)	옥동(玉洞)은 서릿발에 나뭇잎 쌓이네
僧伴宿雲歸遠寺(승반숙운귀원사)	스님은 지는 구름과 함께 멀리 절로 돌아가고
客隨新月上高臺(객수신월상고대)	나그네는 뜰 달 따라 누대(樓臺)로 올라가네

57) 莊子(장자)를 가리킴

58) 溫公(온공)은 송나라 때 명신 司馬光(사마광)이 太師溫國公(태사온국공)에 증직되어 司馬溫公(사마온공)이라 칭하였다. 自治通鑑(자치통감) 등의 저서가 있음

山翁醉後成高臥(산옹취후성고과) 산옹(山翁)이 취하여 누웠으니
 狀下殘棋散綠苔(장하잔기산록태) 침상 밑에 바둑은 이끼가 피었네

26. 주차장흥조우사운배율(走次長興祖遇師韻排律)

장흥사의 조우(祖遇) 스님의 배율(排律)에 주차(走次)함

모제(慕齋) 김안국(金安國)

尋山聊縱蹇晴靄豁幃幃(심산료종견청에활병몽)

나귀따라 산을 나섰더니 맑은 안개는 장막을 가린 듯

淨界風傳磬禪房月暎櫳(정계풍전경선방월영롱)

맑은 경계에 바람 스치는 소리 승방(僧房)에 달빛은 창들을 스며드네

谷垂猿倒葛崗老鶴棲松(곡수원도갈강노학서송)

골짜기 씩닝쿨은 원숭이도 떨어질 듯 산마루엔 학이 깃들인 노송

石滑休雙脚泉清浥一鍾(석골휴쌍각천청읍일종)

돌은 미끄러워 걷지 못할래 맑은 샘 한 종기 뜨고

欣逢青眼老旋奉玉炊供(흥봉청안노선봉옥취공)

청안(靑眼)의 늙은이 반가이 만나니 흰 쌀밥을 내오네

寺借廣長舌須披芥蒂胸(서차광장설수피개체흉)

긴 혀를 빌어 쓸모 없는 흉금을 털어놓네

追遊應衰歸意豈匆匆(추유응곤귀의개충충)

옛 추억 끝없이 이어질 터인데 어찌 훌훌 돌아가려나

興遂飛雲盡吟從睡榻慵(흥수비운진음종수담용)

흥겨웁은 구름 따라 다하고 읊음은 졸음같이 길고나

主情終更款別語轉加恭(주정종갱관별어전가공)

주인의 정이 끝내 더하니 헤어질 때 더욱 공손하고나

幾夜紫荊夢長林繞碧奉(기야자형몽장림요벽봉)

집에서 몇몇 밤 꿈에 긴 숲과 푸른 봉을 오르내리리

27. 범사정설월심호적공정자상린래방음지오경취서

(泛槎亭雪月甚好適孔正字祥獐來訪飲至五更醉書)

범사정 눈 위의 달이 하도 아름다웠는데 공정자(祥獐)이 찾아와 오경까지 마시면서 취중에 씀

모재(慕齋) 김 안 국(金安國)

萬古孤懸天上月(만고고현천상월)
泛槎亭上照今宵(범사정상조금소)
今宵照盡千盃酒(금소조진천배주)
更照來今萬萬遙(갱조래금만만요)
琴上霜華夜欲分(금상상화야옥분)
千山岑寂月紛紛(천산잠적월분분)
一丘詩酒難收興(일구시주난수흥)
更促家奚倒甕芬(갱촉가해도옹분)

만고에 홀로 뜬 창공의 저 달은
오늘 밤도 범사정을 비취네
오늘 밤 천배주에 잔마다 비취고
돌아오는 만만년을 다시 비취겠지
거문고엔 서릿발 밤은 이미 깊은 데
산마다 적막하고 달빛만 휘황찬란코나
일구(一丘)의 시와 술로는 흥이 부족하여
어린이 재촉하여 술독을 마저 비우네

28. 여이사군백인공숙장흥사(與李使君伯益共宿長興寺)

이사군(백익: 伯益)과 함께 장흥사에서 자면서

風雪蹇驢客旌旗五馬君(풍설견려객정기오마군)

눈보라 속의 견려객(蹇驢客)과 깃발의 오마군⁵⁹⁾이여

靑山逢共笑白首飲成醺(청산봉공소백수음성훈)

청산에 만나 서로 웃고 흰머리 취하도록 마시네

松定三更鶴岩栖萬里雲(송정삼경학암서만리운)

솔에는 삼경(三更)의 학이 내렸고 바위틈엔 만리의 구름이 잠자네

殘燈相對坐聚散劇紛紛(잔등상대좌취산극분분)

잔등(殘燈)⁶⁰⁾에 마주 앉았으니 모였다 헤어짐이 야속코나

29. 서 장흥사 승 천희 시축(書長興寺僧千熙詩軸)

장흥사 스님 천희(천희)의 시책(시축)에 써줌

縱蹇尋詩畿往來(종견심시기왕래)
月扉長喚小僧推(월비장환소승추)
溪蔬山茗禪窓味(계소산명선창미)
慣把閑懷與爾開(관과한회여이개)

나귀타고 시흥(詩興)찾아 몇 번이나 오고 갔나
달빛에 길게 부르면 스님은 사립문 열고
시내와 산나물은 선방(禪房)의 별미
그와 한가로이 정을 나누기 길들었네

59) 태수(太守)를 말함

60) 거의 기름이 떨어져 가는 등불

30. 숙장흥사기부약제반(宿長興寺寄負約諸伴)

장흥사에서 자면서 약속을 어긴 벗들에게 부친다.

山岩寒雪積(산암한설적)

바위에 눈은 함빡

山寺宵寂寂(산사소적적)

산사의 밤은 적막

有約人不來(유약인불래)

언약한 사람 오지 않고

靑燈耿一壁(청등경일벽)

벽 위의 등불만 깜박 깜박

31. 숙장흥사기부약제반(甲午年 重九節X)： 9월 9일

甲午重九日與姜清老洪國老孔應聖約會鄭秀才如虎亦至共舍登高而爲泛江之遊隨以琴
 갑오중구일여강청노홍국노공응성약회정수재여호역지공사등고이위범강지유수이금

笛羯鼓泝流縱飲折丹楓挿舟舷掇黃花泛杯觴歌舞交作有以聯詠姜部將洽尹上舍瓊趙秀
 적갈고기류종음절단풍삽주현철황화편배상가무교작유이런영강부장흠윤상사관조수

才鼎亦佩酒濁白鳴石灘邊共登挽纜上不己期以泊神勒寺下南浦爲限歌笛聲徹寥廓天濶
 재정역패주탁자명석탄변공등만람상부기기이박신록사하남포위한가적성철요곽천활

江澄月色如畫渚蘆汀沙雪白交映風露清肅神骨爽然恍若憑虛羽化挾喬松而向蓬壺至神
 강등월색여화저노정사설백교영풍로청숙신골상연향약빙허우화협교송이향봉호지신
 勒南浦則宵已過半矣尹參奉應奎閔參奉珽自朝携酒來待又共轟飲上東臺爛舞而罷翌朝
 록남포죽소기과반의윤참봉응규민참봉정자조휴주래대우공평음상동대란무이파익조

自寺又放舟縱飲而下還至鳴石灘下各散去酒醒僅記舟中數詩 慕齋 金安國
 자시우방주종음이하환지명석탄하각산거주성근기주중수시 모재 김안국

갑오년 구월 구일에 강청노(姜淸老)·홍국노(洪國老)·공응성(孔應聖)이 모임을 가지기
 로 약속되었는데 정수재(鄭秀才)·여호(如虎)가 같이 참여했다. 모두가 높이 오르는 것
 을 그만 두고 뱃놀이를 하기로 하여 북과 거문고 피리를 싣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껏 마셨다. 단풍을 꺾어다 뱃전에 꽂고 국화를 따다 술잔에 띄우며 가무(歌舞)를 즐기
고 연창(聯唱)을 하는 중에 강부장(姜部長) 흠(洽)·윤상사(尹上舍) 관(罐)·조수재(趙秀
才) 정(鼎)이 또 술을 싣고 명석여울(鳴石灘)에서 배에 올라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 신
록사 아래 남포(南浦)에 가서 머물기로 하였다. 노래 소리가 고요한 하늘로 울려 퍼지
는데 하늘은 넓고 강도 맑은데 달빛은 대낮 같았다. 물가의 집들과 모래들이 눈처럼
서로 비취고 찬이슬 맑아 신골(神骨)마저 상쾌하여 마치 허공을 날아 높이 솟귀고 봉
호(蓬壺)를 향하는 것 같았다. 신록사 남쪽 포구에 이르니 이미 한밤이 지났는데 윤참
봉(兪參奉)·민참봉(鄭)이 아침부터 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에 또 다시 한껏 마시고
동대(東臺)에 올라 흥겹게 춤추다 파하였다. 이튿날 아침 절에서 다시 배를 띄우고 마
시며 내려오다가 명석탄(鳴石灘)에 이르러 각자 헤어졌다. 술이 깨어보니 겨우 배안에
시(詩) 몇 수만 기억이 나는구나

重陽遊賞在躋攀(중양유상재제반)
故事流傳萬世間(고사유전만세간)
碧水黃花相映照(벽수황화상영조)
風流還勝上高山(풍류환승상고산)

중구절에 노는 감회는 높이 오르자 함이니
고사처럼 세간에 알려졌네
푸른 물 들국화 서로 비취니
풍류가 오히려 산오름 보다 좋구나

風淒露冷鴈呼哀(풍처로냉안호애)
長笛飛聲酒滿杯(장적비성주만배)
曉月趁舡留不落(효월진강류불낙)
待看乘醉舞東臺(대간승취무동대)

바람은 맵고 이슬 찬데 기러기 슬피 울고
긴 피리 소리 구슬땀이 술잔에 잠기네
새벽 달은 배를 따라지지 않으니
취객이 동대에 춤추는 것 구경하려나

● 지 기(誌 記)

1. 육우당기(六友堂記)

목은(牧隱) 이 색(李 穡)

永嘉金敬之氏 名其堂曰四友蓋取康節先生雪月風花也請予說其義予不願學也且無暇
(영가김경지씨 명기당왈사우개취강절선생설월풍화야청여설기의여불원학야차무가)

未之應久矣其在驪興也以書來曰今之在吾母家也江山之勝慰吾於朝夕非獨雪月風花而
(미지응구의기재여흥야이서래왈금지재오모가야강산지승위오어조석비독설월풍화이)

已故蓋之以江山曰六友先生其有以教之予曰吾之衰病也久天時變于上吾憊然而已地理
(기고개지이강산왈육우선생기유이교지여왈오지쇠병야구천시변우상오몸연이기지리)

隕于下吾冥然而已康節之學深於數者也今雖以江山冠之示不康節同然易六龍六虛爲
(퇴우하오명연이기강절지학심어수자야금수이강산관지시불강절동연이육룡육허위)

康節之學卽舍是豈無言乎曰山吾仁者所樂也見山則存吾仁水吾智者所樂也見江則存吾
(강절지학측사시개무언호왈산오인자소요야견산즉존오인수오지자소요야견강즉존오)

智雪之壓冬溫保吾氣之中也月之生夜明保吾體之寧也風有八方各以時至則吾之无妄作
(지설지압동온보오기지중야월지생야명보오체지녕야풍유팔방각이시지즉오지무망작)

也花有四時各以類聚則吾之無失序也又況敬之氏胸中洒落無一點塵滓又其所居山明水
(야화유사시각이류취즉오지무실서야우황경지씨흥중주락무일점진재우기소거산명수)

綠謂之明鏡錦屏無忝也哉雪也在孤舟簑笠爲益佳月也在高樓樽酒爲益佳風在釣絲則其
(록위지명경금병무침야재설야재교주사립위익가월야재교루준주위익가풍재조사즉기)

清也益清花在書榻則其幽也益幽四時之勝各極其極以經緯乎江山之間敬之氏侍則餘隙
(청야익청화재서선즉기유야익유사시지승각극기극이경위호강산지간경지씨시즉여극)

舟乎江履乎山水落花立清風踏雪尋僧對月招客四時之樂亦極其極矣
(주호강이호산수락화입청풍답설심승대월초객사시지락역극기극의)

敬之氏其獨步一世者哉 友同志也尙友乎古則古之人不可以一二計求友乎今則如吾儕
(경지씨기독보일세자재 우동지야상우호고죽고지인불가이일이게구우호금죽여오제)

者亦豈少哉然敬之氏所取如此敬之氏其獨步一世者哉雖然天地父母也物吾與也何往而
(자역개소재연경지씨소취여차경지씨기독보인세자재수연천지부모야물오여야하왕이)

非友哉又況大畜之山習坎之水講習多識眞吾益友也哉於是作六友堂記
(비우재우황대축지산습감지수강습다지진오익우야재어시작육우당기)

영가(永嘉=安東) 김경지(金敬之)는 그 집을 사우(四友)라고 했다. 이것은 대개 강절(康節) 선생의 눈(雪)·달(月)·바람(風)·꽃(花)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나보고 뜻을 해설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강절(康節)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또 겨를이 없어 이에 응하지 못한지 오래다. 그가 여흥(驪興)에서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우리 어머니 댁에 있는데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나를 아침 저녁으로 위로해 주는데 이것은 비단 눈·달·바람·꽃뿐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강과 산을 더하여 육우(六友)라고 했으니 선생은 해설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약하고 병든 지 오래 되었다. 천시(天時)는 위에서 변하니 내가 어두워질 뿐이요, 지리(地理)는 아래서 변하니 내가 캄캄해질 뿐이다. 강절(康節)의 학설(學說)은 수(數)에 밝을 뿐이니, 지금 비록 먼저의 네 가지에 강과 산을 더해서 강절(康節)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였지만 주역(周易)의 육룡(六龍)과 육허(六虛)는 강절의 학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이 역시 결국은 강절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강절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이외에도 어찌 말한 것이 없겠는가.

산으로 말하면 우리 어진 사람이 즐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을 보면 나도 어질어진다. 눈이 겨울을 덮어 따뜻하게 하니 이것은 나의 기운의 중심을 보존해 주는 것이요, 달이 밤에 나와 밝으니 이것은 내 몸의 안녕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바람은 팔방에서 시기를 맞춰 불어오니 나를 망령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꽃은 사시에 각기 종류대로 모이게 되니 이것은 내가 차서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경지(敬之)는 더구나 마음 속이 시원해서 한 점의 티끌이나 먼지가 없고 또 그가 사는 곳은 산이 맑고 물이

푸르려 맑은 거울이나 비단 병풍보다 못지 않은 데에라.

눈이 마치 외로운 배에 도롱이를 두르듯 덮였으니 더욱 아름답고 달이 높은 누각과 술잔에 비취니 더욱 아름답도다. 바람이 낚시줄에 붙어오니 그 맑은데 더욱 맑고 꽃이 책상 위에 놓였으니 그윽한 것이 더욱 그윽하도다. 이렇게 사시의 경치가 각각 그 지극함을 다하여 강산 사이에서 조화(調和)를 이르는도다. 경지(敬之)는 부모를 모시는 여가에 배를 타고 강에 나가고 나막신 신고, 산에 오르며 떨어진 꽃잎을 세면서 맑은 바람 앞에 섰기도 하고 눈을 밟으며 스님을 찾고 달을 더하고 손님을 청하여 사시에 즐거움 또한 지극함을 다 할 것이다. 경지(敬之)는 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벗이란 뜻이 같은 것이다. 옛 사람을 벗으로 사귀려면 옛 사람도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이고 지금 사람을 벗으로 사귀려면 나같이 무리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지(敬之)는 앞서 말한 여섯 가지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천지(天地)는 부모와 같다. 그리고 만물은 우리의 동료(同類)다. 어디 간들 벗이 아니랴. 더구나 대축괘(大畜卦)⁶¹⁾의 산과 습坎卦(習坎卦)⁶²⁾의 물이 강론하여 많은 것을 안다면 이것이 진실한 나의 벗일 것이 다 이로써 육우당기를 짓는다.

2. 둔촌기 (遁村記)

목은(牧隱) 이 색(李穡)

廣李氏 既取孟子集義之集 爲名而取浩然之氣 爲字 星山李子安 說其義
(광이씨 개취맹자집의지집 위명이취호연지기 위자 성산이자안 설기의)

予又題辭其後以與之 浩然曰 吾名吾字 既受教矣 吾之遁于荒野 以避驚城之黨之禍
(여우제사기후이여지 호연왈 오명오자 기수교의 오지둔우황야 이피취성지당지화)

艱辛之狀 雖驚忍者聞之 不能不動乎色 雖然 吾之所以得至今日 遁之力也
(간신지상 수지인자문지 불능불동호색 수연 오지소이득지금일 둔지력야)

61) 주역의 육효(周易六爻)

62) 주역의 64괘 중위 하나

夫叔向勝敵以名其子蓋喜之也 子身之分也 猶且名之以志其喜 況吾一身乎
(부숙항승적이명기자개회지야 자신지분야 유단명지이지기회 향오일신호)

今吾既皆更之 則 我之再初也遁之德于我也 將終吾身而不可忘焉者 故名吾所居曰
(금오기개갱지 즉 이지재초야둔지덕우야야 장종오신이불가망언자 고명오소거왈)

遁村所以德其遁也 亦欲寓其出險之意 以自勉焉 蓋遁者知言之一也
(둔촌소이덕기둔야 역육우기출험지의 이자면언 개둔자지언지일야)

而義則竊取之如是 惟先生哀憐之 忘其再三之瀆 以終惠焉 予曰 子於鄒國之書
(이의즉절취지여시 유선생애린지 망기재삼지독 이중혜언 여왈 자어추국지서)

誠味而樂之矣 其求觀聖人之道 殆庶幾乎 予故不徵他書 就孟子以畢其說 或問
(성미이락지의 기구관성인지도 태서기호 여고부징야서 취맹자이필기설 흑문)

舜爲天子 皋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孟子曰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訢然樂
(순위천자 고도위사 고수살인 즉여지하 맹자왈 절부이도 준해빈이처 소연락)

以忘天下 此雖說辭 處之 不過如此爾 浩然之禍 雖自其身致之 親孝子幼抱負携持
(이망천하 차수설사 처지 불과여차이 호연지화 수자기신치지 친효자유포부휴지)

晝藏榛莽 夜犯雨露 崎嶇山谷之中 猶恐追者踵至 屏氣縮縮戒妻子 無敢出聲
(주장진망 야범우로 기구산곡지중 유공추자종지 병기축축계처자 무감출성)

其遁也 亦慘矣 是宜夢驚 而悟愕也 方且揚揚焉 內以樂於己 外以誇於人
(기둔야 역참의 시의몽경 이오악야 방차양양언 내이락어기 외이과어인)

浩然信非尋常人矣 其中 必有所主 而名不虛得矣 孟子曰 天將降大任於是人也
(호연신비심상인의 기중 필유소주 이명불허득의 맹자왈 천장강대임어시인야)

必將餓其體膚 行拂亂 其所爲曾益其所不能 浩然 信乎餓其體膚矣 拂亂其所爲矣

(필장아기체부 행불란 기소위증익기소불능 호연 신호아기체부의 불란기소위의)

則其降大任也 若又信乎其可必也 予恐浩然之不得終身於遁村也

(죽기강대임야 약우신평기가필야 여공호연지불득중신어둔촌야)

若其江山風物之勝朝耕夜讀之樂 浩然自有地矣 故不詳著云 蒼龍丁巳九月 記

(약기강산풍물지승조경야독지락 호연자유지의 고불상저운 창룡정사구월 기)

광주 이씨가 이미 孟子集義(맹자집의)의 집(集)자를 따서 이름을 짓고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호연(浩然)을 따서 자(字)를 지었다. 그리고 성산 이자안(李子安)⁶³이 그 뜻을 해설하였다. 내가 또 끝에 제사(題辭)를 써 주었더니 호연은 말하기를 「내 이름과 자에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나 내가 거친 들판으로 도망하여 취성(鷲城)⁶⁴의 당화(黨禍)를 피했으니 그 고통스러운 모양은 아무리 미련한 자가 듣는 대도 얼굴빛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둔(遁)의 힘입니다. 대개 숙손(叔孫)은 적(狄)을 이긴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이것은 대개 그 기쁨 때문인 것이다. 자식은 자기 몸에서 나누어진 것이нде도 오히려 또 이름을 지어서 그 기쁨을 나타냈으니 더구나 내 한 몸에 있어서겠는가. 이제 내가 이미 이름과 자를 모두 고쳤으니 이것은 내가 다시 처음이 된 것이다. 그러니 둔(遁)이 나에게 덕이 되게 한 것을 장차 내 몸을 마치기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는 곳을 둔촌(遁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둔(遁)을 덕(德)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며 또한 그 위험한데서 나와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해서 스스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둔(遁)이라는 것은 지언(知言)⁶⁵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깊어서 이같이 취했으니 오직 선생께서 불쌍히 여기셔 두 세 번 괴로움을 잊으시고 끝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나는 말하기를 자네가 맹자에 대해서 진실로 맛을 알고 즐거워 하니 그 성인의 도를 구하는데 거의 가깝도다. 그런 까닭에 내가 다른 글을 상고해보지 않고 맹자의 글을 가지고 그 말을 끝맺으려 한다. 어떤 사람이 순(舜)은 천자(天子)로 있고 고요는 관리가 되었을 적에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냐고 물었다.

63) 도은 이충인의 자

64) 영산(靈山) 신씨(辛氏)의 본관 고평(高平)이 취성(鷲城)이다. 여기서서는 신둔(辛屯)의 화를 말한다.

65) 숙손씨(叔孫氏)가 적(狄)의 침략을 당했을 때 적의 군중에 거대인(巨大人) 하나가 있어 이를 장적교여(長狄僑如)라고 불렀다. 이 장적교여와 싸워 이긴 숙손씨는 뒤에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교여(僑如)라고 지었다는 고사

맹자는 대답하기를 남몰래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서 바닷가에 살면서 혼연(欣然)히 기뻐하며 천하 모든 일을 잊었을 것이라 했다. 이것은 비록 임시로 만들어서 한 말이지만 이런 처지를 당했다면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호연(浩然)이 화를 당한 것은 비록 자기가 한 소치다. 하지만 부모는 늙고 자식은 어린데 이들을 업고 끼고 손을 잡고 낮에는 숲 속에 숨고 밤이면 비와 이슬을 맞으며 험악한 산골을 헤매며 오히려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몸을 움추려, 아내나 아들에게 소리도 못내게 경계했다. 그의 도망길은 참혹하다 하겠다. 이는 마땅히 꿈속에서도 놀라고 깨어도 놀랄 일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그는 또 의기양양하여 안으로 자신을 즐거워하고 밖으로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니 호연이야 말로 참으로 비상한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반드시 주장이 있어 그 이름을 헛되게 얻은 것이 아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려면 반드시 굶주리게 하고 행동을 어지럽게 해서 그의 능하지 못한 바를 더욱 능하게 해준다고 했다. 호연이야 말로 몸을 굶주리게 하고 행하는 길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그에게 큰 책임을 내린다는 것을 꼭 기필할 수 있다. 나는 호연이 둔촌에서 몸을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 할 뿐이었다. 이 밖에 그 곳의 강산이나 풍경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그가 낮에는 밭 갈고 밤으로 글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호연(浩然)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지이기로 여기서 자세히 쓰지 않는다.

蒼龍 丁巳年(창룡 정사년) 9월에 씀

- 1) 맹자에 있는 말로 도리에 밝음을 말함.
- 2) 태세(太歲)

3. 어은기(漁隱記)

목은(牧隱) 이 색(李穡)

廉東亭之居川寧也自號漁隱歸而求予記予曰上古聖人觀象制器吾夫子繫易取而陣之
(염동정지거천령야자호어은귀이구여기여왈상고성인관상제기오부자계역취이진지)

網罟畋漁盖其一也孟子學孔氏其言曰數罟不入洿池魚鼈不可勝食也盖天地間生物甚
(강고전어개기일야맹자학공씨기언왈수고불입오지어별불가승식야개천지간생물심)

衆取之其具食之有其時所以財成輔相天地之遁者聖人之事也富其洪水之災以唐吳君
(중취지기구식지유기시소이재정보상천지둔자성인지사야부기홍수지재이당오군)

臣之聖娶塗四日呱呱不子三過其門而不入其急也甚矣獸啼鳥跡交於中國爲民之害可
(신지성취도사일고고불자삼과기문이불입기급야심의수제조적교어중국위민지해가)

謂酷矣於是教人鮮食畋漁之具尤其所急矣而人之性日趨於嗜欲而不已於是乎有魚不
(위고의어시교인선식전어지구우기소급의이인지성일추어기육이불기어시호유어불)

滿尺市不得粥人不得食之法川澤之間洋洋圍圍於仞以躍至理之衆著矣至於學校繼興
(만척시부득죽인부득식지법천택지간양양위위어인이약지리지중저의지어학교계흥)

作成人材必使學者觀乎鳶飛魚躍之間深體化育流行之妙於吾心全體大用之地聖學之
(작성인재필사학자관호연비어약지간심체화육류행지묘어오심전체대용지지성학지)

功成矣至於盆魚之樂亦有助於後學盖有物有則無一事而非仁矣東亭好古律已存心愛
(공성의지어분어지락역유조어후학개유물유즉무일사이비인의동정호고율기존심애)

物其視聚斂培克之流不啻犬彘汲汲以魚鼈咸若之效自任今之自號盖自川寧始也川寧
(물기시취감부극지류불시견체흠흠이어별함약지효자임금지자호개자천령시아천령)

處驪江下流其地依稼多松樹白蓮精舍在焉金沙莊之八詠足以見風物之美其曰東江
(처여강하류기지의가다송수백련정사재언금사장지팔영죽이견풍물지미기왓동강)

釣魚卽漁隱之地也韓文公有詩曰橋夾水松行百步竹床莞席到僧家暫一手支頤頤還把
(조어즉어은지지야한문공유시왓교협수송행백보죽상완석도승가권일수지신신환파)

漁竿下晚沙文公吾所師也吾老矣如天之福卜隣隙地當與東亭吟哦此詩以終吾年若夫
(어간하만사문공오소사야오노의여천지복복린극지당여동정음아차시이종오년약부)

竿也絲也釣也餌也曲也直也娛與東亭歸而後詩論焉於是作漁隱記

(간야사야조야이야곡야직야사여동정귀이후시론언어시작어은기)

염동정(廉東亭)이 천령에 살 때 그는 스스로 어은(漁隱)이라고 호를 짓고 돌아와서 나에게 기(記)를 해 달라고 청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옛날 성인은 현상을 보고 뜻을 말하였고 우리 부자(夫子)도 주역의 계사(繫辭)에서 이것을 취하여 배풀었으니 물질하고 사냥하고 고기 잡는 것이 그 하나다. 맹자가 공(孔)씨에게 배우고 말하기를 가는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넣지 않는다면 물고기를 맛있게 먹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천지간에 생물이 몹시 많으나 이것을 취하는 데는 그 기구가 있고 먹는 것도 때가 있으니 재물을 이루어 천지의 도를 돕는 것은 성인의 일이다. 홍수의 재앙을 당하여 당우(唐虞)의 군신(君臣)같은 성인으로써 도산(塗山)씨에 장가가서 나흘 밖에 집에 있지 않으므로 어린애가 울어도 내 자식인줄 모르고 세 번이나 집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홍수를 다스리는 일이 몹시 급했던 때문이다. 짐승의 발굽과 새의 발자취가 온 중국에 돌아 다녔으니 백성을 해롭게 한 것이 가히 혹독하다고 하겠다. 이는 사람에게 물고기 먹기를 가르쳐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기구가 더욱 급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성품이 그 좋아 하는대로 날마다 달리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물고기는 한자가 못되는 것은 시장에 내다가 팔지도 못하고 사람이 먹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내나 못에는 많은 물고기가 활기차게 놀아서 지극히 잘 다스려진(川澤)현상이 나타났다. 또 학교를 계속 부흥시켜 인재를 양성하여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것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기르고 행하는 묘한 이치를 내 마음속의 전체 대용(大用)의 땅에 깊이 알게 된다면 성인의 학문의 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항아리 속에서 즐겁게 노는 것도 역시 후학(後學)에게 도움이 있을 것이다. 대개 물건이 있으면 법이 있으니 한가지 일이라도 어질지 않은 것이 없다. 동정은 옛일을 좋아하고 몸을 닦으며 마음을 바로 잡고 물건을 사랑해서 재물을 거두고 백성을 해치는 따위를 보기를 개나 돼지만큼도 여기지 않고 오직 물고기라도 모두 감화시키기에 힘써왔다. 이제 어은(漁隱)이라고 스스로 호를 한 것은 대개 천령에서 시작된 것이다. 천령은 여강의 하류에 있는데 그 땅이 농사짓기에 적당하고 소나무가 많다. 여기에 또 백련정사(白蓮精舍)가 있다. 금사장(金沙莊)의 팔영(八詠)은 족히 풍경이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동강조어(東江釣魚)라고 보이는 것은 곧 이 어은(漁隱)을 말한 것이다. 한문공(韓文公)의 시에 이르기를 물과 소나무를 낀 다리에서 백보쭝 가면 대나무 평상에 돛자리 있는 중의 집에 닿네 한손을 주먹쥐어 턱피이고 누었다가 드디어 낚시대잡고 저녁 모래가로 내려가네 했다. 한문공은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터이다. 나는 늙었으니 하늘의 복으로 그 이웃에 빈

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마땅히 동정과 함께 이 시를 읊으면서 내 생애를 마칠 것이다. 이밖에 낚싯대 낚싯줄 갈고리 미끼 굵은낚시 곧은낚시 같은 것은 동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할 것이다 하였다. 나는 이로써 어은기(漁隱記)를 짓는 바이다.

4. 침류정기(枕流亭記)

목은(牧隱) 이 색(李穡)

廉東亭之在謫中也內徙川寧縣築亭跨水偃息其上因敢漱石枕流之語以表之既還請予記
(염동정지재적중야내도천녕현축정과수언식기상인감수석침류지어이표지기환청여기)

予曰東亭遇知先王黑頭拜相所以圖報於今上復何言哉言不避嫌事不亂難黯闇汚濁之
(여월동정우지선왕흑두배상소이도보어금상복하언재언불피염사불란난암암오탁지)

茹納震撼擊撞之鎮定經氣沮金石忠誠動鬼神可謂確乎其不可拔矣雖曰竄遂于外完肌
(여납진감격동지진정경기저금석충성동귀신하위확호기불가발의수왈찬수우외완지)

膚全性命山水之樂適償所願則上之所以保全之其思如天矣是宜食息不敢忘所以處江
(부전성명산수지요적상소원즉상지소이보전지기사여천의시의식식불감망소이처강)

湖之遠而憂其君也何名亭之反於此耶將洗其耳不願世事之聞歟將潔其身不欲塵累之
(호지원이우기군야하명정지반어차야장세기이불원세사지문여장결기신불욕진루지)

及歟東亭曰不然夫水之性清者也其氣觸乎人則徹骨而寒矣心之昏濁於是乎澄明心之
(급여동정왈불연부수지성청자야기기촉호인즉철골이한의원심지혼탁어시호정명심지)

擾亂於是乎靜定可以事上宰可以格四靈是以天一生水而爲五行之長而萬物之所以蕃
(우란어시호정정가이사상재가이격사령시이천일생수이위오행지장이만물지소이번)

皆水之功也今人朝暮扣人之門戶求水火何也一日不可無也一日無則人不得以保其生
(개수지공야금인조모구인지문호구수화하야일일불가무야일일무즉인불득이보기생)

水之功大矣其曰枕之者親之耳非有他也此吾之有取也幸子畢其說予嘗聞天地間水爲
(수지공대의기왈침지자친지이비유타야차오자유취야행자필기설여상문천지간수위)

大故地在水上爲水所載則凡有形色生聚於兩間者皆枕乎水矣獨人乎哉今夫山巍然大
(대고지재수상위수소재즉범유행색생취어양간자개침호수의독인호재금부산귀연대)

矣上極乎天禽獸草木依之以生雖有雨露之養苟非水氣通乎其間將何以遂其生哉大華
(의상극호천금수초목의지이생수유우로지양구비수기통호기문장하이수기생재대화)

峰頭玉井蓮是已況乎平原鉅野斷麓平林其水之出也勢也是則人之所居非水無地人之
(봉두옥정련시기황호평원거야단록평림기수지출야세야시즉인지소거비수무지인지)

所食非水無物水之與人蓋不可須臾之離也明矣東亭居移養移識高一世素富貴則行乎
(소식비수무물수지여인개불가수수지리아명의동정거이양이식고일세소부귀즉행호)

富貴素患難則行乎患難蓋其自得者深矣吾知夫雲散月出水流風生東亭 然遺世而獨
(부귀소환난즉행호환난개기자득자심의오지부운산월출수류풍생동정 연유세이독)

立尙何富貴患難之有動於其心哉則斯亭也天所以益厚東亭也均施四方使吾民조煩熱
(립상하부귀환난지유동어기심재즉사정야천소이익후동정야균시사방사오민조번열)

通精神蹈舞上德則在乎天矣是爲記
(통정신도무상덕즉재호천의시위기)

염동정(廉東亭)이 귀양가 있을 때다. 그는 천령(川寧)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물을 중간에 두고 정자를 세우고 그 위에서 쉬면서 수석침류(漱石枕流)⁶⁶⁾의 말을 따서 정자 이름을 붙였다. 그가 이미 돌아오자 나에게 기(記)를 써 달라고 청했다.

나는 말하기를 동정은 선왕의 알아주는 바를 얻어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되었으므로 이제 지금 임금께 은혜를 보답하려 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말은 혐의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일은 어려운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어둡고 흐린 것을 받아드리고

66) 돌로 입을 씻고 흐르는 물을 베게 삼는다

울려 흔들리고 쳐서 공격하는 것을 진정시켜서 그 굳센 기운은 금석이라도 막고 충성스러움은 귀신을 움직였으니 가히 뚜렷해서 뽑을 수 없을 만했다. 비록 외지로 귀양은 갔을 망정 피부가 완전하고 성명(性命)을 완전히 하여 산수(山水) 사이의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렸으니 이는 임금의 그를 보전해 주신 은혜가 하늘같다고 하겠다. 이것은 마땅히 음식을 먹을 때나 쉴 때에도 감히 잊지 못할 일이다. 강호(江湖)의 먼 곳에 있어서도 임금을 근심하는 법인데 어찌 정자의 이름을 이와 반대로 지었는가. 이는 장차 그 귀를 씻어 세상을 듣지 않으려 해서인가. 장차 그 몸을 깨끗이 하여 티끌이 몸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함인가 했다.

동정은 여기에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대체로 물의 성품은 맑은 것이어서 그 기운이 사람에게 접촉하면 뼈에 사무쳐 마음의 어둡고 흐림이 비로소 맑고 밝아진다. 또 마음의 어지러운 것도 비로소 고요하고 안정된다. 그래서 가려져 상제(上帝)를 섬기고 가히 사령(四靈)⁶⁷⁾ 오행(五行)의 첫머리를 만들었으니 만물이 번식하는 것이 모집의 문을 두드려 물과 불의 구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들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니 물의 공은 참으로 크다. 거기에 침(枕)이라 한 것은 친히 한다는 말이요 다른 뜻은 아니다. 때문에 내가 이것을 취한 것이다. 그대는 먼저 말한 것을 끝내주면 다행이겠다 했다.

나는 일찍이 들으니 천지사에는 물이 제일 크기 때문에 땅이 물위에 있어 물려 실려 있는 셈이 된다. 그러니 대체로 형상과 빛이 있는 것은 천지 사이에 있어 모두 물을 베개삼고 있으니 어찌 사람 뿐이라. 이제 산들은 높다랗고 커서 위로는 하늘이 닿아 금수나 초목이 여기 의지해 산다. 그리고 아무리 비와 이슬이 키워준다 해도 진실로 물 기운이 그 사이에 통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태화봉(泰華峰) 마루에 있는 옥정련(玉井蓮)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평탄한 언덕과 큰 들판 또는 끊어진 산기슭이나 평탄한 숲에서 물이 나는 것은 필연적 형세다. 그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면 물이 없는 곳이 없고 사람이 먹을 것 중에는 물기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 물과 사람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동정은 옮겨 다니면서 살고 옮겨 다니며 수양해서 학식이 세상에 가장 높아져 환난(患難)에는 환난을 했으니 스스로 얻은 것이 깊다 하겠다. 내가 알기로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나오며 물이 흐르고 바람이 일어날 때 동정은 남다르게 세상을 떠나 홀로 섰으니 부귀와 환난이 어찌 그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이 정자는 하늘이 동정에게 더욱 후하게 하고 고루 사방에 베풀어 우리들 백성으로 하여금 번거로운 마음을 씻고 정신을 소통하게 한 것

67) 전설에 나오는 네 가지 신령한 동물로 기린, 봉황, 거북, 용을 말한다.

이다. 그러니 상덕(上德)⁶⁸⁾에 춤추고 뛰는 것은 하늘에 있다 할 것이다. 이로써 기(記)를 삼는다.

5. 기천서원지(沂川書院誌)

택당(澤堂) 이 식(李 植)

萬歷年間州牧朴嘯 承任與一鄉士子議建書院祠祀金先生就州內馬岩之西建祠宇一
(만력년간주목박소 승임여일향사자의건서원사사김선생취주내마암지서건사우일)

間講堂六間東西齋未及建察訪朴寬爲院長儒生張謹申變朴吉怡權忠孝李重績禹弼臣
(간강당육간동서재미급건찰방박관위원장유생장근신섭박길이권충효이중적우필신)

慶時康鄭煊張琛爲有司輪番董役經始於二月明年八月落成奉安位板釋采如儀其工役
(경시강정헌장침위유사윤번동역경시어이월명년팔월낙성봉안위판석채여의기공역)

之貴則一鄉士人各隨貧富出祖及布牧使自官助費略用民夫以成之號爲馬岩書院壬辰
(지귀즉일향사인각수빈부출조급포목사자관조비략용민부이성지호위마암서원임진)

之變祠院皆燼兵興民弊久未復設戊申秋唐原洪進二相從一鄉士子之願始復經營而尹
(지변사원개신병흥민폐구미복설무신추당원홍진이상종일향사자지원시복경영이윤)

正郎孝全朴佐郎侃在鄉爲院長儒生申龜壽尹知養爲有司董治其事尹主張尤力於時京
(정랑효전박좌랑간재향위원장유생신귀수윤지양위유사동치기사윤주장우력어시경)

中士大夫家居州境者甚衆儒額幾八十人適爲大小齋任分掌諸役經始於己酉之秋辛亥
(중사대부가거주경자십중유액기팔십인체위대소재임분장제역경시어기유지추신해)

春祠宇東西齋訖功奉安位版釋采如儀其後乙卯年間講堂隨建植爲院長時也祠凡三間
(춘사우동서재홀공봉안위판석채여의기후을묘년간강당수건식위원장시아사범삼간)

68) 최상의 덕 「老子 上德若谷 大白若辱」

九楹東西各五間十二楹講堂及夾室通十二楹庫二間廚二間祠門三講堂門一齋門一此
(구령동서각오간십이령강당급협실통십이령고이간주이간사문삼강당문일재문일차)

前後祠院營建大개也其功費則土子出米布役奴州牧又給烟戶軍及長興寺溜徒又割給
(전후사원영건대개야기공비즉사자출미포역노주목우급연호군급장흥사유도우할급)

奴碑五口田一結半許募閑丁除雜役者爲院戶置穀若干石放斂取殖以爲奠品養士之備
(노비오구전일결반허모한정제잡역자위원호치곡약간석방감취식이위전품양사지비)

官給豬牲以爲式光海之癸丑院儒植等上疏請賜額溫批不許有姑大後日之語是年誣獄
(관급저생이위식광해지계축원유식등상소청사액온비불허유고대후일지어시년무옥)

大起上及長秋本州儒生因館學通文將上疏請誅首倡凶議之臣鄭造尹訥李偉卿等而先
(대기상급장추본주유생인관학통문장상소청주수창홍의지신정조윤인이위경등이선)

削鄭造名於院籍俄聞大學衆生以其疏論皆被削黜禁錮凶焰熾張本院之疏已封未上造
(삭정조명어원적이문대학중생이기사론개피삭출금고홍염치장본원지소기봉미상조)

等聞之遂起土禍齟齬百端疏儒申祖禹閔惟清成汝格辛應望等皆被停錮久之造等以其
(등문지추기사화기흘백단소유신조우민유청성여격신응망등개피정고구지조등이기)

二三私人定爲齋任欲領率一院爲凶議州之士人終不屈從雖奸計未逞而院則虛矣
(이삼사인정위재임욕령솔일원위홍의주지사인종불굴중수간계미령이원즉허의)

聖上反正之後前日儒生皆復舊業而剝喪遷徙不復如前日之盛院事多廢矣乙丑春成
(성상반정지후전일유생개복구업이박상천도불부여전일지성원사다폐의을축춘성)

汝格等復上疏請額禮曹覆議蒙允賜額號爲沂川書院乃當初所定也今者申君祖禹院長
(여격등복상소청액예조복의몽윤사액호호기천서원내당초소정야금자신군조우원장)

頗爲修繕併揭諸扁祠門曰崇道東齋曰輔仁西齋曰勸善講堂曰教義祠門曰景行院門曰
(과위수선병계제편사문왈송도동재왈보인서재왈권선강당왈교의사문왈경행원문왈)

入德此則前所未遑也仍念植曾請於愚伏鄭先生請爲記文使院中後生蒙一言之提誨
(입덕차즉전소미황야잉림식증청어우복정선생청위기문사원중후생몽일언지제회)

則愚伏謙讓未幾南歸不得復請矣顧此立祠設院崇奉兩大賢香火爲務或講誦之地實
(즉우복겸양미기남귀불득복청의고차입사설원송봉양대현향화위무혹강송지지실)

一州之盛舉廢興如未無文字可傳殊爲欠事恐其歲久寢忘茲敢綴記所聞觀以誌之
(일주지성거폐흥여미무문자가전주위흠사공기세구침망자감철기소문도이지지)

丙戌 春 德水 李 植 謹誌(병술 춘 덕수 이 식 근지)

만력 년간(1573~1615)에 고을 목사 박소고(朴嘯臯) 승임(承任)이 고을 선비들과 더불어 서원을 세워 김선생(金先生=安國)을 봉사할 것을 의논하여 마암(馬岩) 서쪽에 사우(祠宇) 1칸과 강당 6칸을 세우고 동·서재(東·西齋)를 이루지 못하더니 찰방(察訪) 박관(朴寬)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유생 장근(張謹)·신섭(申燮)·박길이(朴吉怡)·권충효(權忠孝)·이중적(李重績)·우필신(禹弼臣)·경시강(慶時康)·정선(鄭愼)·장침(張琛) 등을 유사(有司)로 순서대로 번갈아 역사(役事)를 감독하며 2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8월에 낙성(落成)하고, 위판을 봉안하는 의식을 마쳤다. 그 공사의 비용은 고을의 모든 사인(士人)들이 각기 빈부(貧富)에 따라 걸곡이나 포(布)를 내고 목사(牧使)가 관비로 도와 백성을 쓰게하여 이룩되었다. 그 이름을 마암서원(馬岩書院)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사원(祠院)이 모두 병화(兵禍)로 없어져 다시 일으키지 못한지 오래 되었다가 무신(戊申=1608)년 가을에서야 당원(唐原=南陽) 홍진(洪進) 이상(二相)께서 고을 사자(士子)의 소원을 따라서 복설(復設)의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윤정랑(尹正郎=孝全)·박좌랑(朴佐郎=澈) 등을 유사(有司)로 하고 혹은 서울이나 멀리 있는 자가 관장하기도 하고 당원(唐原)을 원장으로 하고 윤(尹)·박(朴) 등이 받기도 하고 민좌랑

(閔佐郎=侃)이 시골에 있으면서 원장으로 유생(儒生) 신구수(申龜壽)·윤지양(尹知養)을 유사로 하여 그 일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며 윤장(尹張)이 주관하여 더욱 힘썼다. 이 때 서울의 사대부가 이곳에 와서 사는 자가 많았으니 80명이나 바뀌가면서 크고 작은 임무를 분담하여 역사(役事)와 경영을 관장하면서 기유(己酉)년 가을에 시작하여 신해(辛亥)년 봄에 가서 사우(祠宇)와 동·서재(東·西齋)를 마치고 위패의 봉안을 의식대로 마쳤다. 그 후 기묘(己卯)년 간에 따라서 강당을 세웠으니 이 식(李 植)이 원장으로 있을 때다. 무릇 사우가 3칸이요 동·서재가 각 5칸 강당과 협실(夾室)이 12칸 통이요. 곳간과 주방이 각 2칸 사문(祠門)이 셋, 강당문 1, 재문 1이니 이것이 사원을 세운 전후지사의 대개다. 그 공비(功費)는 즉 사자(士子)가 각기 미곡과 포(布)를 내어 주목(州牧)의 노비들을 부리고 또 군역과 장흥사(長興寺)의 유도를 썼다. 또 노비 5 사람과 전지 1결 반을 나누었다. 한정(閑丁)을 모아 잡일을 하도록 하고 원호(院戶)에 간간의 곡식을 비치하고 이로써 전(奠)을 올리고 관(官)에서 저생(猪牲)을 보급하였다. 광해 계축(光海 癸丑=1613)년에 서원 유생 이 식(李 植) 등이 사액(賜額)을 청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후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해 무옥(誣獄) 사건이 크게 일어나 위에까지 미쳤다. 가을에 본주(本州) 유생이 흉계를 모의한 정조(鄭造)·윤인(尹訥)·이위경(李偉卿) 등의 목을 벨 것을 청하는 소(疏)를 올리려 하였는데 정조(鄭造)의 이름은 원적(院籍)에서 먼저 삭제하고 잠시후 대학(大學)에서 그 상소를 논하는데 모두 삭출(削黜)하거나 금고(禁錮)하도록 하였는데 흉한들이 불붙듯이 하여 본원의 상소를 봉하고 아직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조(鄭造) 등이 소문을 듣고 마침내 사화(士禍)를 일으키는 백단소(百端疏=온갖 일의 실마리가 되는 소)로 신조우(辛祖禹)·민유청(閔惟淸)·성여격(成汝格)·신응망(申應望) 등이 오래도록 정고(停錮)되었다.

정조(鄭造) 등이 두 세 사람으로써 사적(私的)으로 재임(齎任)을 정하고 한 서원을 통솔하려 했으나 주(州)의 사류(士類)들이 이 흉한을 의논하고 마침내 불굴하고 따르지 않으니 서원은 비어 있었다. 성상(聖上)께서 반정 후에 지난 날 유생을 모두 학업에 복구시켰지만 갈라지고 옮겨가서 지난 날 같이 흥성히 복구되지 못하여 서원의 많은 폐단이 있었다. 乙丑年(을축1625년) 봄에 성여격(成汝格) 등이 다시 상소를 올려 사액(賜額)을 청하니 예조에서 의논을 번복하여 기천서원(沂川書院)이라고 사액을 내렸다. 이

는 당초에 정한 바였다.

지금 신군(申君) 조우(祖禹)가 원장으로 일부를 수선하고 아울러 모든 편액(扁額)을 걸었으니 사문(祠門)은 숭도(崇道)라 하고 동재는 보인(輔仁), 서재는 권선(勸善), 강당은 교의(敎義), 사문은 경행(景行), 원문은 입덕(入德)이라 하였다. 이는 전일에 겨를이 없던 바다. 전과 같은 생각으로 이 식(李植=澤堂)이 일찍이 우복(愚伏) 정선생(鄭經世) 기문(記文)을 청하여 서원의 후생(後生)을 깨우치는 한 말씀 부탁했으나 우복(愚伏)은 겸손히 사양하더니 미기에 남쪽으로 돌아가 다시 청한바 있다. 이를 돌이켜 보면 서원을 세우면서 양대현(兩大賢)을 높여 받들고 힘써 강론하는 일에 한 고을의 성하고 폐하고 흥한 시말(始末)을 글로써 전함이 끊길까 빠진 일이나 없을까 한다. 오랜 세월이 잊을까 두려워 감히 본대로 들은대로 기록한다.

병술(1646)년 봄 덕수 이 식(德水 李植=澤堂)은 삼가 기록함.

6. 파사고성서의암장로(婆娑古城書義巖長老)

을미(乙未) 류성룡(柳成龍)

婆娑古城在驪州下江邊壬辰之亂賊分兵一路自竹山龍仁出於漢水之南一路從忠州渡
(파사고성재여주하강변임진지난적분병일로자죽산용인출어한수지남일로충주도)

驪江出京城之東時京畿防禦使邊應星請修婆娑以固都城上流余主其議患役鉅勞民今黃
(여강출경성지동시경기방어사변응성청수파사이고도성상류여주기의환역거로민금황)

海僧軍總攝義巖收遊僧築之數年而城成樓櫓及軍器皆備儼然成一關防矣余往見之喜
(해승군총섭의암수유승축지수년이성성루노급군기개비엄연성일관방의여왕견지희)

氣有成作詩與之
(기유성작시여지)

파사(婆娑) 옛 성은 여주 하류 강변에 있다. 임진왜란에 적이 군사를 나누어 한 길은 죽산에서부터 용인으로하여 한강 남쪽으로 출병(出兵)하고 한 길은 충주에서 여주로 강을 건너 서울 동쪽으로 출병하였다. 때에 경기 방어사 변응성(邊應星)이 청하기를 파

사성을 수축하여 도성 상류를 견고히 하자고 하였다. 나도 그 의논을 주청하였으나 역사(役事)가 커서 백성들의 수고를 염려하여 황해도의 승군총섭(僧軍摠攝) 의암(義巖)으로 하여금 유승(遊僧)들을 모아서 수축하게하여 수년만에 성이 이룩되고 다락과 배 그리고 군기를 모두 갖추어 엄연한 한 관방(關防)을 이룩했다. 이에 내가 가서 보고 기뻐시를 지어 주었다. (시는 제영편을 참조)

제 2 부 현대 사회

제 1 장 행정, 교육, 산업 현황

제 1 절 일반 현황

1. 연 혁

- 백제 성지매현(省知買縣)
- 신라 태종 무열왕 7년(서기 660년) 술천(述川)으로 칭함
- 신라 경덕왕 16년(서기 757년) 기천군(沂川郡)
- 고려 태조 23년(서기 940년) 천녕현(川寧縣)으로 개칭,
- 조선 예종 원년(서기 1469년) 여흥군(驪興郡)에 편입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여주군 금사면으로 개칭
- 1971년 4월 12일 산북(山北) 출장소 개소
- 1989년 4월 1일 산북출장소 분면(分面)

금사면은 원래는 백제의 성지매현이었으나 고구려의 남하로 술천군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신라경덕왕 16년에는 기천군으로 고쳐 한주(漢州)에 소속시키고 그 밑에 황려(黃驪)와 빈양(濱陽)의 두 현을 영현(領縣)으로 두었다. 고려 태조 23년에는 천녕으로 고쳤고 현종 9년 광주(廣州)에 속하게 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 관례에 따라 현감을 두었고 예종 원년에는 여주를 목으로 승격시키고 천녕현을 통합하여 직촌(直村)으로 삼았다. 1914년 3월 1일 지방 행정구역 개편 때 그대로 여주군에 소속되었고 1971년 산북출장소를 설치, 산북 일대를 관할해오다가 1989년 지역 주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산북 지역을 산북면으로 승격, 분면하기에 이르렀다.

금사면은 옛부터 금(金)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으며 특히 남한강 및 주변 하천에서 금이 많이 채취되어 「(쇠)금자, (모래)沙자」를 따서 금사면이

라 하였다. 금사면은 여주군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남한강 뱃길의 관문 역할을 해온 이포 나루로 유명한 지역이다. 지금의 다리(이포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여주군 대신면과 이포를 연결하는 이포 나루가 중요한 강상 교통로 역할을 해 왔던 바, 지금은 다시 그 나루터 위쪽으로 이포대교가 놓여 여전히 육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2. 위치와 지역적 특색

금사면은 북쪽으로 금사면에서 갈라져 나간 산북면이 에워싸고 있고 서쪽은 천덕봉을 경계로 광주군 실촌면과 이천군 백사면, 신둔면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여주군 홍천면, 동쪽으로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신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사면은 산이 많은 산북면이 갈라져 나간 뒤에도 여전히 농경지보다는 임야가 월등히 많은 산악 지역으로 농경지는 전체 면적의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임야 70%,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방이 높은 산(산북면과의 경계에 위치한 대렴봉, 이천군 백사면 경계 지역에 위치한 천덕봉, 원적봉 등)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때 생활권이 여주라기보다는 이천이나 광주, 양평 생활권에 속함으로써 여주의 오지로 남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렇다 할 산업 시설도 유치되지 못하여 주민의 80% 가량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여주읍에서 금사 지역까지 지방도 365호선이 확, 포장됨으로써 현재는 여주까지의 소요 시간이 15분 이내로 좁혀짐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고 각종 가든과 요식업소가 도로 주변에 세워짐에 따라 아늑하고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 되었다.

금사면의 전체 면적은 41.2km²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는 8.1km²(전체 면적의 20%)이며 임야는 28.9km²(전체 면적의 70%) 기타 4.2km²(전체 면적의 10%)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산악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잘 살려 발작물로는 달기로 전국에서도 유명한 금싸라기 참외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주민중 일부는 표고버섯 재배로 역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금사면의 인구는 분면되기 전부터 해마다 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1960년 8,622명, 1965년 9,228명, 1970년 7,716명, 1975년 7,794명, 1980년 6,410명, 1986년 5,515명으로 1981년에 비하여 매년 평균 13.5%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다가 산북면이 분리된 이후에는 고작 3천여명의 인구를 보유한 여주에서는 산북 다음으로 면세가 가장 작은 고장이 되었다. 다른 농촌 지역이 다 그렇듯이 금사면도 한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오히려 조금씩 귀농자 수가 늘어나는 반가운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바 1998년 현재 금사면의 인구는 1,061세대, 3,031명(남자1,502명, 여자1,529명), 인구 밀도는 73.7명/km²이며 법정 11개리, 행정 13개리, 44개반에 나뉘어 살아가고 있다. 금사면의 재정 규모는 1997년 기준, 세입: 17억 5천 9백만원 세출: 12억 5천 1백만원이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면사무소 직원과 보건지소 직원, 농민 상담소, 소방 파견소 직원을 합쳐 총 28명이며 유관 기관으로 금사 파출소, 이포 우체국, 금사농협이주민의 행정, 치안, 금융, 우편사무를 담당하면서 금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제 2 절 행 정

1. 행정조직

가. 행정구역 : 금사면의 행정구역은 법정 11개리, 행정 13개리, 44개반, 자연 부락수 2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명은 이포 1, 2리, 궁리, 도곡리, 장흥리, 주록리, 전북리, 소유리, 상호리, 금사 1, 2리, 외평리로 이포 1리와 2리가 금사면에서는 가장 번성한 동네이다.

각리별 인구와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행정리명	세대수	계(%)	남	여	이장
계	1,061	3,031(100)	1,502	1,529	
이포1리	176	537(18)	253	284	김태호
이포2리	131	435(14)	222	213	김근형
궁리	112	327(11)	158	169	이도훈
도곡리	103	288(10)	144	144	한승석
장흥리	28	75(2)	40	35	박명선
주록리	49	113(4)	55	58	한철근
전북리	85	269(9)	140	129	이춘우
소유리	39	118(4)	61	57	박수겸
상호리	46	101(3)	50	51	권혁진
하호리	72	189(6)	89	100	윤춘상
금사1리	67	182(6)	94	88	정영국
금사2리	45	127(4)	67	60	박인철
외평리	108	270(9)	129	141	지호윤

아울러 각리별 역대 이장은 다음과 같다.(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중간 중간 누락된 분들도 있고 연대가 약간씩 틀릴 수도 있음)

- (1) 이포 1리 : 이갑표 (1961 - 1970), 김봉우(1986 - 1987), 김현태 (1988 - 1991), 장태봉(1994 - 1995), 김태호(1996 - 1998)

- (2) 이포 2리 : 최응열(1969 - 1972), 박재관(1973 - 1977), 함진성
(1986 - 1987), 최병호(1988 - 1989), 김근형(1994 - 1998)
- (3) 궁리 : 오석우(1967- 1970), 김형기(1971 - 1976, 1987), 이택순
(1977, 1988 - 1990), 윤희정(1983 - 1986), 오광수(1991 - 1992),
정형근(1993 - 1994), 민황섭(1995 - 1996), 신현수(1996 - 1997)
- (4) 도곡리 : 박성노(1968 - 1971), 김재철(1971 - 1977), 권영규 (1989 -
1990), 한장희(1993 - 1996)
- (5) 장흥리 : 변동혁(1961 - 1971), 변동구(1972 - 1978, 1990 - 1997),
변성섭(1985), 이용철(1986- 1988)
- (6) 주록리 : 한형덕(1967 - 1973), 이중철(1974 - 1976), 민정일(1977 -
1983), 박정오 (1984 - 1985, 1990- 1991), 한경희(1986 - 1987),
김인식(1988 - 1989), 한철근(1994- 1995, 1998)
- (7) 전북리 : 윤세무(1970 - 1974), 조민행(1975 - 1976), 여인학(1977 -
1977), 윤충선(1985 - 1987, 1991 - 1994), 이상정(1990, 1995 - 1996)
- (8) 소유리 : 박치규(1971 - 1974), 박수원(1975), 박광덕(1976, 1985 -
1989), 윤성용(1977), 박수봉(1990,1994 - 1995)
- (9) 상호리 : 민경용(1970 - 1971), 고영섭(1971 - 1975), 김종관(1976-),
고승호(1985 - 1986), 김종옥(1987 - 1989)
- (10) 하호리 : 윤태홍(1963 - 1971), 윤재용(1972 - 1973), 윤홍상
(1977,1990), 윤춘상(1985 - 1988, 1991 - 1998)
- (11) 금사리 : 박치정(1966 - 1971), 박장수(1972 - 1973), 장성근(1974 -
1976), 심대섭(1984 - 1986), 박치양(1987 - 1988), 정영국(1989 -
1990, 1996 - 1998)
- (12) 외평리 : 박치명(1969 - 1971), 지춘식(1972 - 1973), 이건원(1976 -
1977), 박정희(1983 - 1984, 1991), 박종길 (1987,1992), 김태희(1988
- 1989,1996),
- (13) 금사2리 : 신용(1985 - 1988), 윤항선(1989 - 1990), 박광수(1991 -
1992), 박치원(1993 - 1994), 박수천(1995 - 1996)

나. 금사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현황 : 금사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면장(현재 면장 : 허송) 밑에, 21명의 직원이 4계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로 편성되어 금사 지역의 안살림을 보살피고 있다. (98년도 읍, 면사무소 행정 업무 조정에 따라 21명의 직원이 13명으로 줄어들고 재무계는 군청 재무과로 통합 흡수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3계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형편임)

각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계별	분장사무
총무계 (복지계 사무도 함께 취급)	서무, 비밀, 인사, 공인 관리, 공무원의 교양과 복지, 문서, 리행정 지도, 교육, 회계, 선거, 통계, 공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무, 자연 보호 및 국토 공원화 사업, 국채, 재산의 관리처분(물품, 영선 관리) 생활 보호 대상자 구호, 주민 보건, 매·화장 인·허가, 가정 복지, 유아 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무, 청소 업무, 환경 관리, 위생, 지역 의료 보험 지원 업무, 수질 보전, 노동에 관한 사무
재무계	지방세 부과 징수, 세원 조사, 공채, 지방채, 세외수입, 재산의 관리(국, 공유지 대부 및 임대료 조정),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무, 공시지가,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
호병계	호적, 주민 등록, 제증명, 인감, 민방위, 재난관리, 징집 소집, 소방(의용소방대) 관리, 범죄자및 파산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산업계	농업, 잠업, 축산, 어업, 산림, 상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 관측, 저축, 도시, 건축, 토목, 건설, 상·하수도 시설, 중기, 공원 및 가로수, 방재 사무, 하천 및 제방관리, 경지 정리사업, 가로 및 보안등 관리, 도로 관리, 기타 산업 개발에 관한 사무

금사면의 면사무소 행정을 총괄하는 분은 면장으로 3, 4, 5대 면장인 김창희, 한영교, 이영수씨만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 면장으로 선출되고 그밖에는 군에서 임명된 사무관급 임명직으로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면장이 부임하여 훌륭한 치적을 남겨 놓았다. 다음은 금사면의 역대 면장이다.

1대: 李建奎 (1945. 10. 1 - 1951. 4. 4)

2대: 朴圭瓚 (1951. 4. 15 - 1952. 12. 30)

3대: 金昌會 (1953. 1. 1 - 1955. 6. 1)

4대: 韓瑛敎 (1955. 6. 2 - 1960. 2. 3)

- 5대: 李泳洙 (1960. 2. 4 - 1961. 6. 30)
- 6대: 權赫麟 (1961. 7. 1 - 1962. 5. 22)
- 7대: 張世容 (1962. 5. 23 - 1968. 8. 28)
- 8대: 朴勝敦 (1968. 8. 29 - 1970. 12. 24)
- 9대: 金延鎬 (1970. 12.25 - 1980. 4. 11)
- 10대: 徐延一 (1980. 4. 12 - 1983. 4. 11)
- 11대: 韓相喆 (1983. 4. 12 - 1988. 5. 10)
- 12대: 崔鎭亨 (1988. 5. 11 - 1993. 6. 30)
- 13대: 曹炳植 (1993. 7. 1 - 1995. 9. 19)
- 14대: 金光植 (1995. 9. 21 - 1996. 12. 12)
- 15대: 金裕天 (1996. 12.13 - 1998. 5. 24)
- 16대: 許 松 (1998. 9. 11 - 현재)

다. 면민의 날 : 금사면은 매년 9월 10일을 면민의 날로 정하여 면민의 단합과 체력 증진을 위한 행사를 열어 오고 있는 바 97년도에는 제9회 면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 및 체육 대회를 성대하게 치렀다.

라. 면사무소 건물 : 원래 이 자리는 고종 임금 때 참관을 지냈던 민옹식의 별장이었던 곳인데 민옹식 참관이 그 건물과 터를 내놓아 이 곳에 면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한다. 금사면 이포리 197-3번지에 대지 4,081㎡에 벽돌로 지은 2층 슬래브로 연건평 761㎡로 1985년 12월 23일 1억 1천 2백 십만원을 들여 새로 지은 건물이다.

마. 재정규모(97년도) : 금사면의 재정규모는 세입: 1,759,251천원,
세출: 1,251,373천원이다.

바. 금사면의 98 상반기 주민 숙원사업 추진내용

(1)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공 사 기 간	공 사 업 체	진도율
금사1리 농수로복개공사	48,750	98. 3. 23 - 5. 11	서진건설(주)	50%
이포2리(뒷골)하수도공사	48,502	98. 3. 25 - 5. 3	이포건설(주)	50%
전북리당골간농로포장공사	117,014	98. 4. 4 - 7. 2	대명건설(주)	15%
3건				

(2) 중점 추진사항

- (가) 공사감독관 지정 운영을 통한 현장 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 (나) 면장 주 1회 사업장 지도 점검,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다) 명예 감독관 운영 :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위촉, 감독 강화

(3) 사업의 기대 효과

- (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도모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나) 부실 공사 방지로 신뢰받는 현장 행정 구현

사. 금사면의 특수 시책 : 금사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음과 같은 특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 생활 보호 대상자 자매 결연 보호 :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소외되기 쉬운 생활 보호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함으로써 삶에의 욕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 및 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임

(가) 추진개요 : 거택 보호 대상가구(35세대, 54명)

- 1) 직원 1인당 대상가구 1~2 가구씩 자매 결연 : 35세대/ 21명
- 2) 해야할 일 : 민원 대행, 건강 살피기, 경조사 함께 하기, 동향 보고하기

(나) 추진 실적(내용)

- 1) 직원과 대상 가구간 자매결연 : 35세대/21명
- 2) 각종 민원 해결 및 보살펴 드리기: 25건(대장 기록)
- 3) 대상 가구 방문 : 주 2회

(2)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생일 잔치 :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바른 지도자상을 정립코자 함

(가) 추진개요

- 1) 실시일자 : 매분기 마지막 월 27일
- 2) 장소선정 : 관내 식당을 순번제로 선정 실시
- 3) 생일 축하 모임시 간부급 공무원 참여로 유대 강화

(나) 추진 실적(내용) : 1998. 9. 30 현재

- 1) 실시 횟수 및 참여 인원 : 3회/112명
- 2) 생일 맞이자에 대한 선물 증정 : 31명/31점

(다) 기대 효과

- 1) 주민으로부터 칭송 받고 인정받는 마을 지도자상 정립
-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3) 관내 사건사고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
- 4) 요식업소와 주민간의 유대 강화

2. 지역 방위 행정

금사면의 지역 방위와 소방활동은 전적으로 금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비군, 민방위, 의용 소방대의 인원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군 : 금사면 이포리에 향토 예비군 금사면대 사무소가 위치하여 금사면 일대의 예비군 약 17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동원지정자 : 73명, 미지정자 : 97명(중대장 : 예비역 대위 신현교)

☞ 역대 예비군 중대장

1대 : 김성래, 2대 : 이관호, 3대 : 서정일, 4대 : 이병태,

5대 신현교 (1998년 현임 중대장)

나. 민방위 : 지역 민방위 13개와 직장 민방위 1개 대가 편성되어 13개 지역 민방위는 각 이장이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직장 민방위대는 금사면사무소 직원 12명이 편성되어 지역과 직장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바 연간 두 차례의 소집 점검(참가인원 290여명)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12시간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다. 전체 민방위 대원 총수는 412명이다.

다. 이천 소방서 금사 파견소 : 1945. 10. 3 금사면 의용 소방대가 발족되어 현재의 이천 소방서 여주 파출소 금사 파견소로 기구와 명칭이 바뀔 때까지 금사면 이포리 197번지의 면사무소 내에 소방대 사무소가 위치하여 화재 발생시 금사 일대의 화재 진압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울러 대민 구급 활동을 펴고 있음. 이천 소방서에서 파견된 2명의 소방관이 금사주민 30명의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화재 진압과 소방 활동, 대민 구급활동을 맡고 있다.

역대 의용 소방대장을 살펴보면

1대 최보원(1945.10.3 - 1949.12.31),

2대 박광인(1950. 1.1 - 1954.12.31),

3대 박규선(1955. 1.1 - 1959.12.31),

4대 김홍남(1960. 1.1 - 1974.12.31),
 5대 박종성(1975. 1.1 - 1976.12.31),
 6대 조태원(1977. 1.1 - 1982.12.31),
 7대 이광옥(1983. 1.1 - 1991),
 8대 송규순(1991 - 1998.12.31),
 9대 최부열(1998.1- 현재)씨가 역대 소방대장으로 어려운 소방 일을 맡아
 주민들의 칭송을 받아 오고 있다.

3. 금사면의 유관 기관

가. 금사파출소

(1) 소재지 : 금사면 이포리 189

(2) 연혁 : 1914년 일제 시대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7번지에 여주
 경찰서(관) 주재소를 설치, 일본인 헌병 2명, 한국인 헌병 보조원 1명을 배치하
 여 금사면과 홍천면을 관할케 하였음. 그러다가 해방후인 1945년 여주경찰서
 이포지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9년 산북면이 분면되면서 산북 지서가 함께
 설치되고 이에 따라 현재는 금사지서는 금사면의 경찰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
 음.

연 도	주 요 내 용
1914. 5. 18	여주경찰서(관)주재소 설치
1945. 10. 21	여주 경찰서 이포지서로 명칭 변경
1948. 2. 10	금사면 상품리 산북 출장소 설치
1955. 1. 1	여주 경찰서 금사지서로 개칭
1955. 6. 10	산북 출장소폐지, 산북 검문소 설치
1987.	금사지서 청사 개축
1989. 12. 15	산북면의 상품 출장소를 산북 지서로 개서

금사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는 금사파출소는 전체 직원 5명으로 금사 전지역
 의 교통순찰 임무와 범죄예방 활동, 민생치안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바 경찰관
 1인의 책임 구역이 8.4km(주민6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대민 접촉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은게 이 지역 경찰관의 고충이다.

(3) 금사면은 조용한 농촌 지역답게 다른 지역에 비하여 범죄 발생이나 교통 사고가 드문 편인데 참고로 1998년 8월말 현재의 범죄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상황을 살펴본다

구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기소중지	도난	경범	총계
발생	0	0	0	5	4	1	9	1	77	97
검거	0	0	0	4	4	1	9	1	77	96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20건으로 사망 1명, 인명 피해 13건, 물적 피해 6건을 기록중이다.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사건은 전무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지역이다.

(4) 역대 파출소장

성명	재직기간
서광춘	1996. 6.22 _ 1997. 3.14
민장규	1997. 3.14 - 1997.6.10
강태남	1997. 6. 21 - 현재

나. 이포 우체국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7: 4

(1) 연혁 : 1932. 3. 6 이포 우체국 개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사 지역의 우편물 배달 및 접수, 체신예금, 공과금 수납, 우편 주문 판매를 담당해 오고 있다.

(2) 전체 직원 9명 : 우체국장 1명, 사무직 계리원 2명, 집배원 6명
충원 9명

(3)우편물 취급 현황(1997년)

(단위 : 1000통)

국 내								국 외		
총 계			보 통		특 수		소 포		보 통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689	68	621	59	604	8	15	1	2	1	1

(4)역대우체국장 : 1976년이전은 미상

성 명	재 직 기 간
이계신	1976. 12. 6 - 1979. 10. 16
정용규	1979. 10. 16 - 1982. 12. 31
구민각	1983. 1. 1 - 1985. 12. 31
조규화	1986. 1. 1 - 1987. 2. 23
권혁창	1987. 2. 23 - 1989. 2. 25
김명로	1989. 2. 25 - 1990. 2. 27
임선묵	1990. 2. 27 - 1991. 4. 6
김정철	1991. 4. 6 - 1992. 3. 4
박찬배	1992. 3. 4 - 1994. 6. 15
안호규	1994. 6. 15 - 1996. 1. 17
김병옥	1996. 1. 7 - 1998. 6. 30
김달영	1998. 7. 1 - 현재

다. 금사농협 : 총무 기획계, 신용계, 지도 판매계, 자재계, 대부계 5계로 편성, 금사농협직원 20명, 산북지소 8명이 금사, 산북 지역의 중요한 금고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들의 농사일, 심지어는 가정일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음.

(1) 금사 농업 협동조합의 연혁

연 월 일	내 용
1970. 2. 1	리, 동조합 금사농협으로 합병, 초대 조합장 김홍남 취임
1971. 4. 7	면사무소 부대건물 임대, 상호 금융 실시
1971. 8. 25	공제 후생 의료원 건립(9.1개원)
1972. 12. 25	연쇄점 개원 이포리 장터
1973. 3. 1	금사농협 산북지소 개점
1974. 11. 23	이포 양곡 창고 100평 건립
1974. 12. 31	산북 지소 사무소 준공(사무실, 연쇄점)
1976. 12. 30	본소 정부 양곡창고 100평 건립
1977. 8. 30	산북 지소 정부 양곡 창고 100평 건립
1979. 11. 24	산북지소 농약 창고 50평 준공
1980. 2. 14	하호리 비료 창고 50평 준공
1987. 11. 27	금사 농협 본소 신축 청사 준공
1988. 6. 10	산북지소 유류 취급소 설치
1992. 9. 17	산북 지소 종합 청사 준공
1994. 12. 21	본소 농기계 센터, 영양밥 창고 신축 준공
1997. 8. 27	11대 권영규 조합장 취임

(2) 관내 현황

입지유형	관할구역	경지면적	농가호수	조합원수	영농회	부녀회	작목반	직원수
산간형	2개면	(전)826 (답)472	985	970	22	22	19	28

(3) 역대 조합장

순	조합장	재직 기간
1	김홍남	1970. 2. 1 - 1971. 1. 31
2	오석우	1971. 2. 1 - 1972. 12. 24
3	박치정	1972. 12. 25 - 1976. 4. 27
4	반기진	1976. 4. 28 - 1979. 7. 18
5	반기진	1979. 7. 19 - 1982. 7. 18
6	반기진	1978. 7. 19 - 1985. 7. 18
7	반기진	1985. 7. 19 - 1988. 7. 19
8	반기진	1988. 7. 19 - 1989. 7. 18
9	박성노	1989. 7. 19 - 1993. 8. 26
10	박성노	1993. 8. 27 - 1997. 8. 27
11	권영규	1997. 8. 27 - 현재

(4) 98년 특색 사업

(가) 오곡 영양밥 생산 : 생산량 15,000개, 판매액 : 67백만원

(나) 노변 판매장 직거래 운영

- ° 설치농가 : 110개
- ° 간판지원 : 2,500천원
- ° 효과 : 가격정보 제공으로 적정가격 판매 유도, 통명거래 실시
로 우수 농산물 공급, 판매대금 순회집금으로 도난 위험 감소

(다) 원적외선 방사체 (바로돈 - 그린)지원

- ° 지원대상 : 참외농가
-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농가수	총금액	지원액			자부담	비고
		지방비	농협	계		
89	21,540	10,770	2,154	12,924	8,616	

◎효과 : 발효과 및 물찬과 방지, 당도증가 병충해 억제, 착과촉진 (수정)

(5) 98년도 주요 사업추진 현황

98.6.30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별	98 계 획	98실적	달성율
판매	3,600,000	2,762,873	76.7
구매	2,826,000	1,590,896	56.3
예금평균	16,800,000	15,183,695	90.4
상호금융대출평균	16,775,000	14,989,320	89.3
공제유효계약고	24,400,000	21,929,000	89.9
공제료	1,983,000	1,333,678	67.2
기타	37,000	9,000	24.3
조수익	1,559,000	1,407,271	90.3
자기자본	800,000	707,800	88.5
출자금	265,000	221,290	83.5

4. 의료시설

금사면에는 사설 의료 기관은 하나도 없고 여주군 보건소 산하의 보건지소 하나와 보건진료소 하나가 금사 지역의 의료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만큼 의료 혜택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가. 보건지소 : 금사면의 의료행정 (진료업무, 방문예방, 접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소는 금사면사무소내에 사무실을 두고 3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보건 진료를 맡고 있다.

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지소장(공중 보건의 : 탁상도) 밑에 진료 업무 직원 1명, 모자 보건 업무 직원 1명, 총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

나. 보건진료소 : 금사면 하호리 64에 1985. 11. 1 주민 보건을 담당할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1985. 11. 20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주로

하호리, 소유리, 금사 1, 2리, 장흥리 주민들의 보건 진료와 의료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진료소장 : 박경련)

다. 약방 : 금사면 이포 1리 186 (순인당 약방)

한웅희씨가 1968. 7. 30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순인당 약방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5. 주민 복지시설

가. 금사면 종합 복지회관 : 1992년 5월 30일 준공되어 마을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이포 1리 175-4 번지에 위치하고 현대식의 3층 건물은 현재 경로당(이포리 노인정), 마을예식장, 독서실(마을 문고)로 활용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다. 현재는 금사면사무소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경로당 : 금사 지역에는 총 13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바 그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경로당 등록 현황

등록년 월일	경로당명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	시설규모			회원 수	전화번호
					부지 (㎡)	건평(㎡)	건축 년도		
86. 6. 9	금사	이포1리175- 4	79. 7. 28	김낙완	381.3	133.44	94	70	
97.12.29	이포부녀	상동	97. 12.29	이억순	상동	상동	상동	31	
97. 5.20	이포2부녀	이포리271- 5	97.5. 20	김복동		58	92	24	
96. 1.29	궁리	궁리168	95. 12. 12	신현규	330	117	95	44	882- 9601
98. 2.18	궁리부녀	상동	98. 2. 18	박성순	175	102.8	96	18	
95. 7.31	도곡	도곡리199- 3	95. 7. 14	박성만	251	82.5	95	31	882- 9641
94.12.22	장흥	장흥리57	94. 12. 19	변동혁	548	116.1	94	21	
91. 3.11	전북	전북리276	89. 2. 15	윤세각	1445	165	91	13	
96.10.29	소유	소유리159	96. 10. 29	박치호	330	132	96	16	
98. 2.18	상호	상호리153- 2	98. 2. 18	고영만	469	99	98	21	
94.11.29	하호	하호리178	94. 10. 3	윤관용	1211.7	49.2	94	42	886- 9676
92. 2.10	금사1리	금사1리122- 1	89. 2. 15	이명석	331	166.3	92	23	
94. 1.20	금사2리	금사2리458- 3	94. 1. 14	윤백환	529	100.1	93	23	

제 3 절 교 육

1. 근대 이전의 교육

금사 지역에는 조선시대 지방의 유학자들이 선현을 봉사하고 교육과 학문 연구를 맡고 있던 교육기관으로 기천서원이 있었다.

※ 기천서원(沂川書院) ☞ <유물 유적 참조>

2. 교육 기관

금사에서의 근대 교육의 시작은 1919년 이포 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근대교육 기관으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포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 이 금사 지역에는 근대 사립학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투사였던 엄항섭씨가 다녔다고 하는 신흥학교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현재 금사면 이포1리 174번지를 이문안이라 불렀는데 바로 이 자리에 3년제 사립학교가 있었다는 데 교과과정이나 학제, 졸업생, 개교년도나 폐교년도 등의 자료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어 신흥학교가 있었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간다.

금사 지역에는 산북면이 분리되기 전 국민학교 4개교, 분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와 유치원 2개교가 있었으나 산북면이 분리되면서 현재는 초등학교 1개교, 분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총 574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학교들이 공립이고 사립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며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였으나 IMF 이후 젊은이들의 귀농 현상으로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금사 지역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사설학원도 미미한 편이라 속셈학원 하나와 피아노 학원 하나가 영업중인데 간략하게 각 학교들의 연혁과 학교 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분면된 산북면 지역의 분면되기 전까지의 학교 현황도 소개해 보기로 한다.)

3. 이포초등학교(梨浦初等學校)

가. 소재지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248

나. 학교 소개 : 이포초등학교는 남한강의 줄기, 여강 옆에 자리잡고 있다. 특산물로는 금사 참외와 표고버섯이 유명하며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자리하고 있어, 1919년 7월 3일에 개교한 이래 79년간 유구한 역사로 졸업생 7,094명을 배출한 학교로서 현재 10학급(분교 3학급, 특수 1학급포함), 19명의 교직원이 21세기 정보화, 세계화를 위한 열린교육, 창의성 교육에 정진하는 학교이다. 최근 학교 전체가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과 열린교육의 실시로 다양한 교육 과정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선진적인 학습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다.역대 학교장 : 1945. 8. 15 이전은 미상

순	성명	근무기간	주요업적
1	홍성복	1945.10. 1 - 1950.11.26	
2	김태홍	1950.11.27 - 1957. 4.12	
3	홍성복	1957. 4.13 - 1959. 7. 7	하호 분교 승격 인가
4	정규상	1959. 7. 8 - 1961.10.20	정규 교실 3교실 증축
5	김용범	1961.10.21 - 1964. 2.27	주록분실 설치
6	홍성복	1964. 2.28 - 1972. 2.28	주록분교장 승격인가
7	이순구	1972. 3. 1 - 1982. 8.31	7교실 슬라브조 및 2층 준공
8	이만중	1982. 9. 1 - 1984. 8.31	유치원 시범학교 운영
9	정성화	1984. 9. 1 - 1989. 2.28	
10	김영호	1989. 3. 1 - 1993. 2.28	군 종합 지도 우수교 수상
11	이범렬	1991. 3. 1 - 1993. 2.28	
12	심성진	1993. 3. 1 - 1995. 8.31	생활지도 우수교교육감상수상
13	임가홍	1995. 9. 1 - 1997.10.28	
14	김병석	1997. 10. - 현재	

라.학급 편성현황 : 총 10개 학급(분교 6학급, 유치원 1학급, 분교 3학급) 재학생 총 164명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분교1)		1(분교0.5)		1(분교0.5)		1(분교0.5)		1		1(분교0.5)		9(유치원1)	
학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8	16	13	11	15	10	5	22	11	12	11	9	84	80

마.교직원수 : 교장 1명, 교원 13명,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계 19명

바. 학교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19. 4. 1	이포초등학교(4년제 보통학교) 설립인가
1919. 7. 3	개교
1922. 3. 31	6년제로 승격
1956. 4. 1	하호분교장, 하호국민학교로 승격
1981. 3. 10	병설유치원 개원
1988. 3. 1	하호초등학교, 하호분교로 격하
1997. 10. 29	제 14대 교장 김병석 부임
1998. 2. 17	제 76회 졸업(졸업생 총수 7,094명)
1998. 3. 1	10학급 편성(본교 7학급, 분교 3학급)

※지금은 이포초등학교 분교로 격하되었지만 1988년까지 하호국민학교로 분리되어 있던 하호분교의 연혁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간다.

4. 하호초등학교

가.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51. 4. 1	이포국민학교 하호분실
1952. 4. 30	이포국민학교 하호분교장
1957. 10. 21	하호국민학교로 승격
1958. 4. 1	하호국민학교로 개교
1988. 3. 1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로 격하

나. 1988년 분교로 격하될 때까지 총 졸업생 1,163명 배출, 1대 박길원 교장으로부터 9대 정창수 교장을 끝으로 이포초등학교에 편입

5. 이포 중학교(梨浦中學校)

가.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468

나. 학교소개 : 행정구역상으로는 홍천면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금사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사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포중학교는 남한강 이포대교 가까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38년의 역사 속에 무려 3,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금은 이 고장 유일의 중학교이다. 날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며 이 지역 교육의 요람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 학교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60. 3. 2	이포중학교 설립인가
1963. 4. 9	개교 및 입학
1963. 2. 12	제 1회 졸업(58명)
1998. 2월 현재	제 36회 50명 졸업 (누계: 3,721명)

라. 학급편성 : 남·녀 공학 1, 2학년은 각 1학급, 3학년은 2학급 편성
운영

학년 반	1	2	3			총계
	1	1	1	2	계	
남	22	22	10	10	20	64
여	19	20	16	17	34	73
계	41	42	26	27	53	136

마. 교직원수 : 교감 1인, 교원 9인, 일반직 1, 기능직 1, 총 12명

바. 역대 학교장

대	학교장	재 임 기 간	비 고
1	노창환	1961. 3. 1 - 1966. 3. 1	
2	염태환	1966. 3. 1 - 1970. 3. 1	
3	조태동	1970. 3. 1 - 1973. 3. 1	
4	임경순	1973. 3. 1 - 1974. 4. 1	
5	이관하	1974. 9. 1 - 1977. 9. 1	(이후는 고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교장겸임)

6. 이포고등학교 (梨浦高等學校)

가. 소재지 :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468

나. 학교소개 : 남한강 이포대교 가까이 위치한 본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홍천면에 속해 있지만 학구상으로는 금사지역의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오늘날 이 고장의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배움의 전당이 되고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자 사명이라고 믿어 학생들에게 도덕성 함양, 창의성 개발, 자주성 신장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창의력 있는 도덕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학교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74. 12. 27	이포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7. 9. 1	이포고 초대교장 이병옥 부임
1978. 2. 22	이포고 제1회 졸업식
1998. 2. 13	이포고 제21회 84명 졸업(총 1957명)
1998. 3. 2	제 11대(중학교는 15대) 교장 전택용 부임

라. 학급편성 : 남녀공학으로 1, 2, 3학년 모두 2학급씩 편성, 총 6학급

학년 반	1			2			3			총계
	1	2	계	1	2	계	1	2	계	
남	36	36	72	28	29	57	30	33	63	192
여	12	11	23	16	15	31	21	7	28	82
계	48	47	95	44	44	88	51	40	91	274

마. 교직원수 :교장 1, 교감 1, 교사 14, 일반직 2, 기능직 2(총원 20)

바. 역대 학교장

5대까지는 이포중학교 교장이 중학교만을 관리해오다가 1977년 이포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이포고등학교 교장이 현재까지 중,고등학교를 함께 관리해오고 있음.

대	성명	근무기간	비고
6	이병옥	1977. 7. 1 - 1980. 8. 31	1~5대 교장은 중학교 교장임
7	허 영	1980. 9. 1 - 1981. 8. 31	
8	김원홍	1981. 9. 1 - 1986. 2. 28	
9	강준호	1986. 3. 1 - 1987. 8. 31	
10	공의표	1987. 9. 1 - 1990. 7. 1	
11	정원유	1990. 7. 29 - 1992. 8. 31	
12	김동대	1992. 9. 1 - 1994. 2. 28	
13	유 선	1994. 3. 1 - 1996. 6. 13	

※ 참고로 금사면에서 1989년 분면된 산북 지역의 학교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7. 상품초등학교

가. 소재지 : 산북면 상품리 12-1번지(분교 : 주록분교, 주록리 55번지
현재는 폐교)

연도	주요내용
1937. 10. 20	상품공립보통학교 인가
1950. 4. 1	상품국민학교로 개명
1962. 3. 10	주록분교 설치
1974. 3. 1	이포국민학교 주록 분교, 본교로 편입
1996. 2. 28.	주록분교 통폐합
1996. 3. 1	상품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8. 2. 17	제 57회 졸업(졸업생 누계2,763명)

나. 학급편성 : 1998년 현재 각 학년 1학급, 재학생 총 153명,
유치원 1학급 총 7학급

다. 역대 학교장

순	학교장	재임기간	비고
1	이기호	1937.10.20 - 1941. 7.29	
2	안병일	1941. 7.30 - 1945. 7.30	
3	김태홍	1945. 8. 1 - 1946. 11. 9	
4	이문용	1946.11.12 - 1949. 7. 4	
5	최창원	1949. 7. 5 - 1951. 6.29	
6	최병수	1951. 6.30 - 1953. 4.14	
7	한숙표	1953. 4.15 - 1954. 6. 6	
8	김용하	1954. 6. 7 - 1956. 3. 1	
9	박재병	1956. 3. 2 - 1958. 3.27	
10	김낙준	1958. 3.28 - 1961. 5. 4	
11	정순모	1961. 5. 5 - 1962.12.30	
12	한창섭	1962.12.31 - 1964. 3.30	
13	이옥규	1964. 3.31 - 1971. 8.31	
14	정의호	1971. 9. 1 - 1978. 2.28	
15	정순섭	1978. 3. 1 - 1980. 8.31	

16	황윤구	1980. 8.31 - 1986. 6.24	
17	서명원	1986. 6.25 - 1988. 8.31	
18	정기일	1988. 9. 1 - 1989. 8.31	
19	이재범	1989. 9. 1 - 1992. 4.15	
20	정기성	1992. 4.16 - 1994. 9. 5	
21	성승모	1994. 9. 5 - 1997.10.28	
22	정승모	1997.10.29 - 현재	

8. 상품중학교

가. 소재지: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 153

나. 학급현황: 1, 2, 3학년 공히 1학급씩 편성, 재학생 총 79명

다. 학교연혁

연도	주요내용
1971. 12. 27	학교설립인가
1972. 2. 25	초대 남두현 교장 취임
1972. 4. 28	개교식
1975. 1. 27	제1회 졸업
1997. 3. 1	제16대 최준식 교장 취임
1998. 2. 14	제24회 졸업31명(총계 : 1,686명)

라. 역대 학교장

순	학교장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남두현	1972. 2.15 - 1973. 9. 1	
2	이기영	1973. 9. 1 - 1975. 2.28	
3	김병갑	1975. 3. 1 - 1979. 9. 1	
4	나선기	1979. 9. 1 - 1983. 7. 1	
5	정현상	1983. 7. 1 - 1984. 2.29	
6	최연화	1984. 3. 1 - 1985. 2.28	
7	최장준	1985. 3. 1 - 1987. 3. 1	
8	이석구	1987. 3. 1 - 1989. 3. 1	
9	송윤희	1989. 3. 1 - 1991. 9. 1	
10	한경수	1991. 9. 1 - 1992. 9. 1	
11	민병대	1992. 9. 1 - 1993. 2.28	
12	박치구	1993. 3. 1 - 1993. 8.30	

13	이상득	1993. 9. 9 - 1993. 9.21	
14	하철호	1993. 9.23 - 1995. 3. 1	
15	홍순창	1995. 3. 1 - 1997. 3. 1	
16	최준식	1997. 3. 1 - 1998. 9. 1	
17	한춘희	1998. 9. 1 - 현재	

9. 사설학원

학생도 적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농촌 지역이라 사설학원이래야 불과 두군데 밖에 안되는데 이포 254-3에 위치한 이포 속샘학원(대표자 : 최명자)과 이포 186에 위치한 명지 피아노학원이 현재 여주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제 4 절 산 업

1. 농업 : 금사면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농업으로서 671가구 2,454명의 주민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음

가. 토지현황 : 금사 지역의 농경지는 전체 면적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0%가 산림 지역이며 기타 용지는 약 10%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ha)

농	경	지	대지	임야	도로	하천	기타	계
전	답	계	46	2,890	40	262	73	4,121
364	446	810						

참고로 일제 시대, 이 지역의 토지를 점유했던 대지주 명단을 간단히 소개해
본

1937. 6 현재 금사면의 30정보 이상 소유지주 명단

성명	거주지	소유지의 소재와 면적			소작인수
		논	밭	합계	
신현인	경성	34	5	39	150
김승진	"	37	4	41	107
김승규	"	38	5	43	130
윤태섭	"	25	24	49	120
오선경	"	54	10	64	191
오중섭	"	71	5	76	150
엄경섭	"	59	31	90	356
임병달	"	80	30	110	119
김희주	"	66	23	89	410
정영두	"	17	28	45	135
장기만	"	46	12	58	165
이풍한	"	37	16	53	200
임호상	"	15	10	25	100
민병수	"	33	17	50	105
임중상	"	33	17	50	105
윤영선	"	58	22	80	50
윤영섭	여주	34	4	38	140
윤영록	"	19	14	33	40
신시환	"	26	7	33	120
곽한영	"	23	11	44	155
박봉병	"	44	22	66	50
최영락	"	79	12	91	269
오진섭	"	79	29	108	135
최진원	"	86	40	126	648
김로진	청주	23	9	32	40
식산(주)	이천	70	59	129	292

나. 농기계 현황 : 금사 지역의 농업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바 그 농기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건조기	과일선별기	계
64	46	95	294	235	47	41	16	838

다. 금사의 중요 농산물 : 여주 금사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참외다. 특히 다른 지역의 참외보다 당도가 높아 보통 금싸라기 참외라 불리는데 올해부터는 금사 농협에서 참외 판매에도 실명제, 리콜제 및 도입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주고 있는바 1998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일부 소개한다.

『상한 참외는 새것으로 바꿔드립니다.』 여주군 금사농협이 올해 처음으로 농협 차원의 도로변 참외 직판을 실시하면서 리콜(Recall)제 및 실명제(實名制)를 채택,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주는 ‘금싸라기 참외’의 본고장. 토질이 좋은 여주에서 재배된 금싸라기 참외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1등급 참외로 명성이 높다. 특히 금사면(金沙面)은 여주에서도 손꼽히는 참외의 주산지. 이천에서 이포나루로 가는 길목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들판이 펼쳐져 있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이포대교 부근에는 오래 전부터 생산농가들이 도로변에 참외를 늘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직거래’ 노변(路邊)판매가 성행했다. 노변 판매는 갓 딴 싱싱한 과일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어 도시 거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상한 물건을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누구한테 샀는지 기억하기 어렵고 반품도 어려우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도 갖다 파는 등 폐단이 많은 것도 사실. 금사농협은 무질서한 상거래행위를 방지할 경우, 여주 금싸라기참외의 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개입에 나섰다. 금사농협은 올해 노변 판매를 하는 생산농가 1백10곳에 일제히 간판을 만들어 줬다. 이 간판에는 번호, 작목반, 생산자명 등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모르고 ‘불량품’을 샀더라도 번호만 기억해 금사농협(☎0337-883-3411-3)으로 전화하면 새 것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금사농협 권영규 조합장은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감사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곳 참외의

노변 판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1) 참외 재배현황

- (가) 농가수 : 226
- (나) 재배면적 111ha (노지 : 10, 하우스 : 101)
- (다) 예상 수확량 : 2,496m/T
- (라) 예상소득금액 : 3,731,000천원,
- (마) 작목반 : 11개

(2) 금사참외의 연혁 및 생산

남한강의 범람으로 인한 침적토인 사양토로 형성되어 있어 참외재배의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으며 당도(17.3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15년 전부터 유명세를 보이고 있음

(3) 상품특성

- (가) 색깔이 뚜렷하고 먹기에 적당히 크며 유난히 당도가 높아 소비자가 즐겨 찾음.
- (나) 하우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아 인공 수정을 하고 있으나 금사면의 경우는 벌통을 배치하여 자연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열매가 좋음

(4) 출하시기 및 유통경로

- (가) 생산기간 : 당년 1. 20 ~ 6. 5
- (나) 출하시기 : 6. 5일 이후 출하됨.
- (다) 유통경로 : 생산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 도. 소매상 ⇒ 소비자

2. 임업 : 산이 많은 고장답게 금사지역의 특산물로는 표고버섯을 들 수 있다. 재배현황과 수확량을 간단히 소개한다.

가. 표고 재배현황 : 작목반 1개

나. 재배 농가수 : 52가구, 110만본

다. 수확량 : 160m/T

라. 생산 : 5,000천원(97년 기준)

3. 제조업 : 금사 지역의 산업 시설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산업체로서 네 군데를 꼽아 볼 수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공장준공일	생산 품목	종업원 수	전화번호
유정산업	최우경	금사 공리 135	87. 3.10	휴관. 파일	70	882- 9845
삼운콘크리트	신영자	금사 상호 37	92.10. 9	철관반침대	17	886- 4529
호정개발(주)	문연식	금사 도곡 96	97. 4. 2	벽돌. 블럭	3	882- 6161
고운산업		금사 공리136		목재 건구	12	884- 1636

가. 금사토기 (일명 오부자 웅기) : 위 자료에서는 빠져 있지만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7대째 가업을 이어 오면서 전통 웅기를 생산하는 금사토기로, 금사토기는 메스컴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데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한다.

직원이라고 해야 일가족 5명, 웅기장이 김일만씨(1996년도 기능 전승자로 선정)와 그 아들 성호, 정호, 창호, 용호씨 4형제가 바로 그들인 금사토기는 도자기 고장인 여주에서 볼 때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업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곳에서 생산되는 항아리들은 이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이 되었다. 40여년을 휴과 더불어 웅기장이 인생을 살아온 김일만씨(55)는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서 7대째 전통웅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만드는 웅기는 기계로 만들어 가스 가마에 구운 것처럼 빛깔 곱고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숨을 쉬는 무공해 웅기인 것이다. 메주를 쑼어 간장을 담가보면 신기하게도 소금이 갖고 있던 독을 걸러내고 수분이 넘치면 뱉아 내는, 그리고 생수를 담아도 일 반 플라스틱 물통과 달리 물맛이 오래도록 변함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릇이 바로 이 곳에서 생산되는 항아리인 것이다. 김씨의 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우선 점토를 반죽해 토란기

에 넣어 떡가래처럼 길게 뽑아낸다. 뽑아낸 흙가래를 물레 위에 얹은 다음 발틀로 돌리면서 옹기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이 때 주걱으로 안팎을 때리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것이 바로 그릇을 가볍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빚은 옹기는 사흘 동안 그늘에서 말린 후 소나무 태운 재에 약토를 섞어 만든 잿물을 입힌다. 그리고 5일 정도 다시 말린 후 바람이 없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가마에 차곡차곡 넣어 한꺼번에 구워낸다.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은 어떤 과정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일주일 밤낮을 정성으로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이다. 장 항아리, 찻잔, 국그릇, 밥그릇, 꽃병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다. 한때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의 대량 보급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던 우리의 전통 옹기가 이제는 이렇게 쓸모 있는 그릇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금사토기에서 제작되는 항아리들이 금사면을 빛내주는 중요한 특산물이 되다시피 하였기에 특별히 소개해 봤다. (금사토기의 가마는 1980년도 충남 아산시 인중면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현재 18년째 가마를 구워오고 있음)

나. 고운 산업 : 금사면 궁리 136에 소재한 고운 산업은 직원 12명을 두고 목재건구와 패널을 제작하고 있다.

다. 유정산업 : 금사면에서는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콘크리트 전주와 말뚝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로 유정산업이 있다. 1984년 설립된 이래 한국전력과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전주를 주로 생산해오면서 국가 지정 산업체로 국가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난 회사이다. 간단히 유정산업의 연혁과 사업 개요를 소개한다.

(1) 위치 : 여주군 금사면 궁리 135

(서울 사무소 :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

(2) 대표자 : 대표이사 최우경

(3) 상시 종업원 : 54명

(4) 생산 품목 : 콘크리트 전주 연간 45천본, 말뚝 30천본

(5) 연간 매출액 : 약 50억- 60억원 (97년 기준)

(6) 연혁

연월	내용
1984.12. 8	법인 설립: 유정산업 주식회사(자본금: 1억원)
1985. 6.29	공장 등록 완료
1985. 8.30	제1공장 준공 제품 생산 가동
1986. 2. 1	공업 진흥청 KS 마크 획득(콘크리트 파일, 전주)
1986. 4. 6	자본금 증자 1억원, 자본금계 2억원
1989. 8.22	자본금 증자 2억원, 자본금계 4억원
1989. 9.30	제2공장 준공 제품 생산 가동
1994.12.30	한전주, 통신주 전문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재투자

4. 서비스업 : 금사 지역의 유일한 사업체로 이포 컨트리 클럽이 있다.

가. 이포 컨트리 클럽(이포 C.C) : 아름다운 장흥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이포 컨트리 클럽은 금사면의 가장 큰 사업체로 금사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사업 현황과 연혁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포 컨트리 클럽은 보광개발(주)에서 조성한 총면적 약 32만평, 18홀 규모의 회원제 정규 골프장으로서 개략적인 사업 개요와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산 1번지 일원

(2) 공사기간 : 1989. 12.16 ~ 1991. 11

(3) 개장일 : 1992. 3.3

(4) 대표자 : 심춘석

(5) 직원 : 약 70명

(6) 연간 이용객 : 5만 5천명

(7) 연혁

연월일	내용
1989. 2. 9	보광개발(주) 설립
1989. 6.30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 계획 승인
1989. 12.16	이포컨트리 클럽 착공
1990. 11.	이포 컨트리 클럽 1차 회원 모집

1992. 3. 3	이포 컨트리 클럽 완공
1997. 4.22	이포 컨트리 클럽 개장
1991. 11.	6홀 피장 및 퍼팅장 증설 신고 수리

나. 청소년 수련원 :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단련의 수련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수련원은 여름철을 이용, 학생들에게 극기훈련과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튼튼하고 강인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있다.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만 개장되는 계절제 업종으로 수용인원은 약 150명이다.

5. 상업 : 금사면 도로변에는 참외 생산 농가들이 조그만 원두막이나 간이 상점을 지어 놓고 직접 참외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포 1리와 2리 주변에는 다방, 슈퍼, 노래방, 비디오 가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발소, 미용원, 세탁소, 정육점 등의 조그만 가게가 약 30개소 정도가 성업 중이다.

6. 요식업 : 아름다운 한강, 오염되지 않은 계곡과 저수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금사면은 최근 들어 많은 별장과 음식점 (가든)들이 들어서고 있다. 산북면으로 통하는 도로상에는 새로이 단장한 아담한 식당과 휴게소, 가든이 즐비한데 그 이름도 정다운 빛고을 가든, 석수 가든, 원두막, 봉바위 산장, 만추, 오슬로, 느티나무 가든 등총 65개 이상의 식당이 성업 중인데 지금도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7. 광업 :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해서 금사라는 지명이 생겼듯이 이곳 금사지역에서는 얼마 전까지 금을 캐던 두 광산이 있었다. 상호리 여수금산과 소유리 팔보광산이 바로 그 곳인데 금덩이를 몰래 삼킨 광부가 금덩이에 묻은 독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폐광되어 버리고 금광에 대한 이야기는 아련한 전설처럼 아는 사람도 얼마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

제 5 절 교통(交通)과 통신(通信)

1. 교통(交通)

가. 조선조(朝鮮朝) 이전(以前) 교통(交通)과 통신(通信)

공문서(公文書)의 전달(傳達), 관리(官吏)의 왕래와 숙박, 관물(官物)의 수송(輸送)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소지왕 9년(487)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의 도로를 대, 중, 소(大 中 小)로 삼등분하고 547개의 역에 22명의 역승(驛丞)을 두고 역승(驛丞) 밑에 역장(驛長), 역정(驛丁)을 두었고 이들은 병부(兵部)에 속해있었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역전(驛田)이라는 토지(土地)를 국유로 두고 그 수입에서 지출하에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조 3년(1457)에 역승을 찰방(察訪)이라고 개칭하고 전국에 538개의 역을 두고 이 역들을 40구(區)로 나누어 각각 구역책임자로 찰방을 두었는데 찰방이 주재하는 큰 역을 찰방역이라 하고 찰방은 자기 관내의 속역(屬驛)을 통괄했다. 역은 대체로 30리에 하나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형편과 지세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리하여 여주관내에는 신진역(지금의 여주읍 신진리), 안평역(점동면 청안리), 양화역(양화나룻터)의 3개역이 그 대표적(代表的)이었고 이 역들은 모두 경안(廣州) 찰방역(察訪驛)에 속해 있었다. 또 이 3개의 역의 비용을 위하여 신진역(新津驛) 토지로 답(畓) 3석(石) 4두(斗) 6승락(升落)(약13,800평)이 있었고 안평역(安坪驛)의 토지로 답(畓) 5석락(石落)(약20,000평)이, 또 양화진(楊花驛) 토지로 답(畓) 20석락(石落)(80,000평)씩 있어 그 토지의 세수(賭租)로 관리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이 토지(土地)는 교통(交通)의 발달로 통행형편의 변경에 따라서 양화역 토지는 광무 원년(1897)에 탁지부(재무부)로 이속되고 신진역 토지는 광무 3년(1899)에, 안평역 토지도 같은 해에 각각 탁지부로 이속되고 역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이때에 종말된 것 같다.

양화역은 옛 천녕현(川寧縣)의 중요 교통 통신로였었다.

양화역은 비단 육로(陸路)뿐만 아니라 한강(漢江)을 이용하여 상경(上京)하는

수로(水路)로서의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양화창(楊花倉)이라하여 크나큰 정부용보관 창고가 있어 충청도 북부지방의 조세량과 강원도 일부, 경기 동남부(東南部) 전체의 물량을 이 양화역에 집결 적재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수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선 세종때는 크게 확충하여 선군(船軍)이 127명이나 되었고 주재선박으로는 적재량 正租(벼) 250석이 가능한 운수선(運輸船) 50척이 있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역이었기 때문에 부속된 토지와 인원이 예외로 많았었다. 양화역의 통신용 필마와 노비는 중등말 5필, 하등말 1필, 역리(驛吏) 10명으로 주로 수로에서 필요로 하는 역이었다.

(1) 나루터(渡津)

(가) 이포(梨浦)나루(川寧나루)

금사면 이포리(속칭 천양)와 대신면 천서리 간에 왕래하는 나루로서 옛부터 이포진(梨浦津)이 있었고 통행편(通行便)으로 볼 때 여주, 이천, 곤지암 등지에서 양평을 통행하거나 서울 통행에 필요한 나루다.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의 중요한 나루터로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길손 뗏목·배들이 머물러 주막과 여각이 즐비했던 곳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여차례 여주와 양평을 오가는 차량과 물화를 건너 주었던 곳이다. 세조 2년(1456) 6월 단종이 유배길에 광나루에서 남한강을 거슬러 이곳을 지나 영월로 향했다고 하며 한여름 갈증을 달래주던 어수물(御水井)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6·25사변 후부터 대형조선(大型造船)으로 차량(車輛)까지 운수(運輸)하였다. 1987년 11월 이포대교(梨浦大橋)가 착공(着工)되고 1991년 준공되어서 폐쇄되었다.

(나) 윗자진개 나루

금사면(金沙面) 금사리(金沙里(벌말))와 개군면(介軍面) 상자포리(上紫浦里(윗자진개))간을 통행하는 나루로서, 주로 하호리 지역내 주민이 이용하였고, 1981년 양평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생겨나면서 이용이 줄어들었고, 1991년 이포대교 준공으로 완전히 폐쇄되었다.

(다) 하자나루(下紫)

금사면(金沙面) 금사1리와 개군면(介軍面) 하자포리(下紫浦里(아랫자진개))를 연결하는 나루로서, 금사리 전북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1981년 양평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생기면서 이용이 줄어들고 1991년 이포대교 준공으로 완전 폐쇄되었다.

(2) 국도(國道)

당초에 국도는 없었으나 1991년 이포대교가 준공되고 난 후, 무극에서 이천을 경유 용문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생겼다.

국도번호	노선명	경유지명	총연장
70	무극 : 용문선	홍천면 외사리(서낭당) - 문장리 - 이포 - 천서리 - 송촌리 - 울촌리	16,738m, 1984년포장

(3) 지방도(地方道)

당초의 지방도로급으로는

(가) 이천 - 이포노선 : 이천에서 백사를 거쳐 이포에 이르는 50리 길

(나) 곤지암 - 상품노선 : 광주 곤지암에서 상품을 거쳐 양평에 이르는 70리 길 이상의 2개 노선이 있었고 이포에서 상품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으나 관(官)·사도(私道)를 겸용(兼用)한 길이라고 봐야겠다.

현재의 지방도로는 다음과 같다.

노 선 번 호	노 선 명	경 유 지	연 장 거 리
365	이포 - 상품	이포 - 하호 - 상품	10,300m, 1992년포장
88 국지도	금사 1 리 - 전북	금사 1 리 - 전북	4,300m, 1992년포장
군도 6	이포 - 상품	이포 - 송현 - 상품	11,500m, 1993년포장
군도	이포 - 상품	이포 - 주록 - 상품	포장
국가지원지방도 44	곤지암 - 양평	곤지암 - 상품 - 양평	포장

(4) 교량(橋梁)

금사면과 다른면, 외지로 연결되는 다리는 아래와 같다.

노선번호	노선명	교량면	위치	크 기			경간	비 고
				연장(m)	폭(m)	높이(m)		
70 국도	무극-용문	금사교	궁리	60	7.5	3.5	4	95년준공
365 지방도	이포-상품	외평교	외평리	12	5	4	1	68년준공
	이포-상품	하호교	하호리	50	7.5	2.5	5	97년준공
6 군도	이포-상품	주록교	주록리	14.5	4	3.5	1	74년준공
	이포-상품	장항교	주록리	22	5.5	2	2	95년준공

나. 수상(水上) 교통(交通)의 역사(歷史)

(1) 한강(漢江)의 조운(漕運)

우리 나라는 구릉과 하천이 많은 지형관계로 인하여 도로 사정이 불편하였고 교통수단 역시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하였다.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육로는 주로 파발(擺撥)을 중심으로 한 통신로(通信路)를 개발하고 화물의 운송은 수로(水路)를 이용하는 정책을 폈다.

택리지(擇里志)에서 이중환(李重煥)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양(平壤), 춘천(春川), 여주(驪州)를 들고 있다. 여주(驪州)는 남한강(南漢江)변에 위치하고 한양(漢陽)과 100리(里) 거리에 있는데 지세와 기후가 좋아 양반들의 별장도 있었고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조운(漕運)이란 조전(漕轉), 해운(海運), 점운(站運), 선운(船運)이라고도 하여 조세(組稅)로 징수한 미곡, 포목 등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가에서는 조세미(組稅米)의 수송을 위하여 군현(郡縣)에서 수취한 조세미(組稅米)를 그 인근의 수로연변(水路沿邊) 또는 해안에 설치한 창고에 집적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조선(漕船)에 실어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운송(運送) 하였다. 이때 조운(漕運)을 위하여는 출발지점, 기항지점, 도착지점이 있었는데 이 3개의 선을 잇는 선이 조운항로(漕運航路)이며 출발지점에 설치한 창고가 조창(漕倉) 또

는 수참(水站)이다.

우리 나라의 조운제도는 이미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 발달하였다. 즉 고려 왕조(高麗王朝)는 초기(初期)부터 남방 연해안과 한강 수로변에 12조창(漕倉)을 두고서 국가의 세곡(稅穀)을 예성강(禮成江) 입구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12조창(漕倉)은 아주(牙州)의 하양창(河陽倉), 부성(富城)의 영풍창(永豐倉), 보안(保安)의 안흥창(安興倉), 임파(臨波)의 진성창(鎭城倉), 나주(羅州)의 해육창(海陸倉), 영광(靈光)의 부용창(芙蓉倉), 영암(靈巖)의 장흥창(長興倉), 승주(昇州)의 해룡창(海龍倉), 사천(泗州)의 통운창(通運倉), 합포(合浦)의 석두창(石頭倉), 그리고 한강 연변에 설치된 덕흥창(德興倉), 흥원창(興原倉)이 있다. 특히 충주(忠州)의 덕흥창(德興倉)에는 21척(雙),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原倉)에는 23척(雙)의 조선(漕船)이 비치되어 운송 임무를 맡고 있었다.

위화도(威化島) 회군(回軍)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를 중심으로 신 흥사대부(新興士大夫)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과 장차에 있을 새로운 국가를 위해 전제개혁(田制改革)과 조운제(漕運制)를 정비하였다. 이성계(李成桂)는 공 양왕(恭讓王) 2년(1390) 왕강(王康)을 천거하여 조운(漕運)의 소통에 진력하여 국고(國庫)가 충실해지고 민생(民生)이 안정(安定)되었다. 이성계(李成桂)가 왕 조(王朝)를 세운 후에 조운(漕運)을 제 1의 여건(與件)으로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하였고 창업후 조운(漕運)에 적극적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조창(漕倉)은 9개소로써 그중 3개소가 한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原倉), 춘천(春川)의 소양강창(昭陽江倉)이 그것으로서 이들 조창(漕倉)에서는 일부지방을 제외하고 충청도와 강원도의 세곡을 수납하여 참선(站船)으로서 한강을 경유하여 서울의 경창(京倉)에 수송하였다. 한강 조운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경상도의 세곡(稅穀)이 참운(站運)되면서 부터이다.

조선(朝鮮) 초기에 있어서는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조운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 당시의 수군은 상번시(上番時)에는 해상방어의 임무에, 하번시(下番時)에는 조운(漕運) 활동(活動)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원래 수운(水運)의

조운 참여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연안에 출몰하는 왜구로 인하여 조운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연안방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곡운송(稅穀運送)의 역할을 수행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서 연유했으나 왜구(倭寇)의 종식으로 해방(海防)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수군(水軍)의 조운(漕運)이 당연시되어 갔다.

수로(水路)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태조(太祖) 4년(1395) 용산강(龍山江)에서 충주(忠州) 금천(金遷)에 이르는 한강 연안에 수로전운소와완호별감(水路轉運所完護別監) 7 개소를 설치하였으니 『정종실록지리지』(正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충주(忠州) 연천(淵遷(金遷)), 여주(驪州)의 여강(驪江), 천령(川寧)의 이포(梨浦), 양근(楊根)의 사포(蛇浦), 광주(廣州)의 광진(廣津) 그리고 한강진(漢江渡) 용산진(龍山津)이 그곳이었다.

수로전운소완호별감(水路轉運所完護別監)은 수참전운별감(水站轉運別監)이라고도 불리웠는데 태종(太宗) 14년에 이르러서는 수참전운사(水站轉運使)로 고쳐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의 직(職)을 두어 관리에 충실을 꾀하였다. 이같은 수참(水站)의 설치의 말할 필요도 없이 한강(漢江) 조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한 것이었다. 수참(水站)은 고려말 정몽주(鄭夢周)의 건의로 처음 실시되어 조선왕조에서는 계속 운영하였으니 한강 하류의 소관은 우수참(右水站), 한강상류의 소관은 좌수참(左水站)이었다. 각 수참(水站)은 조운에 임하여서는 조운(漕船)의 안전(安全) 운항을 위하여 그 안내와 경호를 맡았고 비조운시(非漕運時)에는 하천관리(河川管理)에 유의하였으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천(河川)은 사토(沙土)가 퇴적하여 수심이 얕아지고 수중(水中)의 암석(巖石)이 수상(水上)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수참(水站)에서는 관할구역을 수시로 순찰하여 이들을 제거하여 수로(水路)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의 세곡(稅穀)을 운송하는 가흥창(可興倉)의 조선(漕船)은 처음에는 금천(金遷)에서 후에는 가흥(可興)에서 출항하여 한강을 거슬러 적암(赤巖)을 지나 원주(原州)의 섬강하구(蟾江河口)에 이르러 흥원창(興原倉)의 조선(漕船)과 합류하고 다시 북상하여 여주(驪州)의 여강(驪江), 천녕(川寧)의 이포(梨浦), 양근(楊根)의 대탄(大灘), 사포(蛇浦)를 경유 용진(龍津)에 이르러 춘천(春川)에서 가평(加平)을 경유, 북한강(北漢江)을 거슬러 온 소양강창(昭陽

江倉)의 조선(漕船)과 다시 합류하여 광주(廣州)의 두미진(斗迷津), 양주(楊州)의 미음진(溟音津), 광진(廣津), 광주(廣州)의 송파(松坡), 과천(果川)의 동작진(銅雀津), 노량진(露梁津)을 거쳐 용산(龍山)에 있는 강창(江倉)에 이르렀다. 가흥창(可興倉)은 조선 후기에도 변함없이 운영되었으니 수운(水運)에 있어 중요한 운송로(運送路)였던 이 한강 조운로(漕運路)는 260리에 이르는 뱃길이었다.

세곡(稅穀)뿐만 아니라 양반지주들의 농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지조(地組)의 운송도 사선(私船)에 의존함으로써 민간 선운업자들의 활동영역(活動領域)은 더욱 확대되어갔다. 한강유역, 예컨대 충주(忠州), 원주(原州), 여주(驪州)일대에는 양반들의 농장이 다수 산재해 있었다. 선운업자(船運業者)들은 농장주가 선박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배를 정박시킴으로써 항로는 한강의 가선수로(可船水路) 곳곳에 연결되었다. 연해에 있어서도 멀리 남해안에서 평안도 연안까지 사선(私船)의 뱃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요컨대 한강을 비롯한 강하(江河)와 이와 접속되는 연해안 일대는 경강상인(京江商人)을 비롯한 선상(船商)들의 사설항로(私設航路)가 국초부터 개설되어 곡물, 어물, 소금, 목재 등의 상품생산지(商品生產地)와 소비지(消費地)를 연결시켜 주며 유통로(流通路)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한강(漢江)은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유통로(流通路)의 하나로서 한양(漢陽)의 혈맥(血脈)이기도 하였다.

(2) 육로(陸路)의 교통(交通) 수단

조선시대 이전에는 거리가 원거리라 할지라도 일반 서민으로서는 보행(步行)이 태반이었고 그외는 수로(水路)로서 배편을 이용함이 많았으며 상류층(上流層)이나 계급층은 필마(匹馬)의 이용(利用)이 있었지만 필마(匹馬)를 이용(利用)하는 층은 희소(希少)한 숫자였다.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이후(以後)에 도로(道路)가 점차로 확장되면서 육로편(陸路便)이 증가되었다.

여주에서 대개 서울 나들이는 수려선(水驪線)의 철도(鐵道)가 개통되면서 수원(水原)으로 돌아서 다니게 되었고 또 강북(江北)에서는 중앙선(中央線) 철도(鐵道)를 이용(利用)하기 위하여 양동(楊東), 구둔(九屯), 지평역(持平驛)까지 보

행(步行)으로 걸어서 역(驛)에서부터 열차(列車)를 이용(利用)하는 편(便)이 많았다. 그러나 열차편(列車便)의 회수(回數)가 자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일왕복(當日往復)이 가능(可能)하기는 하지만 새벽 출발해서 밤늦게나 돌아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다가, 해방 후(解放 後)에 버스가 생기면서 여행(旅行)에 다소 편리(便利)는 도모했었다지만 역시(亦是) 1日 1回 왕복(往復)으로부터 시작(始作)하여 1日 수회(數回)까지 이르렀으나 도로(道路) 사정의 보수가 미흡한 관계로 금사(金沙)에서 이천(利川)을 경유 서울까지 완행(完行)이 3시간 내지 4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5·16이후에 영동고속도로가 놓여지고 근자에 서울 - 충주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된후 육상교통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91년에 이포대교가 준공된 후 서울 - 강릉 차량이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이포가 교통요지로 부상하고 있어 운수회사간에 경쟁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오늘날의 금사의 교통편이나 시간, 거리 관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 (1996년)

구 분 지 역	자 가 용	주 차 장		
		개 소	면 수	면 적(m²)
금사면	390 대	184 개소	372	2,284
산북면	123	135	273	1,141

註: 1997년 여주군통계연보

(가) 여객운수 :

지 역	회 사 명	운 행 회 수	비 고
여 주	경기·대원여객	9 회	
	금강 운수	4 회	
이 천	경기·대원여객	24 회	
양 평	금강운수	4 회	

(나) 택시 : 이포택시 4 대

(다) 철도(鐵道) :

우리 나라에는 1899년 철도 개설이 시작되어 여주와 수원, 수원에서 인천까지 여주의 미곡을 인천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수려선(水驪線)이 개통되었으니

이때가 1931년 12월 1일이었다.

수려선은 사철(私鐵)인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 소유였다. 이 회사는 충주강(忠州江)과 원주(原州) 섬강을 이용하는 수운까지 경영하면서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물을 수운을 이용하여 여주로 집적(集積)시켜 이 수려선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홍호리부터 여주까지의 운송까지 겸했었다.

당시 1日 통행회수는 4회, 소요시간은 2시 23분 수원까지의 거리는 79.3km였으나 금사 산북사람들은 주로 이포나루를 건너 양평쪽 중앙선 철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화물량(貨物量)이 점차로 감소되고 5.16 이후 일반 육로(陸路)가 발달하고 서울까지의 직선차량(直線車輛)의 증대로 인하여 수여선 철도의 이용도가 완전히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됨으로 1972년 7월에 수여선은 완전히 폐선시켰다. 이로써 수여선의 맥은 끊기게 된 것이다.

2. 전력(電力)

가. 개설(概說)

인간(人間)이 전기(電氣)를 실용화하게 된 것은 1799년 이태리의 볼타(volta)가 전지(電池)를 발명한 후 부터이다. 1808년에 탄소(炭素)아크등이 발명되고 1850년에 발전기가 제작되었고 1879년에 미국의 에디슨(Thomas A Edison)에 의해 백열광전구(白熱光電球)가 발명되었고 근래에 와서 형광등이 발명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최초로 전기를 쓰게된 것은 1887년(高宗 24)에 궁중에 서부터 사용하게 된 것이 시초이다. 1882년에 한미통상협정(韓美通商協定)이 체결되면서 추진하다가 1884년말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일단 중단이 되었고 다시 추진되어 1887년 여름(5~6월) 경복궁 건청궁(乾淸宮)에 발전기 시설을 완비하고 점화한 것이 최초로 우리 나라에 전기가 도입된 것이다.

우리 나라 화력발전(火力發電)의 효시는 1905년 미국인(美國人) 경영의 설산(雪山) 광산(鑛山)에서 자가용(自家用) 발전시설(發電施設)로 화력발전기(火力發電機)를 도입 설치하여 가동한 것이었다. 1910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서울 이외의 지방에도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일본인(日

本人) 자본에 의한 소화력(小火力) 발전(發電)의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 본격적인 전기시대가 도래한 것은 1940년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40년대 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전기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제(日帝)의 대륙정책(大陸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電力) 증강책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3년에는 발전과 송전사업에 관한 국책대행기관(國策代行機關)으로 조선전업(朝鮮電業)이 설립되었으며 광복전(光復前)까지 화천(華川), 청평(淸平), 칠보수력발전소(七寶水力發電所)의 완공(完工)을 봄으로써 발전량(發電量)은 한층 증가되었다.

이리하여 광복 직전 국내의 발전시설 용량은 총 193만 8,000kW였는데 그중 수력(水力)이 87.6%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용도별로 보면 상업용이 80%였음에 비해 일반용은 20%에 불과했다.

한편 5·16군사혁명 직후 군사(軍事)정부는 당시의 조선전기(朝鮮電氣), 경성전기(京城電氣), 남선전기(南鮮電氣)의 통합을 서둘러 1961년 7월 1일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韓國電力株式會社)를 발족시켰다.

1962년부터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주체가 되어 제1차 전원발전(電源開發) 5개년계획(個年計劃)을 추진, 본격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차 개발계획 기간중이었던 1964년 4월에는 광복후(光復後) 처음으로 무제한(無制限) 송전(送電)을 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978년에 이르러 성공적인 완성을 보았다.

제2차 전원개발계획(電源開發計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실시되었는데 1967년에는 전력 수요가 예상외로 급증 보유설비용량(保有設備容量)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제한송전(制限送電)의 재개가 불가피하게 되자 기간중(期間中)에도 설비투자 계획을 대폭 늘리는 동시 민간자본의 발전 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동해전력(東海電力), 경인(京仁)에너지, 호남전력(湖南電力) 등 3개사는 이에따라 설립된 것이다.

제3차 전원개발(電源開發) 5개년계획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실시되었는데

기간중인 1972년 7월 동해전력(東海電力)이, 1973년 9월에 호남전력(湖南電力)이 각각 한전(韓電)에 흡수되었다.

우리 나라의 발전설비는 1962년 제 1 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급속히 발전, 제 4 차 전원개발 5 개년계획의 두 번째 해인 1978년말에는 1962년보다 무려 16배에 이르는 6,916MW가 되었다.

여주의 경우 일제때에는 여주읍 소재지와 금사면 상호리 금광, 북내면 주암리 금광에 전력이 들어갔으나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그후 1960년에는 739,272kW로 1,800호에 전기가 가설되었고 농어촌 전화사업이 완료된 1979년 12월말에는 전 호수의 98%인 18,370호에 전기가 가설되었고 전력양도 23,700MW가 되었다. 1986년말 현재는 139,382MW로 급증하였다.

실로 엄청난 변화라 하겠다.

나. 농어촌(農漁村) 전화사업(電化事業)

여주군(驪州郡) 대부분지역(大部分地域)은 농어촌 전화(電化)사업으로 전력(電力) 수용가구가 되었다. 농어촌 전화(電化)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농어업의 생산력 및 소득증대, 새마을사업 추진, 농어촌 가내 공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1965년 농어촌전화촉진법(農漁村電化促進法)을 제정(制定)한 이후 14년이 경과한 1978년을 최종연도(最終年度)로 농어촌(農漁村)의 완전전화(完全電化)를 이룩하게 되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초기(1965년 ~ 1969년)와 중기(1970년 ~ 1976년), 후기(1977년 ~ 1978년) 벽지 전화사업기(1983년 ~ 현재)등 4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다.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 일제하(日帝下)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여주군(驪州郡)에 전기(電氣)가 들어온 것은 수려선이 개통되기 직전인 1930년의 일이다. 이때 송전(送電)은 원주(原州)에서 여주(驪州)까지 6만 6천 볼트 변전소가 설치되어 이천, 장호원 등지로 송전되었다. 처음 전기가 들어온 곳은

여주읍내(驪州邑內)와 금사면(金沙面) 상호리(上虎里)였는데 금사면(金沙面) 상호리(上虎里)에는 여주금산사업소(驪水金山事務所)라는 금광(金鑛)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으며 산업용 전력으로 일반 가정에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후 북내면 주암리(注巖里) 광산에 산업용 전력이 들어갔으나 산금령이 해제됨에 따라 얼마 안가서 철거되고 금사면 상호리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설치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2) 1950年代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950년대(年代)는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이 발발한 年代였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사용불능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고 갖은 역경 속에서도 복구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1953년말에는 光復前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주군(驪州郡)의 1950년대의 전기사용량은 현재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시의 전기 사용은 여주읍(驪州邑) 소재지(所在地)에 불과하였으니 전기 사용은 미미하였다.

(3) 1960年代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960년대(年代)는 전기산업(電氣産業)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第1·2次 전원개발(電源開發) 5개년 계획을 시작한 年代였다. 第1次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는 1964년 4월 1일을 기해 무제한(無制限) 송전(送電)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국전력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쾌거였다. 무제한 송전의 개시는 국내 각종시설(各種施設)을 확장케 하는 등 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공포되어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1978년에 이르러서 성공적인 완성을 보았는데 여주군(驪州郡)은 1979년에 완료되었다.

(4) 1970年代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970년대(年代)는 농어촌의 전화사업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연대(年代)로 농촌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12월말에는 여주군의 농어촌 전화사업이 361호(가능호수 32호, 불가능호수 329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되었는데 전화율은 98%였다.

(5) 1980年代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980년대(年代)는 1970년대와 달리 비교적 전력사용량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비록 1980년도에 들어서서 국내(國內)의 여러 사정으로 1979년보다 상당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1983년부터 차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6) 1990年代의 전력(電力) 사용(使用) 상황(狀況)

1990년대(年代)의 전력사용량은 1980년대(年代)의 10배정도 늘었다.

1994년까지는 산업용이 82.9%를 점유하고있었으나 1996년도에는 주택용이 24.8% 서비스업이 18%로 늘었고 산업용이 56.4%로 점차 줄고있어 여주가 전 원 도시화 함을 알 수 있었다.

용도별 전력 사용량(단위: Mwh)

연별	합 계	주택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 업 용			
					소계	농림수산업	광 업	제조업
1991	1,069,341	100,167	7,881	51,853	909,440	60,314	-	849,126
1992	1,622,576	109,860	8,606	67,769	1,436,341	69,155	-	1,367,186
1993	1,319,198	120,655	2,344	90,828	1,105,371	73,726	3,815	1,027,830
1994	1,682,488	125,271	16,516	145,971	1,394,730	85,887	3,477	1,305,366
1995	436,666	43,299	4,367	36,733	352,267	47,971	-	304,296
1996	318,331	78,837	2,602	57,291	179,631	28,648	-	150,983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라.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 경기지사(京畿支社) 여주지점(驪州支店)

(1) 所在地 : 여주읍 홍문리 275번지

(2) 沿革 :

1936. 10.1大田電氣(株) 利川營業所 驪州出張所
1937.3. 10南朝鮮電氣(株) 利川營業所 驪州出張所
1948.4.1南鮮電氣(株) 天安支店 利川營業所 驪州出張所
1961.7.1韓國電力(株) 忠北支店 忠州營業所 驪州出張所
1965.3. 20韓國電力(株) 忠北支店 原州營業所 驪州出張所
1977. 10.1韓國電力(株) 水原支店 利川營業所 驪州出張所
1982.1.1韓國電力公社 京畿支店 利川支店 驪州出張所
1985. 11. 25京畿支社 利川支店 驪州出張所(1級昇格)
1990.5.7京畿支社 利川支店 驪州支店(4級昇格)
1994.1. 31京畿支社 利川支店 驪州支店(機構擴大)
1997.1. 16京畿支社 驪州支店 (3級昇格)

(3) 機構 : 총무과, 영업과, 요금과, 배전과. 근무인원 : 53명

(4) 1997년도 事業 實績 :

고객 호수 : 47,935호

전력판매량 : 492,621MWH

판매 수입 : 32,650백만원

(5) 지점장 : 초대박홍식, 2대 윤영무

3. 통신(通信)

가. 우정(郵政)

통신시설이란 본래 관용(官用)에 국한된 것으로 국가의 신경조직이다. 우역(郵驛)이나 봉수(烽燧)는 왕권의 침략에 관한 긴급보고 등의 필요성에서 시발된 것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역(驛)의 기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신라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9년(487) 3월에 비로소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하였다(三國史記 3券 新羅本紀) 하는 기록을 볼 때 이때가 기원(起源)인가 생각된다. 이것이 고려에 들어오면 역호(驛戶)라고 하여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역제를 그대로 답습했고, 공문(公文)과 使命의 채송(遞送) 등 모든 것이 명령(命令)의 전달 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역의 관리를 살펴보면 우역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은 병부였으며 그 밑에 실제로 우역의 사무를 전담하던 기관으로는 공역서가 있었으며 제도순관(諸道巡官) 역순관(驛巡官)이 감시 감독하였다.

그리고 모든 역의 필요성에 따라 대소(大小)의 차이를 두고 관원노비(官員奴婢)의 수를 조종하였고 소요 경비를 충당을 위하여 역전(驛田)이라는 토지(土地)를 두고 그에 대한 세수(稅收)로 운영하였던 것이다.

(1) 우정총국(郵政總局)의 개설(開設)

조선말기 고종21년(1884) 3월 27일에 이르러 국왕의 칙명으로 우정총국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홍영식(洪英植)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 일파의 노력의 결실이다. 비록 일본보다는 10년 뒤떨어졌으나 청나라는 이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2) 전우총국(電郵總局)의 설치(設置)

갑신정변 후로 10년간을 우정 업무가 실현을 못 보다가 1893년에 조선전보총국을 전우총국으로 바꾼 우리의 전신사업 기관이다. 따라서 만국 우편에 가입하고자 했고 처음으로 우표 주문을 했으나 1년도 채 못되어 일본의 침략이 발발하고 청일전쟁, 갑오경장 등이 계속 일어남으로서 우체사업은 전개하지 못하고 전우총국은 1894년(고종 31년) 6월 25일에 이르러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발족됨과 동시에 사실상 그 기능을 잃었다.

(3) 농상공부 통신국

우정 사업의 관장기관을 공무아문(公務衙門) 역체국(驛遞局)으로 개편한지 1

년이 채 못되어 1895년 3월 25일에 다시 농상공부 통신국으로 개편했다. 그리하여 3개월 만인 6월 1일에 한성 - 인천간에 우체사업의 개시로 시작되었는데 1895년 윤 5월에 우체사가 생기고 1896년 7월부터 전보사(電報司)가 생겼다. 1897년까지 각 중요 도시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그해에 만국우편연합에 완전히 가입하였으며, 1898년에 전국의 우체사의 망을 펼치고 선로를 확대하였고, 1899년에 외척(外遞)의 실시와 더불어 통신원의 개원을 보게되니 체신 산업의 독자적 발전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이어서 1903년 6월부터 철도역(정거장)내에 우체사와 전보사를 겸하여 설치하고 철도 우체가 시작되었다.

(4) 일제침략기의 우정사업

1905년 4월 1일 한일간의 통신기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28일에 인계명령이 내려지며 그해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완전히 인수 인계되어 우리 나라 통신은 일제에 강제 인계가 끝났으며 우리 여주는 당시 임시 우체소로 있으면서 통상우편만을 취급하다가 광무 9년(1905) 5월 18일자로 인계되었다. 그후 1906년 12월 1일 여주 우편 취급소로 변경신설 되고 그후 1915년 4월 1일자로 여주우편소로 개국하여 그 사무소는 여주읍 홍문리 81번지(지금의 군청 牆內廣場)에 설치되었다. 1927년 7월 1일자로 전화교환 업무를 개시하였다.

(5) 8·15이후의 체신

8·15해방과 동시에 일본(日本)의 이등태길(伊藤泰吉) 체신국장과 미군정청간에 체신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따라서 한국의 체신 업무는 미군정청 체신국으로 전환되었고 군정청 체신국장에 허리히가 임명되어 업무는 전과같이 존속 진행하였다. 신탁통치의 반대가 점차로 익어가면서 체신국장이 한국인(길원봉)으로 바뀌어지며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와 함께 우리 정부에 의한 체신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우리관내에 우체국도 종래에 우편소 규모로 있던 것을 사무관국으로 승격시켰다. 1983년 1월 1일부터 취급 업무가 분리되어 전신 전화업무에 한하여 수동식 전화를 자동식(다이얼) 전화로 교체하며 전신전화국이 새로 생겨 업무를 이관하

고 나머지 우편, 우편환, 체신예금, 체신보험, 전신전보 수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체신관서 현황

1997.12.31현재

국명	소재지	개국년월일	초대우체국장 또는 설립자	현우체국장	일반직			기능직	우체통		이륜차
					6급	7급	8급		갑	을	
이포	금사면 이포리 197- 4	1932. 3. 6	최 덕 원	김병옥	1			5	2	9	3
산북	산북면 상품리 112: 18	1967. 5.25	홍 일 표	방명준		1		2			

(가) 이포우체국

①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97 - 4

② 연혁 :

1932.3.6 이포 우편소로 개국

1955.9.1 우편환 및 저금 보험 연금 업무를 취급

1960. 10. 27 교환대 설치 시외 전화 업무 취급

1986. 10. 14 시외 교환 업무가 폐지되어 전신 전화 공사로 이관되었다.

③ 기구 :

국장 밑에 일반직 1명, 통신직 1명, 교환 9명 총 15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장외에 기능직이 5명이 있다.

④ 업무실적 :

업무는 우편, 우편환, 체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편물 취급

(단위 : 통)

구분 연도	국 내				국 제				합계
	일반통상	특수 통상	소포	계	일반 통상	특수 통상	소포	합계	
94	82,300	5,690	296	88,286	202	4	4	210	88,496
95	87,310	6,107	380	93,797	177	:	18	195	93,992
96	59,435	7,592	376	67,414	710	:	16	726	68,140
97	64,472	10,658	510	75,640	231	12	26	269	75,909

註: 여주우체국 자료 제공

우정 사업실적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우 편 영 업 수 익				금융영업 수 익	수 탁 영 업 수 익		계
	우표류 판매대	엽서류 판매대	별후납 우편료	잡수익	금융취급 수수료	수 입 인 지 판매수수료	잡수익	
94	9,355	114	4,007	229	468	705	56	14,239
95	10,509	472	8,221	213	675	29	50	20,172
96	10,823	1,166	8,090	243	1,387	8	53	24,145
97	10,583	1,355	9,030	295	1,598	34	31	22,926

註: 여주우체국 자료 제공

(나) 상품우체국

①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12-18

② 연혁 :

1967.5. 25 상품 우편소로 개국.

우편환 및 저금 보험연금 업무를 취급

전화 교환 업무 취급

1986. 10. 14 시외 교환 업무가 폐지되었다.

③ 기구 :

현재 국장외에 기능직이 2명이 있다.

④ 업무실적 :

업무는 우편, 우편환, 체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편물 취급

(단위 : 통)

구분 연도	국 내				국 제				합계
	일반통상	특수통상	소포	계	일반통상	특수통상	소포	합계	
94	25,792	2,673	137	28,602	138	2	23	163	28,765
95	34,216	2,510	203	36,929	153	2	11	166	37,095
96	46,104	3,469	197	49,770	202	4	17	223	49,993
97	32,757	4,139	213	37,109	315	5	30	350	37,459

註: 여주우체국 자료 제공

우정 사업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우 편 영 업 수 익				금융영업 수 익	수탁 영 업 수 익		계
	우표류 판매대	엽서류 판매대	별후납 우편료	잡수익	금융취급 수수료	수 입 인 지 판매수수료	잡수익	
94	4,582	192	714	8	447	:	:	5,943
95	6,235	399	604	4	747	:	:	7,999
96	7,948	478	2,521	15	984	:	:	11,946
97	7,916	229	3,469	41	1,496	33	:	13,184

註: 여주우체국 자료 제공

나. 전화(電話)

(1) 개설(概說)

우리 나라에 전화(電話)가 처음 들어온 것은 구한말(舊韓末) 高宗 6년(1902)이었다. 일인(日人)들에 의해 도입된 전화는 동년(同年) 3월 서울과 인천(仁川)간을 시발로 해서 동년(同年) 5월에 서울과 개성간에, 1903년 서울과 수원에, 동년(同年) 7월 서울과 평양간에 개통을 보았다.

또한 당시의 전화기(電話機)는 자석식(磁石式) 50회선용이었는데 이 제품은 독일(獨逸)것으로 중국(中國) 상해(上海)를 거쳐 수입되었다.

1970년대까지 전화 공급의 절대적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미미한 성장을 하던 전기통신 사업은 제 5공화국이 태동된 80년대 이후부터 현대화 사업을 강

력히 추진한 결과 이제는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여주전신전화국(驪州電信電話局)은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에 따라 여주우체국(驪州郵遞局)으로부터 군내의 전신(電信), 전화(電話) 업무(業務)를 이관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전기통신공사(電氣通信公社)가 설립된 후 전화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여주군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기 전인 1981년에는 4,966대였던 것이 1986년 9월 30일 완전 자동화되었고 전화 보급 대수도 1만 4천 387대로 급증하였다.

통신공사(通信公社)는 경영관리(經營管理) 개선 추진, 고객(顧客) 서비스의 개선, 통신시설(通信施設)의 확장, 전자식(電子式) 시설 보전 능력 확보, 선진기술(先進技術) 개발의 기반구축, 경비시설 보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화사용

연별	국 내 전 화(1,000도수)			국 제 전 화(1,000도수)		
	일반전화 (자동,수동)	공중전화	요금(백만원)	일반전화 (자동,수동)	공중전화	요금(백만원)
93	-	-	-	24	10	191
94	222,950	28,326	7,846	150	39	188
95	178,424	24,214	8,106	46	8	261
96	185,384	29,387	8,591	81	9	363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전화시설 및 가입자 수

(단위 : 회선, 명, 대)

연별	전화 국수	시설수	가 입 자 수			공중 전화	통 화 도 수		
			계	업무용	주택용		시 내	시 외	계약자년평균 사용도수
91	1	34,776	28,684	9,983	18,701	646	:	:	:
92	1	37,376	30,542	5,258	25,284	672	:	:	:
93	1	39,876	32,232	6,045	26,187	695	:	:	:
94	1	39,972	33,797	7,021	26,776	760	:	:	:
95	1	39,972	35,579	7,768	27,811	820	:	:	:
96	1	42,572	37,894	8,156	29,738	918	70,002	120,660	5,000

註: 1997. 여주군 통계연보

(2) 여주 전화국(驪州 電話局)

(가) 소재지: 여주군 여주읍 상리 315

(나) 연혁:

1915년4월1일 여주우편소로 개소

1982년1월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에 따라 여주우체국에서 분리

1983년1월1일 여주전신전화국으로 승격

1987년8월23일 전자식(AXE : 10) 5,760회선 증설

1988년8월2일 기계식(S / T) 1,200회선

1989년7월 29일 전자식(AXE : 0) 7,808회선 증설

1990년1월5일 여주전화국으로 개칭

(다) 기구:

국장 밑에 지원과, 마케팅과, 교환기술과, 전송과도 편제되고 있고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 81명의 직원으로 구성

(라) 시설현황:

97년말 현재 시설수는 45,992회선에 전화가입자는 40,456회선
공중전화는 1,260대가 있다.

전체 수용률은 90.7%이다.

(마) 1997년도 사업실적:

1997년도 수입금 107억원 달성

전화판매 458대

전화 설치장소 변경 4,360건 처리

(마) 역대국장:

초대 윤선섭 2 대 박성경 3 대 김순철 4 대 황종철 5 대 이동영
6 대 박명계 7 대 최수용 8 대 김선영 9 대 한금수 10대 황종철
11대 박길용

제 6 절 종 교(宗 敎)

1. 유교(儒敎)

공자(孔子)를 시조(始祖)로 하는 중국 고래의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학문을 받드는 교(敎)로써 유교(儒敎)가 우리 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대략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우리 나에 국자학(國子學)을 세운 것으로 보면 삼국시대(三國時代)라고 생각된다.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를 교육하였고 백제는 285년(고이왕 52)에 논어(論語)와 천자문(千字文)을 전하였으며 신라는 비교적 늦어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건립하였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쇠퇴하였다가 6대 성종에 이르러 국자감을 설치 경학박사(經學博士)를 두고 유학을 장려하였으나 부흥치 못하였고 11대 문종때에 이르러 최충(崔冲)이 구재(九齋)를 설치하고 후진을 가르치어 유교는 크게 떨쳤다. 25대 충렬왕때 안향(安珦)이 충렬왕(忠烈王)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입수하고 돌아온 후 정부에 건의하여 국학(國學)을 세우게 하고 문묘(文廟)를 중수(重修)케 하는 등 유학부흥에 큰 공적을 남겼다. 그의 문하(門下)에 백이정(白頤正)은 정주학(程朱學)을 연구하고, 우탁(禹倬)은 정주(程朱)의 역전(易傳)을 연구, 권부(權溥)는 주자전서(朱子全書)의 간행을 건의하는 등 정주학(程朱學) 진흥에 공로가 컸다. 안향의 학문은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에게 전승되었는데 정몽주(鄭夢周)는 성리학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도덕(道德)과 경륜(經綸)에 있어서도 일가(一家)를 이루어 려조(麗祖) 마지막을 장식하는 충신(忠臣)으로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祖)로 불리었다. 조선 초기에 들어서며 경세(經世)와 견식(見識),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정도전(鄭道傳)은 조선 유교의 기초를 확립한 학자로 불씨잡변(佛氏雜辨), 심기이편(心氣理篇) 등을 저술했다. 정몽주의 제자 길재는 여말에 등제(登第)하였다가 왕조가 바뀔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절개를 지켰고 그 문인 김숙자(金淑滋)와 그 아들 김종직(金宗直)이 나와 조선 성리학의 정통(正統)을 이었다. 김종직의 문하에 김굉필(金宏弼)이, 김굉필의 문인에 조광조(趙光祖)가 있어 성리학의 정토를 이

어갔다. 조광조는 중종(中宗)의 사랑을 뒷받침으로 지치주의(至治主義)와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남곤(南袞)·심정(沈貞)의 간계(姦計)에 몰려 을묘사화(乙卯士禍)때 몰락하였다. 서경덕은 일생을 사색으로만 보내어 그가 제창, 관찰한 기일원론(氣一元論)은 가장 창의적인 철학의 하나라고 하며 그 주기(主氣)의 학설은 뒤에 이이(李珥)의 사상(思想)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언적은 다년간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그 학설(學說)은 이황(李滉)의 사상(思想)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황과 이이가 가장 뛰어나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유도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 유학사상(儒學思想)의 대표적인 유자로 존경을 받았으며 영남(嶺南)사람은 이황을 동방(東方)의 주부자(朱夫子)라 하고 기호(畿湖)사람은 이이를 동방의 성인이라 하여 그 학풍(學風)이 후세학자(後世學者)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병자호란 후 공맹(孔孟)의 왕도정신(王道精神)에 입각하여 우리의 실정을 연구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道)를 강구하며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술(術)에 힘쓰자는 실학과(實學派)가 대두되었다. 이 학풍은 처음 류형원(柳馨遠)이 개척하여 이익(李瀾)·안정복(安鼎福)·신경준(申景濬)·정약용(丁若鏞)·박지원(朴趾源)·홍대용(洪大容)·이덕무(李德懋)·박제가(朴齊家) 등이 일어나 그 학풍과 세력이 대단히 커서 일시 사상계와 학계를 풍미하였고, 정치, 경제, 사학, 지리 등에 가치 있는 연구와 저술을 남겨 문화상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가. 여주향교(驪主鄕校)

조선조초 현 여주읍 상리 마암(馬巖)근처에 건립했으나 임진왜란 때 타버린 후 여주읍 홍문리 잣나무 고개에 다시 건립(강희 21년)하였다가 후에 지금 위인 교리 마을앞 동쪽 300m 지점으로 이전했다. 건물은 대성전(大聖殿) 22평과 명륜당(明倫堂) 24평, 동무 8평, 서무 8평 등이고, 동무에는 정몽주(鄭夢周)·송시열(宋時烈)·김인후(金麟厚) 등을 봉안(奉安)하고 서무에는 설총·안유(安裕) 등을 봉안하였다. 그외의 사우(祠宇)로는 강한사(江漢祠)·모현사(慕賢祠)·매산서원(梅山書院)·고산서원(孤山書院) 등이 있다.

나. 기천서원(沂川書院)

금사면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서원으로 조선 선조(宣祖) 기묘(己卯)에 여주목사 박승임(朴承任(영의정 밀양 부원군)에 의해 건립되어 현재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에 있다. (앞장참조)

2. 불교(佛敎)

B·C 500년경에 인도의 가비라국(加毘羅國)의 태자 싯달다(siddhartha)가 생(生)·노(老)·병(病)·사(死)의 번뇌에서 해탈(解脫)코자 오랫동안 수도(修道) 끝에 각자(Buddha)가 되어 창설한 종교이다.

불교가 우리 나라에 전파된 것은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 6월 진(秦)나라의 순도(順道)와 아도(阿道)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 성문사(省門寺), 이불란사(伊佛蘭寺) 등의 절을 창건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백제에서는 384년(백제 침류왕 1)에 인도의 중(僧) 마라난타(麻羅難陀)가 진(晉)나라에서 들어와 불교를 퍼기 시작하여 후에 계율종(戒律宗)·삼륜종(三輪宗) 성실종(成實宗)의 3종파가 이루어지고 한산불사(漢山佛寺)·왕흥사(王興寺)·미륵사(彌勒寺)·수덕사(修德寺)·경복사(景福寺) 등의 유명한 절들이 건축되었다. 신라는 이차돈(異次頓)의 순교 후 비로소 공인(527년 법흥왕)을 받았으나 교학(敎學)뿐 아니라 사상·문화·정치·생활양식 등 각 방면에 지도 이념이 되었다.

고려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한편 송(宋)의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 발달을 이루었다.

태조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등의 연중행사와 승과를 제정 승려의 신분을 귀족이상으로 대우하였다. 태조의 숭불정책은 고려 전반에 걸쳐 계승되어 법왕사(法王寺)·왕흥사(王興寺) 등 많은 절들을 건축하고 우리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만들었고, 대표적인 중(僧)인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 중기(中期)의 지눌(知訥), 균여(均如), 말기(末期)의 나옹(懶翁), 보우(普雨) 등이 이름을 떨쳤다.

조선은 배불정책을 써 불교가 쇠퇴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출가(出家)를 억제하고 연산군 때는 탄압을 받았으나 세종은 불교종파의 정비를 단행 조계·천태·총남 의 3종을 선종(禪宗)으로 화엄·자은·시흥·증신의 4종을 교종(敎宗)으로 통합하였다. 명승도 많이 배출되어 무학(無學) 보우(普雨)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서산(西山)·사명(泗溟)·처영(處英)·영규(靈奎) 등이 특히 유명하다.

여주 불교의 역사는 서기764년(신라 경덕왕 23년)에 고달사가 창건되었고, 신라 때로 건립연대가 추정되는 신록사가 여주에 세워져 1200여년의 전통에 효시를 이뤘다.

창리석탑이나, 하리삼층석탑, 장흥사지, 정천사지, 상원사지, 홍왕사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고려새대의 불교의 융성을 알 수 있겠다. 러말(麗末)에 이름 높은 고승이며 왕사(王師)였던 나옹(懶翁)이 신록사에서 입적(入寂), 그의 제자이며 조선 건국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무학(無學)이 고달사(高達寺)에 은거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더욱이 예종때 광주(廣州)에 있던 영릉(英陵)을 이곳 여주로 천능(遷陵), 신록사를 원찰(願刹)로 삼아 여러번 중수(重修)되었고 그 영향으로 여주목(驪州牧)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금사·산북면에 사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명칭	소재지	종 파	대표자	창 설 일	신도수		
					남	녀	계
모련사	금사면 오평리 360	조계종	백동인	조선 순조 8년	12	28	40
약천암	금사면 장흥리 68	조계종	혜원	효종 중기	10	50	60
영명사	산북면 하품1리	일승종	남우령	1976	2	28	30
천양암	금사면 상호리	보파종	오명화	1978	10	30	40
대성사	금사면 외평리 산66	법성종	최돈영	1938년경			600
불광사	금사면 하호리 산 40		엄불심화	1975년경			100

3. 천주교(天主教)

가. 천주교의 전래(傳來)

천주교는 1세기초 로마제국(帝國)의 영지였던 동방(東方)의 팔레스티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시(創始)된 기독교(基督教)의 원류(源流)이다.

우리 나라에는 1594년(宣祖 27年) 포르투갈신부(神父) 세스페데스가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일본(日本)의 중군신부(從軍神父)로 입국(入國)하여 선교행위(宣敎行爲)를 시작한 이래, 이벽(李穡)·권철신(權哲身)·정약종(丁若鍾)·이승훈(李承薰) 등 많은 인사(人士)들이 천주교 서적(書籍)을 통해 진리(眞理)를 발견(發見)하려고 연구(研究)했고 그것을 실천(實踐)할 책임(責任)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인(自認)하고 스스로 미신(迷信)을 타파(打破)하면서 친지(親知)들에게 교리(敎理)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繼續)하였으니 이는 세계 천주교 포교사상(布敎史上) 특이(特異)한 것으로 기록(記錄)되고 있다.

나. 여주(驪州)의 천주교(天主教) 전래(傳來)

여주의 천주교 전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산북면(山北面) 하품리(下品里)에 주어사(走漁寺)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200여년전 한국천주교 창립성조(聖祖) 이벽(李穡)과 학자 권철신(權哲身), 권일신(權日身), 정약전(丁若銓), 이승훈(李昇薰) 등이 강학회를 수시로 열었다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은 한국 천주교 발상지로 성역화 된 광주군(廣州郡) 천진암과 앵자봉을 사이에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후 1860년대에 형성된 부영골(일명 부흥골) 교우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박해 초기부터 많은 신자들이 박해(迫害)를 피해 부영골(현 강천면 부평리)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부영골 교우촌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복음화의 터전인 감곡본당(옛 장호원 본당)의 모체라 할 수 있다.

천주교회 현황

명 칭	소재지	종파	대 표 자	창 설 일	신도수		
					남	녀	계
천진암녹암공소	산북면 하품 25 - 1	천주교	고태훈				25

4. 기독교(基督教)

기독교는 독일의 마르틴·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별파의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의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1885년 미국 북장노교회(北長老教會)의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와 같은 미국의 감리교(監理敎) 선교사(宣敎師) 아펜젤리(H.D Aptnzeller)에 의해 본격적인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백홍준(白鴻俊), 이응찬(李應贊), 이성하(李成夏), 김진기(金鎭基) 등으로 1876년 세례를 받았다.

여주에 기독교(基督教)가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로 1904년 감리교인 여주 중앙교회와 강천교회가 설립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포교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이포 교회(1905), 북내 중앙교회(1905), 점동 청안교회(1906), 가남 삼군교회(1907) 등이 세워지고 20년 후에 성결교 계통의 장풍교회(1992), 후포교회(1932)가 창설되었다. 장로교도 그때 들어왔겠으나 확실한 사료(史料)가 없다. 뒤에 순복음교회, 구세군, 안식일교회, 통일교회 등이 자리 잡아 교세확장에 주력하였다.

교회현황

명 칭	소 재 지	종 파	대표자	창 설 일	신도수		
					남	녀	계
이 포 교 회	금사면 이포리 산15	기독교감리교회	이창복	1905. 3	20	35	55
하 호 교 회	금사면 하호리	기독교감리교회	박유성	1952. 2.14	9	21	30
전 북 교 회	금사면 전북리	기독교감리교회	정재호	1977. 10	13	17	30
금 평 교 회	금사면 금사1리 243-2	예수교장로회	이종현	1976. 5.17	7	13	20
금 사 교 회	금사면 도곡리 81-2	기독교장로회	오승현	1980. 4	10	20	30
상 품 교 회	산북면 상품리 253	기독교장로회	마정호	1970. 7.15	50	50	100
제 일 교 회	산북면 송현 171-3	기독교장로회	정윤현	1985. 3	10	40	50
산북중앙교회	산북면 하품리 121-2	기독교장로회	김한희	1977. 1.23	10	25	35
송현장로교회	산북면 송현리	기독교장로회	황종국	1986. 5	17	27	44

5. 민족계열종교(民族系列宗教)

가. 천태종(天台宗)

대한불교(大韓佛教) 천태종은 그 기원에 있어서는 1천 4백년전 중국의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천태종에 들어가 9년간 수도하다 깨달아 일으킨 불교운동으로 그후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가 종지(宗旨)를 이어 한국에 옮겨왔으며 조선 세종(世宗) 6년에 폐합되어 없어진 것을 상월대조사(上月大祖師)가 깨달음을 얻어 다시 일으켜 세운 종단(宗團)이다. 상월대조사는 1966년 8월 30일 천태종의 개창을 선포하고 1967년 1월 24일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발족했다.

교리(敎理)는 경전(經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주축으로 하여 대중불교의 실현, 생활불교의 실천, 애국불교의 건립을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본군에는 가남면 금당 2리 장암사가 있다.

나. 천도교(天道敎)

1860년(포덕 원년)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이다.

창교주(創敎主)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는 1824년 10월 28일 경주 정리에서 태어나, 고행을 하다가 32세에 울산 호암동에서 천서(天書)를 받고, 37세인 1860년 4월 5일천도를 깨닫고 세웠다.

교리(敎理)는 인내천(人乃天)을 기본 종지(宗旨)로 하고 있다.

여주에는 천도교 제2세 교조(敎祖)인 해월신사(海月神師) 최시형(崔時亨)선생묘(墓)가 금사면(金沙面) 주록리(走鹿里) 산 69의 19에 있다.

여주에 천도교가 들어온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897년 최시형 외 여러 사람이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에 피신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시기가 아닌가 한다.

여주에는 천도교 성지(聖地)가 2곳이 있다.

천도교(天道敎) 제2세 교조(敎祖) 해월신사(海月神師) 최시형(崔時亨) 묘소(墓所)가 금사면(金沙面) 주록리(走鹿里)에 있으며 해월신사(海月神師)가 4개월 간

이나 머물렀으며 제3세 교조(敎組)인 의암성사(義菴聖師)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고 최후의 법설을 내린 곳이 바로 강천면(康川面) 도전(道全)2리 「全巨論」 마을이다.

해월신사가 음죽군 양산동에서 여주 전거론(全巨論)으로 피신해 온 것은 1897년(포덕 38) 8월 추석이 지나서 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곳에서 해월신사는 71세 고령으로 병석에 있었으나 대도(大道)의 장례를 염려하고 10월 28일 대신사(大神師)의 탄신일을 맞아 제자들에게 중대(重大)한 설법(說法)을 내렸는데 이것이 최후의 설법이였다. 그리고 12월 24일 대도(大道)의 중책(重責)을 손병희(孫秉熙)에게 전수하니 이가 곧 제3세 교조(敎祖)이며 후일 3·1기미독립운동을 주도하고 「東學」을 「天道敎」라 개칭한 사람이다. 이듬해 1898년 1월 2일 여주 전거론(全巨論)에서 관군(官軍)을 피해 지평군(砥平郡) 갈현(葛峴)으로, 홍천동면(洪川東面) 방아재로, 2월 그믐에는 원주군(原州郡) 송골(原州 好楮面 高山里)로 이거(移居)하였으나 이곳에서 4월 5일 낮 12시경 체포되어 문막(文幕)을 거쳐 여주까지 선편(船便)으로 호송되어 수감되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6월 2일 하오 2시경에 교형(絞刑)을 받아 순도(殉道)하였다. 신사(神師)의 시체(屍體)는 이종훈(李鍾勳)이 교졸(校卒) 김준식(金俊植)과 광화문밖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거두어 광주(廣州)에 장례를 지냈다가 포덕 41년 (庚子) 5월 1일에 금사면(金沙面) 주록리(走鹿里) 천덕산(天德山)으로 이장(移葬)하였다.

천도교 현황

명 칭	소재지	종파	대 표 자	창 설 일	신 도 수		
					남	녀	계
천도교 여주교구	여주읍 하리 190	천도교	김 학 권	1906.1.4			60

금사면지의 편찬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사면지 편찬위원 현황

조무호	변동구	허 송
최병두	한상철	오해영
김연호	김영우	최진형
이호선	김낙서	윤세욱
김강배	조성문	

금사면지 편찬상임위원현황

●이현구	향토사학자
●김태수	여종교교사
●하우성	여종교교사
●복광규	여주교교사
●문성무	대신교교사

금사면지(金沙面誌)

펴낸이 : 조무호

편집인 : 조성문

교정, 편집 : 금사면지 편찬위원회

펴낸 곳 : 여주문화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45-1

전화 : 0337-883-3450

©여주문화원. 1998

●

인쇄인 : 도서출판 두홍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6 두홍빌딩 2층

전 화 : 02) 529-4018

●

출판등록번호 / 제22-1430호

인쇄 / 1998.12. 23

ISBN No. 89-950191-1-5-03380

●

비매품

●

이 책은 여주군과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沂川書院 全景

“여주의 서북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금사면은 옛부터 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으며 특히 남한강 및 관내 하천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어 이에 금사면(金沙面)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금사면은 여주군의 1읍(邑), 9면(面)의 하나로 이포리, 궁리, 도곡리, 장흥리, 주록리, 전북리, 소유리, 상호리, 하호리, 금사리, 외평리 11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9 788995 019115
ISBN 89-950191-1-5

※ 이 책은 여주군과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